

발 간 등 록 번 호

인천교육 2019-0113

살아있는 힘이 자라는 우리인천교육



2019 행복배움학교 실천사례 자료집

나와 너를 넘어 함께가는 행복배움학교 이야기

중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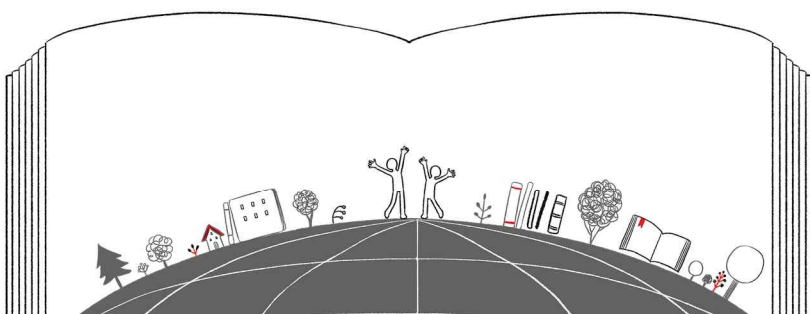
발간사

철학자 칸트는 행복의 세 가지 조건으로 할 일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희망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익히며 내일에 대한 희망을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를 희망의 교육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선생님, 학부모님들이 우리 인천교육의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혁신은 현장중심, 학생중심이어야 합니다. 모든 교육적 관심과 노력은 선생님과 학생이 만나는 곳을 향해야 하고, 학생의 눈높이만큼 더 낮아져야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며, 실천하시는 선생님들이 우리 인천교육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드는 일이 교육청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도 겸손한 자세로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자료집은 2019년 한 해 동안 인천혁신학교인 행복배움학교에서 실천해 온 다양한 교육적 실천들이 녹아 있습니다. 교육적 실천은 결국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것이고, 오늘보다 더 나은 학교를 만들어 가기 위한 변화의 과정입니다. 모든 변화는 작은 실천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힘은 언제나 진정성과 작은 실천에서 나옵니다. 짧은 글로, 몇 장의 사진으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없지만 교육의 본질을 찾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토론하고, 실천해 온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배움학교에서 실천해 온 기록들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19 행복배움학교 실천사례 자료집 [중등학교] 나와 너를 넘어 함께가는 행복배움학교 이야기

| 번호 | 영역 | 주 제 | 참가대상 | 발제자 | | 쪽수 |
|----|---------------------------|------------------------------------|------|----------|--------|-----|
| | | | | 학교명 | 성명 | |
| 0 | 민주적 학교공동체 문화 형성 | 행복배움학교 운영 개요 | 중학교 | 인천광역시교육청 | | 7 |
| 1 | | 동부 학생회 연합, 학생자치의 길을 만들다 | | 선학중 | 교사 김영석 | 15 |
| 2 | | 학생 자치, 학급 자치의 활성화 | | 만성중 | 교사 우정아 | 21 |
| 3 | | 존중과 배려가 살아 있는 행복한 교실 | | 인천남중 | 교사 한지예 | 25 |
| 4 | | 우리는 서로 격려하는 수업 친구 | 중학교 | 신흥여중 | 교사 신미경 | 30 |
| 5 | | 교사의 성장을 지원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 | 만성중 | 교사 우정아 | 35 |
| 6 | | 함께 만들고 함께 배운다. | | 화도진중 | 교사 임용수 | 39 |
| 7 | | 배움도 어려움도 함께, 행배시 | | 강남중 | 교사 손병희 | 43 |
| 8 | | 수업의 중심에서 생활지도를 외치다! | 고등학교 | 영종고 | 교사 문덕순 | 50 |
| 9 | | 전학공으로 만들어가는 민주적 교육공동체 | | 세원고 | 교사 조아라 | 54 |
| 10 | | 관계회복 프로세스, 회복적 대화모임 | 중학교 | 신흥중 | 교사 김은영 | 61 |
| 11 | | 꽃길만 걸어 보아요. | | 부일여중 | 교사 문정덕 | 68 |
| 12 | | 자치는 변화를 만드는 힘 | | 명현중 | 교사 김성희 | 73 |
| 13 | | 행복한 학교, 밥상머리 상담과 등교 맞이로 만들어요! | | 신흥여중 | 교사 서미영 | 78 |
| 14 | | 꿈을 향해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행복한 학교 | | 관교여중 | 교사 문지정 | 82 |
| 15 | |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동아리 활동 | | 송도중 | 교사 손용만 | 86 |
| 16 | | 개별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있는 학교문화 조성 | 고등학교 | 대인고 | 교사 신철 | 90 |
| 17 | 빛깔있는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 삶의 힘이 자라는 통합교육과정 운영 사례 | 중학교 | 신흥중 | 교사 이상기 | 99 |
| 18 | | 학생, 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과융합 교육과정 | | 동암중 | 교사 김대영 | 107 |

CONTENTS

| 번호 | 영역 | 주 제 | 참가대상 | 발제자 | | 쪽수 |
|----|---------------------------|--|------|-------|--------|-----|
| | | | | 학교명 | 성명 | |
| 19 | 빛깔있는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 학년 가치로 재구성된 마인크래프트 프로젝트 | 중학교 | 석남중 | 교사 김희원 | 112 |
| 20 | | 꿈과 재능을 만들고 발휘해 보아요! | | 부일여중 | 교사 신경선 | 119 |
| 21 | | 교육과정으로 구현하는 공간혁신 | | 부평동중 | 교사 김정란 | 124 |
| 22 | | 마을의 ‘품’으로 뛰어다니, ‘보물’이 보였다! | | 명현중 | 교사 변명선 | 128 |
| 23 | | 삶의 힘이 자라는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 고등학교 | 영종고 | 교사 홍경아 | 131 |
| 24 | | ‘평화’ 교육과정 운영 | | 강화여고 | 교사 이연자 | 135 |
| 25 | | 존재를 인정해주는 교육과정 재구성 | | 하이텍고 | 교사 한인수 | 142 |
| 26 | |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창의적 역량함양 교육 활동 | | 작전여고 | 교사 김일용 | 147 |
| 27 | | 꿈을 위한 발돋움, 안남고만의 꿈돋움 교육과정 | | 안남고 | 교사 김혜선 | 151 |
| 28 | | 지역사회와 함께 삶의 힘을 키워요. | 중학교 | 동암중 | 교사 장서정 | 157 |
| 29 | | 삶과 배움이 다르지 않은 텃밭 수업 | | 부평동중 | 교사 김은경 | 163 |
| 30 | | 경험을 통한 배움과 성장 | | 동광중 | 교사 최광규 | 167 |
| 31 | | 스스로 함께하는 북콘서트 | 고등학교 | 강화여고 | 교사 김혜연 | 175 |
| 32 | | 전문적 학습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융합 수업디자인 | | 인화여고 | 교사 김수영 | 181 |
| 33 | | 독서로 만드는 내 삶의 업그레이드! | | 비즈니스고 | 교사 강종현 | 186 |
| 34 | 미래형 혁신학교 운영 | 마을과 함께 하는 삶의 공간으로서의 학교공간혁신 | 중학교 | 선학중 | 교사 정진경 | 193 |
| 35 | | 복도에서 배움과 휴식을 플러스하다! | 고등학교 | 강화여고 | 교사 정대원 | 203 |



2019 행복배움학교 실천사례 자료집 [중등학교] 나와 너를 넘어 함께가는 행복배움학교 이야기

| 번호 | 영역 | 주 제 | 참가대상 | 발제자 | | 쪽수 |
|----|-------------------|---------------------------|------|------|--------|-----|
| | | | | 학교명 | 성명 | |
| 36 | 미래형 혁신학교 운영 | 마을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활동 | 중학교 | 선학중 | 교사 성기신 | 212 |
| 37 | | 마을교육공동체,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나 | | 석남중 | 교사 김문숙 | 221 |
| 38 | | 학교, 마을을 누비는 교육과정 운영 | | 가좌여중 | 교사 황리다 | 226 |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인천교육

행복배움학교 운영 개요





행복배움학교의 개념

민주적인 교육공동체 문화를 바탕으로, 삶을 위한 배움이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구현하는 혁신미래교육의 모델학교



행복배움학교 기본 철학

| 구 분 | 내 용 |
|-----|---|
| 공공성 | 학교 교육의 수준과 환경을 향상시켜 교육기회와 가능성을 차별 없이 향유하도록 하여 모두의 성장과 사회의 건강성을 지향 |
| 민주성 |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참여와 소통, 협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구현하는 교육활동을 통한 민주시민성 함양 |
| 전문성 | 집단지성을 통한 협력적 동반 성장 체제를 기반으로 다양한 교육 역할을 계발하여 활기찬 배움 및 모두의 성장 도모 |
| 창의성 | 학교 및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빛깔 있는 창의적 교육을 통하여 삶을 위한 배움이 있는 미래 핵심역량 신장 도모 |
| 윤리성 | 교육 구성원 간의 관계를 소중히 하고, 존중과 배려의 학교 문화를 형성하여 교육활동의 윤리성, 공동체의 윤리적 가치 고양 |

**행복배움학교 운영 원리****□ 교육과정 운영 원리**

| | |
|-------------------|--|
| 학습자 중심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습자를 배움의 권리를 가진 교육 주체로 인정하고 모두에게 동등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2. 학습자의 잠재적 능력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는 교육과정 선택권을 확대한다. 3. 학습자의 삶을 위한 참된 배움과 성장에 조력한다. |
| 미래핵심 역량 신장 |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 함양을 위해 다양하고 지역화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5. 교과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학교의 맥락과 학교공동체의 특성 및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재구성하여 운영한다. 6. 전통적 학력관을 벗어나 미래형 학력 신장을 위한 수업과 평가를 위해 학교 공동체의 집단지성을 발휘한다. |
| 공동 성장 |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학교공동체의 구성원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한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실천한다. 8. 개별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학교공동체의 구성원 모두의 성장을 지원한다. 9. 지역 및 학교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

□ 학교공동체 운영 원리

| | |
|-----------------|---|
| 교수·학습 우선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의 행·재정 운영은 교수학습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2. 교육활동 촉진을 위한 조직 및 업무 체제를 재구조화 한다. 3. 배움 중심의 수업을 위한 유·무형 인프라를 구축한다. |
| 소통과 협력 |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학교공동체는 상호 간의 신뢰와 협력적 관계를 형성한다. 5. 학교공동체 구성원은 모두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한다. 6. 학교와 마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한다. |
| 자율과 책임 |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학교가 추구하는 비전과 가치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과 참된 학력에 대해 학교 공동체 모두가 책임지는 학교를 만들어간다. 8. 학교장의 권한은 교수학습우선 원리에 따라 하향 위임하여 구성원 각자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되 이에 대한 책임을 함께 부과한다. 9. 자생적인 자치 및 연구 모임 등의 활성화를 통해 학교공동체의 잠재된 역할을 극대화 시킨다. |



행복배움학교 중점 추진 과제

가. 민주적 교육공동체 문화 형성(필수과제)

| 중점과제 | 세부과제 | 사업 내용(예시) |
|--|---------------|--|
| 민주적 교육공동체 문화 형성 ‘나와 너를 넘어 함께 가는 교육 공동체’ | (1) 민주적 학교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업무 정상화 및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운영 체제 구축 -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강화 및 관리자의 변혁적 리더십 - 학교 비전 함께 만들기 - 학교자치 활성화(학생자치, 교사자치, 학부모 자치) -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
| | (2) 전문적 학습공동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단위, 학년 및 교과단위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 및 운영 - 교육과정 공동 연구 및 실천 문화 확산 -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시간, 공간, 예산 등) - 학교 공동체의 민주적 협의를 통한 수업개방과 성찰 - 학교 간, 다양한 교육실천 사례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체제 구축 |
| | (3) 윤리적 생활공동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 (아침 맞이, 경어 쓰기, 공감과 경청의 교사 리더십, 교권 존중 등) - 개별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있는 학교문화 조성 (등교시간 정상화, 학습선택권 보장, 두발규제 완화, 선도부 폐지, 상벌점제 폐지 등) - 학생 인권 존중의 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회복적 생활교육, 학급긍정 훈육법, 비폭력 대화 등) - 민주적 학급문화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및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 안전한 학교 만들기 위한 공동체 생활협약 함께 만들기 |



나. 빛깔 있는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 중점과제 | 세부과제 | 사업 내용(예시) |
|--|---|---|
|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빛깔 있는 교육과정 운영' | (1) 교육과정 편성의 다양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핵심역량 구현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 교육과정의 탄력적 시간 운영 (블록수업, 무학년제, 주기집중학습, 계절학교 등) - 교육 주체들의 참여를 통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 학생 개개인의 배움과 성장에 집중하는 교육과정 -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 학습자 주도형 교육과정 강화 |
| | (2) 배움 중심의 수업 혁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가 살아 있는 행복한 수업 만들기 - 능동적 배움이 발현되는 수업 만들기 (협력학습, 문제해결학습, 토의토론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 참된 배움이 있는 의미 있는 수업 만들기(공동연구, 공동수업 등) - 활동중심, 체험 중심 수업 강화 - 학생의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학습활동 |
| | (3) 성장 중심의 평가 혁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성장 중심, 과정 중심의 평가체제 구축 - 학생의 다양한 능력 평가(창의성, 협업능력, 문제해결력 등) - 수행평가, 서술형·논술형 평가 확대 - 학생 이력형 평가 통지표 개발, 활용 -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
| 선택과제 | ◆ 학교의 여건, 학생·교사·학부모·지역사회의 요구나 필요에 따라 2가지 내외의 빛깔 있는 교육과정 운영 과제 선택 | |
| | 빛깔 있는 교육과정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시민 교육과정 - 문화, 예술 교육과정 - 생태, 환경 교육과정 - 인문, 역사 교육과정 - 인권, 평화 교육과정 - 진로중심 교육과정 - 마을연계 교육과정 - 인천의 특화된 교육과정 - 국제교류 및 세계시민 교육과정 등 |

다. 미래형 혁신학교 운영

| 혁신과제 | 세부과제 | 사업 내용(예시) |
|--|-----------------------|--|
| 미래형 혁신학교 운영 '삶을 위한 배움이 있는 교육' | (1) 미래형 공간혁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용 목적에 따라 변화하는 다목적 학습 공간 조성 -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공동체 지향 학교 공간 구성 -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가능한 개방된 학습 공간 - 미래교육이 가능한 ICT 기반 학습 환경 구축 |
| | (2) 혁신적 교육과정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한 혁신적 교육과정(자율학교) 운영 - 자체 제작 교과용 도서 개발 및 활용 - 초-중, 중-고, 초-중-고 연계 교육과정 및 수업 운영 - 학년군제, 무학년제, 학점제 등 학습자 선택권 확대 교육과정 |
| | (3) 마을교육공 동체 활성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간 동반 성장을 위한 학교 개방 및 네트워크 확대 운영 - 지역내 초-중-고 행복배움학교 벨트화 -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물적 인프라 활용 교육 - 학교자치를 넘어 마을자치로, 학교공동체와 마을공동체의 상생 추구 |

2019 행복배움학교 실천사례

- 민주적 학교공동체 문화 형성



제목: 동부 학생회 연합, 학생자치의 길을 만든다

| | | | |
|------|---|------|-----------------|
| 학교명 | 선학중학교 | 중점과제 | 민주적 교육공동체 문화 형성 |
| 급 별 | 중학교 | 학년 | 전 학년 |
| 세부과제 | 민주적 학교운영 | 작성자 | 교사 김영석 |
| 주요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부 학생회 연합 활동 평가 - 동부 학생회 연합 활동 내용 - 동부 학생회 연합 활동 의미 | | |

1. 동부 학생회 연합 활동 참여 학생의 평가

2017년 만수북중학교 채○현

처음에는 우리 학교에서 회장, 부회장 모임이 있다고 해서 참석했다. 왜 이렇게 멀리까지 가야하지? 했었는데, 그 내용은 생각보다 값졌다.

우리가 회장단이 되는 3학년 때에 학생회가 새로 개편이 되면서 제대로 된 진전이 없었다. 하지만 동학과 함께 진행한 한글날 행사를 토대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행사의 의미와 취지뿐 아니라 학생들의 만족도 또한 높았다.

이러한 경험이 꾸준히 교내의 의미 있는 행사와 학생들의 의견을 취합하려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이런 모임이 없었으면 졸업 전에 교내 행사를 하긴 했을까 싶다. 항상 준비해 주시느라 바쁘셨을 텐데 감사할 따름이다.

2017년 간석여자중학교 황○은

동부 학생회 연합을 통해서 각 중학교의 회장단 자리를 맡아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 전에는 잘 알지 못했던 학생 자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그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다.

동학을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조를 꾸려서 학생회 친구들과 자신의 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이벤트 혹은 행사를 기획하여 실천해 보았던 것이다. 실제 어떤 반응이었고, 어떻게 진행하였는지를 공유하고 피드백 받는 활동이었는데, 이 활동을 진행하면서 내가 친구로서, 학교의 선배로서 나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개선하고 진행해 나가야 하는지 돌아보면서 성장할 수 있었다.

당시 우리 학교는 학생자치에 대해 선생님들의 인식이 비교적 개방되어 있는 편이었는데,



그에 비해서 학생들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아 학생자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동학을 통해 각 학교는 학생자치를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고, 학생자치가 왜 필요한 것인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 학교로 돌아가 대의원회의를 진행하면서 앞으로의 우리 학교 학생회가 이런 식으로 발전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방향성 같은 것들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실제로 그렇게 방향성을 잡고 대의원회의를 진행한 경험들이 모여 중학교 졸업 전 사용하지 않는 빈 교실을 학생들의 쉼터로 바꾸는 프로젝트를 학생회 친구들과 참여를 원하는 친구들과 함께 진행하기도 했었다.

2018년 해송중학교 박○수

동학은 아직까지도 잊혀 지지 않는 나에겐 엄청 소중한 추억이자 경험이다. 다른 학교의 학생회 운영 현황이나 학생회 활동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면서 우리 학교에는 어떤 활동을 적용할 수 있는지, 다른 학교에 비해 우리는 어떤 상황이며 그런 상황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고심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가장 좋았던 점은 다른 학교의 전교 회장, 부회장을 만나며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점이었다! 동학을 하기 전에는 전교 회장, 부회장은 우리 학교밖에 없는 것 같고, 고민을 풀거나 조언을 구할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대한 부담감도 엄청 컸다. 하지만 동학에서 다양한 학교의 회장, 부회장을 만나보니 동질감도 느낄 수 있었고, 서로의 활동에 대한 피드백과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등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었다.

활동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하는 마음가짐, 어떻게 학교와 학생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등 학생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졌다. 실제로 동학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학생회 친구들에게 전달하며 이야기를 나누어보기도 하고, 동학에서 영감을 얻어 활동을 꾸리기도 하는 등 저희 학교 학생회 활동에 은근히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렇기에 나에겐 중학교 3학년의 큰 추억이자 좋은 조력자의 역할이었다. 고등학교에서 와서 동학 출신들과 친해질 수 있었던 점은 추가로 좋은 점이다. 후배들도 잘 이끌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2018년 청량중학교 안○진

나에게 동학 활동은 잠시 쉬어 가는 곳이자 여러 아이디어들을 얻을 수 있었던 자리였다. 학생회 차원으로는 이 활동을 통해서 다른 학교 회장단과 만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각 학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여러 학교의 사정을 알 수 있었고 다른 학교에서 시행 중인 것을 우리 학교에 맞춰 적용할 수 있었으며 우리 학교만의 특색 사업이 다른 학교에 적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우리 학교에서 더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개인적 차원으로는 다른 학교 회장단들을 만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고, 다양한 친구들을 사귄 수 있었다는 것이 좋았다. 또한 각자 맡은 역할로 인해 가지게 된 고민들을 의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여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되었다.

2019년 인천여자중학교 주○담

부회장이 되었을 때 ‘내가 과연 학생들을 대표해서 운영할 수 있을까?’같은 의문이 많이 들었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다. 그런데 동학을 통해 각 학교의 회장단을 만나 나와 같은 고민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다른 학교의 운영 모습을 통해 나 스스로가 다시 한 번 반성 할 수 있게 되었고, 학생들끼리 이야기가 오고가면서 더 좋은 의견을 생각할 수 있었다. 동학을 통해 학교를 발전시키고, 나도 발전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

2019년 인천중학교 김○찬, 진○성

주변 학교 학생회와 협력하고 공유하며 학생회의 전체적인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 ‘동부학생회연합’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동학을 통해 인천중학교에서는 제한적이었던 학생회의 모습을 회의 및 건의를 통해 발전시킬 수 있었다.

또한, ‘동부학생회연합’을 통해 이 사회는 혼자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힘을 합해 나아가야 된다는 점을 동학을 통해 개인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2. 동부 학생회 연합 활동 내용

2017년 동부 학생회 연합 활동(24개교 48명)

| 시기 | 내용 | 비고 |
|------------------------|--|--------------------------------|
| 〈1차〉 2017.8.30.(수) | ○ 강의: 학생 자치활동의 필요성 ○ 워크숍: 실천 사업 제안 | 강의(2시간) 워크숍(1시간) |
| 〈2차〉 2017.9.13.(수) | ○ 워크숍: 선학중 학생회 사례 발표 ○ 토론: 학교별 사업 기획, 준비 및 공유 | 워크숍(2시간) 토론(1시간) |
| 〈3차〉 2017.10.18.(수) | ○ 워크숍: 학교별 실천 사례 발표 및 공유 ○ 토론: 학교별 사업 기획, 준비 및 공유 | 워크숍(2시간) 토론(1시간) |
| 〈4차〉 2017.11.22.(수) | ○ 워크숍: 학교별 실천 사례 발표 및 공유 ○ 토론: 2018 선거 운영 방법 논의 | 워크숍(2시간) 토론(1시간) |
| 〈5차〉 2017.12.6.(수) | ○ 강의1: 학생 대상 - 회복적 생활 교육에서의 학생 자치의 의미 ○ 강의2: 교사 대상 - 회복적 생활 교육의 의미 ○ 워크숍: 2017학년도 동부학생회연합 활동 평가 | 강의(2시간) 강의(2시간) 워크숍(1시간) |



2018년 동부 학생회 연합 활동(39개교 79명)

| 일시 | | 내용 | 비고 |
|-------------------|----------|---|---------------------|
| 〈1차〉 3.28.(수) | | ○ 안내 - 2018 동부학생회연합 활동 안내 ○ 강의- 학생 자치활동의 필요성 ○ 워크숍 - 2017 선학중 학생자치활동 운영 사례 발표 | 강의(1시간) 워크숍(1시간) |
| 〈2차〉 | 5.9.(수) | ○ 워크숍 - 자기 학교 학생자치활동 연간계획 발표 ○ 토론 - 학교별 학생자치활동 연간계획 공유 | 워크숍(1시간) 토론(2시간) |
| | 5.10.(목) | ○ 안내 - 2018 원탁토론 진행 안내 | 워크숍(1시간) 토론(2시간) |
| 〈3차〉 6.20.(수) | | ○ 워크숍 - 학교별 학생들이 주관한 학교행사 운영사례 발표 ○ 토론 - 학생들이 주관하는 학교행사 성공 방안 | 워크숍(1시간) 토론(2시간) |
| 〈4차〉 8.29(수) | | ○ 워크숍 - 학교별 학생들이 주관한 학교행사 운영사례 발표 ○ 토론 - 학생들이 주관하는 학교행사 성공 방안 | 워크숍(1시간) 토론(2시간) |
| 〈5차〉 10.10.(수) | | ○ 워크숍 - 학교별 학교생활규칙 발표 ○ 토론 -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생활규칙 제·개정 방안 | 워크숍(1시간) 토론(2시간) |

2019년 동부 학생회 연합 활동(29개교 80명)

| 일시 | 내용 |
|-----------------|--|
| 〈1차〉 4월 17일 | ○ 워크숍 - 동부학생회연합의 의미와 역할 안내 - 선학중학교 학생회 활동 사례 공유 ○ 토론 - 학생회장 공약 이행비 사용 계획 공유(학교별 연간계획 공유) - 자기 학교 학생자치활동 연간계획 발표 |
| 〈2차〉 6월 12일 | ○ 워크숍 - 학교별 학생회 주관 학교행사 운영사례 발표(1학기 학생회 사업 중간보고) ○ 토론 - 학기말 학생회 사업 계획 작성 - 학생회 주관 학교행사 성공 방안 |
| 〈3차〉 9월 4일 | ○ 워크숍 - 2학기 학생회 사업 계획 발표 ○ 토론 - 학교별 핵심 사업 공유 |
| 〈4차〉 10월 16일 | ○ 워크숍 - 학교별 학교생활규칙 발표 ○ 토론 -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생활규칙 제·개정 방안 - 동부학생회연합 활동 평가 |



〈2017년 동학 활동〉



〈2019년 동학 활동〉



〈2018년 동학 활동〉

3. 동부 학생회 연합은 왜 시작했는가

학생 자치는 왜 활성화가 안 되는가?

학생 자치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왜 학생 자치가 중요한지, 학생 자치를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반대로 그러면 학생 자치는 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여러 의견들을 모아봐야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겠다.

하나는 학교의 **권력을 분배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학생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고 학생 자치회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내 놓아야 한다. 그래야 학생 회가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그 권력을 분배하기가 어렵다. 단적인 예로 학생의 용모, 복장에 대한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나? 학교다. 학교에서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용모와 복장을 제한한다. 학생회에서 용모와 복장 규정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자고 한다면, 과연 학교는 그것을 인정하고 보장해 줄 수 있는가? 대부분의 학교는 여기서 막힌다. 학생 자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지만 허울뿐인 이유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보장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학생 자치가 시작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또 하나는 학생들의 **자발성의 문제**이다. 학생들은 학생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알지 못한다. 요즘 학생들은 학원 때문에 바쁘고, 개인주의적이고, 의욕이 없고……. 다 맞다. 하지만 그런 학생들도 재미있는데 의미까지 있다면, 한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해 본 경험이 없다는 것이다.(물론 여러 다른 논쟁점이 있을 수 있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생회 활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난감하다. 교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학생 자치에 맞을까하는 고민에서부터 어느 선까지 개입을 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일 때가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권력의 분배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전향적인 모습의 여러 학교가 나타나고 있다. 생활 협약의 제정, 교육 과정에서의 학생회 참여 등 유의미한 모습이 보여 지고 있으며, 이는 계속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교육청의 역할이 크다. 교육청 역시 민주시민 교육의 중요성과 더불어 학생 자치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기적인 학급회의 시간 보장, 학생자치부와 생활 안전부의 분리 운영, 학생회장 공약이행비 지급, 학생들과 밀접한 영역에서의 학생회 참여 보장 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청과 학교의 문제이지,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다.

자발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작은 대답이 바로 동부 학생회 연합이다. 학생들이 해 본 적이 없어서 어려워한다면 봐야 한다. 선배들의 학생회 활동을 보는 것이 제일 좋다. 선배들의 학생회 활동이 미미했다면 선생님들이 보여줘야 한다. 그것도 어렵다면 다른 학교 학생회를 보면 된다.

저라고 학생 자치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동부 학생회 연합을 통해 학생들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넘어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는 시간이었을 뿐입니다.

동학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글의 앞에 제시한, 동학을 경험한 학생들의 이야기로 대신한다.

4. 마치며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교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학생들과 무엇을 만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 더구나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지 않은 것을 하라고 하면 더욱 어렵다. 짧은 이 글을 드라마 대사로 마무리 할까 한다.

‘땀고 서 있으면 그저 땅이지만, 딛고 걸으면 그것은 길이 된다.’

제목: 학생 자치, 학급 자치의 활성화

| | | | |
|------|---|-------|-----------------|
| 학교명 | 만성중학교 | 중점과제 | 민주적 교육공동체 문화 형성 |
| 급 별 | 중학교 | 학년/과목 | 전 학년/전 과목 |
| 세부과제 | 민주적 학교 운영 | 작성자 | 교사 우정아 |
| 주요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 가치의 배움과 실현의 장이 되는 학교 자치 - 학생 자치회와 학급 자치회의 - 학생 자치 실현을 위한 업무 분장 | | |

1. 학생 자치는 왜 필요한가?

민주주의 가치의 배움과 실현

학생은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과정에 있다. 과거 학교에서의 민주 시민 교육은 민주주의의 원리와 발전 과정을 배우는 데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이 주도성과 주체성을 발휘하여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과에서 배운 민주주의의 가치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배우는 장이 학교 자치이다. 상대방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견을 통합해 가는 민주주의 가치가 실현되는 것을 경험한 학생은 장차 정치 참여자로서 흥미와 신뢰, 자신감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 주체로서 주도성 신장

학교는 학생들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다. 교실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로부터 학교의 생활 규정에 이르기까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없다.

학생들은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들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있을 때 점점 더 자랄 수 있다.

학생은 학교와 학급에 필요한 일들을 스스로 계획하고 추진해보는 경험을 통해 주도성이 자란다. 자신의 생각과 결정이 학교를 어떻게 바꾸어 가는지를 경험을 해 본 학생은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미래 리더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다.



2. 학생 자치, 이렇게 실천했어요.

학급 자치회의를 통해 모아진 학생의 의견을 구현해 내는 학생 자치회

학생회 임원 선거를 했던 작년 12월 이후부터 학생 자치회 임원들은 학생 자치회가 주도하는 여러 행사들을 준비하며 새로운 학기를 기다렸다. 학생 자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던 선배들과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세우고자 하는 교사들로부터 비전을 전수 받으며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였다. 새 학기 첫 날부터 시작된 신입생 환영행사에는 학생회장이 직접 곰돌이 탈을 쓰고 아침 맞이 행사를 진행하였다. 둘째 주부터는 아침 조회 시간을 활용해 각 반을 방문하여 학생 자치회 홍보 활동을 하였고, 학생 자치회 임원을 면접을 통해 선발하였다. 학급에서 정·부회장 선거가 치러진 그 주 토요일에는 교내에서 학생 자치회 임명장 수여 및 리더십 캠프를 진행하여 학생 자치의 비전을 전수하고 실제로 학급 자치회의 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학급 자치회의를 통해 모아진 의견은 대의원회의에서 공유되었고 학생 자치회는 각 학급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의 목소리를 학교에 전달하였다.

3월 18일 학급 자치회의에서 “우리들이 받고 싶은 상”논의를 하였다. 24개 학급에서 많은 학생들의 추천을 받은 의견과 교사,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아 행복 부문의 배려상, 존중상, 긍정 에너지상, 미소 천사상, 예쁜 말씨상과 배움 부문의 지식 나눔상, 열심상, 리더십상, 아이디어상을 “우리들이 만든 상”으로 결정하였다. 각 상에 해당하는 선정 기준까지 결정하였고, 이 기준에 따라 학기 말 각 반에서 3명씩의 학생을 추천하여 행복배움상을 수여하였다. 또한 우리들이 만든 상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하여 우수 작품은 열쇠고리로 제작하여 배포하기도 하였다.

4월 15일 학급 자치회의에서 “체인지 메이커 - 좀 더 좋은 학교 만들기”논의를 하였다. 24개 학급에서 우리 학교 교칙 중 좋은 점, 아쉬운 점, 바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대의원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하였다. 학생 대표들은 5월 22일 교직원 토론회에 참석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발표하였다. 6월 13일 학생, 교사, 학부모 대표의 생활 규정 협의회에 학생 대표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하였다. 7월 15일 학생회장은 교내 방송을 통해 “체인지 메이커” 활동의 결과로 교육의 각 주체들의 의견을 종합한 학교 규칙을 잘 지킬 것을 당부하였다.

학생 자치회가 추진한 행사로는 4월 16일 세월호 추모 행사, 5월 8일 어버이날 부모님께 보틀 엽서 쓰기 및 부모님 상장 만들기 행사, 5월 15일 학부모회와 함께 하는 스승의 날 행사, 7월 17일 제헌절 아침 맞이 행사 등이 있다. 또 비가 오는 날 우산을 빌려주는 일도 하였다.

남동구 16개 학교 연합 동부자치네트워크 행사를 네 차례 교내에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각 학교의 학생 자치회 사업과 자치회의 상황을 서로 공유하면서, 학생 자치회 임원들이 스스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 자율 동아리를 통한 학생 자치

학생 자율 동아리는 12개부서(일러스트부, 만성두레풍물부, 솔리언포래상담부, 윈드러너, 시사토론부, 해피7핸드볼부, C.O.D.E부, 헬리오, 축구부, 야구부, 스타디, 댄스부)가 조직되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자율 동아리로 선정되기 위해 각 부서의 회장들은 동아리의 목적과 활동 방법, 모임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였고, 공연과 홍보, 이벤트,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동아리 부서원을 자율적으로 모집하고 활동하였다. 7월 18일에는 1학기 자율 동아리 자체 평가회를 실시하여 활동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결과 1위부터 3위까지의 부서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또, 9월 아침시간에는 방송을 통해 평가회 영상을 전교생과 공유하기도 하였다.

3. 학생 자치 활성화를 위한 유의사항

교사 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학급 자치회의를 한번 하려면 24개 학급에 필요한 회의 준비 물품을 배분해야 한다. 24개의 바구니에 회의 순서지, 포스트잇, 사인펜, 전지, 가위, 풀, 스카치테이프 등을 담는다. 이러한 일은 교무행정실무원의 도움을 받고 있다.

4. 학생 자치로 이렇게 변했어요.

학생 자치 구현을 위한 업무 분장

우리 학교는 2017년까지 매월 1회의 학급 회의와 대의원회의를 실시해왔다. 2018년에는 학생생활부에서 학생자치 업무를 분리하여 교육혁신부로 가져왔다. 리더십 캠프에서 학급회장과 부회장에게 학급자치회의를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교육하였고, 그 둘이 번갈아 가며 회의를 진행하게 하였다. 학급자치회의 진행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모두가 주권자가 되는 회의를 만들고자 하였다. 2019년에는 학생 자치 업무가 민주시민교육부로 독립하였다. 민주시민교육부는 학생자치, 학생 자율동아리 업무 담당자를 각각 둬으로써 학생 자치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 경험

지난 1년간 학급 자치를 경험한 학생들은 이제 학급 자치회의 시간을 주도성을 발휘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인다. 회의를 진행하는 학급 회장과 부회장은 학급 자치회의를 하기 전 대의원회의로 모여 학급 자치회의에서 다룰 내용을 확인하고 학기 초 리더십캠프에서 배웠던 회의 진행 방법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 학급의 학생들도 학급 자치회의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모둠으로 앉아서 자신들이 결정해야 할 주제를 확인하고 말할 것들을 준비하



며 의견을 펼친다.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고 있다는 경험을 하였기에 가능한 것이다. 학급 자치회의 시간은 학생들이 스스로 진행하고, 내용을 채우고, 그 결과로 학교의 풍토를 만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귀중한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5. 마치며

민주적인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교육 구성원 모두가 민주적이어야 한다. 교장, 교감,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가운데 교사인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과연 민주적인지 늘 점검하며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적인 생각과 행동이 가능하려면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 즉,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교사만이 실현해야하는 가치가 아니라 학생도 그래야 한다. 즉 학교생활 전반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구성원 모두가 상대방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완성되는 것이 민주적인 학교이다. 학급 자치회의를 이끄는 학급 회장, 부회장과 학생 자치회의 임원들은 인간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목표가 학급에 있는 학생 개개인에게도 좋은 영향력으로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학급 자치회의의 안전을 학생 자치회에서 매번 결정해서 주는 것도 좋은 점이 있겠지만, 당장 학급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들을 안전으로 다뤄야 할 상황도 있을 것이다. 한 학기에 한번 정도는 학급 안에서 자유로운 주제를 선택하여 회의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다.

제목: 존중과 배려가 살아 있는 행복한 교실

| | | | |
|------|---|------|--------------------|
| 학교명 | 인천남중학교 | 중점과제 | 민주적 교육공동체 문화 형성 |
| 급 별 | 중학교 | | |
| 세부과제 | 민주적 학교운영 | 작성자 | 교사 한지예 |
| 주요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자치회 중심의 다양한 자치활동 - 테마가 있는 다양한 학급 특색활동 실시 - 교사·학생, 학생·학생 간 존중의 문화 만들기 - 사제동행 체육활동 및 문화예술활동 관람 | | |

1. 윤리적 생활 공동체는 왜 필요한가?

학생이 행복한 학교가 있는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가 학생에게는 행복감을 주는가? 진정으로 행복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참여의식과 주체의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결국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은 학생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존중과 배려 기반의 회복적 생활교육

우리 학교의 생활 협약은 학급, 학년, 학교 단계에서 토론을 통하여 만들어졌다. 특히 학급별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학급 자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생활 협약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다. 또한 단계적 생활 지도를 통해 교사와 학생 간의 존중과 존경의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 윤리적 생활 공동체, 이렇게 실천했어요.

학생자치회 중심의 다양한 자치활동

우리 학교는 학급 회의를 통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여 학교 주요 행사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며 반영하고 있다. 상반기 대의원회에서는 인천남중학교 생활협약, 계절 편의점, 리더십 캠프 등에 대해 토론을 한 뒤, 그 내용을 적극 반영하였다. 특히 학생자치회가 중심이 되어 3일간 상반기 행복배움학교 관련 활동(학



생 대상 홍보)과 변화된 인천남중학교의 모습을 설명했던 계절 편의점이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또한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걸쳐 진행되었던 리더십캠프에서는 단체 활동을 통한 글로벌 리더로서의 책임감, 의사소통 능력, 협동심을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고, 12월 예정인 사제 역할 바꾸기 행사와 학교 축제(남풍제)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생활협약 제정을 위한 대의원의회의



계절 편의점



리더십캠프



테마가 있는 다양한 학급 특색활동 실시

학급 회의시간에 학생들이 제안한 학급 특색활동을 추진함으로써 학급의 자율성을 강화하며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학급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급우 간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학교 폭력을 예방하며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학급별 특색사업비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어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만족도도 높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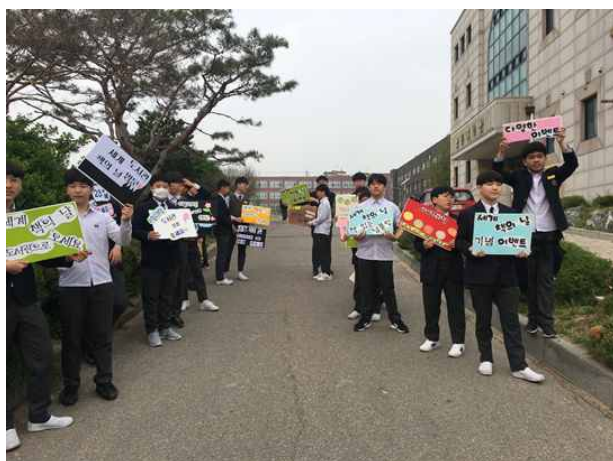


학급 특색활동

교사·학생, 학생·학생 간 존중의 문화 만들기

존중과 배려의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학급-학년-성장카드-선도 단계의 ‘단계별 생활교육’을 하고 있으며, 생활협약도 학급, 학년, 학교의 단계로 정하여 교사와 학생 간 상호 존중 및 존경의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학생 간 존중을 위해 또래상담자를 통한 학생 갈등 해결, 학년부와 위클래스, 교육복지실이 연계해 학급 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사랑의 샘터,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힐링데이로 등교맞이 행사, 북카페, 애플데이, 감사 데이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서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긍정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북카페 행사의 경우 특수학급 학생들이 주최가 되어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나눠주었고, 이를 통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다른 학생들과 많은 교류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등교맞이 행사



특수학급 학생들과 함께 하는 북카페

사제동행 체육활동 및 문화예술활동 관람

방과 후 시간이나 주말, 방학을 이용한 사제동행 체육활동과 문화예술 활동 관람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한다는 점에서 유대관계를 높여주고,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같이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사제동행 지역사회 봉사활동



사제동행 마라톤 대회



사제동행 스포츠 활동

3. 윤리적 생활 공동체 형성으로 이렇게 변했어요.

내가 즐거운 학교, 우리가 행복한 학교

우리학교의 비전인 ‘내가 즐거운 학교, 우리가 행복한 학교’처럼 윤리적 생활 공동체를 통해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는 학교가 되었고, 학교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타의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능동적 진행이 가능해졌다. 결국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인 학교가 모두에게 행복함을 주는 곳이 된 것이다.

4. 마치며

올해는 윤리적 생활 공동체 형성의 정상화를 목표로 행복배움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교육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이뤄내었다. 내년에는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현재 학년별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중심으로 교과 단위 재구성을 통한 공동수업 디자인 및 외부 제안수업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 처음 시작은 교사였으나 최대의 수혜자는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인천남중학교는 앞으로도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노력을 할 것이다.



제목: 우리는 서로 격려하는 수업 친구

| | | | |
|------|--|-------|-----------------|
| 학교명 | 신흥여자중학교 | 중점과제 | 민주적 교육공동체 문화 형성 |
| 급 별 | 중학교 | 학년/과목 | 1-3학년/전 교과 |
| 세부과제 | 전문적 학습공동체 | 작성자 | 교사 신미경 |
| 주요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남을 통해 생각이 커지는 공동 수업 디자인 -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공감하고 서로 성장하는 수업 - 학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수업 나눔 | | |

1.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

1)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시작은 만남

‘교직과 교사’라는 책에 따르면 교직 사회에는 개인주의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는 교직 문화를 규정하는 지배적인 특징이라고 한다. 이러한 개인주의는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수업과 학생 성취의 향상 및 학교 개선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사의 협력적 접근을 실행하기 위해 디자인한 것이 바로 전문적 학습공동체라고 한다. 개인주의를 줄이고 서로 협력한다면 수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구성원과 서로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하면서 함께 더 좋은 수업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만남의 시간이 바로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시간인 것이다.

2)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

2017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3년째 지속하고 있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은 점점 우리 학교만의 특징으로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2월부터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각 학년별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1년 동안 서로의 수업을 함께 디자인하고, 관찰하며 그 수업에 대한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격려하는 공동체’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 가지 약속을 정해서 좀 더 화기애애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그 약속으로 수업 디자인을 위한 지도안과 활동지 미리 준비하기, 수업한 교사에게 칭찬 샤워하기, 마지막은 맛있는 간식 준비로 정했다. 이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시간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만드는 약속이었다.

2. 함께 성장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1) 공동 수업 디자인을 위한 공동체 조직

본교는 학년별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조직했다. 각 학년의 특징을 반영하는 공동체명을 만들어서 좀 더 유대감 깊은 공동체가 되도록 했다. 학년별로 조직을 할 경우 같은 학생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학생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교과별 조직도 함께 운영해서 교과별로 수업 관찰을 하도록 하여 각 교과별 수업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했다.

| 그룹 | 공동체명 | 대표교사 | 인원 | 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 회원 | 장소 |
|-----|--------------|------|----|----------------------------------|-----|
| 1학년 | 1학년 수업 어울림 | 이○○ | 11 | 1학년 담임교사 6명 + 수업 전담교사 4명+특수교사 1명 | 1-1 |
| 2학년 | 2학년 수업친구 | 방○○ | 10 | 2학년 담임교사 6명+수업 전담교사 4명 | 2-1 |
| 3학년 | 나누며 성장하는 3학년 | 이○○ | 11 | 3학년 담임교사 6명+ 수업 전담교사 5명 | 3-1 |

| 그룹 | 대표교사 | 인원 | 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 회원 | 장소 |
|---------------|------|----|--|--------|
| 국어/한문 | 신○○ | 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 이○○, 방○○, 신○○, 조○○ ■ 한문 : 노○○ ■ 사서 : 황○○ | 도서관 |
| 도덕/사회/역사 | 서○○ | 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 : 송○○ ■ 사회 : 서○○ ■ 사회 : 이○○, 서○○ | 3학년교무실 |
| 수학 | 김○○ | 4 | ■ 나○○, 김○○, 정○○, 홍○○ | 수학교과실 |
| 영어 | 송○○ | 3 | ■ 문○○, 송○○, 손○○ | 영어교과실 |
| 과학 | 문○○ | 4 | ■ 박○○, 문○○, 박○○, 이○○ | 과학교과실 |
| 기술가정/정보/진로/특수 | 박○○ |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가정 : 박○○, 정○○ ■ 정보 : 주○○ ■ 진로 : 김○○ ■ 특수 : 박○○ | 기술실 |
| 체육/음악/미술/보건 | 최○○ | 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 : 장○○, 유○○, 김○○ ■ 음악 : 최○○ ■ 미술 : 최○○ ■ 보건 : 김○○ | 예체능부실 |

2) 만남을 통해 생각과 이해의 폭이 커지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시간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만남의 날은 매주 수요일로 정했다. 그리고 공동수업디자인, 수업 관찰, 수업 나눔의 3단계로 진행하였다. 학년별 조직에서 공동 수업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타 교과의 시각에서 수업 지도안을 분석하면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그리고 수업 관찰은 선생님이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배움이 어떻게 일



어나는지를 관찰하는 시간이고, 이렇게 관찰한 내용으로 수업 나눔을 하기 때문에 각 교과별로 학생들의 특성이 드러나면서 학생들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다. 물론 선생님들의 노하우를 배우는 좋은 시간이기도 하다.

| 일정 | 주제 | 시간 | 진행 | | |
|------|----------------------|------------|----------------|----------|-------------------|
| 3.6 | 전교직원 회의 | 1 | 교무 부장 | | |
| 3.13 | 학부모총회 준비 | | 학년 부장 | | |
| 3.20 | 쉬미 있는 수요일 | | | | |
| 3.27 |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이해 | 2 | 연구 혁신 부장 | | |
| 4.3 | 전교직원 회의 | 1 | 교무 부장 | | |
| 4.10 | 공동수업디자인 ① | | 1 | 학년 부장 | |
| | 1학년 | 2학년 | | | 3학년 |
| | 이○○ 김○○ 김○○ | 박○○ 유○○ | | | 서○○ 최○○ 최○○ |
| | | | | | |
| 4.17 | 쉬미 있는 수요일 | | | | |
| 4.24 | 교내외 제안수업 후 수업나눔 ① | 1 | 학년 부장 | | |
| 5.1 | 진로체험 | | | | |
| 5.8 | 전교직원 회의 | 1 | 교무 부장 | | |
| 5.15 | 동아리 | | | | |
| 5.22 | 공동수업디자인 ② | | 1 | 학년 부장 | |
| | 1학년 | 2학년 | | | 3학년 |
| | 김○○ 주○○ | 이○○ | | | |
| | | | | | |
| 5.29 | 교내외 제안수업 후 수업나눔 ② | 1 | 학년 부장 | | |
| 6.5 | 전교직원 회의 | 1 | 교무 부장 | | |
| 6.12 | 공동수업디자인 ③ | | 1 | 학년 부장 | |
| | 1학년 | 2학년 | | | 3학년 |
| | 박○○ 서○○ | 송○○ | | | |
| | | | | | |
| 6.19 | 교내외 제안수업 후 수업나눔 ③ | 1 | 학년 부장 | | |
| 6.26 | 전교직원 회의 | 1 | 교무 부장 | | |
| 7.3 | 힐링 동아리 활동 | | 학년 부장 | | |
| 7.10 | 1학기 교육활동 평가 | 2 | 연구혁신 부장 | | |

| 일정 | 주제 | 시간 | 진행 | | |
|-------|---|----|--------|-------------------|-------------------|
| 8.21 | 전교직원회의 | 1 | 교무부장 | | |
| 8.28 | 공동수업디자인 ④ | 1 | 학년부장 | | |
| | 1학년 | | | 2학년 | 3학년 |
| | 조○○ 손○○ 정○○ | | | 박○○ 방○○ 문○○ | 장○○ 송○○ 이○○ |
| 9.4 | 청렴 관련 연수 | 2 | 교무부장 | | |
| 9.11 | 추석맞이 | | | | |
| 9.18 | 교내외 제안수업 후 수업나눔 ④ | 1 | 학년부장 | | |
| 9.25 | 2학기 1회고사 | | | | |
| 10.2 | 전교직원회의 | 1 | 교무부장 | | |
| 10.9 | 한글날 | | | | |
| 10.16 | 공동수업디자인 ⑤ | 1 | 학년부장 | | |
| | 1학년 | | | 2학년 | 3학년 |
| | 나○○ 박○○ 황○○ | | | 정○○ 김○○ 방○○ | 홍○○ 신○○ |
| 10.23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 1 | 특수교사 | | |
| 10.30 | 교내외 제안수업 후 수업나눔 ⑤ | 1 | 학년부장 | | |
| 11.6 | 전교직원회의 | 1 | 교무부장 | | |
| 11.13 | 축제 준비 | | | | |
| 11.20 | 그림책을 활용한 학급운영, 수업운영의 지혜 (희망자만 운영) | 4 | 연구혁신부장 | | |
| 11.27 | | | | | |
| 12.4 | 전교직원회의 | 1 | 교무부장 | | |
| 12.11 | 2학기 교육활동 전체평가회 | 2 | 연구혁신부장 | | |
| 12.18 | 2학기 교육활동 전체평가회 | 1 | | | |

| | |
|---|--|
|  |  |
| <p>격려하는 공동체 비전 나누기</p> | <p>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위한 약속 정하기</p> |
|  |  |
| <p>공동수업디자인 수업안</p> | <p>수업 참관록 작성</p> |
|  |  |
| <p>공동수업 디자인 모습</p> | <p>수업 나눔 모습</p> |

3. 지치지 않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비법

1) 비전 공유하기

학기 초에 '격려하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위한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로 격려하고 이해하면서 구성원 사이에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시작이라는 생각을 나누면서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만든 것이다. 이런 소통은 구성원 간의 오해를 줄일 수 있어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2) 칭찬 사워하기

공동 수업 디자인을 하고 자신의 수업을 공개한 후 나눔의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 교사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담감을 덜기 위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동료 교사들의 긍정적인 피드백과 칭찬, 그리고 따뜻한 격려의 말일 것이다.

공동 수업 디자인 활동을 할 때 수업자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수업 나눔에서 선생님들의 수업에서 배우고 싶었던 부분들을 함께 나눈다면 긴장감이 떨어지는 수업 공개가 될 것이다.

4.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가져 온 변화

1) 다양한 수업방법 시도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시간은 나를 한 번 더 돌아보고 내 수업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 다른 교과의 선생님들이 시도하는 여러 참신한 수업 기법들을 자신의 교과에 적용해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수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배움 중심 수업을 시도하면서 학생들의 문제해결력 및 창의력 신장, 의사소통능력 향상 등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서 교사의 전문성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다.

2) 학생에 대한 이해도 증진

수업 관찰을 하다보면 자신의 수업에서 볼 수 없던 학생들의 여러 면모들을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학생들의 새로운 면모를 보면서 감탄을 하기도 하고, 칭찬을 해 줄 부분을 찾게 되면서 학생들을 다른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학생들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도 도움을 준다.

5. 마치며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만남’으로 규정할 수 있다. 공동 수업 디자인과 수업 나눔 시간에서는 교사들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수업 관찰에서는 학생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람의 삶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루어지는데, 전문적 학습공동체에서의 만남을 통해 교사 간에 서로가 지지를 해주면서 신뢰감을 형성하고,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폭넓은 이해가 이루어진다면 행복한 학교라는 따뜻한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제목: 교사의 성장을 지원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 | | | |
|------|--|-------|-----------------|
| 학교명 | 만성중학교 | 중점과제 | 민주적 교육공동체 문화 형성 |
| 급 별 | 중학교 | 학년/과목 | 전 학년/전 과목 |
| 세부과제 | 전문적 학습공동체 | 작성자 | 교사 우정아 |
| 주요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성장과 회복을 위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 - 학년별 행복배움학교 실천과 교사 역량 강화의 장 - 범교과 교사들의 실천사례 공유의 장 | | |

1. 전문적 학습 공동체 왜 필요한가?

교사의 성장

교사의 전문성은 좋은 수업을 위한 연구와 실천, 그리고 피드백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다. 좋은 수업은 교사의 수업 철학과 학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업 내용을 재구성하여 알맞은 방법으로 실제 수업에 활용할 때 가능하며, 수업 성찰과 피드백이 있을 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많은 교사가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좋은 수업을 위한 이 모든 과정을 교사 혼자서 하기는 어려울뿐더러 지치기도 쉽다. 좋은 수업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교사들이 공동체로 모여 서로에게 기대어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면, 더 높이, 더 오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의 회복

교사가 매일 수업 현장에서 만나는 학생들은 교사들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좌절감을 안겨주는 존재들이기도 하다. 학급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모양의 갈등을 교사 혼자 힘으로 떠안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업 고민, 학급경영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사 공동체는 교사의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 같은 환경에 처한 동료로서 마음을 헤아려주는 공감의 한 마디는 교실에 들어서는 교사의 마음에 힘이 된다.

2. 전문적 학습공동체, 이렇게 실천했어요.

학년 학습공동체 - 학년별 공동수업디자인, 제안 수업, 수업나눔 협의회

2018학년도에는 학기당 2회로 연 4회 운영하였고, 2019학년도에는 학기당 1회로 연 2



회 운영하였다. 학기당 2회라고 했지만, 실제로 운영되는 것은 공동수업디자인, 제안수업, 수업나눔이 한 세트가 되기 때문에 약 3주가 걸리므로, 격월로 매주 수요일마다 실시했다. 그런데 올해는 다양한 주제의 자발적 전문적학습공동체를 개설하고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학년학습공동체 운영을 연 2회(두 세트)로 줄이게 되었다.

먼저, 공동수업디자인 장소는 각 학년 협의실에서 진행하였다. 학년교무실에서 할 경우 업무공간과 수업연구 공간의 분리가 확실히 되지 않아 전화벨이 울리는 경우가 있고, 업무가 신경 쓰일 때가 있기 때문이다.

제안수업을 하기 전에 공개 학급을 선정해야 하는데, 선정방법은 동학년 교과 선생님들이 주로 수업하기 많이 힘들어 하는 학급으로 결정했고, 그 학급 교과교사 중 한 명이 하였다. 제안수업 공개 학급이 선정되고 나면, 담임 및 교과교사는 그 학급 학생들에게 너희 반 수업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 남게 해서 수업을 공개하고 연구하는 것이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본래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많은 교사가 참관하러 교실로 들어오면 아이들은 긴장하게 되고 수업이 잘 진행되는 듯 보이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문제의 모습이 드러난다.

제안수업은 1, 2, 3학년이 같은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날은 전체가 5교시까지만 하고 귀가한다. 학년별 제안수업 공개 학급만 남아 6교시를 진행하고 다음날에 7교시를 운영한다.

제안수업하는 학급의 학부모님께서는 제안수업의 취지, 수업일, 다른 학급 학생보다 늦게 귀가하게 된 사유 등을 밝힌 가정통신문을 수업 3일 전에 배부하여 동의서를 구한다. 그다음 담당자가 준비해야 할 것은 제안수업으로 공개하는 학급 학생들을 위한 간식을 품의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수업을 잘 해 선택받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반 학생들보다 한 시간 더 수업을 했음에도 간식 때문에 행복한 얼굴을 하고서 귀가한다. 학생 간식은 행복배움학교 예산을 사용하고, 주로 피자와 음료로 준비하였다.

제안수업 당일에는 수정된 학습지도안과 활동지, 수업참관록을 사물함 위에 준비해 두고 수업참관 시 유의사항과 관찰 모둠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해 둔다. 수업이 시작되면 참관교사들은 기재된 관찰 모둠 근처에서 모둠활동을 관찰한다. 전체적인 수업분위기, 교사의 말과 모둠 학생들의 반응, 모둠활동 진행 과정에서 학생의 배움 관찰 등을 참관록에 기록한다. 관찰 중에 떠오르는 궁금한 내용이나 감상평을 기록하기도 한다.

수업이 끝나면 각 학년협의실로 이동하여 수업나눔이 진행된다. 진행자는 주로 학년 부장님이 하시고, 제안수업자는 그날 수업을 하면서 준비대로 잘 된 점이나 아쉬웠던 점 등을 이야기한다. 참관 교사들은 관찰한 모둠 학생들의 수업 참여 과정을 이야기 한다. 수업나눔을 하다보면 그 동안 미처 몰랐던 학생들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 학생들은 모

든 수업 시간에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업참관을 통해 수업과 학생교육을 일체화 할 수 있어 더욱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그날 수업을 참관하면서 수업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배웠는지를 이야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묻고 답한 후에 수업 나눔을 끝맺는다. 이렇게 협의하고 대화하는 전 과정을 한 명이 기록지에 기록한다. 수업나눔이 끝난 이후에, 담당자는 각 학년의 기록지를 모아 한 번에 내부결재를 올리면 한 세트가 마무리된다.

교내형 전문적 학습공동체

교사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총 여섯 개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운영되었다.

| | | | |
|-------|--|-------|----------|
| 공동체명 | 말랑존덕 | 참여 인원 | 8명 |
| 활동 주제 | 과정중심 평가 및 다양한 수업 방법 연구 | 수업 공개 | 학기별 각 1회 |
| 활동 내용 | 과정중심 평가 관련 강의 및 도서 선정 | | |
| | 〈수업이 즐거운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도서 토론 및 인터넷 강의 수강 완료 후 나눔, 수업 방법 노하우 공유 | | |
| | 배움공간 아카데미 연수 - 생각 상자 자체 워크숍, 수업 방법 노하우 공유 | | |
| | 교육연극 - 자체 워크숍 | | |
| 공동체명 | 서클과 함께하는 PDC | 참여 인원 | 7명 |
| 활동 주제 | 비폭력 대화,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방안 마련 | 수업 공개 | 학기별 각 1회 |
| 활동 내용 | 도서 선정 및 실천 | | |
| | 〈삶을 풍요롭게 하는 교육〉 도서 토론 및 나눔, 실천방안 모색 | | |
| | 〈회복적 생활교육을 만나다〉 독서토론 및 나눔, 실천방안 모색 | | |
| | 경청과 공감 연습, 전문강사 초청 일정 협의 | | |
| 공동체명 | 소(통), 나(눔), 기(쁨) | 참여 인원 | 8명 |
| 활동 주제 | 창의적인 주제중심통합교육을 위한 교과 재구성 | 수업 공개 | 학기별 각 1회 |
| 활동 내용 | 학년별 주제통합교육과정 확인 및 도서 선정 및 실천 | | |
| | 독서토론 및 나눔 활동(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 문화) | | |
| | 독서토론 및 나눔 활동 | | |
| | 인성 관련 원격연수 이수 완료 및 자체 워크숍 | | |
| 공동체명 | 창의융합 메이커 교육 | 참여 인원 | 7명 |
| 활동 주제 | 창의적인 주제중심통합교육을 위한 융합교과 재구성 탐구 | 수업 공개 | 학기별 각 1회 |
| 활동 내용 | 도서 선정 및 의견 나눔 활동 | | |
| | 수학과학 융합교육 나눔 활동 | | |
| | 코딩 강사 초빙한 강의 경청 및 나눔 활동 | | |
| 공동체명 | 회복생활교육 | 참여 인원 | 6명 |
| 활동 주제 | 학년 생활교육에 대한 학습과 정보 공유 | 수업 공개 | 학기별 각 1회 |
| 활동 내용 | 회복생활관련 도서 선정 | | |
| | 〈회복적 생활교육을 만나다〉 도서 토론 | | |
| | 회복서클 연수 - 토크볼을 이용한 회복서클 자체 연수 | | |
| | 도서 선정 - 〈학급 긍정 훈육법〉 | | |
| 공동체명 | 행복 공장소 | 참여 인원 | 10명 |
| 활동 주제 | 행복공장소에서 만들어지는 행복나눔 | 수업 공개 | 학기별 각 1회 |
| 활동 내용 | 학생유형별 상담기법 연수 | | |
| | 업사이클링 재료 활용을 통한 심리테라피 치료 | | |
| | 모래놀이 치료를 활용한 심리상담 기법 특강 | | |
| | 집단상담프로그램 - 자체 워크숍 | | |



3.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시 유의사항

교사의 성장을 위한 씨실과 날실

학년 학습 공동체는 동학년 교과 교사들의 수업과 생활교육에 중점을 둔 연구회이며, 교내형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범학년 범교과 교사들의 자발적 모임으로 운영한다. 학년 학습공동체 협의회를 통해 배움중심 수업의 활성화와 창의적 교육과정을 실천하며, 동료애에 기반한 자발적 수업 연구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교사의 교수 학습 전문성을 신장하도록 한다. 교내형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관심 있는 주제에 따라 조직되므로 교사들의 자발성과 참여도에 따라 공동체 운영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학교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날로 정해 운영하였으며, 각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표에 이를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도 확보하였다.

4.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으로 이렇게 변했어요.

공동체 의식의 성장

학기 초에 학년 학습 공동체에서 한 학기의 중점목표를 함께 기획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에게 한 마음을 심어 주는 역할을 한다. 학년 제안 수업을 준비하며 공동으로 수업을 디자인하는 과정도 수업이 어려운 학급에 대한 무거운 마음을 함께 나누어짐으로써 공동체 구성원이 결속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교직원 인화 단결에 도움을 주는 활동으로 43%의 교사가 전문적 학습공동체라고 생각하는 만큼 공동체 의식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5. 마치며

교내형 전문적 학습공동체 안에는 앞에서 이끌어가는 행복배움 고경력 교사와 배우며 함께 가는 행복배움 저경력 교사가 있을 텐데, 이끌어가는 교사들은 행복배움학교에 비교적 더 많은 시간을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수업 면에서나 회복적 생활교육 면에서 가지고 있는 행복배움 노하우가 더 많을 것이다. 따라서 고경력 교사들은 본인의 관심 분야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나누는 가운데 성장하는 기쁨을 더 크게 느낄 것이다. 올해는 전입 교사가 많았기 때문에 학기 초에 학급 파악과 업무 파악 등으로 바쁜 시작을 하였다. 바쁜 학기 초에 행복배움 저경력 교사들의 성장하고자 하는 관심 분야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때 행복배움 고경력 교사들이 본인들이 이끄는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성장하고자 하는 모임인지 널리 알리고 이끌어 준다면, 함께 성장하며 배우는 기쁨은 더 클 것이다.

제목: 함께 만들고 함께 배운다.

| | | | |
|------|--|-------|-----------------|
| 학교명 | 화도진중학교 | 중점과제 | 민주적 교육공동체 문화 형성 |
| 급 별 | 중학교 | 학년/과목 | 2학년/수학 |
| 세부과제 | 전문적 학습공동체 | 작성자 | 교사 임용수 |
| 주요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적 학습 공동체 정기적 모임 - 공동 수업 디자인과 수업 공개 - 학년별 생활 교육 체계화 | | |

1.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왜 필요한가?

가. 배움 중심 수업 실천을 통한 즐거운 수업 만들기

우리의 수업은 아이들의 삶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교사가 주입식으로 가르치기 보다는 아이들의 삶에 녹아있는 수업이 되어야 한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수업 내용을 볼 때 아이들은 관심을 가지고 수업에 임할 수 있다.

수업 과정 속에서 학생 스스로가 배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배움 중심 수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실천을 하여 배움이 즐거운 수업을 만들며 아울러 교사의 성장 기회를 주어야 한다.

나. 학교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한 연구와 실천

각 과목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있는 교사 집단이 여러 요인으로 서로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 소통하지 못하면서 다른 전문 집단에 비해 정체가 생기고 타성에 젖을 우려가 크다.

교육은 인간관계인지라 아이들의 삶을 중심에 두고 교사들의 지성을 모아 가르침의 큰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 교과별로 학습 내용을 공유하여 이것저것 해야 할 것이 많은 현재 우리 아이들에게 배움의 큰 줄기를 잡아 주어야 한다.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한 것처럼 학생 개인별, 반별, 학년별 특수한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생활 교육의 기본인 학생 이해를 바탕으로 생활 교육을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이렇게 실천했어요.

가.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날

매월 넷째 주 월요일을 학년별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날'로 정하여 운영하였다. 주제별로 연수가 필요할 때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진행하고, 매월 넷째 주 월요일(15:40~)은 학년별 독서 토론, 수업자료 개발 활동, 학년 생활 교육 방향 모색 중심으로 모임을 가진다. 학년별 한 학기에 한 명 이상 공동 수업 디자인 및 수업 나눔과 성찰을 통해 수업의 성장을 도모하였다.

나. 전문적 학습 공동체 조직

학년별 모임은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날'에 진행하고 수석교사를 중심으로 만든 '교과형'은 매월 1~2회(둘째 주 화요일 16:30~)에 진행한다. 미래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공동 수업 디자인 수업 공개 협의 및 배움 수업 관련 독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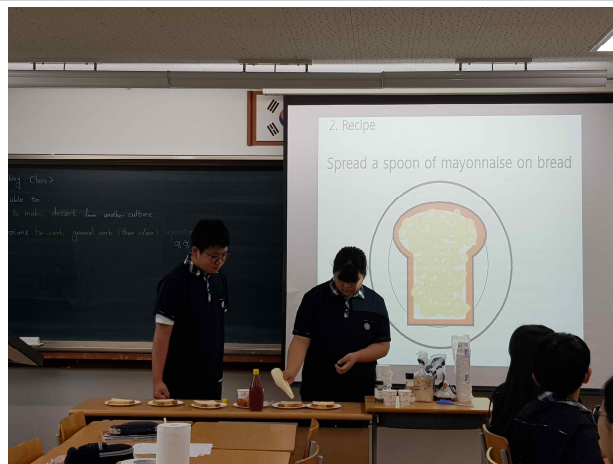
| 유형 | 공동체 명 | 주제 | 참여교사 |
|-----|--------------------------------|--------------------------|----------|
| 학년형 | 1학년 전문적 학습 공동체 | 차이와 차별 | 이○○ 외 8명 |
| | 2학년 전문적 학습 공동체 | 중2는 인생의 꽃이다 | 홍○○ 외 9명 |
| | 3학년 전문적 학습 공동체 | 함께 살아가는 세상 | 윤○○ 외 9명 |
| 교과형 | 한·배·수 (한 걸음 한 걸음 배움 수업 속으로) | 미래핵심역량을 키우는 배움 수업 속으로 | 곽○○ 외 8명 |



3학년 전문적 학습 공동체 모임



2학년 공동 수업 디자인 공개 수업



1학년 공동 수업 디자인 공개 수업



나눔 협의회

3. 전문적 학습 공동체 구성 시 유의사항

의무와 자율 사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구성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시간 확보이다. 각자의 수업과 업무, 출장으로 모일 수 있는 시간을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만남 자체가 어렵다.

매월 1~2회 정기적으로 시간을 고정해두고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해 의무감을 부여한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처음 시작하는 해는 약간의 강제성을 둔 뒤 함께 하는 문화가 만들어지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히는 과정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모임 자체에 재미있는 요소를 넣을 필요가 있다.

4. 전문적 학습 공동체로 이렇게 변했어요.

가. 교수 학습 방법 개선 및 학교 연구 문화 활성화

수업 개선을 위한 수업 성찰을 바탕으로 수업을 늘 중심에 두고 생활하고 있다. 모든 교사가 자율 연수를 실시하고 공동 수업 디자인 공개 수업, 멘토링 장학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학습 공동체를 구축하고 동료성에 기초하여 교실을 개방하고 수업 공개 및 토론을 일상화하여 학교에서는 연구하는 문화가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

나. 생활 교육의 체계화

학생 생활 협약과 생활 규정 및 규칙, 생활 에티켓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학생안전부’와 ‘자치인성부’에서 총괄 안내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학년별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서 논의하여 매뉴얼을 만들어 진행하고 있다.

학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모든 담임·교과 교사가 같은 방향과 방식으로 지도하고 있다.



학생들도 선생님의 따라 태도를 달리하지 않게 되었고 스스로 공동체 에티켓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담임 상담 시 객관적이고 확실한 자료를 보고 개별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고 교육할 수 있어서 좋다.

5. 마치며

교사가 수업을 중심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를 간소화하고 행정 실무는 행정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교직 문화를 재정비해야 한다. 행정 업무 보다가 학생 상담하다가 허겁지겁 수업하러 교실로 뛰어드는 일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핵심일 것이다.

교사들이 협력하여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서로 돕고 토론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를 배울 것이다. 점점 개별화 되어가는 학교 현장에서 내 동료에게 힘을 받고 서로 힘이 되어주며 공동체 감수성을 키워 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제목: 배움도 어려움도 함께, 행배시

| | | | |
|------|--|-------|-----------------|
| 학교명 | 인천강남중학교 | 중점과제 | 민주적 교육공동체 문화 형성 |
| 급 별 | 중학교 | 학년/과목 | 전 학년/전 교과 |
| 세부과제 | 전문적 학습공동체 | 작성자 | 교사 손병희 |
| 주요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 고민하고, 함께 공부하는 교사의 동료성 회복 - (공동수업디자인-수업공개-수업나눔 및 성찰)의 성장패턴 정착 - 수업전문가와의 일대일 수업컨설팅으로 질 높은 배움 구현 | | |

1. 전문적 학습공동체(행배시)는 왜 필요한가?

교사개인의 전문적 영역으로 닫혀있던 수업의 빗장을 열다.

교사에게 수업은 업무의 대부분이고 자아성취의 기반이다. 그러나 수업은 어렵다. 아이들은 변하고 교육을 둘러싼 환경도 달라지고 있다. 그런데 교사는 여전히 혼자이다. 어려울 때도 즐거울 때도 혼자……. 학교에는 같은 어려움과 같은 꿈을 가진 동료들이 있는데 말이다. 그래서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너무나 필요하다.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여 같은 주제로 함께 모여 수업에 대해 고민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2. 전문적 학습공동체(행배시), 이렇게 실천했어요.

2019 전문적 학습공동체(행배시) 연간계획

행복배움학교의 혁신과제인 민주적 교육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해 전교사가 모일 수 있는 시간을 학교일정 속에 고정 운영한다.

○ 시기: 매월 1~3주 목요일 7,8교시

○ 주요영역:

가. 수업개방 및 성찰 - 자발적인 수업공개(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5개 교과 5회)

나. 수업전문가(손OO교수) 컨설팅운영 - 3월21일, 6월13일, 8월29일, 11월21일
13:00~18:00 4회 운영 (일대일 수업참관 및 컨설팅, 대표수업 및 컨설팅)

다. 민주적 의사결정 - 학교현안

라. 독서토론 - '수업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로 전교사 발제 후 토론진행



| 시기(일) | 영역 | 내용 | 비고 |
|----------|--------|--|-----|
| 3월2주(7) | 민주적공동체 | 안전 중심 교직원 협의회(2019학년도 교육과정) | |
| 3월3주(14) | 수업전문성 | 교과별 교육과정 재구성 사례 공유 및 과정중심평가 | |
| 3월4주(21) | 수업전문성 | 전문가 강연(행복배움학교의 시작, 배움의공동체 철학) | 손○○ |
| 4월1주(4) | 민주적공동체 | 안전 중심 교직원 협의회 | |
| 4월2주(11) | 수업전문성 | 공동수업지도안 작성(2학년 과학, 손○○) | |
| 4월3주(18) | 수업전문성 | 수업나눔(교과: 과학, 교사 : 손○○) 수업참관 및 나눔 | |
| 5월2주(9) | 민주적공동체 | 안전 중심 교직원 협의회 | |
| 5월3주(16) | 수업전문성 | 과정중심평가 운영 실제 | |
| 5월4주(23) | 수업전문성 | 공동수업지도안 작성(3학년 국어, 함○○) | |
| 6월2주(13) | 수업전문성 | 전문가 수업컨설팅 - 5,6교시 전교사 수업참관 - 7교시 대표수업(3학년 국어, 함○○) | 손○○ |
| 6월3주(20) | 학생교육 | 학부모공개수업(전교사) | |
| 7월1주(4) | 민주적공동체 | 안전 중심 교직원 협의회 | |
| 7월2주(11) | 학생교육 | 1학기 교수학습활동 평가 및 피드백 | |

| 시기(일) | 영역 | 내용 | 비고 |
|-----------|----------|--|------|
| 8월4주(22) | 민주적공동체 | 안전 중심 교직원 협의회(2019학년도 2학기 교육과정) | |
| 8월5주(29) | 수업전문성 | 전문가수업컨설팅 - 5, 6교시: 일대일 수업참관 및 컨설팅(1학년 영어, 김○○) - 7교시: 대표수업 및 공개 컨설팅(1학년 수학, 김○○) | 손○○ |
| 9월1주(5) | 수업전문성 | 공동수업지도안 작성/ 과정중심평가 운영 실제 | |
| 9월3주(19) | 학생교육 | 2학기 학부모 공개수업 | |
| 9월4주(26) | 수업전문성 | 수업나눔(3학년 사회, 김○○) 수업참관 및 나눔 | |
| 10월4주(24) | 수업전문성 | 주제중심교과통합활동 사례 공유 | 수학여행 |
| 11월2주(7) | 수업전문성 | 공동수업지도안 작성(2학년 과학, 손○○) | |
| 11월4주(21) | 수업전문성 | 전문가수업컨설팅 - 5, 6교시: 일대일 수업참관 및 컨설팅(1학년 수학, 임○○) - 7교시: 대표수업 및 공개 컨설팅(2학년 과학, 손○○) | 손○○ |
| 12월1주(5) | 수업전문성 | 2019학년도 교수학습활동 평가 성찰 | |
| 12월2주(12) | 민주적공동체 | 안전 중심 교직원 협의회-송화제 | |
| 12월3주(19) | 윤리적생활공동체 | 2019학년도 송화제 리허설 및 운영토론 | |

○ 세부 실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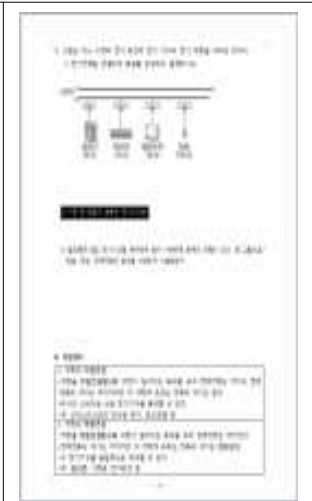
〈2019. 2. 20. ~ 2019. 2. 21. - 방학 중 워크숍〉

행복배움학교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수업역량강화 방안, 솔숲운영방안, 학사 일정 확정 등에 관한 워크숍



〈2019. 3. 21. - 전문가 강연(손○○교수님)〉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실천적 수업을 디자인 하시는 손○○ 교수님의 '21세기 능력과 배움중심수업'이라는 주제 강연, '왜 배움중심인가', '21세기 학교는 어떤 모습인가' 등의 내용



〈2019. 4. 11. - 과학과 공동수업지도안 작성〉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기 전에 교사들이 학생들의 입장이 되어 수업을 받고 모듈별로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디어를 내고 수업지도안을 공동 디자인하는 과정



〈2019. 4. 18. - 과학과 공개 수업과 수업 후 협의회〉

단원은 전지와 자기의 9차시 차례로 연결하기, 나란히 연결하기.
모둠별로 에너지볼을 이용한 직렬과 병렬 연결하기를 했고 점프 과제로 가정의 전기 배선에
대해 알아봄. 공개 수업 후 외부 교사들도 참석한 협의회



〈2019. 5. 16. - 영어과 공동수업디자인과 지도안〉

3단원 4차시 'Let's Talk about Upcycling' 으로 업사이클링의 의미를 유추해 보고 본문의
내용 파악하고, 업사이클링 관련 글 독해 수업



〈2019. 5. 23. - 영어과 공개 수업과 수업 후 협의회〉

활발한 가운데 모둠별로 토의하고 탐구하며 Upcycling과 Recycling의 개념을 알게 되었고,
어려운 문장도 의견을 나누며 모둠별로 독해하려는 모습을 보여준 수업이었음.



〈2019. 5. 31. - 국어과 공동수업디자인〉

4단원 11차시 '시를 감상하고 내용 파악하기'의 '시 감상하기'라는 주제.
이육사의 '청포도'에 나오는 시어들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여 시어의 의미를
생각해 비교해 보는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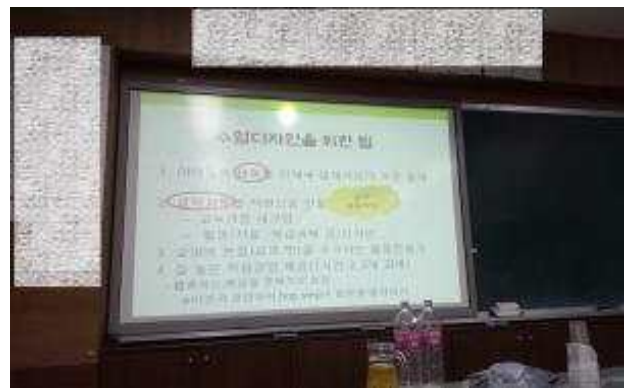
〈2019. 6. 13. - 전문가(손○○교수님) 초청 국어과 대표 공개 수업과 수업 후 협의회〉

모둠별로 시대적 배경을 모른 채로 이육사의 '청포도' 시에 나오는 시어의 의미를 찾아보고 그
시어들을 바탕으로 줄거리를 가진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활동.
평소 조용했던 아이들도 이야기를 꾸미려고 의견을 주고받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모둠별로 아주
창의적인 이야기들을 만들어 내었음.



〈2019. 8. 22. - 수학과 공동수업디자인 및 지도안〉

4단원 6차시 '맞꼭지각, 동위각, 엇각의 예술'의 '평행선의 성질'이라는 주제.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평행선을 직접 그려 보고 평행이 되는 이유를 알아보는 시간.



〈2019. 8. 29. - 전문가(손○○교수님) 초청 수학과 대표 공개 수업과 수업 후 협의회〉
모둠별로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하여 평행선을 그리는 방법을 의논하고 발표하는 활동을 함.
아이들의 대화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고민해야하며, 점프과제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시기를 조언함.



〈2019. 9. 19. - 사회과 공동수업디자인〉
4단원 자원의 개발과 이용 2차시 '자원의 특성과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과 교역' 이라는 주제.
최근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일종의 불화수소 수출규제로 인한 문제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드론 공격으로 인한 석유가격의 상승의 문제를 점프과제로 하였고 알파벳을 이용하여 경쟁과 교역을 통하여 모둠별로 단어 또는 문장을 만드는 재미있는 수업.



〈2019. 9. 27. - 사회과 공개 수업과 수업 후 협의회〉
알파벳을 이용한 영어단어와 문장을 만드는 활동을 하며 교역의 필요성과 희소성, 편재성 등에 대해 몸으로 배우는 흥미진진한 수업이었음.
자원의 협력과 경쟁, 갈등이 성취 기준이었지만,
이번 수업은 협력 부분이 갈등보다 더 강조되었다는 자평.

3. 2019 전문적 학습공동체(행배시) 운영 시 유의사항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교육철학, 가치수용속도의 다양성을 인정, 긍정적 기다림 노력

교사는 나름의 철학을 갖고 교육한다. 교과학습을 통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지향점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녹치 않기에 체념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한다. 우선 이런 교사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지지해야 한다. 함께 배우는 동료성의 회복을 통해 조금씩 자발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한다. 배움중심수업에 대한 핵심철학은 유지하면서 노력하고 기다려야 한다.

4. 2019 전문적 학습공동체(행배시) 운영으로 이렇게 변했어요.

수업하기 어려운 3학년 1반 구하기 - 교과교사들의 자발적 소모임 운영

유독 수업하기 어려운 반이 있다. 올해는 3학년 1반..

3학년 1반에 들어가는 교과교사(국, 영, 수, 사, 과) 5명이 각자의 수업을 찍고 영상을 돌려보며 해법을 찾아보려 모였다. 국어시간에 학습하는 아이들 모습과 사회시간에 학습하는 아이들의 면면은 다르다. 수업태도가 잘 형성된 아이들은 비슷하지만 힘든 아이들은 교과마다 나름의 이유가 있고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

- 학생에 대한 이해: ○○은 과학은 힘들어 하지만 영어독해는 잘한다.
- 교사의 수업디자인, 수업방법에 따른 차이
- 수업하며 힘들었던 점, 학생과의 에피소드를 가볍게 공유하며 어려움을 함께 하고 있다는 끈끈한 동료성 확인
- 학생들에게 교사들의 노력이 이심전심 전해지기도 한다.

5. 마치며

행복배움학교이기에 할 수 있는 것들

행복배움학교라는 과제가 있어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시스템화 시키고 같이 공부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었다. 더디 가더라도 다 같이 걸어가고 있는 있음에 가치를 두어본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배움학교의 혁신과제가 다양하게 많지만 **수업전문성 향상**이라는 실천과제를 중심에 두고 운영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행복배움학교 네트워크로 공유한다면 좀 더 질 높은 성장을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수업의 중심에서 생활지도를 외치다!

| | | | |
|------|--|-------|-----------------|
| 학교명 | 인천영종고등학교 | 중점과제 | 민주적 교육공동체 문화 형성 |
| 급 별 | 고등학교 | 학년/과목 | 1학년/전 교과 |
| 세부과제 | 전문적 학습공동체 | 작성자 | 교사 문덕순 |
| 주요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적 수업공개 및 제안 수업 - 공감서클 운영 (한 끼 상담, 걷기 상담, 교과 교사 상담, 학부모와 교감 선생님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연 피해자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놓는 금연지도 | | |

1. 수업을 바탕으로 하는 생활지도가 중요한 이유는?

생활지도와 수업은 함께 가야 한다.

학생들이 수업에서 이탈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수업 내용을 못 알아들어서 자거나 딴 짓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다.

학창시절 내 경험에 비추어보아도 학생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공감 가는 이야기이다. 고등학교 때 화학 기초 수업을 놓쳐 화학 수업을 아예 못 알아들은 적이 있었다. 수업 시간 선생님 말씀이 외계어로 들렸고 너무 심심한 나머지 연필을 꺾다가 교실에서 쫓겨난 적이 있었다. 분명 선생님의 눈에는 불성실하고 예의 없는 학생으로 보였을 것이다. 교사가 된 지금에서 그 선생님의 마음도 십분 이해가 간다. 하지만 그 당시 학생이었던 나는 일부러 선생님께 그런 행동을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기에 너무나 억울하고 자존심이 상했다. 아마 그렇기에 학교를 졸업한지 20년이 더 지났지만 그 수업 장면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을 것이다.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방해하려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탈행동을 하는 것일 것이다. 학교 일과 중 수업 시간이 대부분인데 수업이 어렵고 힘들다면 그 학생들은 하루 종일 학교에 있는 것조차 너무나 힘든 일이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렇기에 수업에서의 이탈이 학교생활의 이탈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수업에서 이탈하는 학생들을 도와 수업 안으로 그 학생들을 들어오도록 하는 것, 이것이 생활지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수업은 동료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수업은 각 교사 개인의 사적 행위가 아닌 공공의 사명을 부여 받아 수행하는 공적 활동이다. 따라서 교실은 언제나 열려야 하며, 수업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내 수업에서 힘든 학생이 다른 수업에서 잘 배우는 모습을 봤을 때는 그 학생의 다른 측면을 관찰할 수 있고, 내 수업에서 힘든 학생이 다른 수업에도 힘든 모습을 봤을 때 나만 그 학생이 힘든 게 아니구나, 위로를 받으면서 그 학생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은 논의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내 수업에서만 아이들을 만나는 것보다 여러 장에서 아이를 볼 때 그 아이를 이해하는 폭이 훨씬 넓어진다. 또한, 동료 교사와 같은 고민을 나눌 때 혼자가 아닌 함께 교육하고 있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 수업 공개 이렇게 실천했어요.

일상적 수업 공개

1학기 초 학년 전문적학습공동체 시간에 수업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은 반 3개 반이 지목되었다. 이 세 반의 수업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 많은 선생님들이 공감을 했고, 이 반 아이들을 함께 관찰하고 함께 돌보며 해결해보자는 의견이 나와 4월 1~2주에 걸쳐 6명의 선생님들이 수업을 공개했다. 일상수업이라 수업시간을 조정하거나 비는 시간 고려하여 조를 편성했고, 되도록 많은 선생님들이 수업을 참관할 수 있도록 행복교육부와 교육과정부에서 협조해주셨다.

학년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제안수업

2017년부터 수업 컨설팅 전문가 한국 배움의 공동체 대표 손○○ 교수님을 모시고 학기별 1회씩 제안 수업을 하고 있다. 1학기에는 통합사회 과목을 학년별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 시간에 공동디자인 하여 제안 수업을 실시하였고, 2학기에는 과학탐구실험 수업이 예정되어 있으며 사전에 공개수업 4회, 공동 수업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 일상 수업을 넘어서 학생 중심, 배움 중심의 수업 모델을 함께 고민하고 배우는 교사들의 교내 연수 과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3. 수업이 힘든 학생, 공감서클로 함께 지도했습니다.

공감서클 운영

공감서클은 총 2단계로 운영된다. 1단계는 수업을 방해하거나,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자거나 등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학생과 대화를 원하는 교과 선생님, 학년 부장, 담임 선생님을 구성하여 운영된다. 이 단계에서는 수업에서의 학생의



어려움을 주로 들으며 공부 상처를 어루만지고 상담하는 시간을 주로 가진다. 학생이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단계를 거친 학생들은 노력하는 수업 시간에 참여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선생님도 그 학생에 대해 이해하는 계기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이런 상담에도 불구하고 행동 변화에 대한 노력이 보이지 않을 경우, 공감서클 2단계로 넘어간다.

공감서클 2단계는 교감 선생님과 학부모님과 대화를 하는 단계로 지금까지 2명의 학생이 공감서클 2단계에 참여하였다. 학부모님과 대화를 하면서 학생 생활의 전반적인 생활모습, 부모님과의 관계, 학습 결손 등에 대해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학생이 학교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걷기 상담 및 한 끼 상담 운영

우리 학교는 수업이 힘든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교사들이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편이다. 학기 초 학년별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 시간에 나온 아이디어로 수업이 힘든 학생을 학급에서 1~2명 추천하고, 그 학생과 대화를 원하는 교과 담당 교사가 2명 정도 배치되어 상담하는 걷기 상담을 실시하였다. 학교에서 영마루 공원까지 걸으면서 그 학생과 내면의 이야기를 하면서 교과 선생님과 벽을 낮춰 소통하자는 취지로 실시하였다.

답답한 학교를 벗어나 다 같이 걸으며 이야기를 했던 상담이 의외로 학생과 교사에게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2명의 교사보다는 1대 1이 더 효과적이라는 건의가 있어 한 끼 상담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한 끼 상담은 원래 위클래스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학급 담임이 반에 힘든 학생을 정해 한 끼 식사를 하면서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이 사업을 학년에서 교과 선생님이 학생과 함께 상담을 신청하면 한 끼의 식사비를 지원해주기로 하였고, 행정실의 협조로 많은 선생님들이 한 끼 상담을 신청하여 학년 전학공 시간에 실시하였다. 학생들과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한 끼 상담 만족도가 높게 나왔고, 2학기에도 예산을 확보하여 한 끼 상담을 원하는 선생님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흡연 ‘피해자’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놓는 금연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영종도 내에서의 인천영종고의 이미지는 담배를 피우는 학생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학기 초에 담배 냄새 때문에 힘들다는 학생들,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회복적생활교육(백운산 등반), 선도위원회 회부 등을 추가로

실시하였지만, 늘 복도에는 담배 냄새가 끊이지 않았고 비흡연자 학생들의 고통의 하소연도 계속 이어졌다.

그러던 중, 사회학자 엄○○ 교수님과 함께 하는 전학공 ‘폐응’ 시간에 피해자 목소리 듣기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이야기 하면서 흡연학생들이 비흡연 학생들의 괴로움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실시해보자고 하였다. 그 즉시 1학년 전체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흡연 학생들의 고통을 듣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화장실에 붙이고 담임 선생님들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화장실 앞에서 금연 지도를 실시하였다. 동시에 수업 시간에 화장실 보내지 않기,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는 학생들 흡연 측정하기 등을 함께 실시하였다. 현재 1학년 화장실이 있는 층은 담배 냄새가 확연히 줄어들었다.



학년별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 장면
(생활교육 지침 의논, 수업 공동 디자인 등)



1학년 전문적학습공동체의
‘걷기 상담’ 장면

4. 마치며

‘한 명의 아이를 기르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질 높은 교육을 추구하자’ 이런 좋은 말이 구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교사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교사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은 공공적 행위이고 교사의 역할은 공공성을 매개로 하는 민주시민 교육을 하는 자라는 생각이 공유되어야 한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학교는 입시교육에 매몰되어 입시라는 매개가 없어지면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붕괴되고, 교사들에게 자괴감만 남기는 곳이 되고 있다. 인문계 고등학교의 현실적인 목표가 입시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입시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입시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순간, 교사로서의 사명도 교육의 본질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교육은 우리 사회와 학교가 함께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학교 학부모가 늘 대화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육의 본질에 충실할 때 학교 교육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목: 전학공으로 만들어가는 민주적 교육공동체

| | | | |
|------|--|-------|-----------------|
| 학교명 | 인천세원고등학교 | 중점과제 | 민주적 교육공동체 문화 형성 |
| 급 별 | 고등학교 | 학년/과목 | 전 학년/전 교과 |
| 세부과제 | 전문적 학습공동체 | 작성자 | 교사 조아라 |
| 주요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활성화 - 교육공동체 운영에 대한 공감과 이해 확산 -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을 위한 시간 확보 - 유형별 세분화를 통한 운영 내실화 - 협력적 관계를 통해 교사의 내면을 세우는 문화 형성 | | |

1. 민주적 교육공동체는 왜 필요한가?

나와 너를 넘어 함께 가는 교육 공동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물결이 학교에도 몰려오고 있다. 이는 우리 교사들을 협업의 환경에서 자유로운 의사소통 구조에 노출시키지 못한 채 각 교실에서 고립된 상태에서 ‘업무’와 홀로 싸우게 만들었다. 이에 ‘나’보다 ‘우리’가 더 지혜롭다는 의사소통과 협업의 구조를 존중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필요하게 되었다. 세원행복공동체는 교사 개인 역량에만 의존하여 교육과정과 수업을 실행했던 학교문화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실천하는 학교문화로 바꾸어 역량을 신장시킬 뿐 아니라 학생과 학교를 함께 성장시킴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2. 세원교육공동체는요.

고교학점제를 통한 행복배움학교 실현

우리 학교는 행복배움학교와 더불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학생 중심의 대학 연계 교과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고교 학점제 연구학교로 선정되어 행복배움학교와 접목하여 ‘고교학점제를 통한 행복배움학교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민주적 교육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위한 시간 확보

행복배움학교로서 민주적 교육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전문적학습공동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년 7회×3시간, 총 21시간의 전문적학습공동체 시간을 확보하였고, 전체형 9시간, 교과형 9시간, 학년형 3시간으로 배정하였다.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운영되는 날에는 학생들은 오전 수업 및 점심식사 후 스스로 자율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귀가 하여 전 교사가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일시 | 교시 | 분류 | 시간 |
|----------|-----|----|-------------------|
| 3/29(금) | 5교시 | 전체 | 1,2,3 / 전체형 총 9시간 |
| | 6교시 | | |
| | 7교시 | | |
| 5/10(금) | 5교시 | 전체 | 4,5 / 9시간 |
| | 6교시 | | |
| | 7교시 | | |
| 5/31(금) | 5교시 | 교과 | 1 / 교과형 총 9시간 |
| | 6교시 | 전체 | 6 / 9시간 |
| | 7교시 | | |
| 6/28(금) | 5교시 | 교과 | 2,3 / 9시간 |
| | 6교시 | 전체 | 7 / 9시간 |
| | 7교시 | | |
| 8/30(금) | 5교시 | 학년 | 1,2 / 학년형 총 3시간 |
| | 6교시 | 학년 | 3 / 3시간 |
| | 7교시 | | |
| 10/25(금) | 5교시 | 교과 | 4,5 / 9시간 |
| | 6교시 | 교과 | 6,7,8 / 9시간 |
| | 7교시 | | |
| 11/29(금) | 5교시 | 전체 | 8,9 / 전체형 총 9시간 |
| | 6교시 | 교과 | 9 / 9시간 |
| | 7교시 | | |

유형별 세분화를 통한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내실화

전체형, 교과형, 학년형, 주제형으로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운영되도록 하여 내실화를 추구하였다.

| 유형 | 공동체명 | 활동 주제 |
|-----|---|--|
| 전체형 | 세원교육공동체 | 나와 너를 넘어 함께 가는 교육 공동체 |
| 교과형 | 국어과 우.아.행. (우리들의 아름다운 행복공동체) | 독서를 통한 품성 교육, 수업나눔 |
| | 수학과 수학만세 (수학으로 만들어 가는 세상) | 학습자 중심 수업 및 수행평가 연구, 교육과정 토의, 학교생활기록부 맥락화 |
| | 과학과 행복한 동행길 | 다양한 실험 기구 활용 연수, 교육과정 토의, 학생 활동 중심 모델 수업 나눔 |
| | 사회과 미·사·공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사회교육 공동체) | 사회 교과 간 사회 이슈 융합 탐구 시퀀스 모델의 개발 |
| | 외국어과 K.F.C (Korean Foreign language teachers Community) | 과정 중심 수업 및 평가 연구 및 토의,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구현 |
| | 예체능과 행복배움공동체 | 예체능 활동 중심 수업을 통한 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
| 학년형 | 1,2,3학년 | 동학년 교사 간의 민주적 소통을 통한 행복한 학교생활과 원활한 교과 활동 지원 |
| 주제형 | 쫄쫄쫄 (교사의 속, 학생의 속, 수업의 속을 바꾸는 수업 성찰) | 교사의 내면을 세우는 수업 성찰 |
| | 영스터즈 (영어회화 스터디 멤버즈) | 자율적 영어스터디 모임 |



4. 민주적 교육공동체 문화 형성, 이렇게 실천했어요.

전문적학습공동체 전체형

- 여러 전문가 강의를 통해 전 교사의 전문성 및 정서적 공감 능력 신장

2019.03.29. 임○○(인하대학교입학사정관) 및 유○○(송덕여고진로진학부장)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 학생부종합전형과 학교생활기록부의 이해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신장시켰으며, 2019.05.10. 조○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낼 역량을 갖춘 준비된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안과 수업과 교사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임○○(인하대학교 입학사정관)
학생부종합전형과 학교생활기록부

조○(숙명여자대학교 석좌교수)
미래사회의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교육의 방향

전문적학습공동체 교과형

국어과

인문학 서적 소모임과 수업 관련 서적 소모임 등 독서 토론 모임을 통해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호모사피엔스」, 「한 학기 한권 읽기」, 「나와 공동체를 세우는 수업 나눔」 등의 책을 읽고 감상을 공유하며 교육 및 수업 방안과 교육과정에 대해 선생님들 간에 깊은 나눔이 이루어졌다.

또한, 동교과·동학년 선생님들 간에 수업 나눔과 피드백 시간을 가지며 수업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이해, 평가 피드백의 중요성 및 실제, 바람직한 평가의 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다.

수학과

새로운 수행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와 협의 시간을 가지며 학년별 맞춤 수행평가를 계획, 공유, 수정하고 논술의 비중 및 수행평가와 정기고사에서의 영역 배분에 대해 토의하며 체계를 발전시켰으며 수학과 대회시기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리사고력대회 등을 신설하였다. 또한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변화에 발맞춰 선택교과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수업을 개설하며 수학교사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공고히 하였다.

과학과

드론, 3D 프린터, 원심분리기 등 다양한 실험 기구와 전자칠판 활용 연수를 통해 원리를 습득하여 수업 및 동아리 활동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각 전공 교사만이 알고 있는 Know-How를 공유하며 전문성을 신장시켰다. 또한 2020학년도 신입생 교육과정에 대해 논의하며 고교학점제에서 선택 과목으로서 과학 교과와 고민을 서로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사회과

구성원들 간의 지속적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사회과 아젠다 설정을 통해 대화와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고 의사 결정의 분권화가 이루어졌다. 고교학점제와 사회 교과 선택 과목 설정에 대해 학교 특성과 학생 진로를 고려한 사회 선택 교과 개설을 위해 협의하여 사회 분과 과목들의 융합을 이끌어 내어 사회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였다. 또한 세계시민학교 특성과 연관해 주제 중심의 사회과 융합 수행평가를 개발하여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에 따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수행평가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외국어과

과정중심 수업과 평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영어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교사들이 관심을 갖고 ‘과정중심 수행평가 및 활동중심 수업 방법’을 주제로 안남고등학교 김○○선생님과 ‘삶을 위한 영어교육’을 주제로 「단단한 영어」 김○○ 저자를 초대하여 강의 연수 후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며 영어교육자로서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로 인해 다양한 수업 방법이 개선되었으며 과정중심의 수행평가 방법을 도입하여 지필 위주의 수행평가에서 탈피하여 1학년을 대상으로 미니북 만들기, 에코백 제작 등의 수행평가를 실시하여 수업 방법과 평가의 일체화를 실현하였다.



독서 토론 모임(국어과)



수업 나눔 모임(국어과)



수행평가 방안 토의(수학과)



드론 작동 실습(과학과)



3D 프린터 활용 실습(과학과)



원심분리기 실습(과학과)

[illegible]

고교학점제 운영 연계
2020 교육과정 편성표 개발
(사회과)

| 인천세원과 사회과 주제 중심(세계시민) 프로젝트 계획 | | | | |
|-------------------------------|-------|-------|--|-------------------------------|
| | |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학 번 이 름 </div> | |
| 학번 | 수강 과목 | 참고 주제 | 관련 단원 | 심화자료와 하위 지표(교육활동영역표(CSDG)) |
| 1학번 | 통합 사회 | | | |
| 2학번 | 선택1 | | | |
| | 선택2 | | | |
| | 선택3 | | | |
| 3학번 | 선택1 | | | |
| | 선택2 | | | |
| | 선택3 | | | |

세계시민 프로젝트 계획
(사회과)



학생중심 주제탐구 수업
(영어과)

전문적학습공동체 학년형

- 동학년 선생님들의 의사소통 및 회복적 생활교육

학년별로 부장교사 및 담임교사 10명과 학년 교과지도 교사 9명이 함께 모여 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고민을 공유하고 학생들의 수업과 학교생활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학생을 입체적으로 파악하여 선생님들 간에 유기적으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관계를 맺게 되었다.

각 교과 간 수행평가 시기를 조정하기도 하고,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교육적 안전망을 제공하게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일주일에 1시간 씩 담임 선생님들의 시간표 상에 있는 시간을 확보해 지속적인 의사소통과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학년형 전문적학습공동체(1학년)



학년형 전문적학습공동체(2학년)

전문적학습공동체 주제형

- 교사의 내면을 세우는 수업 성찰 : 쑥쑥쑥

독서 나눔「나와 공동체를 세우는 수업 나눔」을 통해 수업 나눔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이해하고 가치관을 공유하며 수업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유도하였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선생님들 사이에 자발적 수업 공개 및 수업 성찰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수업 공개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였으며 수업 친구를 통해 교사의 고민과 아픔을 동료와 함께 공감하며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는 협력적 관계를 통해 교사의 정서적 안전망을 구축시키며 긍정적 수업 문화를 형성하였다. 또한 수업 성찰의 과정들을 통해 교수-학습 모형을 개선하고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를 도모하며 교사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독서나눔



수업나눔



5. 마치며

우리 인천세원고등학교는 행복배움학교 1년차로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와 너를 넘어 함께 가는 교육 공동체’의 필요성을 알아가며 느린 속도이지만 분명히 변화하고 있다. 올해는 행복배움학교를 시작하면서 교육공동체 운영에 대한 공감과 고교학점제의 이해 확산을 위해 전체 전문적학습공동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행복배움학교 운영에 대한 확산된 공감과 1년 치의 경험을 바탕으로 차 학년도에는 교과형과 학년형 전문적학습공동체 시간을 늘려 더욱 내실 있는 교육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길로 진득하게 나아가기 위해 중요한 것은 첫째, 민주적 학교 문화 확산을 위한 적절한 행·재정적 지원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상 교사들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활동 시간이 더욱 확보되어야 하며, 자유롭고 자발적인 소통의 문화가 확산되어야 민주적인 학교 문화가 이뤄질 것이다. 둘째, 학교 구성원 간의 협력적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 행정업무와 수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교사들 간의 협력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하며, 학생-교사 간의 신뢰가 있는 다양한 소통과 기회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학생 중심 교육활동을 위한 교사의 노력과 함께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교사들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와 민주적 소통을 통한 다양한 수업들이 공유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하며, 학생 중심 수업의 활성화와 교과 융합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수업환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을 바탕으로 선생님들의 열정과 변화의 노력들을 통해 함께 만들어간다면 보다 더 무르익은 행복배움학교로 나아갈 것이다.

제목: 관계회복 프로세스, 회복적 대화모임

| | | | |
|-------|---|-------|-----------------|
| 학교명 | 신흥중학교 | 영역 | 민주적 교육공동체 문화 형성 |
| 급 별 | 중학교 | 학년/과목 | 1-3학년/전 교과 |
| 세부과제 | 윤리적 생활공동체 | 작성자 | 교사 김은영 |
| 주요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가치 중심의 회복적 생활교육 시스템 구축 - 관계회복 프로세스 운영 과정 - 회복적 서클(대화모임) 운영 사례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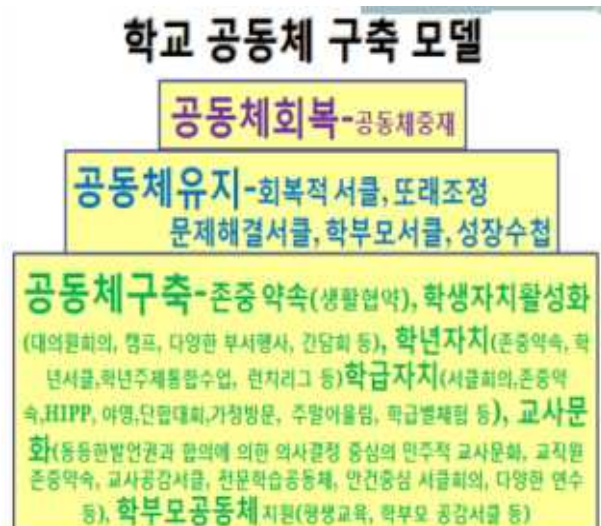
1. 가치 중심의 회복적 생활교육 시스템

2013년부터 시작된 신흥중학교 회복적생활교육 시스템은 브랜다 모리슨의 학교 적용 모델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공동체 형성과 세우기, 일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공동체 유지하기, 전문적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소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동체 회복하기가 그 틀이다. 때문에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핵심가치를 세우고 공유하며 가치를 살아내는 학교문화 조성을 무엇보다 중심에 두고 있다.

현재 신흥중의 학교 시스템을 아래와 같다.



(2005, 브랜다 모리슨)



2018 신흥중학교 회복적생활교육 시스템

학급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담임교사는 오로지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팀과 교육활동팀으로 이원화했다. 학급을 세우기 위한 시간과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또한, 학년이 중심이 되어 학교의 가치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학년 가치와 실현방향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학기마다 평가회와 안전중심 전교직원회의, 교사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연수를 통해 교사의 마인드와 역량 신장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학생의 주인의식과 자치역량을 위한 장도 다양하게 열어놓고 있으며, 학부모와의 교육 마인드와 소통의 장을 위해서도 재정이나 공간, 협력행사 등의 길을 제안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활동으로 유의미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특히 올해는 학교폭력예방과 공동체 구축활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평화감수성 훈련을 학부모가 배우고 참여하고 있으며 공동 진행자로서 기회도 갖고자 계획하고 있다.

2. 관계회복 프로세스 운영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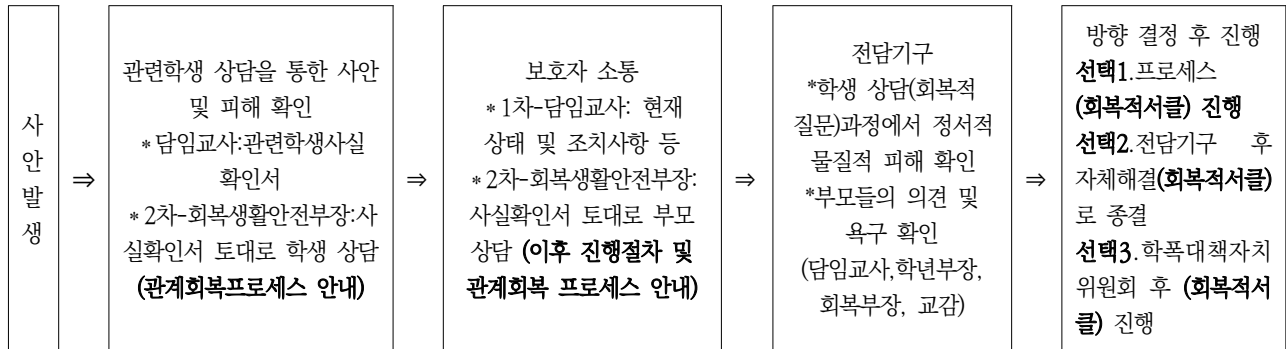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관계회복 프로세스가 중요해지고 있다. 잘못을 관계 단절로 보고 처벌이 아니라 피해를 확인하고 회복하는 교육의 장을 학교에 돌려주겠다는 의미이다. 물론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민원을 대비한 철저한 행정절차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교사가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해 갈 수 있는 교육 역량도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학생, 학부모, 교사의 가치 공유와 다양한 역량신장을 통해 공동체가 구축되었다고 해도 모든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대화를 선택하기보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사회문화 속에 놓여 있다. 눈에 띄는 싸움뿐만 아니라 존재감을 찾지 못하고 우울증이나 과도한 언행으로 관심을 충족하려는 학생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런 학생들의 모습은 교실 속에서 날것으로 드러날 경우가 많고 교사는 습관적으로 통제와 지시의 말과 절차로 이것을 잠재우려 한다. 그러나 이런 지시의 말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공동체를 돌아보는 교육은 일어나지 않는다. 결국 외면당한 학생과 상처받은 교사만 남는다. 이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선도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절차를 통해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는 '성장과 회복'을 경험하기보다 더 단단한 거리감과 관계거절을 겪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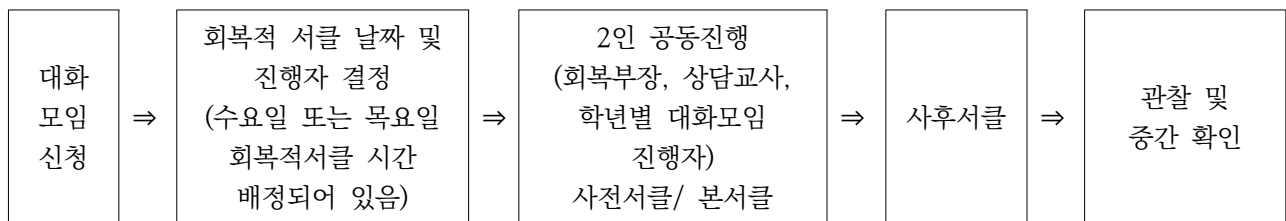
'참자아'와 책임의 회복으로 인한 공동체 돌봄은 어디에서 올까? 수많은 교육자와 심리학자는 존엄과 대화를 이야기한다. 어려움이 생기면 해를 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던 기존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단순히 그 행동을 반복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그런 나아감은 외압이 아니라 내면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날 때 가능하다. 그 자발성은 영향을 받은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모여 사람과 행위를 분리한 채 피해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된다. 해를 받은 사람이 안전하게 고통을 이야기하고 해를 준 사람이 두려움과 수치심 없이 그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을 때 공감의 생기고 공동체를 돌아볼 용기와 힘이 생긴다.

우리 학교의 공동체 돌봄을 위한 관계회복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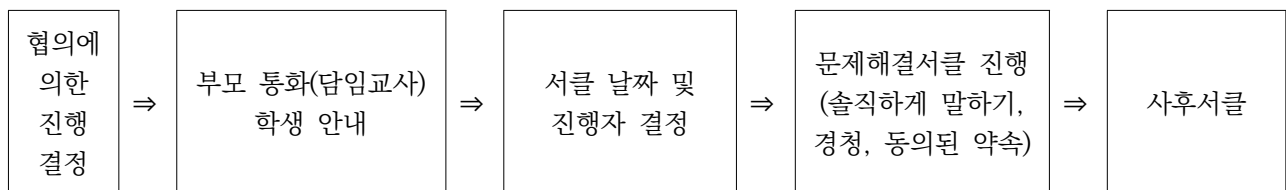
■ 싸움이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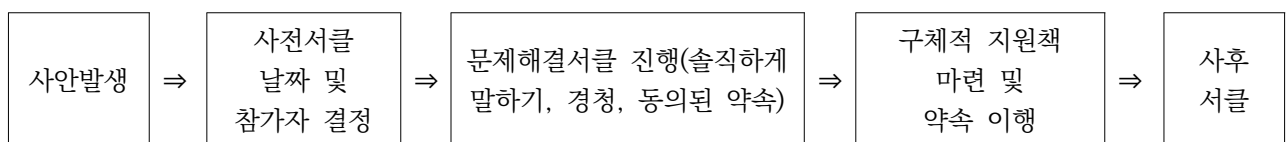
■ 관계의 어려움 발생 시



■ 학부모서클(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부모의 협력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 수업 중 어려움 발생 시



3. 회복적 서클 운영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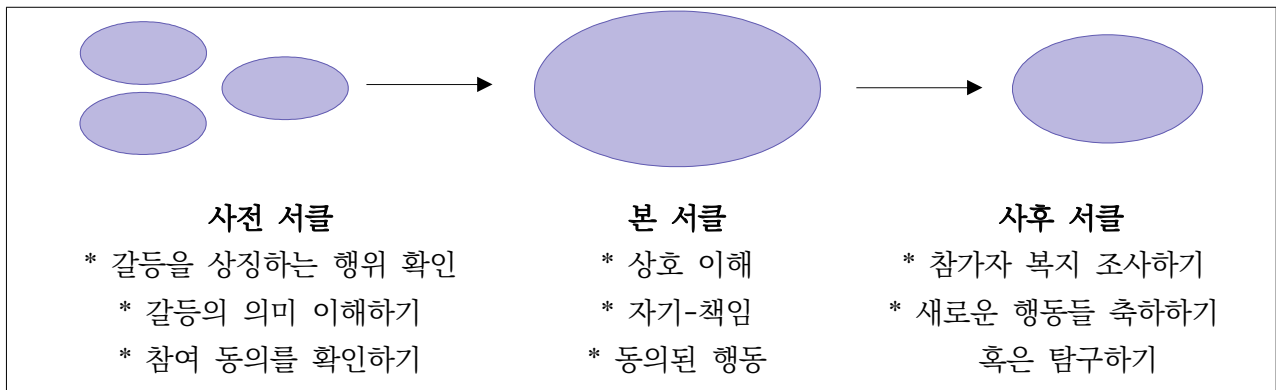
우리 학교는 관계회복 프로세스로 도미니크 바터의 ‘회복적 서클’을 기본 모델로 삼고 대화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그의 회복적 서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진행의 철학과 역할, 실제 진행 질문 등을 탐구하고 연습해야 한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그의 회복적 서클은 배우기만 하면 누구나 안전한 가운데 모두를 돌보며 대화를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 수 있다.

법이나 절차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내면의 선함과 지혜를 이끌어내어 모두 성장할 수 있는 회복적 서클이 학교, 가정, 직장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순서를 간략하게 보면,

| | |
|------------------|------------------|
| | |
| 회복적 서클 진행자 카드 겉면 | 회복적 서클 진행자 카드 내면 |



회복적 서클 참여 대상자는 당사자(해를 준 자, 해를 받은 자)와 영향을 받은 구성원(친구, 교사, 부모 등), 진행자(공동체 구성원 중)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당사자만의 초대로도 공감과 경청이 있는 대화가 가능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웃으며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하다.

회복적 서클 진행 사례를 간략하게 제시해 보겠다. 회복적 서클 진행에 있어서 모든 것은 비밀이 보장될 것이며, 어느 누구도 판단이나 평가하지 않는다는 안전한 공간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극히 일부만 보자. 도미니크 바터의 회복적 서클을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대화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하다. 적용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이다.

■ 사전서클

진행자 : 대화에 응해줘서 고마워. 선생님은 너희들에게 있었던 일로 힘들 것이라 짐작해.

지금 어때?

학생 1 : 억울해요.

진행자 : 억울한 마음이구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줄 수 있니?

학생 1 : 체육시간에 저는 재미있었는데 개가 왜 나한테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행자 : 너는 재미있었는데 그 친구가 너에게 화를 냈구나. 그 이유를 몰라서 답답했겠네.

- 후략 -

■ 본 서클

[대화 방식]

| | |
|-----|---|
| 진행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신은 일어난 일의 결과로 지금 어떠신지, 누구에게 말하고 싶으세요? - 지금 어떠신지 누구에게 말하고 싶으세요? - 무엇을 들었나요? - 그것이 맞나요? -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
|-----|---|

진행자 : 두 사람이 이렇게 용기를 내 줘서 고마워. 우리(진행자 두 명)는 너희들이 충분히 대화할 수 있도록 질문으로 도울 거야. 이 자리는 너희들이 솔직하게 말하고 마음으로 듣는 시간이야. 그러기 위해서 지켜주었으면 하는 대화방법이 있어. 상대의 이야기를 들은 대로 반복해 주는 거야. 서로 잘 듣고 있는지가 확인되면 더 솔직하게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거든. 어때? 괜찮을까? 더 궁금한 거 있니?

진행자 : 체육시간 끝나고 쉬는 시간에 있었던 일로 어떤지 먼저 이야기해 볼까? 그 일로 그때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지 누가 먼저 말해 볼까?

학생 1 : 그때는 억울하고 짜증났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진행자 : (학생2에게) 무엇을 들었니? 들은 것을 이야기해 줄래?

학생 2 : 억울하고 짜증났는데 지금은 괜찮대요.

- 중략 -

[대화 방식]

| | |
|-----|--|
| 진행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신이 선택한 그 행동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이었나요? 누구에게 말하고 싶으세요? (당신이 그 행동을 했을 때, 무엇이 중요했나요?) - 무엇을 들었나요? 들은 대로 말씀해주시겠어요? - 그것이 맞나요? -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
|-----|--|

진행자 : (학생1에게) OO는 XX의 목을 잡았잖아. 그때 왜 그랬는지 XX가 알아주었으면 하는 것이 있을까? 그리고(학생2에게) XX는 OO에게 ‘ ZZZ ’라고 했잖아. 그때 왜 그랬는지 OO가 알아주었으면 하는 것이 있니? 그때 너희들 각자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생각할 시간을 좀 줄게.



학생2 : 사실 제가 그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나요. 그런데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화가 많이 났었어요. 저는 승부욕이 있거든요. 연습이기는 하지만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짜증이 났었어요.

- 중략 -

학생1 : 욕을 들으니까 즐거웠던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저보다 더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 사실 저는 열심히 땀 시간도 없었어요. XX가 저를 금방 경기에서 빼버렸거든요. 하지만 친구들이 즐겁게 하니까 저도 즐거웠는데 욕을 갑자기 들으니 욕하게 됐어요.

[대화 방식]

| | |
|-----|--|
| 진행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 앞으로 어떻게 되기를 바라세요? - 당신은 무엇을 제안하고 싶으신가요? / 무엇을 요청하고 싶으신가요? - 당신은 무엇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 당신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습니까? |
|-----|--|

진행자 : 둘이 앞으로 어떻게 지내고 싶어?

학생1 : 이전처럼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진행자 : (학생2에게) XX는 어때? 너도 그걸 원해?

학생 2 : 네, 그날부터 그랬지만 사과하고 싶어요.

진행자 : 그래? 그럼, 친하게 지내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볼까? 먼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얘기해 볼까?

4. 회복적 서클을 제안하는 이유

회복적 서클을 하면 학폭이 줄어 드나는 질문을 여러 곳에서 받았다. 회복적 서클이 학폭 발생 건수를 줄이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이 대화모임은 우리가 삶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마련인 갈등을 통해 서로의 행동과 가치를 이해하고 성찰하며 자발적으로 책임지는 성장을 가져오는 데 목적이 있다. 더 나아가 삶의 행동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약속들을 합의하며 더 나은 관계를 기대하는 신뢰회복에 초점이 있는 것이다. 도미닉 바터는 ‘갈등은 성장과 배움의 기회’라고 말한다. 우리 학교에서 2012년도부터 회복적서클을 공동진행하고 있는 교사의 체감은 아주 중요한 발견을 담고 있다.

“매년 우리 아이들의 대화 태도나 내용이 매우 성숙해지고 있다. 이전에는 1학년들은 듣기가 정말 안돼서 애를 먹었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나아지곤 했는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학교가 안정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물론 아픈 아이들은 여전히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갈등을 대하는 모습은 내게 감동을 주기도 한다.”

우리 학교에서 2016년부터 대화모임을 진행하고 있는 진행자로서 볼 때, 회복적 서클은 공동체의 건강성을 스스로 찾아가는 좋은 프로세스이다. 참가자들은 안전한 대화 속에서 놀라운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기적을 경험하곤 한다.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 이 사회가 안전한 공간에서의 대화 기회를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는 훨씬 행복에 가까워질 것이라 믿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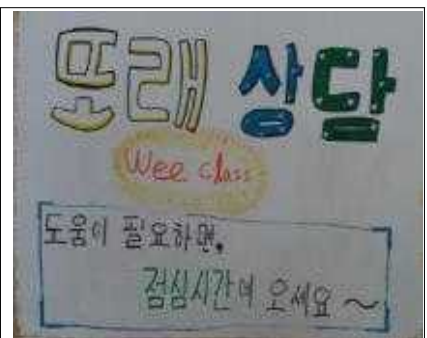
우리 아이들이 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되어도 자발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어른으로 자라지는 못할까봐 걱정될 때가 많다. 대화는 피해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려는 자발성을 이끌어낸다. 자신의 연행으로 발생한 고통을 듣고 함께 느낄 수 있을 때 그것을 회복하려는 자발성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잃어버렸던 책임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릴 때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수치심으로 인한 자신의 아픔을 숨긴 채 자기방어에만 급급한 굳은살이 베기기 전에 말이다. 자신 내면에 꿈틀대는 양심의 목소리를 듣도록, 상대의 고통을 듣도록 그리고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알도록 안전하고 존중하는 공간과 기회를 최대한 제공해야하는 것, 그것이 어른들의 몫이고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할 제대로 된 생활교육이 아닐까?

최근 대화 자체가 되지 않는 사람들,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느낀다. 매년 주변 교사나 친구들을 힘들게 하는 학생들이 있었지만 점점 그 수가 늘어나고 심각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사실 대화도 이제는 깊이 배워야 하는 과제인지도 모른다. 존중을 바탕으로 한 소통을 경험한 적이 없는 학생이라면 대화란 그저 자기주장에 가까울 때가 많다. 대화를 통해 관계 회복하는 성장과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한 아이, 한 아이를 돌보고 살피고 치료하는 학교의 협력과 더불어 가정의 협력이 절실하다. 그러나 가정에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부모의 동의가 절실한 학교에서는 피해를 주는 행동, 확산되고 깊어지는 피해, 공동체 위기라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선도위원회나 교권보호위원회 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아이의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시행도 필요해 보인다.



회복적 서클 교내 안내



또래조정(상담) 교내 홍보

**제목: 꽃길만 걸어 보아요.**

| | | | |
|-------|--|-------|-----------------|
| 학교명 | 부일여자중학교 | 영역 | 민주적 교육공동체 문화 형성 |
| 급 별 | 중학교 | 학년/과목 | 1-3학년/전 교과 |
| 세부과제 | 윤리적 생활공동체 | 작성자 | 교사 문정덕 |
| 주요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말 바꾸기 - 행복한 입학식, 즐거운 학부모 총회 - 생일 축하 잔치, 칭찬나무 키우기, 칭찬릴레이 - 우산 빌려주기 | | |

1. 상호 존중의 길을 열어 볼까요?**꽃길만 걸을 수 있도록**

우리 학교의 교훈은 「성실·경애」이다.

‘공경하고 사랑함’의 뜻을 지니고 있는 경애(敬愛)를 우리는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는 모두 상호 공경하며 사랑하고 있는가?

교훈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방도를 찾기 위해 그저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것들을 바꿔보기로 했다. 학교의 주인공인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 모두가 존중 받는 느낌을 갖게 하는 건 어떨까? 때가 되어 학교에 입학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우리 학교를 선택하고, 학생이기에 당연히 학교에서 생활하다가 귀가하며, 자녀의 교육을 의뢰했기에 학부모로서 1년에 한번 담임 선생님을 만나는, 그저 당연한 일상들에 대해 인식을 전환해 보았다. 다른 학교가 아닌 우리 학교를 선택해줘서 고맙고, 어렵고 힘든 생활 중에도 자녀를 지금까지 잘 보살펴 주고 성장하도록 부모의 도리를 다하고 있는 부모님이 감사하다고 생각하며 이제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해보기로 했다. 우리 학교에 소속된 교육가족 모두가 꽃길만 걸을 수 있도록.

2.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위한 꽃길 프로젝트, 이렇게 진행 했어요**인사말을 바꿔 볼까요?**

만났을 때 상대방에게 건네는 인사말은 ‘안녕하세요?’이지만 우리 학교는 오랫동안 효 교육의 하나로 학생은 교사에게 ‘효도하겠습니다.’를, 교사는 학생에게 ‘사랑합니다.’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는 학생이 교사에게 하는 인사말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인사말 공모제를 통해 다양한 생각이 나왔고, 그 중에서 교직원과 학부모의 의견을 참고하여 말하기 쉽고 좋은 인성을 심어줄 인사말로 ‘사랑합니다.’를 선택하여 2019학년도부터 시행하였다.

시행 초기에 2, 3학년은 늘 했던 인사말이 아니기에 옛것이 더 좋다고 했지만 이제 처음의 어색함이 사라지고 학생, 교직원 모두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인사말이 되어가고 있다.

| 구분 | 기간 | 대상자, 참가자 |
|-----------------|--------------------|----------|
| 안전 발의(교직원 토론회) | 2018. 7 | 교직원 |
| 새로운 인사말 공모 | 2018. 12 | 학생, 교직원 |
| 인사말 변경 찬반 의견 청취 | 2018. 12 ~ 2019. 2 | 교사, 학부모 |
| 시행 | 2019.3~ | 학생, 교사 |

처음 만남이 중요해요 - 행복한 입학식

인식을 전환하니 우리 학교를 선택해 입학한 신입생과 재학생들이 그리 고마울 수 없었다. 이 고마움을 그저 환영한다는 한마디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감동이 있는 만남에 대해 생각들을 모았다.

교문에서는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비담임교사와 학생회에서 등곶길 맞이를 하고, 교실에서는 학급담임교사가 학생을 맞이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첫 만남이라 다소 어색했지만 마음을 열고 빨리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입학식에서는 2, 3학년 선배들이 입학식 장소로 가는 통로에서 신입생을 환영하는 이벤트를 갖고, 입학식장에서는 작은 규모의 문화예술 공연도 진행하여 행복한 마음으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도록 했다.

학부모도 예외일 수 없어요. - 즐거운 학부모 총회

3월 학부모총회는 학부모와의 첫 만남으로 학교의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부모의 협조를 얻는 중요한 행사이다. 하지만 학부모는 담임교사와의 만남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에 만남의 장소를 색다르게 꾸며보기로 했다.

강당에서 진행되는 총회가 끝나면 상담 장소인 교실로 이동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좀 더 빨리 담임교사를 만나고 얘기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했다. 모두가 정면을 보는 구도에서 학급 중심의 원형 구도로 배치하여 담임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얼굴을 익히면서 총회를 진행하고, 이후 바로 그 자리에서 상담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했더니 보다 화기에애한 분위기에서 총회가 이루어졌으며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았다.



생일을 축하해요 - 생일 축하 잔치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축하받아 마땅한 일이다. 가정에서도 축하를 받겠지만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학교에서 친구들의 축하를 받는 것은 더없이 기쁜 일일 것이다. 가족이 아닌 누군가가 자신의 생일을 기억해주고 축하의 말 한마디 건네주는 것은 지금까지 의미 있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도 해 줄 테니까.

그래서 매달 정기적으로 생일축하의 날을 마련하여 학생회에서 방송으로 축하 행사를 이끌고 있으며 학급별로 특색 있는 축하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존감의 향상과 더불어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길러지고 있으며 친구간의 우애를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대를 칭찬 합니다 - 칭찬나무 키우기, 칭찬릴레이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학급활동을 하면서 작게나마 선한 행동을 함으로써 급우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이는 칭찬받을 일이다. 칭찬에 궁색하지 않고 친구의 장점과 선행을 찾아 서로 칭찬함으로써 학생의 자긍심을 높이고 선한 학교문화를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학급별 칭찬나무에는 교사가 학생에 대해 칭찬할 점을 발견하여 칭찬 내용을 적은 칭찬스티커를 붙였고, 이를 선행상 추천의 자료로 삼았다. 학생들 간에는 칭찬할 점을 편지지에 적어 학년별 사연함에 넣으면 방송부가 이를 수합하여 점심시간에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갑작스런 비, 걱정 말아요 - 우산을 빌려 드립니다.

요즘엔 맞벌이 가정이 대부분이다. 부모 모두 자녀보다 일찍 출근하고, 퇴근은 당연히 자녀보다 늦다. 아침에는 멀쩡하게 맑았던 날이 하교 시에 갑자기 비가 내리면 직장에 있는 부모는 우산 없는 자녀 걱정으로 한숨이 나오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 이런 부모의 마음을 인지하고 학교에서는 우산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산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비 맞고 가지 말라고 따뜻한 부모의 마음과 함께 우산을 빌려준다. 관리의 어려움이 제기 되었으나 학생들의 접근이 쉬운 1층의 놀품누리실에 장소를 마련하고, 복지사가 관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하는 학생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

| | | |
|---|--|---|
|  |  |  |
| <p>학급별 칭찬나무 키우기</p> | <p>칭찬 릴레이 사연</p> | <p>우산을 빌려드려요</p> |



교문에서 신입생과 재학생 환영(2019.3.2.)



학급에서 신입생 맞이(2019.3.2.)



학부모 총회(2019.3.21.)



학급별 생일축하

3. 운영 시 어려움은 이렇게 극복해요.

부모의 마음으로

맞벌이 가정이 많은 이 시대에 교육기관인 학교는 교육과 더불어 돌봄의 기능까지도 일정부담 담당하게 되었다. 한없이 귀하고 사랑스런 자녀를 교육기관에 보내놓고 친구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학교생활 등을 늘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읽고 그 빈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였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의 적은 노력이 학생에게는 많은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음을 알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생각을 나누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시행착오도 있지만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다면 모두가 만족하는 프로그램이 되리라 본다.

4. 꽃길 프로젝트는 자람이 되었어요.

우리 학교가 좋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아침에 일어나 등교하고 일과를 마친 후 하교하는 일상이 반복되는 중에 신선한 프로그램은 등교를 설레게 한다. 더구나 그것이 오롯이 나를 위한 행사라면 기쁨은 배가된다. 학교에 가도 나를 인정해주고 챙겨주는 부모 같은 선생님이 있고, 함께 기



배해주는 친구가 있으니 학교는 참 편안한 곳이다. 생일에 큰 의미를 못 느끼다가 친구의 진심어린 축하 글에 감동받고, 자신의 존재감을 깨닫고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에 감사하게 되면서 자존감이 많이 향상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배려 받고 존중 받는 경험이 상대를 이해하는 큰마음을 갖는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정서적으로 성장하게 해준 학교가 자랑스럽고 좋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학생들이 참 예쁘다.

5. 마치며

가벼이 지나쳤던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힘을 실어준 관리자의 마인드가 큰 동력이 된 꽃길 프로젝트이다. 밑그림에 디자인을 더하고 색을 입히는 과정에서 여러 분들의 협조가 필요했고, 모두들 흔쾌히, 그리고 기쁘게 동참해 주었다. 덕분에 학생들과 학부모의 교육만족도가 높아졌으며 교육가족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었다. 꽃길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발전된 모습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다.

제목: 자치는 변화를 만드는 힘

| | | | |
|------|--|-------|-----------------|
| 학교명 | 명현중학교 | 중점과제 | 민주적 교육공동체 문화 형성 |
| 급 별 | 중학교 | 학년/과목 | 3학년/도덕 |
| 세부과제 | 윤리적 생활공동체 | 작성자 | 교사 김성희 |
| 주요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클 회의로 만들어가는 학급 자치 - 개별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학급 문화 | | |

1. 학급 자치와 서클

회의는 개인과 공동체를 연결해주는 대화의 공간

경력이 늘어날수록 그동안의 여러 가지 교육 활동 중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행복배움학교 근무 2년 차인 올해에는 더욱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쓴 게 ‘학급 자치’이다. 자치 실현을 위해 학급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결정해야 할 일이 생기면 ‘서클’(회복적 생활교육의 방식으로 구조화된 소통 방법)로 회의를 하였다.

학급의 모든 문제를 회의한 것은 아니지만 서클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한 것은 학급의 원활한 의사소통 구조와 이해와 존중의 문화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다. 지금까지 해본 서클 회의 중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어떻게 자치와 학급 문화를 만들어 갔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2. 학급 자치의 문을 열어 준 서클 회의

모두가 동의하는 학급 약속 만들기 서클

4월에 우리 반이 좋은 반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약속 1가지를 정하는 서클을 진행하였다. 아이들은 둥글게 둘러앉아 먼저 몸 풀기 게임을 하고 우리 반이 지금보다 더 좋은 반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포스트잇에 썼다.

자기가 쓴 내용을 이야기한 후 원의 중앙으로 나가 교실 바닥의 모뎀 칠판에 포스트잇을 붙였다. 그리고 가장 공감이 되는 내용에 스티커 투표를 하고 가장 스티커가 많은 의견을 하나 선정하여 약속으로 정하였다.

이 학급 약속 만들기 서클은 3학년 각반 도덕 시간에 진행하였고 각 반에서 정한 약속을 중앙 통로에 1학기 내내 게시하였다.

〈모두가 동의한 3학년 학급 약속〉

3학년 각 반 도덕 시간에 모두가 의견을 내고 동의한 학급 약속을 정하였습니다.
 약속을 만든 이유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행동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약속은 다른 사람이 정해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정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약속을 존중하고 서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 3학년 1반- 수업시간에 떠들지 말고 모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 3학년 2반- 먼저 인사하고 말 걸어도 손절하지 말자.
- 3학년 3반- 친구 마음이 상하지 않게 고운 말을 사용하자.
- 3학년 4반- 빠꾸 없이 친하게 지내자.
- 3학년 5반- 3초 역지사지(易地思之)
- 3학년 6반- 서로 도움이 되는 친구가 되자.
- 3학년 7반- 친구끼리 예의를 지키고 무시하지 말자.
- 3학년 8반-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 3학년 9반- 남녀구분 없이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함께 놀자.

3학년 복도에 게시한 내용



포스트잇에 의견 적기



공감 가는 내용에 스티커 투표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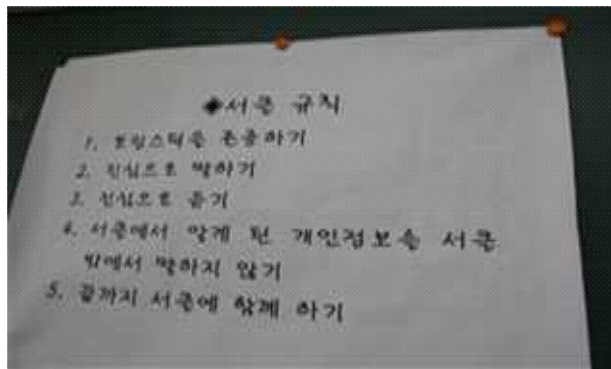
서로의 취향과 생각을 존중하게 된 단합대회 서클

5월에는 단합대회를 주제로 서클 회의를 하였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마음이 급한 아이들은 다음 주에 단합대회를 하기로 정하고 안 되는 날을 돌아가며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24명 모두 만족하는 날이 없자 교실에는 긴장감이 돌았다. 그때 누군가 안 되는 이유를 들어보자고 했는데 동생을 돌보아야 한다, 공부방 수업이 있다, 친구들과 생일 파티가 있다 등이었다. 이유를 듣던 아이들은 하나 둘 양보하기 시작했다. 자기는 동생을 돌보러 좀 일찍 집에 가면 되니 많은 아이들이 되는 날 하자, 생일 파티를 단합대회 장소와 같은 곳에서 하겠다, 공부방 수업 날짜를 바꾸겠다고 해서 모두가 만족스러운 날짜를 정했다.

다음은 단합대회에서 무엇을 먹을지를 정했다. 아이들은 모두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말했는데 삼겹살이 가장 많이 나왔다. 삼겹살을 먹는데 어려움이 있는 점을 이야기하니 돼지고기를 먹지 못한다는 아이들이 여러 명 있었다. 그러자 소고기를 먹지 못하는 아이들도 이

야기를 하였고 결국 부대찌개로 정하였다. 고기를 먹지 않거나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도 부대찌개는 모두 흔쾌히 동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대찌개를 먹고 무엇을 할지를 논의하였는데 노래방에 가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노래방에 가는 것에 대해 돌아가며 다시 이야기하니 주로 조용한 아이들이 노래방에 가면 끼리끼리 놀거나 몇몇 사람이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다며 다 같이 즐기는 것을 하자고 했고 몇 번의 조율 끝에 볼링장에 가기로 했다.



서클 회의를 하기 전에 규칙 살펴보기



단합대회를 주제로 한 서클 회의



모두가 동의한 부대찌개



다 같이 즐겼던 볼링






최고 점수를 내고 기뻐하는 아이

점심시간 교실 컴퓨터 사용에 대한 토론 서클

어느 날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교실 컴퓨터를 사용하고 싶다고 하였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 보다는 이 일이 자치의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회의를 해보자고 하였다. 회의 결과 아이들은 담당자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 음악을 듣기로 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만에 약속이 사라져 도덕 시간을 활용하여 다시 이 문제를 토론하였다. 컴퓨터 사용에 대해 각자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정하고 근거와 자료를 준비한 후 토론을 하였다. 그리고 그다음 시간에는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리하였다.



| | | |
|---|--|---|
|  |  |  |
| 컴퓨터 사용에 반대 입장 제목-청소년기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 | 컴퓨터 사용에 찬성 입장 제목-학교 시간 행복을 지켜주는 컴퓨터 | 토론에서 나온 친구들 의견 정리 |

3. 자치를 통한 아이들의 변화와 어려움

개인의 문제를 우리들의 문제로 인식

아이들은 여러 번 서클 회의를 통해 학급의 문제를 자신과 연결하게 되었다. 얼마 전 학급에서 지갑이 없어져 긴급으로 서클 회의를 했는데 아이들은 그 문제가 학급에 끼친 가장 큰 영향이 우리끼리의 신뢰를 깨뜨린 것이라고 했다. 개인의 문제를 우리들의 문제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인식의 변화는 회의와 자치활동을 통해 공동체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자기 의견을 말했을 때 생기는 책임감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함께 결정했을 때 그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 단합대회가 그였다. 친구가 없어 부적응을 보이는 아이가 회의에 참석했었는데 단합대회를 하던 날 늦게라도 학교에 왔다. 자기가 회의에서 의견을 말했기 때문에 왔다고 친구들과 어울려 볼링을 쳤다. 내가 전화하고 상담하는 것보다 회의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한 것이 효과가 더 컸다. 공동체의 힘이 발휘되었기 때문이다.

소수의 의견을 들었을 때 생기는 이해와 존중

서클 회의에서 가장 좋은 것은 모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학급회의 방식은 목소리를 내는 아이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소수 의견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은 회의에서 누군가가 말했던 것처럼 소수 의견의 이유를 들어보는 것에서 출발한다. 소수의 의견과 그 이유를 듣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아이들은 자기 의견을 양보하려고 했고 그 후 조정과 타협이 이루어졌다. 이런 이해와 존중의 경험은 우정과 신뢰로 확장되었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구분과 조화의 어려움

아이들이 함께 정한 규칙을 모두 잘 지킨 것은 아니다. 특히 교실 컴퓨터에 대한 관리와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 공적인 물건에 대한 사적인 욕구를 약속에 의해 조절하고 절제하는 것이 힘들었다. 공공성에 대한 교육과 경험이 과제로 남는다.

자율성, 공공성, 연대성을 향해

학급의 모든 문제를 서클 회의로 논의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회의 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 또한 산만하거나 냉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면 서클은 그야말로 망하기 때문에 나의 판단으로 결정한 학급 일들도 있었다. 그러나 몇 차례 경험한 서클 회의는 학급 문제를 대하는 아이들의 태도를 많이 바꾸었다. 자기 의견을 말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태도가 차츰 좋아졌고 스스로 정하지 않은 규칙에는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바쁜 학교생활 가운데 자치를 만들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다. 하지만 아이들이 미래에 자율성과 공공성, 연대성을 가진 좋은 시민이 되는 것을 상상하며 서툴지만 자치와 존중의 학급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제목: 행복한 학교, 밥상머리 상담과 등교 맞이로 만들어요!**

| | | | |
|------|------------------------------------|-------|-----------------|
| 학교명 | 신흥여자중학교 | 중점과제 | 민주적 교육공동체 문화 형성 |
| 급 별 | 중학교 | 학년/과목 | 1-3학년 |
| 세부과제 | 윤리적 생활공동체 | 작성자 | 교사 서미영 |
| 주요내용 | - 사제동행 밥상머리 상담 - 행복한 등교 맞이 허그데이 | | |

1. 존중하고 배려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요!**1) 친구가 되는 방법 하나, 밥을 함께 먹어요!**

본교에서 실시하는 사제동행 밥상머리 상담은 방과후 편안한 분위기에서 담임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배려와 나눔의 덕목을 실천하는 인성교육의 기회로 삼고 있다. 이런 활동은 또래 관계 증진, 학교 적응력 향상, 담임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 학교폭력 및 자살 예방에 기여하고 나아가 소통과 참여의 경험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정신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2) 행복한 등교 맞이, 허그로 시작해요!

등교 맞이 허그데이를 실시함으로써 교사와 학생 간의 친밀감을 높이고 또래 친구들과의 허그를 통해 또래 간의 소통 능력과 공감 능력을 높여주도록 한다. 또한 등교맞이 행사를 통해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고 학생들이 모든 교육 활동에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이렇게 실천했어요.**1) 사제동행 밥상머리 상담**

담임교사가 3월 말에 계획을 세워 학급 학생들을 4개에서 6개 모둠 정도로 만들어 저녁 식사 자리를 이용한 상담을 통해 가정 및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고민이 있는 학생들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을 통하여 학부모 상담도 함께 실시하도록 하였다. 저녁 식사 종류는 모둠별로 학생들이 정하여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 프로그램명 | 세부 내용 | 연계/협력 |
|--|--|----------|
| 사제동행 밥상머리 교육 (담임 선생님과 저녁 먹기 상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2019.04.01.~2019.06.28. · 횟수: 학급별 운영 · 장소: 학교 인근 식당(또는 자율적으로 선택) · 인원: 전교생, 담임교사 18명 ·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임 선생님 및 친구들과 친해지기 - 학급응집력 향상을 위한 학급별 프로그램 기획 | 각 학년부 협조 |



1학년 밥상머리 상담



3학년 밥상머리 상담

2) 행복한 등교 맞이, 허그데이

교사는 매주 화요일에, 학생들은 희망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매주 목요일 허그데이 활동에 참여하여 친구들을 반갑게 맞아 주었으며 학생들의 경우에는 동물 캐릭터 복장이나 조끼를 착용하고 활동하게 하였다. 정문과 후문에 배너를 설치하고 허그데이를 홍보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허그데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부모 신청자를 받아 한 달에 한 번 허그데이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을 통한 친밀감이 형성되도록 하였다.

| 프로그램명 | 세부 내용 | | 활동일 |
|---|-----------|---|-----------|
| 행복한 등교맞이 허그데이 (08:20 ~ 08:35) | 교사 학부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2019.03.12.(화요일)~2019.12.17.(화요일) · 복장: 평상복 착용 · 순서: 1주(1, 2반 담임), 2주(3, 4반 담임), 3주(5, 6반 담임), 4주(비담임과 학부모) | 매주 화요일 |
| | 학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2019.03.14.(목요일)~2019.12.19.(목요일) · 복장: 동물 캐릭터 복장(동절기), 조끼(하절기) · 순서: 1주(1, 2반 희망자), 2주(3, 4반 희망자), 3주(5, 6반 희망자), 4주(포레 상담부) | 매주 목요일 |



교사 허그데이 활동



학부모 허그데이 활동

3. 유의사항

1) 사제동행 밥상머리 상담

학생들이 모둠을 구성할 때 소외되는 친구들이 나오지 않도록 학급 구성원들끼리 살펴가며 모둠을 짜도록 하였다. 밥상머리 식사 장소는 학생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귀찮게 여겨 가끔 학교로 배달해 먹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되도록 학교 밖에서 제대로 된 식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기도 했다.

2) 행복한 등교 맞이, 허그데이

허그데이 활동 특성상 신체 접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남교사의 경우는 허그 대신 손인사(하이파이브)로 대신하게 했으며 간혹 손 인사조차도 꺼려하는 학생들에게는 본교의 인사말(사랑합니다!)로 맞아 주었다.

4. 이렇게 변했어요.

1) 사제동행 밥상머리 상담으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토대를 만들었어요!

밥상머리 상담을 통해 담임 선생님과 학생 간의 친밀감을 높일 수 있었으며 기존의 학기 초 학생 상담이 가족 관계나 성적과 관련된 형식적인 상담이었다면 밥상머리 상담은 밥상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교사와 학생 간 진솔한 대화의 자리를 만들고 마음 속 이야기들도 꺼내 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 학급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친구들끼리도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공감하는 기회가 되어 1년 동안의 학급에서의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자리였다고 생각된다.

2) 행복한 등교 맞이로 정서적 유대감을 만들었어요!

등교 시간, 학생 지도 위주의 기존 방식을 탈피해 따뜻한 허그로 학생들을 맞이해 교사와 학생 간의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며 학생들도 또래 간의 친밀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었다. 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소통의 문화가 형성되는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또한, 긍정적인 정서를 함양하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능력과 심리적 안정감을 높일 수 있었다.

5. 마치며

친구가 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 함께 밥 먹기, 함께 자기, 대중목욕탕 가기! 그중에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인 함께 밥 먹기를 통해 교사와 학생 간, 학생 상호 간의 소통과 신뢰를 만드는 계기로 활용했으며 아침 등굣길에 익숙하게 보아 왔던 학생 복장 지도 대신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말과 포옹으로 하루를 열어 얼굴 찌푸리지 않고 반갑게 웃으면서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작은 발걸음이 되었기를 희망한다.

제목: 꿈을 향해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행복한 학교

| | | | |
|------|---|-------|-----------------|
| 학교명 | 관교여자중학교 | 중점과제 | 민주적 교육공동체 문화 형성 |
| 급 별 | 중학교 | 학년/과목 | 1-3학년 |
| 세부과제 | 윤리적 생활공동체 | 작성자 | 교사 문지정 |
| 주요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자치 활성화로 즐거운 학급분위기 조성 - 학생자치 활성화로 민주적 학교 운영 참여 - 사제동행 프로그램 운영으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 | |

1. 자율적인 학생자치활동의 필요성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행복한 학교, 학생자치가 만든다.

미래사회에서는 변화의 속도에 빠르게 대처하여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창의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 학생자치활동은 학생 스스로 주인이 되어 다양한 삶을 펼칠 수 있는 기본 공간으로,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다양한 의사표현이나 결정을 통해 학교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작은 민주주의를 스스로 실현해 나갈 수 있다.

2. 학생자치 활성화, 이렇게 실천했어요.

1) 학급자치 활성화로 즐거운 학급분위기 조성

가. 스스로 만들고 지키는 학급 생활 협약 정하기



- 학급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스스로 만들고 지키는 학급 생활 협약 정하기
- 구성원 상호간 행복을 위한 약속 뿐 아니라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나눔과 배려의 약속 실천

나. 학급별 따뜻한 아침 맞이



- 학급별로 스스로 따뜻한 아침맞이 이벤트를 주관하여 전교생이 함께 즐기는 등교 문화 조성

다. ‘넌 응원해’학급 사진 공모전



- 학급별로 주제에 맞는 사진을 찍어 파일로 제출 후 전시 → 최다 득표 학급에게 간식 시상
- 학급별 친목도모로 즐거운 학교 생활 만들기 분위기 조성

2) 학생자치 활성화로 민주적 학교 운영 참여

가. 낭독하라! 관교여중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100주년 기념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학생 및 교사가 학급별, 모둠별 등 자발적인 참여로 ‘독립 선언서’를 읽고 UCC로 제작하여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에 UCC를 시청하는 활동

나. 아름답고 바른 등굣길 ‘아등바등’



- 단정하게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에게 스티커를 배부, 10개를 모은 학생에게 선물 지급
- 칭찬을 통한 생활지도로 학생들이 스스로 규칙을 지키는 분위기 유도

다. 프리마켓 - 미혼모를 위한 기저귀 기부



- 학생회가 주관하여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로 자원순환을 위한 프리마켓 운영
- 프리마켓 수익금은 미혼모 시설에 기저귀 기부



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 - 위안부 배지 제작 및 판매



- 위안부 돕기 배지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2019.6.13.~7.10) → 중앙 현관에 게시하여 교직원 및 학생 투표로 진행 → 배지 판매(사전예약 및 현장판매 진행)→ 기부

마. 소리로 通하고 마음으로 습하는 행복하모니 Festival



- 합창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마음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화합과 소통의 바른 인성 함양
- 학생회 주관 사회자 오디션 실시 및 특별공연 진행

바. 공간을 디자인 하다 -미래교실 구축 의견 수렴 활동



- 미래교실 구축(3층간 및 가사실)을 위한 공간혁신 공모전 개최 및 의견 수렴 활동
- 학생의 주도적 참여 교육활동을 통해 학습과 놀이 및 휴식 등 균형 잡힌 삶의 공간으로서 학교 만들기

4) 사제동행 프로그램 운영으로 행복한 학교

가. 스승의 날 레드카펫 행사



- 학생회 주관으로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레드카펫에서 선생님들을 에스코트하는 코스프레 진행
- 학생회 자치 활동으로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 신뢰하는 학교 분위기 조성

나. 도란도란 모꼬지(나들이) - 1박2일 여행 스케치



| | | | | | | | | | | |
|----------|---|---------------|--------------------|---------------|---------------|--------------|---------------|---------------|--------------------|---------------|
| 운영 방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기간): 2019.7.19.(금) ~ 2019.7.20.(토) ◦ 장소: 학교에서 버스, 기차로 편도 3시간 이내 거리의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 대상: 전 학년(자율동아리 및 청소년 단체, 학급원 등 팀당 10명 이내) ◦ 지원금: 팀당 30만원 이내 교통비, 숙박비 차등 지원 ◦ 여행계획서 제출 편수와 계획서 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 팀 수와 지원금 변동 ◦ 심사 기준: 주제적합성(20), 참신한 아이디어(20), 준비성(20), 안전성(20), 구체성(20) | | | | | | | | | |
| 추진 일정 | 공모 발표 | 오리엔테 이션 | 계획서 제출 | 계획서 심사 | 선정 팀 발표및안내 | 수정계획서 제출 | 팀별 사전협의 | 안전 교육 | 모꼬지 활동 | 여행보고서 제출 |
| | 2019.6. 5 | 2019.6.1 0 | 2019.6.1 0~6.17 | 2019.6.1 9 | 2019.6.2 1 | 2019.7. 9 | 2019.7.1 0 | 2019.7.1 7 | 2019.7.1 9~7.20 | 2019.8.2 3 |
| 운영 결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 구성원의 자발적 활동으로 스스로 계획하고 탐구하여 실천하는 자기주도력, 문제해결력, 협동심을 길러 친구 간 우정을 다지고 신뢰와 존경의 돈독한 사제관계 형성 ◦ 함께하는 공동체 활동으로 협력체제 구축 및 체험활동을 통한 꿈, 끼 실현 | | | | | | | | | |

4. 학생자치활동으로 이렇게 변했어요.

- 가. 학기 초 학생들이 기획한 <학생회 모집 공고>를 통해 희망자를 모집하여 반장, 부반장, 희망학생으로 학생회를 구성하여 학교 행사를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다.
- 나. 리더십캠프의 프로그램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급회의 진행 방법, 학교 행사 운영 방안, 학급임원의 역할, 상담활동, 친교활동 등으로 운영하였다.
- 다. 학생회 주관의 다양한 행사 운영으로 학생들의 행사 참여율이 높아지고, 전교생의 의견 수렴을 위한 복도 투표를 진행하여 학교의 의사결정에 반영하였다.

5. 마치며

학교의 비전 「꿈을 향해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행복한 학교」가 되기 위한 필수조건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로 기존의 학교문화를 바꾸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학사행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쉼, 동아리, 회의 등의 공간 혁신과 활동을 위한 학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교사와 학생과의 신뢰와 상호작용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목: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동아리 활동

| | | | |
|------|--|-------|-----------------|
| 학교명 | 송도중학교 | 중점과제 | 민주적 교육공동체 문화 형성 |
| 급 별 | 중학교 | 학년/과목 | 전 학년/동아리 |
| 세부과제 | 윤리적 생활공동체 | 작성자 | 교사 손용만 |
| 주요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리 활동을 통한 자존감 향상 - 동아리 활동을 통한 학생 자치 능력 향상 - 자율 동아리 활성화를 통한 학교 생활 만족도 향상 | | |

1. 자율 동아리 활동의 필요성

가. 자신의 끼를 표출할 기회

학교 성적과 입시를 위한 학업 생활 속에서, 해방감을 갈구하는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의 끼와 흥미를 표출할 수 있는 문화적 주체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나. 학생 주도의 자율 동아리

그동안의 학생 동아리는 학생들의 희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동아리를 구성해서 주도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 학생 중심의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2. 자율 동아리 실천

가. 학생 구성

학교에서 일부 교사가 동아리를 개설하여 가입을 받던 기존 시스템에서 6인 이상의 학생이 모여 동아리를 구성하고 지도교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학교 시스템을 변화시켰다.

나. 자율 동아리 활동 시간 확보

방과 후에 진행되는 자율 동아리는 참석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문제를 파악하고 일과 중에 자율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점심식사 후의 시간을 추가하여 활동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다. 자율 동아리 구성 사례

| 연번 | 동아리명 | 분야 | 인원 | 대표 | 지도교사 | 활동시간 | 활동장소 |
|----|----------------------------|------|-----|-----|------|--------------|--------|
| 1 | SoftIcecream | 과학 | 19 | 강○○ | 김○○ | 월-금 | 컴퓨터실 |
| 2 | 로봇과학반 (S-ROBO) | 과학 | 16 | 강○○ | 노○○ | 2·4번째 토요일 | 과학실 |
| 3 | 무한상상메이커 (SII MAKER) | 과학 | 12 | 고○○ | 노○○ | 점심시간 | 과학실 |
| 4 | 송도FC | 스포츠 | 27 | 윤○○ | 배○○ | 화 | 운동장 |
| 5 | 유도반 | 스포츠 | 16 | 나○○ | 배○○ | 수 | 유도장 |
| 6 | 포레대장 놀이터 | 봉사 | 16 | 곽○○ | 이○○ | 목 | 1-6 교실 |
| 7 | DIY 뜨개질반 | 기타 | 6 | 장○○ | 임○○ | 화,목 | 2-1 교실 |
| 8 | 라운 | 음악 | 19 | 양○○ | 손○○ | 화-정기 수-강습 | 제1음악실 |
| 9 | 솔리언포레상담 | 봉사 | 26 | 최○○ | 이○○ | 월,수 | Wee클래스 |
| 10 | 영어보드게임반 | 학습 | 13 | 최○○ | 백○○ | 월 | 희망의샘터 |
| 11 | DRONE PLAY | 과학 | 8 | 장○○ | 김○○ | 월,금 | 제1수학실 |
| 12 | 송도 점프농구반 | 스포츠 | 8 | 송○○ | 문○○ | 수 | 체육관 |
| 13 | Stamp&History (우표역사동아리) | 학습 | 6 | 염○○ | 윤○○ | 화,목 | 2-5 교실 |
| 14 | 송도배드민턴 클럽 | 스포츠 | 10 | 이○○ | 윤○○ | 월,수 | 체육관 |
| 15 | 송곡 | 스포츠 | 13 | 강○○ | 김○○ | 화 | 체육관 |
| 16 | 친구 | 봉사 | 11 | 방○○ | 김○○ | 월, 금 | 3-6,외부 |
| 17 | 팝스 잉글리쉬 | 학습 | 8 | 오○○ | 박○○ | 수 | 제1영어교실 |
| 18 | 독서토론반 | 문학 | 12 | 김○○ | 김○○ | 수 | 도서관 |
| 19 | feel of music | 음악 | 7 | 김○○ | 강○○ | 월-금 | 제2음악실 |
| 20 | 양지소년단 (사서부)YJS | 문학 | 14 | 안○○ | 박○○ | 월-금 | 도서관 |
| 21 | 엘리트 농구반 | 스포츠 | 10 | 이○○ | 추○○ | 월-금 | 체육관 |
| 22 | 세계 건축탐방 | 미술 | 6 | 전○○ | 김○○ | 월-금 | 스마트교실 |
| 23 | 송도 YMCA | 봉사 | 9 | 강○○ | 강○○ | 금 | 영어실 |
| 24 | 큐브탐험 | 기타 | 6 | 최○○ | 이○○ | 화 | 수학실2 |
| 25 | YOUTUBE활용동아리 | 학습 | 6 | 박○○ | 민○○ | 월 | 영어실2 |
| 26 | 송도갤러리 | 미술 | 8 | 김○○ | 서○○ | 월-금 | 미술실 |
| 27 | 공부의 신 | 학습 | 8 | 손○○ | 구○○ | 월-금 | 3-3교실 |
| 28 | 은울탈춤 | 음악 | 17 | 유○○ | 강○○ | 금 | 동아리실 |
| 29 | 송도베이스볼 | 스포츠 | 19 | 곽○○ | 윤○○ | 화 | 운동장 |
| 30 | 송도피트니스 | 스포츠 | 10 | 권○○ | 김○○ | 화,목 | 체력단련실 |
| 31 | 브릭월드 | 미술 | 19 | 송○○ | 이○○ | 월-금 | 스마트교실 |
| 32 | 목공반 | 기타 | 9 | 황○○ | 김○○ | 수,목,토 | 공방(외부) |
| 33 | 기타반 | 음악 | 5 | 정○○ | 김○○ | 토 | 음악실 |
| | | 참여인원 | 399 | | 참여비율 | 136.6% | |



라. 학교장과의 간담회 진행

분기별로 1회씩 자율 동아리 대표 학생과 학교장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자율 동아리 활동의 결실물이나 건의 사항들을 수렴하여 학생들의 활동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마. 자율 동아리 발표회

자율 동아리 발표회(10/18 예정)를 통하여 학생들의 끼와 재능을 선보일 장을 마련하여 자존감을 키우고, 소통과 협력하는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축제를 진행합니다.

바. 자율 동아리 활동 사례

| | |
|---|--|
|  |  |
| 솔리언 또래상담 교문 캠페인 | 또래대장 놀이터 봉사활동 |
|  |  |
| 은율탈춤 | 세계 건축 탐방 |
|  |  |
| 큐브 탐험 | 라운 공연 |
|  |  |
| 송도베이스볼 준우승 기념 | DIY 뜨개질반 |

3. 자율 동아리 활동으로 인한 변화

가. 활력 있는 학교 분위기 조성

점심 동아리 활동 시간으로 활력 있는 학교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율이 향상되고 있다.

나. 학교생활 만족도 향상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끼를 발산할 기회가 생겨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되고 있으며, 자율적인 활동을 통해 자치 능력이 향상 되고 있다.

4. 앞으로의 방향

가. 동아리 활동 장소 및 시간 확보

각 동아리 활동 장소 및 활동 시간을 확보하여 자주적인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학교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나. 지도교사의 관심과 지원

학생들이 자주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도교사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것이 교사의 업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학교의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제목: 개별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있는 학교문화 조성

| | | | |
|------|---|-------|-----------------|
| 학교명 | 대인고등학교 | 중점과제 | 민주적 교육공동체 문화 형성 |
| 급 별 | 고등학교 | 학년/과목 | 전 학년 |
| 세부과제 | 윤리적 생활공동체 | 작성자 | 교사 신철 |
| 주요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학생 생활 규정 개정 -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대인 인권 주간 운영 -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공동체 생활협약 함께 만들기 | | |

1.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학생 생활 규정 개정은 왜 필요한가?

학생 · 학부모 · 교사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학교 규칙을 개정하여 학교 규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학교 규칙을 준수하는 문화를 형성한다.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학생 인권이 존중되도록 재개정한다.

학생 · 학부모 ·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들의 인격적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규제와 처벌보다는 자율과 책임 중심의 자치 규정으로 전환하여 바람직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도록 한다.

학생 생활 규정 제 · 개정 세부 절차

위원장(교감)을 포함하여 11인[학생 3명, 학부모 3명, 교사 5명(교감 · 학생부장 · 학년부장)]으로 구성한다.

학생 대표는 학생회에서, 학부모 대표는 학운위 및 학부모회에서, 교사 대표는 학생 지도 위원회에서 각 공동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 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 설문조사, 의견 수렴 등의 절차와 방법 결정
- 개정 시안 수립
- 학생 · 학부모 · 교사 대상 연수 및 홍보

2. 학생 생활 규정 개정, 이렇게 실천했어요.


학생 생활 규정 제·개정 절차

| 절차 | 추진내용 | 세부 추진내용 |
|------------------------------------|--|--|
| 학칙 제·개정 위원회 구성 과 활동 | 학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4월 26일) ↓ | ▶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 ▶ 학칙 제·개정 제반 사항 추진 |
| | 제·개정안 발의 (5월 22일) ↓ | ▶ 교육공동체의 발의 또는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이 있는 경우 |
| | 학생 등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5월 28일-31일) ↓ | ▶ 학급회의 및 학생총회 ▶ 설문조사, 스티커 붙이기 등 활용 |
| | 1차 시안 마련 (6월 12일) ↓ | ▶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초안 작성 |
| | 토론회 개최(필요시) ↓ | ▶ 초안의 취지와 주요 사항 안내 ▶ 의견수렴을 통한 개정안 작성 |
| | 최종 시안 마련 (6월 21일) ↓ | ▶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시안 마련 |
| 학교 운영 위원회 심의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7월 10일경) ↓ | ▶ 최종 시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 운영위원회 심의 후 안 확정 |
| 학칙 공포· 시행 | 학교장 결재 ↓ | ▶ 학교장 학칙 승인 |
| | 학칙 공포 및 정보 공시(8월 13일) ↓ | ▶ 학칙 공포 ▶ 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 발송 |
| | 학칙 안내 및 연수 실시 ↓ | ▶ 학교구성원 대상 규칙 안내 및 연수 ▶ 학교구성원의 규칙 준수 다짐 등 |
| | 적용 및 환류 | ▶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분 석 ▶ 학교구성원의 학칙 준수 및 실천 정도 평가 |



학생 생활 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가정통신문 활용 의견 수렴)

21세기를 주도하는 큰사람 어진 인물, 大仁은 새 시대를 열어갑니다.

| | | |
|---|----------------|---|
|  | <h1>가정통신문</h1>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446 http://daein.icehs.kr Tel : (032) 562-0000 Fax : (032) 562-0000 문의 : 학생부 |
|---|----------------|---|

[학교생활규정 개정 의견 수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본교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학교생활규정 개정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대인고등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309번 게시물)에 탑재되어 있는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을 5월 31일(금)까지 학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향후 학교생활규정개정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학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한 후, 2학기부터 적용합니다. 학부모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019년 5월 27일


대인고등학교장

학교생활규정 개정 의견 수렴(부족시 뒷면 활용)

| ()학년 ()반 | 학생 이름 () | (서명) / 학부모 성명 : () | (서명) |
|------------|-----------|---------------------|------|
| | 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 학생 의견 | | | |
| 학부모 의견 | | | |

학생 생활 규정 개정 공포 및 시행 안내 가정통신문

 21세기를 주도하는 큰사람 어진 인물, 大仁은 새 시대를 열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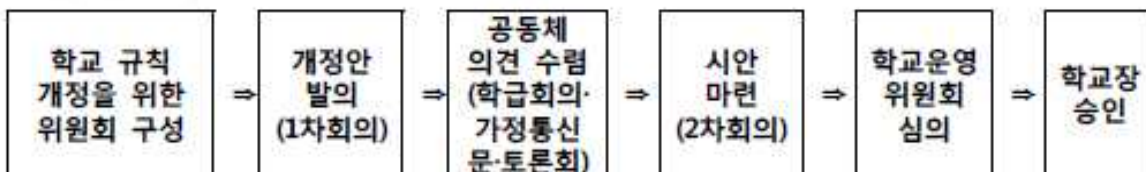
| | | |
|---|----------------|---|
|  | <h1>가정통신문</h1>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446 http://daein.icehs.kr Tel : (032) 562-0000 Fax : (032) 562-0000 문의 : 학생부 |
|---|----------------|---|

[학교생활규정 개정 공포 및 시행]

학생생활규정을 학생·학부모·교사의 의견을 듣고 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하오니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개정된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학생들은 학생생활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생활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 관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1항

□ 개정의 절차 :



□ 주요 개정 사항 (개정된 규정 및 신구문 대조표는 학교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 제3장 복장 및 용의 규정
- 제4장 소지품 검사(신설)
- 제5장 징계기준
- 제6장 학생회 규정

※ 기타 변경된 규정들은 단순 문구 또는 지침 및 규정의 변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학교 규칙 개정 위원회의 협의를 통하여 변경하였음.

□ 개정된 규정의 적용 : 2학기 개학일인 2019. 8. 13. (화) 이전까지는 계도기간으로 두며, 2019. 8. 13(화) 개학과 동시에 적용할 예정임.

□ 규정 탑재 : 학교 홈페이지 및 학교알리미(예정)

2019년 7월 17일

대인고등학교장



3.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대인 인권 주간 운영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의 목적

학교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한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줄이고,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며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한다.


〈대인 인권 주간 프로그램〉

| 10월 14일 월요일 | 10월 15일 화요일 | 10월 16일 수요일 | 10월 17일 목요일 |
|--|---|--|--|
| 〈영화, 학교 가다!〉 「안녕, 미누」 | 〈인권 특강〉 인간의 다양성과 인권 | 〈저자 초청 강연〉 새로운 사회를 위한 상상, 녹색 기본소득 | 〈인권 캠페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 차별 금지 항목 알리기 |
| 인천영상위원회 ① 영화 상영 : 90분 ② 영화 평론가의 해설 및 질의응답 : 30분 | 김지학 소장 한국다양성연구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 | 강상구 작가 『걷기만 하면 돼』 저자 | |
| 오후 6시 40분 ~ 9시 | 오후 6시 40분 ~ 8시 40분 | 오후 6시 40분 ~ 8시 40분 | 등교 시간, 점심시간 |

〈대인 인권 주간 학생 활동지〉

★ 우리는 대인의 인권 수호천사! ★

〈영화, 학교 가다!〉 안녕, 미누 (Coming to You, Minu)



2018년 제10회 DMZ국제다문화영화제 국제작인 지혜원 감독의 '안녕, 미누'는 1992년부터 2009년까지 17년간 한국에서 생활하고도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강제추방 당한 그의 삶을 담았다. 이후 고국에서 사회적 기압으로 지쳐 있던 뒤 8년 만에 한국 땅을 다시 밟았지만, 입국심사관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 지 감독은 이러한 지노드 육한 씨의 삶을 통해 한국 사회 속 이주민의 현실을 직시하며 공동과 책임감을 전달한다.
- 2018.10.13. ○○일보

〈영화 해설 및 질의응답 제도〉

1. [가이드]에 맞는 장면 & 대사
영화를 보며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대사 한 가지를 쓰고, 그 원문도 적어주세요.

2. [영화와 자신]을 연결 짓기
영화 내용과 연관된 자신의 경험을 적어주세요.
영화를 보며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적어도 좋습니다.

2019 대인 인권 주간

학번 : _____
이름 : _____

★ 우리는 대인의 인권 수호천사! ★

〈인권 특강〉 인간의 다양성과 인권

1. 강사 :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 소장님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 서울시 인권교육 자문위원)

〈제목〉

2. [가이드]에 맞는 내용
강의를 들으며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 한 가지를 쓰고, 그 원문도 적어주세요.

3. [내용]에 맞게 쓴 내용
강의를 들으며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한 가지 이상 적어주세요.

4. [영화와 자신]을 연결 짓기
강의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적어주세요.
강의를 들으며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적어도 좋습니다.

★ 작성한 소감문을 요약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자율활동 쪽지 사형에 기록합니다. ★

2019 대인 인권 주간

학번 : _____
이름 : _____

★ 우리는 대인의 인권 수호천사! ★

〈저자 초청 강연〉 새로운 사회를 위한 상상, 녹색 기본소득

1. 강사 : 강상구 작가님 (저서 : 『걷기만 하면 돼』,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살아남기』 등)

〈제목〉

2. [가이드]에 맞는 내용
강의를 들으며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 한 가지를 쓰고, 그 원문도 적어주세요.

3. [내용]에 맞게 쓴 내용
강의를 들으며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한 가지 이상 적어주세요.

4. [영화와 자신]을 연결 짓기
강의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적어주세요.
강의를 들으며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적어도 좋습니다.

★ 작성한 소감문을 요약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자율활동 쪽지 사형에 기록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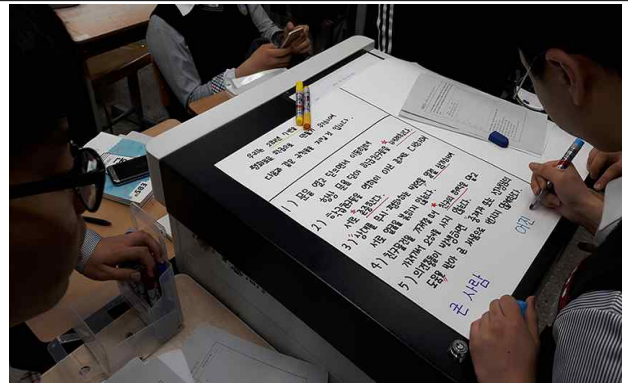
2019 대인 인권 주간

학번 : _____
이름 :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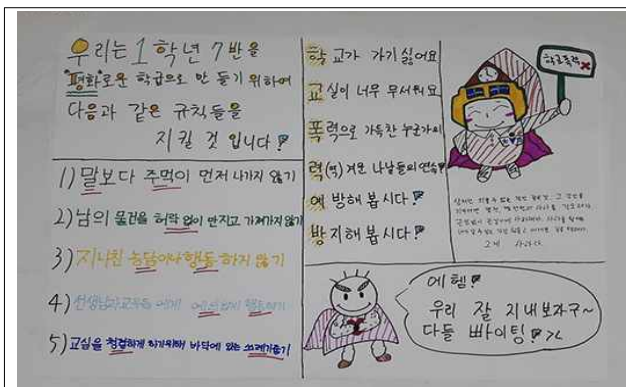
4.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공동체 생활협약 함께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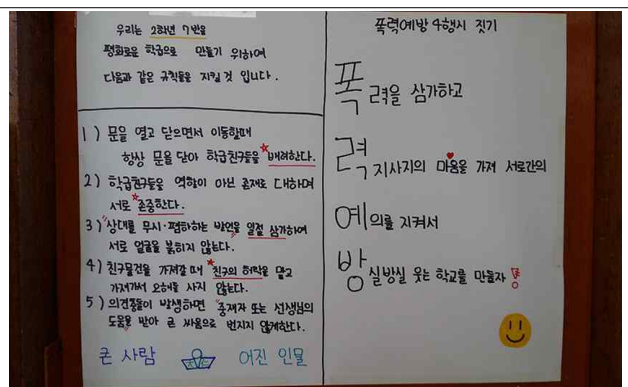
평화 규칙 만들기 활동



학급 안내문 만들기 활동



학급 규칙(1학년)



학급 규칙(2학년)

5. 개별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있는 학교문화 조성 시 유의사항

개별성과 다양성은 다름에 대한 인정일 뿐,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개별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기저에는, 절대적인 이해와 존중이 아니라는 사실을 학생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

절대적인 이해와 존중을 바랄 경우에는 민주주의의 근간과 교실에서의 협력적 관계에도 금이 갈 수 있음을 주지해야만 한다.

개별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은, 인간 자체에 대한 존중에 기인한다는 사실에 방점을 두면, 인권 교육과 공동체 생활 교육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

6. 개별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있는 학교문화 조성으로 이렇게 변했어요.

이해와 존중은 새로운 이해와 존중을 불러온다.

2학기에 들어서 자율 동아리로 쿼어 동아리를 구성하려는 시도가 일어나기도 했던 모습



(실제 구성 및 활동까지 이어지지 않는 못함)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새로운 이해와 존중을 불러왔음을 알려준다.

1학기까지 학교 폭력 및 왕따 등의 학생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 및 학교 폭력 설문조사에서 학교 폭력에 관한 내용이 거의 없었던 것은 학교의 여러 프로그램과 문화 구축에 기인한 바 크다.

7. 마치며

남학교에서 인권 교육은 상대적으로 수월한 부분이 있지만, 성 소수자 및 페미니즘 교육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은 갈 길이 멀다. 학교 외부 프로그램과 내부 프로그램이 상호 융합하여 교과와 생활의 양 측면에서 협업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학생 생활 규정 개정, 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개정한 그 규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생들로 구성된 학생자치법정을 전체 학교에 필수적으로 운영하고 학생부는 학생의 자치 활동을 돕는 역할로 자리바꿈을 할 수 있어야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해와 존중이 있는 학교문화가 조성됐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19 행복배움학교 실천사례

- 빛깔 있는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제목: 삶의 힘이 자라는 통합교육과정 운영 사례

| | | | |
|-------|--|-------|-------------|
| 학교명 | 신흥중학교 | 영역 |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
| 급 별 | 중학교 | 학년/과목 | 1-2학년/전 교과 |
| 세부과제 | 교육과정 편성의 다양화 | 작성자 | 교사 이상기 |
| 주요 내용 | - 1학년 주제통합수업 사례 : 말로도 때리지 마세요! (연극제) - 2학년 주제통합수업 사례 : 느려도 괜찮아! (마라톤) | | |

1. 통합 교육과정 운영, 왜 필요할까?

미래사회는 통합적 능력을 요구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AI,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이 보다 일상화되면서 지식을 축적하고 회생하는 능력 보다 기존 지식을 적용·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또한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는 사회가 전문화, 고도화, 복잡화되면서 더욱 복잡하고 다층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편적 지식을 암기하여 재생하는 능력이 아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 교육도 학생들에게 이러한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돼야 한다. 그 방안으로 하나의 현상을 학문적 논리에 따라 분절적으로 가르쳐 오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주제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가르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이런 통합 수업은 하나의 현상을 다양한 관점으로 조명하고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미래 사회를 살아갈 역량을 습득해 도움이 될 것이다.

종이교육과정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학교마다 학교 비전 및 교육 목표를 살펴보면 ‘창의’, ‘배움’, ‘융합’, ‘글로벌’, ‘인재’, ‘인성’ 등 멋진 표현들을 써서 화려하게 표현해 놓을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찬란한 문구만큼 교육목표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비전과 목표가 문서상에만 남아 있고 교육 현장에서는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제통합수업은 학교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핵심 가치를 선정하고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과가 연결되어 수업이 실시된다. 따라서 주제통합수업은 학교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가 문서상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이 된다.

2. 통합 교육과정, 이렇게 실천했어요.

시작은 2월 워크숍부터

본교에서는 2월에 새 학년 준비 워크숍이 열린다. 기존 교사뿐만 아니라 전임교사, 신규 발령 교사 등 수업을 담당하는 모든 구성원이 모여 새 학년 교육과정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대략적인 윤곽을 그린다. 교과별로 모여 자신이 담당할 과목에 대해 핵심 내용을 추출하고 평가 계획을 포스트잇에 적어 전지에 부착한다. 정리된 내용은 교과 대표 교사가 전체 교사에게 발표하여 공유한다. 또한 다른 교과와의 통합 및 연계를 위해 일정 시간 벽면에 부착해 둔다.

그 후, 타 교과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제통합수업 템플릿 작성 및 교과연계 방안에 대해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한다. 기본적인 가안(假案)이 마련되면 학기 초 학년별 협의회 시간에 구체적인 안을 확정짓고, 그 뒤 수시로 모여 실제 운영 방안을 다듬어 나간다. 통합 교육과정의 밑그림은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 이미 만들어진다는.



〈교과 협의회를 통한 핵심내용추출〉



〈학년별 교육과정 내용 발표〉



〈주제통합수업 템플릿 작성〉

주제통합수업은 주제 중심으로 실시

주제통합수업은 특정 주제를 실현하기 위해 학년별로 실시된다. 본교의 존중과 배려(1학년), 책임과 질서(2학년), 배움과 성장(3학년)의 핵심 가치를 확인하고 학년 교과담당 교사들이 모여 이에 적합한 주제를 정한 뒤 통합 활동을 구상한다.

■ 1학년 주제통합수업

이번 주제 선정은 요즘 아이들의 언어 습관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선생님들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갈수록 일상 언어생활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욕설을 사용하고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언어 사용이 빈번하게 늘어가는 현실을 학년 차원에서 수업으로 지도해 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말로도 때리지 마세요.’라는 1학년 주제통합수업을 탄생할 수 있었다. 아래는 양식은 2월 워크숍 당시 작성한 템플릿을 정리한 것이다.

(1)학년 주제통합수업 템플릿



이번 주제통합수업의 통합 활동은 '연극'으로 정했다. 작년에 영화 만들기에 대한 반응이 좋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실제로 표현할 수 있는 활동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과감하게 연극으로 선택을 하였다. 통합수업의 중심 과목은 국어과가 맡았고 연극대본 작성, 연극 연습 등을 실시했다. 사회과에서는 대중문화 속에 나타난 언어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비판하는 활동을 하였고, 과학과에서는 언어 사용에 따른 생물의 변화 실험, 미술과에서는 연극 공연을 위한 소품 만들기 활동을 하였다. 계획상으로 많은 과목들이 참여하기로 하였지만, 실제 협의를 진행해 가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으로 처음에 계획했던 모든 과목이 참여하지는 못했다. 다음은 실제 참여한 과목들을 정리한 표이다.

| 주제 | 시기 | 통합 교과 | 단원 | 교과 과제 | 통합 활동 |
|--------------------|---------------|-------|--------------|------------------------------|---------------------------|
| 말로도 때리지 마세요! | 5월 ~ 7월 | 국어 | 4. 연극과 매체 표현 | 연극 대본 작성, 연극 연습 | 연극 (마을 강사 자원 활용) |
| | | 과학 | 3. 생물의 다양성 | 언어 사용과 생물의 변화 실험 | |
| | | 사회 | 8. 문화의 이해 | 대중문화 속 불건전한 언어 사용의 심각성 파악 | |
| | | 미술 | 2. 표현하는 아름다움 | 연극 소품 작성 | |

1학년 남자 아이들을 데리고 연극을 준비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고 힘든 점도 있었지만, 선생님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다섯 반 모두 2팀씩, 총 1팀의 연극을 무대에 올릴 수 있었다. 연극 공연은 방학 직전 특정 날을 정하여 연극제 형식으로 4교시 동안 진행하였다. 부모님들도 초대하여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학년 주제통합수업

남학교의 특성상 학생들은 체육활동을 좋아한다. 그래서 본교에서는 이 주제통합수업을 4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전 연습은 학교에서 진행하고 실제 마라톤은 월미공원 측에 협조를 얻어 그곳에서 진행했다.

학생들이 사전 연습 과정을 힘들어했지만, 마라톤을 마치고 난 뒤에는 ‘해냈다’라는 성취감을 느꼈고, 수업 만족도가 높았다. 다음은 마라톤 수업을 실시하기 위해 2월 워크숍 때 작성한 템플릿이다.

2학년 주제통합 수업

느려도 괜찮아 시즌4 - pace maker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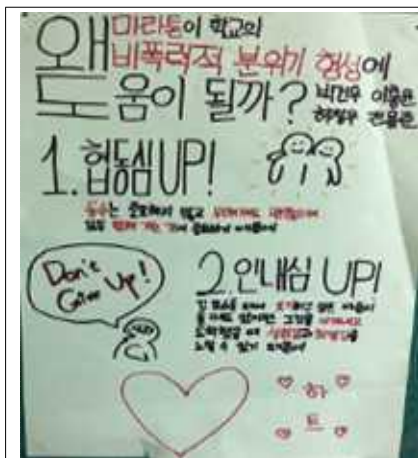
| 주제 | 느려도 괜찮아 시즌4 | | | | | | | |
|-------|--|---|---|--|---|---|---|--|
| 핵심 가치 | 책임과 질서 | | | | | | | |
| 목표 | 역사 세계사에 서... 마라톤의 기원과 한국 마라톤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다. | 가정 마라톤을 하기 위한 복장으로 알맞은 옷차림을 선택할 수 있다. | 음악 좋아 하는 음악을 통해 음악의 힘을 알수 있다. | 도덕 폭력을 예방하 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국어 마라톤 준비운동으 로 플래시몹을 하며 공감대화실 천 의지를 다질 수 있다. | 수학 자신의 마라톤 시간 및 거리를 이용하여 력(기울 기)을 구할 수 있다. | 체육 마라톤 을 통해 자기조 절능력 을 가질 수 있다 | 과학 세포 호흡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마라톤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
| 과제 | 마라톤의 기원과 마라톤의 역사 학습 | 상황에 맞는 옷차림 마라톤 복장 디자인해 보기 | 나의 음악플 레이리 스트 만들고 마라톤 을 하며 음악 감상 하기 | 마라 톤과 학교의 비폭 력적 분위기 형성과 의 관계... 생각해 보기 | 공감 언어사용 플래시몹을 준비하여 마라톤 당일 함께 추기 | 자신의 마라톤 시간 및 거리를 이용 하여 속력 (기울기) 구하기 | 아침 마라톤 훈련 참가 및 마라톤 대회 완주 | 에너지를 얻는 기관계 알기 |
| 통합 활동 | 마라톤 | | | | | | | |
| 과목 평가 | 역사 신문 만들기 수행 평가 반영 | 마라톤 에 어울리 는 복장 디자인 하기 수행평 가 반영 | 나의 음악보 고서 작성 수행 평가 반영 | . | 듣기 말하기 (공감 대화) 수행 평가 반영 | . | 아침 설천열 지 및 대회 참가 수행 평가 반영 | 2학기 수행평 가 함께 알하는 기관계 |

2학년 교과 담당 선생님들의 협조와 도움으로 마라톤 수업을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다음은 마라톤 수업에 참여한 교과들을 정리한 것이다.



| 주제 | 시기 | 통합 교과 | 단원 | 교과 과제 | 통합 활동 |
|----------|----|-------|----------------------|---|-------|
| 느려도 괜찮아! | 5월 | 가정 | 2. 옷차림과 의복 마련 | 마라톤에 알맞은 옷차림 파악 | 마라톤 |
| | | 역사 | 4. 지중해 세계의 통일 | 마라톤을 주제로 역사 신문 만들기 | |
| | | 도덕 | 3. 폭력의 문제 | 마라톤과 비폭력과의 관계 파악 | |
| | | 음악 | 4. 어울림을 표현하는 음악 | 나의 음악플레이리스트를 만들고 나의 음악적 성향 분석하기 | |
| | | 체육 | 2. 건강과 체력 관리 | 아침 마라톤 훈련 참가 및 수업 시간 타바타 훈련 참가, 마라톤 대회 완주 | |
| | | 수학 | 3. 일차함수의 그래프의 성질과 활용 | 속력을 구하고 그래프로 나타내기 | |
| | | 국어 | 3. 담화와 의사소통 | 공감의 언어 사용을 플래시몹으로 표현하기 | |

다음은 마라톤 수업 관련 교과 활동과 월미 공원에서 진행된 마라톤 대회의 당일 활동 모습이다.



〈도덕과 마라톤과 비폭력 수업〉



〈역사과 마라톤 신문〉



〈음악과 마라톤 음악 선곡〉



〈체육과 사전 체력향상 트레이닝〉



〈국어과 플래시몹〉



〈마라톤 경주〉

학기(년)말 평가회로 운영 방안 업그레이드

주제통합수업을 5년 째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숙하고 보완할 점이 많다. 개선해야 할 부분은 학년 말 교육활동 평가회를 통해 찾아내고 다음 해에 수정·발전시켜 나간다. 만족도와 평가가 높았던 통합수업은 버전을 달리하여 완성도를 높여 나간다. 특히 운영 방식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교사, 학생,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통합수업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3. 통합 교육과정 재구성, 이런 점은 유의해요

학사 일정 중 통합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자

주제통합수업을 운영하면서 아쉬운 점으로 많이 이야기 나온 것이 2월 워크숍만으로는 협의회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2월에 세운 계획은 일정상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완성도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또한 학교는 상황에 따라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어 계획을 변경할 일도 생긴다. 따라서 추후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운영자는 학사 일정을 계획할 때 학년별 시간을 확보하여 학년 교과 담당교사들이 협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학생의 요구를 파악하고 반영하자

교사들의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의 반응은 냉담할 수 있다. 학생들의 요구와 필요를 생각하지 못하고 교사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한 결과이다. 매번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없지만, 주제통합수업 실시 후 만족도 조사 및 설문을 통해 학생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주의 깊게 파악하고 학생들의 필요에 맞게 주제통합수업을 운영해야 한다. 학생들의 보다 심도 깊은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면, 2학기 2회교사가 끝난 후 교육과정 취약시기에 주제통합수업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도 가져볼 만하다.

1회성 이벤트를 끝나는 것을 경계하자

평가회를 통해 문제점으로 제기된 부분은 주제통합수업이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고 1회성 이벤트로 그친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성과도 있었지만 일부 구성원들에게는 단기간에 해치워야 할 부담스런 행사로 여겨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일상의 수업 속에 주제통합수업이 녹아있도록 철저한 교과별 연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전체 교과가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 주제에 적합한 교과가 참여한다는 유연하고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4. 통합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이렇게 변했어요.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다.

매번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라톤 주제통합수업은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공부를 못하든, 수업 시간에 잠을 자든, 매사 의지가 없고 무기력하든, 모든 아이들이 걸어서라도 완주를 했고, 나름대로 목표를 달성한 것에 대해 성취감을 느꼈다. 교실 안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아이들은 체험할 수 있었다.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이때의 작은 경험 이 좋은 추억으로 작용하고 힘을 내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다음은 마라톤 수업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이다.

▣ 전반적으로 『느려도 괜찮아 시즌4』 수업에 만족하십니까?

| ①매우 그렇지 않다 | ②그렇지 않다 | ③보통이다 | ④그렇다 | ⑤매우 그렇다 |
|------------|---------|-------|------|---------|
| 5 | 4 | 11 | 26 | 47 |
| 5.5% | 4.4% | 12% | 28% | 51% |

〈마라톤 만족도 조사 결과〉

구성원의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다.

주제통합수업은 한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많은 교과가 함께 수업을 완성해 간다. 교사 공동체 구성원 간 교류와 소통이 전제될 수밖에 없다. 통합수업에 함께 참여한 구성원들은 한 가지 주제와 목표를 공유하면서 소속감과 성취감 등을 경험한다. 이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 간의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며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정착해 나간다.

5. 마치며

통합 교육과정운영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초등이 아닌 중등에서 교과 간 통합수업을 진행 하기란 여간 쉽지 않은 일이다. 한 교사가 모든 교과를 가르치는 초등과는 달리 중등에서는 과목마다 교사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목표와 주제를 중심으로 모든 교사가 모여서 협력하고 실천해야 하는 통합수업 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시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학교는 행정 업무와 생활교육이라는 또 다른 업무로 교사를 가르치는 일에서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수업은 미래 세대의 성장을 위해 교사들이 시도해야 하는 의 미 있는 도전이다. 앞으로 학교가 가르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더 많은 학교에서 통합 교육과정 재구성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제목: 학생, 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과융합 교육과정

| | | | |
|------|---|-------|-------------|
| 학교명 | 동암중학교 | 중점과제 |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
| 급 별 | 중학교 | 학년/과목 | 2학년/국어 |
| 세부과제 | 교육과정 편성의 다양화 | 작성자 | 교사 김대영 |
| 주요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학생이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 재구성 - 아이들의 내면을 담을 수 있는 교과융합 교육과정의 제고 - 아이들의 삶 속에서 구현 가능한 교육과정안 마련 | | |

1. 교과융합 교육과정은 왜 필요한가?

현대 사회는 융합적으로 사고하는 인재상을 요구한다.

현대 사회는 단순히 하나의 시각만으로 설명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다분화되고, 복잡성이 증가한 사회이기 때문에 조각난 지식을 한 군데 묶고 통합·관통하여 스스로 자신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인 ‘융합적 사고’를 요구한다.

과거 후기산업사회 이후, 분업화되고 전문화가 심화되면서 통합적 사고가 설 자리를 잃었다가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경우처럼 IT와 인문학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 융합적 사고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처럼 앞으로는 분업적이고 전문적인 사고보다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사고의 필요성이 더더욱 커질 것이다.

교육과정은 학년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좋은 통로이다.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듣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해서 만들어가는 것은 시간이 얼마가 지나더라도 익숙해지지 않는다. 그 중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것이 바로 행복배움학교의 학교비전, 학년철학이다. 본교에 온 지 삼 년째 접어들고 있는 지금, 이런 과정을 세 번째 반복해 왔다. 2월 봄방학을 막 시작할 즈음, 3일 정도 학교에 출근해 제일 먼저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학교비전과 학년철학이다.

그야말로 추상적이고 막연한 이 물음 앞에, 우리는 한참동안 뇌를 유연하게 하는 훈련 아닌 훈련을 한 후 하나씩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다. 새로 맡게 된 동 학년 교사들끼리 모여 아이들의 성향과 지난 학년에서의 경험까지, 어떤 학년 철학을 세워야 일 년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지 거창하게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학년철학을 만든다. 현재의 아이들을 일 년 동안



학교철학, 학년철학 세우기

어떤 학생들로 키워내고 싶은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또 그것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몇 시간에 걸쳐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며 만들어낸 학교비전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각 학년의 학년철학.

이 철학이 단지 ‘철학’에 머무르지 않고 바라는 아이들의 모습으로 구현하기 위한 이론적인 마지막 과정이 바로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는 일이다.

2. 교과융합 교육과정, 이렇게 실천했어요.

새 학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요.

동 학년 교사들이 함께 한참을 고민하여 만든 철학을 수업과정에서 구현해내기 위한 교육과정의 재구성이기에 결과물 안에 학년철학이 다 녹아 스며들도록 교과를 융합하여 계획도, 지도안도, 수업시간의 활용도 함께 운영하고 평가 또한 함께 한다.

1학기 교과융합 교육과정 재구성

2학기 교과융합 교육과정 재구성

새로 맡게 될 학생들을 중심에 두고 학년철학을 먼저 고민해요.

새로 맡게 될 학생들과 어떤 철학을 통해 소통하고 공감하며 생활할지 먼저 고민한다. 지금 함께하고 있는 2학년 아이들은 작년에 일명‘외계인’이라 불리던 학생들이었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할 생활규범도, 수업시간의 학습습관과 태도도, 대화하면서 주고받아야 할 소통적인 면에서도 그 어느 것 하나도 질서화 되지 않은 그야말로 야생에 던져져 학년만 거듭해 온 아이들이었다. 이런 아이들에게‘어떤 학년철학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까’를 두고 먼저 2월에 한참을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고민 끝에 정해진 학년철학. ‘**함께** 성장하는 멋진 2학년’이 그것이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이라는 의미에서 자신의 성장도, 다른

사람의 성장도, 함께 성장한다는 것의 의미조차도 모르고 있는 아이들에게 몸소 체득하게 해주고 싶다는 동학년 교사들의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1학기에는 3월 한 달 동안 ‘함께 성장한다.’는 의미의 주제를 모둠별로 뽑아 대본을 쓰고 콘티를 만들어 역할극을 준비해 4월 첫째 주에 강당에 모여 공연을 했다. 2학기에는 ‘함께 성장한다.’는 의미를 좀 더 확장해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홍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글을 쓰고, 취재를 한 후 영상으로 만들어 발표회를 가졌다.



역할극 대본 만들기 활동 장면



완성된 역할극 대본 연습 장면

3. 교과융합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의 유의사항

교과서의 재구성이 아닌 실현 가능한 교육과정의 재구성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육과정의 재구성은 단위 순서만 바뀌서 내용이 연계되는 단원을 묶어 수업하는 지도안을 짜는 것에 불과했다. 그야말로 교과서의 재구성인 것이다. 지금 교육과정 재구성은 앞서 말한 것처럼 학생들이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단위별, 교과별 교과서를 분석하고 연구해 융합적인 요소를 찾아내고, 학년철학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실현하는 것이다. 단순히 교과서의 목차와 영역만을 보고 융합수업을 설계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작은 실천을 교육과정에 구현해요.

단어 자체가 주는 부담이 더욱 컸던 ‘교육과정’.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만 설명하고 학습활동 문제를 해결하면 전부라고 생각했던 과거와는 많이도 달라졌다.

교과서의 내용을 융합하고, 교과별로 융합요소를 찾아 또 재구성해 융합하고, 이를 아이들의 생활 내면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아이들이 할 수 있고,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실현하는 것이다. 수업과 교육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습득한 지식들이 아이들의 생각과 생활에 좋은 변화를 줄 수 없다면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아닌가?



4. 교과융합 교육과정의 실천으로 이렇게 변했어요.

학생들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졌어요.

요즘의 아이들은 참 많이들 바쁘다. 혼자서 뭔가를 고민하고 생각할 겨를도 없고, 스스로 건설적인 뭔가를 하지 않으면서도 많이 바쁘다. 그저 손에 들려 있는 핸드폰에 의해서 바쁘게 손도, 눈도, 머리도 바쁘게 움직일 뿐이다.

이런 아이들에게 주어진 모둠별 역할극과 영상제작 활동은 큰 모험이기도 했고, 귀찮은 일이기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수업시간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방법을 찾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도전과 성취감을 맛보고 있음을 느꼈다. 역할극을 준비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소통의 즐거움을, 마을 홍보 UCC를 제작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 한층 더 알아가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교사들 간의 유기적인 생각과 실천의 교류로 소통이 편안해졌어요.

동 학년 교사들이 한 데 모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그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수업을 하고, 수업 후에는 관찰한 아이들의 모습을 서로 나누다 보면 서로 다른 교과목에서 다른 수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국어시간에 역할극 주제를 토론하고, 대본을 쓰고, 콘티를 작성하면, 체육시간에는 역할극 연습에 들어가고, 미술시간에는 역할극 대본을 보며 배경그림과 소품을 준비하고, 음악 시간에는 역할극에 사용될 음악을 골라 편집하여 준비하고…….

마을 홍보 동영상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다. 모둠별로 주제를 뽑아 마을을 홍보하는 글을 쓰고, 다른 교과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마을 취재를 나가고, 강사를 통해 배운 영상 편집 기술을 이용해 음악과 자막을 넣어 동영상을 만들고…….

준비과정 뿐만 아니다. 결과물을 발표하는 시간에 또한 함께 아이들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평가하고, 아이들에 관해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누며 생각을 공유한다. 학년협의회 시간을 통해서가 아니라 수업을 통해, 그리고 그 수업 속의 아이들을 함께 관찰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은 그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5. 마치며

교과융합 교육과정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학생과 교사 모두가 함께 만들어 완성해가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도 안 되고, 한 교과목, 그리고 학생들의 좋은 아이디어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년에 맞는 교육과정을 고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재구성하고 교과별로 융합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고, 또 그렇게 방학동안 만들어진 교육과정을 수업현장에 적용하면서 동학년 교사들끼리, 그리고 아이들과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의 과정을 거쳐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작품이라는 말이다. 물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그 안에서 아이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아이들과 소통하는 과정이 균형 있게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일련의 융합과정이 앞으로의 아이들 삶에 든든한 바탕이 되어야 하니까 말이다.



제목: 학년 가치로 재구성된 마인크래프트 프로젝트

| | | | |
|------|---|-------|---------------------------|
| 학교명 | 인천석남중학교 | 중점과제 |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
| 급 별 | 중학교 | 학년/과목 | 1학년/사회, 기술·가정, 정보, 영어, 국어 |
| 세부과제 | 교육과정 편성의 다양화 | 작성자 | 교사 김희원 |
| 주요내용 | 교육과정 재구성은 왜 필요한가? 교육과정 재구성, 이렇게 실천했어요.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이렇게 변했어요. | | |

1. 교육과정 재구성은 왜 필요한가?

교육과정 재구성은 시작은 학교의 철학을 공유하고, 비전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교실 수업 속에서 졸고 있는 학생, 흐릿한 눈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학생, 수업과 관련 없는 얘기를 늘어놓는 학생……. 배움과는 점점 멀어지는 수업의 모습이다.

배움의 주체인 아이들은 전문가인 교사와 잘 정제된 교과서를 배우고 있는데, ‘왜 배움에서 몰입하지 못하는 걸까?’ 다수의 교사들이 가지는 의문이며 이는 교사를 위축시키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분위기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2019년 2월 모든 교사들이 학교에 모였다. 출고, 어수선한 시기지만 또한 열띤 토론의 시기이기도 한다. 2019학년도를 준비하는 교사들이 3일 동안 모여 학교의 철학을 공유하고, 비전을 정하고, 어떤 학생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치열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학교의 비전은 1기와 동일하게 ‘함께 배움으로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이다. 한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 세상의 주인공으로 키워내는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 이것으로 학년의 가치를 정하였다.

| | | |
|------------|--------------|--------------|
| | | |
| 학년의 가치 정하기 | 1학년 주제중심교육과정 | 3학년 주제중심교육과정 |

학교 수업이 삶과 연계되면 수업에 몰입할 수 있다.

학교 수업은 학교 단위로 뜻이 모여 학년 단위, 교과 단위에서 설정을 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낮는데 국가에서 요구하는 성취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항상 남아있었다.

결론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교과서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흥미와 수준, 학교와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재해석 하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배움이 일어나기 위해서 학생들의 삶과 연계해야 한다. 학생들의 삶과 동떨어진 내용의 수업보다는 그들의 경험과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수업이 학생들의 수업참여도나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배움에 더 가까워지며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 비전 | 자존감과 꿈을 키우는 ‘나’ | 존중과 책임으로 성장하는 ‘우리’ | 소통과 참여로 만나는 ‘세상’ |
|------------------------------------|--|--|--|
| 가치 | 자존·도전 | 존중·책임 | 소통·참여 |
| 학년 주제 (가치) 중심 프로 젝트 | <p>〈꿈을 찾아 도전하는 우리들~♡〉</p> <p>① 숲 해설사와 함께 하는 우리 동네 생태이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 (생물의 다양성 학습) 도덕(정서적/사회적 건강 가꾸기) 국어(숲 체험 힐링 에세이 쓰기) 창체(학급문패 만들기) 진로(국립생물자원관:생물 다양성 프로그램에 참여) <p>② 마인크래프트 프로젝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SW코딩하기) 수학(좌표평면과 그래프 그리기) 사회(세계의 다양한 기후에 적합한 마을디자인하기) 기가(3D프린터로 마을 디자인하기) 국어(‘행복한 마을’ 슬로건 만들기) 영어(‘행복한 마을’ 소개하는 글쓰기) 자유학년활동(다양한 센서로 창작물 만들기) | <p>〈평화롭고 안전한 우리〉</p> <p>① 존중, 책임 프로젝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어(공감하며 대화하기) 미술(다양한 표현활동을 통한 평화 재해석하기) 영어. 기술 (upcycling 제품 만들기) 영어(세상을 바라보는 눈) 영어(한국 문화유산 변환) 체육(필드형 경쟁 활동을 통한 책임감 기르기) 도덕(정보통신 매체의 올바른 사용) 과학(식물 기르기, 돼지삼장해부를 통한 생명존중 이해) <p>② 수학여행 프로젝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어(소설 동백꽃을 따라) 특수(여가시설 이용 시 예절) 미술(자연을 담아 보) 수학(다항식의 덧셈) 도덕(통일의 의미) 과학(해양박물관 생태체험) | <p>〈세상 속으로 함께 걸어가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어(소외의 경험을 담아 자서전 쓰기) 사회(문화갈등 뉴스 제작하기) 기가 (재활용품을 이용한 소품 만들기) 역사(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포스터 만들기) <p>〈세상을 만나다〉 석남영화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어(소외, 인권, 평화 등을 주제로 한 사나리오 쓰기) 사회(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 방안 탐구하기) 수학(영화 속에서 바라본 수학) 정보(촬영, 편집 기술 이해) 음악(영화 음악과 음향) 미술(영화 포스터, 현수막 제작) 영어(영어 초대장 만들기, 영화 예고편 제작) 체육(창작 무용, 몸으로 감정 표현하기) |

〈표1〉 2019학년도 교육과정 재구성



‘나’-‘우리’-‘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학년별 주제통합 프로젝트를 정하고, 교과 정체성을 살리면서 학교 교육과정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활동을 구상했다.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 워크숍 동안 각 교과에서 고민하고 초안을 잡았다. 전 교사가 모여 교과단원 분석표와 교육과정을 보며 활동을 짜고, 단원을 재구성 하였고, 각 교과별로 새 학기 수업 안을 간략하게 발표하였다. 교과 간 논의를 하고,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교과의 통합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다. 학년부 체제에서 일상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학기 중에 지속적으로 교과 간 통합이 이루어 질것으로 기대했다.

교육과정 재구성의 실천은 극복할 1년의 숙제이다.

처음 마음과 달리 학교의 시간은 너무 빠르고, 항상 바쁘고, 모이는 게 어렵다. 상담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교육과정 재구성에 쏟을 에너지가 많이 부족하다. 이끌어 가는 교사와 따라가는 교사의 갈등이 생기고, 교과의 벽이 높다보니 각 교과수업 진도와 수행평가의 작품을 함께 공유도 쉽지 않다.

하지만 교육과정 재구성의 의미를 다시 찾고, 공공재인 교육 속에서 학생의 성장을 조력해야하는 교사로서의 책무성을 외면할 수 없는 것 역시 교사의 마음이기에 다시 재구성을 시도하게 된다.

2. 교육과정 재구성, 이렇게 실천했어요.

1학년 비전 중심 교육과정재구성 절차와 내용

1학년의 비전은‘나’이고, 가치는 ‘자존·도전’이다. ‘나’를 알기위해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더 나아가 지구촌의 한 사람으로서 앎과 삶이 일치되는 삶과 분리되지 않는 교육,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 교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 교과의 벽을 넘고, 교과서의 틀을 깨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실천하였다.

| 순서 | 시기 | 내용 | 구체적 실행 내용 |
|----|----|---|---|
| 1 | 2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워크숍에서‘자존과 도전’이라는 학년 가치 선정 및 교과 간 재구성 논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에 대한 생활환경, 학습 환경 등을 분석하여 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목표 설정 학년 가치인 ‘자존과 도전’을 반영할 수 있는 교과 재구성 학년 재구성을 기반으로 교과 협의회에서 교과 재구성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제 통합형 프로젝트설정 |
| 2 | 3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교과별로 교과재구성 수업 ·평가 계획 및 예산을 받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 내 재구성 및 교과 간 재구성 학년 가치와 더불어 학교 비전을 구현하는 수업 행복배움학교 예산 신청 |

| | | | |
|---|---------|---|--|
| 3 | 5~6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학기 학년주제 중심 프로젝트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를 고려하여 교과 재구성 및 교과 수업의 깊이를 위해 통합교과의 수업, 삶에 가까운 수업을 위해 프로젝트 수업 진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숲 해설사와 함께 하는 우리 동네 생태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 (생물의 다양성 학습) • 국어(숲 체험 힐링 에세이 쓰기) • 창체(학급문패 만들기) • 정보(생태 이해 포토톤 만들기) • 진로(국립생물자원관:생물다양성 프로그램에 참여) |
| 4 | 7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 재구성 실천 사례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학기 평가와 함께 교과 재구성한 수업 사례 발표를 통해 전교사가 내용을 공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평가회를 통해 1학기 주제중심 프로젝트실천의 어려움과 형식적 업무 처리과정의 하나로 교육과정 재구성 상황을 나눔 및 성찰 |
| 5 | 8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학기 학년주제 중심 프로젝트 실천을 위한 협의 및 시기 조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학기 평가회를 통해 프로젝트 진행 상황 성찰 후 2학기 재구성을 촘촘히 협의 |
| 6 | 9~10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학기 학년주제 중심 프로젝트 실천 상황 점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 내 재구성·교과 간 재구성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산출물을 공유하는 등 학생들의 진행 상황을 같이 및 협의 |
| 7 | 10월 31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수업 공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외 선생님에게 사회·기가 교과의 수업을 코티칭으로 공개 ● 사회과에서 기후의 특성에 맞게 생태마을을 설계 ● 기술·가정과에서 기후에 따라 건축물을 3D모델링 및 프린팅으로 랜드마크를 시공·생태마을을 주행하는 자율주행버스 운행 |
| 8 | 11월~12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별 주제중심 프로젝트 실천 ● 평가의 공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영어, 국어 교과에서 학생들의 산출물을 공유 받아 협력 수업 진행 및 평가 루브릭을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 마을 슬로건 작성을 통한 사고력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형 지필평가 • 현실세계 문제해결력 평가 - 수행평가 • 랜드마크 3D모델링, 생태마을 3D 시뮬레이션, 피지컬 컴퓨팅 구현-포트폴리오 평가 • 생태마을을 영어로 소개하는 평가 루브릭 • 자기성찰, 가치태도평가 - 자기평가 • 학생들의 상호 평가 |
| 9 | 12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물 발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 교과의 통합 활동 산출물의 전시 ● 2학기 평가회를 통해 프로젝트 진행과정 평가를 통한 차후년도 반영 |



1학년 2학기 교육과정재구성 프로젝트 세부 내용

교육과정 재구성 절차와 내용이 반영된 2학기 주제중심 프로젝트의 세부 운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업 주제 | 마인크래프트 프로젝트 | | | | |
|----------|--|----------|---|--------|--|
| 단원 구성 | 교과 | 수업차 시 | 지도단원 | 시기 | 수업내용 |
| | 사회 | 10차시 | 대단원 : 2. 우리와 다른 기후, 다른 생활 중단원 : 1. 세계의 다양한 기후 | 8~10월 | 세계의 기후 지역을 열대, 온대, 냉대, 한대, 건조 기후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인간생활(의복, 음식, 주거)에 맞게 생태마을을 설계하기 |
| | 기술·가정 | 9차시 | 대단원 : VI. 건설기술 중단원 : 2. 건설기술 문제의 창의적 해결 | 9~10월 | 건설 기술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3D모델링 및 프린팅으로 랜드마크를 설계 및 시공하며, 생태마을을 주행하는 자율주행버스 운행 표준화하기 |
| | 과학 | 2차시 | 대단원 : V. 물질의 상태 변화 중단원 : 2. 상태 변화와 열에너지 | 9월 | 3D프린터로 필라멘트(플라스틱)가 녹는 과정을 탐구하고 녹는점을 이해하기 |
| | 정보 | 10차시 | 대단원 : III. 문제해결과 프로그래밍 중단원 : 3. 프로그래밍 대단원 : IV. 컴퓨팅 시스템 중단원 : 2. 피지컬 컴퓨팅 | 10~12월 | 마인크래프트 메이크 코드로 생태마을의 아이템을 수집하고 건축물을 구현하는 시뮬레이션 코딩 학습하기 및 아두이노와 다양한 센서를 활용하여 생태마을 구현하기 |
| | 영어 | 5차시 | 대단원 : Special Lesson 중단원 : Writing / Speaking | 10~11월 | 'There is/There are~ 구문'과 '전치사'를 사용하여 '행복한 우리 마을'의 랜드마크나 주요 건물의 위치를 설명하기 |
| | 국어 | 1차시 | 대단원 : 1. 표현의 즐거움 중단원 : (1) 햇비 (2) 고래를 위하여 | 11월 | 비유와 상징 활용하여 행복한 마을 슬로건 만들기 |
| 성취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 [9국0502] 비유와 상징의 표현 효과를 바탕으로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한다. ● 사회 : [9사(지리)0201] 기온과 강수량 자료를 분석하여 이를 기준으로 세계 기후 지역을 구분하고, 인간 거주에 적합한 기후 조건에 대해 논의한다. ● 과학 : [9과0503]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의 온도 변화에 대한 자료를 해석하여 녹는점, 어는점, 끓는점을 찾을 수 있다. ● 기술·가정 : [9기가0407] 건설 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창의적으로 탐색하고 실현하며 평가한다. ● 영어 : [9영0201] 주변의 사람, 사물, 또는 장소를 묘사할 수 있다. ● 정보 : [9정0405] 실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협력하여 설계, 개발, 비교·분석한다. | | | | |

| | | |
|---|--|---|
|  |  |  |
| 사회과 생태마을 계획서 | 사회과 생태마을 설계 | |
|  |  |  |
| 기술과 3D모델링 및 프린팅 | 기술과 생태마을 랜드마크 만들기 | 생태마을 자율주행자동차 |

3.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이렇게 변했어요.

깊이 있는 학생 및 수행평가의 피로도를 낮추다

과정중심평가로 인해 수행평가 비율이 높아져 학생들이 느끼는 피로감은 훨씬 더 높아졌다. 통합 주제를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거기에 연결시키면서 수행할 수 있는 단원은 합치고, 중복된 단원은 삭제했다.

학생들의 학습량을 줄이고, 수행평가에 대한 부담을 조금은 덜 느끼게 했으며 좀 더 깊이 있는 학습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학생의 말은 교육과정 재구성의 시도가 유의미했음을 의미한다.

5지 선다형의 문제처럼 답을 고르는 것이 아닌, 학생이 직접 수행한 활동을 평가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과정중심평가를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게 되고, 학생의 삶과 실제 상황, 해당 성취기준을 연관 지을 수 있는 맥락 속에서의 평가를 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학생 참여가 높아지고 협력적 관계 형성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교과통합 수업,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업 상황에서 교사의 비중보다 학생들의 비중이 커졌다. 교사의 수업 준비량은 더 늘었지만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흥미를 보였다.

또한 대부분의 수업 시간에 토의와 토론이 이루어지므로 서로 배려하며 자연스럽게 협력



하는 관계가 자리가 잡혔다. 소극적인 학생들도 프로젝트 수업에서 과제의 방향, 결정, 선택을 스스로하고 의견을 내면서 밝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히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난 뒤 학생들이 뿌듯해하는 모습에서 성취감과 자존감이 향상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교사의 전문성 신장

교과 재구성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협의와 연구가 가장 중요하다. 재구성과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르치는 교과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늘었고, 연구하는 시간이 늘게 되고 수업 혁신을 통해 전문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었다.

4. 마치며

교육과정 재구성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시간, 업무, 교사의 책무성 등 고려해야하고 극복해야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교육과정재구성에 동참하지 않는 교사들을 어떻게 하면 함께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연수를 진행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듯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선생님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동참하게 하는 교사의 문화를 구성하는 것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협력적 교육과정 재구성을 촉진하는 시스템은 공유가 자유로운 학교 문화 협력을 지원하는 동학년체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교사 공동체 구성원 간 교류와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한 소속감과 성취감 등 교육공동체로서 유대감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유대감의 확대는 학교 구성원들 간의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정착해 나갈 수 있게 한다.

제목: 꿈과 재능을 만들고 발휘해 보아요!

| | | | |
|------|--|-------|--------------------------|
| 학교명 | 부일여자중학교 | 중점과제 |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
| 급 별 | 중학교 | 학년/과목 | 1-3학년/ 음악, 미술, 체육, 국어 |
| 세부과제 | 교육과정 편성의 다양화 | 작성자 | 교사 선경선 |
| 주요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교육 인프라 구축 -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는 예술발표 및 감상 활동 -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예술교육 | | |

1. 문화 예술교육이 왜 필요한가?

첫째, 우리학교는 교육균형발전 대상교로서 우리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격차 및 성인 문화인식의 격차 해소를 위해 문화예술교육은 활성화 되어야 함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부모의 자녀들은 학교 밖의 사설교육기관을 통해 많은 사교육비를 지불하면서 예술적 소양을 쌓을 수 있지만 사설교육 기관 이용이 어려운 부모의 자녀들은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이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전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떨어진 교육의 격차가 향후 문화인식의 격차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은 필수적인 교육 영역이 되어야 한다.

둘째, 스스로 참여 및 표현의 기회를 통한 자존감 및 자신감을 형성하고 문화 향유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은 강화 되어야 함

학교에서의 문화예술 교육활동은 학업으로 쌓인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는 심표가 되어주기도 하고 자유로운 감정 표현을 통해 자신감 및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성인이 되었을 때 문화 향유자로서 성장하여 일과 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학교교육에서 문화예술교육은 강화 되어야 한다.

셋째, 예술과 연계된 교과학습은 비예술교과의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개념 및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는데 효과적인 교육방법으로 학교에서는 문화예술적 소양을 키워줄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은 확대 되어야 함

역사적 사건을 학습할 때 연극 및 예술을 활용한 교육은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의 생각, 감정까지 학습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다. 또한 예술작품을 해석할 때 비판적 사고와 고찰 능



력은 수학 시간에 방정식에 대한 새로운 방식을 찾는 시각을 열어 주는 데 도움이 되는 등 교과와 통합적인 학습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해 예술적 소양을 키워줄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은 확대 되어야 한다.

2. 올해 우리는 예술적 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해 이렇게 실천했어요.

가. 예술교육 인프라 구축

| 동아리 명 | 인원 | 창단 | 방법 | 지원 | 운영 | 예산 |
|--------|----|----------------|---------------------|-----------------|-------------|-------------|
| 가야금 | 10 | 2019년 | ·방과후학교 특기적성(수·토) | 부평구청/교육청/ 자체 | 자율동아리 | 27,780,000 |
| 해금 | 7 | 2019년 | | | 자율동아리 | |
| 뮤지컬 | 17 | 2018년 | ·전문 예술 강사 활용 ·무료 | 교육부/시교육청 | 창체+자율동아리 | 8,000,000 |
| 사물놀이 | 10 | 2018년 | | 교육복지 | 창체+자율동아리 | 1,500,000 |
| 만화창작 | 22 | 2016년 | ·교내 교사(수·토) | 교육복지 | 창체+자율동아리 | 400,000 |
| 동화반 | 15 | 2019년 | ·자율(수·토) | 교육복지 | 자율동아리 | 300,000 |
| 댄스 | 10 | 2010년 | ·자율(수·토) | 자체예산 | 창체+자율동아리 | 200,000 |
| 연극수업 | 80 | 2019년 | ·국어교과 연계 (1학년)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주1시간, 120시간 | 강사지원 |
| 조명설치 | · | 2019년 | ·교내 체육관 | 자체예산 | · | 2,000,000 |
| 통기타 구입 | 25 | 2018년 2019년 | ·교내 교사 | 행복배움 예산 | 음악 수업 활용 | 5,000,000 |
| 계 | | | | | | 45,180,000원 |

나.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는 예술발표 및 감상 활동

| 활동 명 | | | 활동 내용 | 활동 일 | 활동 장소 |
|-----------------------------|-----|----------|--|-----------|----------|
| 예술 자율동아리 및 자유학년제 예술프로그램 발표회 | | | · 가야금·해금·통기타·사물 · 뮤지컬(동아리·자유학년제)·댄스 · 우쿨렐레·은울탈춤&연극 | 19.07.12. | 교내 강당 |
| 지역사회(부평2동) 희망음악회 공연 | | | · 가야금·해금·뮤지컬·댄스 | 19.10.12. | 희망 체육공원 |
| 인천학교예술교육 페스티벌 공연 참여 | | | · 뮤지컬 「응답하라1443」 공연 | 19.10.17. | 학생문화예술회관 |
| 학교축제(부일제) 및 전시회 | | | · 동아리·반별·팀별 발표 | 19.10.18. | 소망교회 |
| 음악교과 연계 역사뮤지컬 발표 | | | · 블록타임을 활용한 역사 뮤지컬 발표 | 19.11.29. | 교내 강당 |
| 에어로빅 발표 | | | · 스포츠 대회를 활용한 에어로빅 발표 | 19.05.24. | 운동장 |
| 점프 밴드 발표 | | | · 취약시기를 활용한 점프 밴드 발표 | 19.12.13. | 교내 강당 |
| 창작 음악줄넘기 발표 | | | · 학교축제를 활용한 창작 음악줄넘기 발표 | 19.10.18. | 교내 운동장 |
| 학년 특색 활동 | 1학년 | 연극발표회 | · 국어시간 블록타임을 활용한 연극 발표 | 19.12.20. | 교내 강당 |
| | 2학년 | 창작댄스 발표회 | · 수학여행을 활용한 창작 댄스 발표 | 19.11.07. | 교내 강당 |
| | 3학년 | 뮤지컬 발표회 | · 음악시간 블록타임을 활용한 뮤지컬 발표 | 19.12.24. | 교내 강당 |
| 졸업식 식전 공연 | | | · 뮤지컬·댄스·합창·탈춤 | 19.01.11. | 교내 강당 |
| 입학식 식전 공연 | | | · 뮤지컬·댄스 | 19.03.04. | 교내 강당 |
| 학부모 인형극 동아리 공연 | | | · 자살예방 관람 | 19.11.18. | 교내 강당 |
| 뮤지컬 '세종 1446' 관람 | | | · 뮤지컬동아리·두드람·교육복지 학생 (30명) | 19.10.12. | 중앙국립박물관 |

| | | | | |
|----------------------|----------------------|-----------------------|-----------------------|---------------------|
| | | | | |
| 가야금 동아리 연습 | 예술동아리 발표회 가야금 동아리 | 부평2동 희망음악회 가야금 동아리 | 해금 동아리 연습 | 예술동아리 발표회 해금 동아리 |
| | | | | |
| 부평2동 희망음악회 해금 동아리 | 뮤지컬 동아리 연습 | 예술동아리 발표회 뮤지컬 동아리 | 부평2동 희망음악회 뮤지컬 동아리 | 입학식 공연 댄스동아리 |
| | | | | |
| 부평2동 희망음악회 댄스 동아리 | 자유학기발표회 탈춤 | 사물놀이 동아리 연습 | 예술동아리 발표회 사물놀이 | 자유학기발표회 우쿨렐레 |
| | | | | |
| 통기타 연주 | 작품전시 활동 | 미술대회 참가 | 학교축제 전시 | 야외 그림활동 |

다.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예술교육 활동

| 활동 내용 | 교과 | 단원·프로그램 | 학년 | 비고 |
|--------------------|----------|----------------|-----|--|
| 연극 수업(활동) | 국어 | 1.독서와 연극 | 1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예술 강사 지원 ·주 1회 총 120시간 운영 |
| 역사뮤지컬 활동 | 음악 역사 | Ⅲ.역사 뮤지컬 발표 | 3 |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융합수업 |
| 수학 송 작곡 및 노래·산체 표현 | 수학·음악·체육 | Ⅲ.두도막 형식 곡 만들기 | 3 |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융합수업 |
| 통기타 연주 | 음악 | I-2. 악기연주하기 | 3 | 음악수업 활동 |
| 우쿨렐레 연주 | 음악 | I-2. 악기연주하기 | 1 | 음악수업 활동 |
| 리코더와 벨프레이트 합주 | 음악 | I-2. 악기연주하기 | 1 | 음악수업 활동 |
| 합창(중창) | 음악 | I-1. 노래 부르기 | 1 | 음악수업 활동 |
| 점프밴드 표현 활동 | 체육 | 전통표현 | 3 | 체육수업 활동 |
| 치어리딩·에어로빅 표현활동 | 체육 | 전통표현 | 2 3 | 체육수업 활동 |
| 창작 음악 줄넘기 | 체육 | 스포츠 표현 | 1 | 체육수업 활동 |
| 마음을 담은 풍경표현 | 미술 | 주제표현의 다양한 탐색 | 1 |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융합수업 |
| 아이디어를 살린 부채 디자인 | 미술 과학 영어 | 가능성을 살린 디자인 | 3 |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융합수업 (전기사용과 전기 에너지 절약) |



| | | | | |
|---------------------|----|--------------|-----|--------------|
| 개성이 담긴 패션디자인 | 미술 | 가능성을 살린 디자인 | 3 | 미술수업 활동 |
| 학교 공간 재구성 | 미술 | 쾌적한 환경 디자인 | 3 | 미술수업 활동 |
| 전통회화, 캘리그래피, 전각 | 미술 | 전통의 향기 | 3 | 미술수업 활동 |
| 색과 착시 | 미술 | 발상과 주제 표현 | 3 | 미술수업 활동 |
| 현대미술(추상표현, 퍼포먼스 등) | 미술 | 발상과 주제표현 | 1,3 | 미술수업 활동 |
| 내가 CEO, 회사 CI 디자인하기 | 미술 | 정보를 전달하는 디자인 | 1 | 미술수업 활동 |
| 내면을 표현한 석고 인체 소조 | 미술 | 공간 속의 입체 | 1 | 미술수업 활동 |
| 자유학기 예술프로그램 | 음악 | 우쿨렐레 | 1 | 본교 교사 |
| | | 뮤지컬 | 1 | 전문 예술 강사 코티칭 |
| | | 연극&탈춤 | 1 | 전문 예술 강사 코티칭 |
| | | 퓨전댄스 | 1 | 전문 예술 강사 코티칭 |
| | 미술 | 발상의 창고 | 1 | 본교 교사 |

| | | | | |
|-------------|----------------|------------|------------|------------|
| | | | | |
| 뮤지컬 작품 탐구발표 | 역사뮤지컬 대본 리딩 | 역사뮤지컬 활동 | 역사뮤지컬 활동 | 우쿨렐레 활동 |
| | | | | |
| 통기타 활동 | 벨프레이트 & 리코더 합주 | 치어리딩 표현 활동 | 점프밴드 표현활동 | 에어로빅 표현활동 |
| | | | | |
| 음악줄넘기 활동 | 연극 자기소개 하기 | 연극 대본 만들기 | 연극 대본 리딩하기 | 즉흥극 발표하기 |
| | | | | |
| 창작 음악줄넘기 | 의상디자인 | 표현활동 | 마음을 담은 풍경 | 내면을 표현한 석고 |

3.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로 우리학교는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첫째, 스포츠 위주의 교육활동에서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로 학생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참여와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예술적 감수성이 확장되고 있다. 또한 잠재력 계발 및 진로 탐색의 기회가 되어 공연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둘째, 학교교육에서 예술동아리 활성화로 발표 및 감상 기회 확대를 통해 학생들은 정서 함양 및 문화 향유자로서 갖추어야 할 계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예술과 비예술 교과 간 통합적인 학습으로 모든 교과 학습 활동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넷째, 원도심 학교 여학생들에 대한 예술 활동의 맞춤형 교육으로 부일여중 학생들은 자신감 및 자존감이 향상되고 있으며 만족도 제고로 즐겁고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예술적 감수성 함양으로 학교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문화가 조성되고 있다.

4. 마치며(제언)

첫째, 학생들의 감성 발달 및 자기 표현력 증진의 문화인 육성을 위해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은 활성화 되어야 한다.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영역은 다른 영역의 교육으로 대신할 수 없으며 문화 예술적 소양 함양을 통해 즐거운 학교생활 및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은 필요하다.

둘째, 좁은 음악실은 활동 위주의 수업에 어려움이 있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좁은 음악실에서는 활동 위주의 수업에 한계가 있으며 음향 및 영상 시설의 낙후함과 방음 시설이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아 타 교과 수업에 방해가 되고 있다.

셋째, 전용 공연장 등 시설 확충을 위한 학교에서의 공간 혁신이 꼭 필요하다.

예술 활동은 수업과 연습으로만 끝나는 것 아니라 표현 및 발표의 장을 제공해 주어야 하나 현재의 학교 현실은 음향 및 조명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체육관에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체육교과 수업 공간인 체육관을 빌려 사용하기에 제약이 있다.



제목: 교육과정으로 구현하는 공간혁신

| | | | |
|------|---|-------|-------------|
| 학교명 | 부평동중학교 | 중점과제 |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
| 급 별 | 중학교 | 학년/과목 | 중1-3/미술 |
| 세부과제 | 교육과정 편성의 다양화 | 작성자 | 교사 김정란 |
| 주요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학교 탐방 - 벽화를 그리자. - 벽화 작업이 가능했던 이유 - 남은 과제: 학교 전체를 수업 공간으로 만들자. | | |

1. 우리학교 탐방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학교 공간도 그렇다.

2019년 4월 30일 본교 자유학기제 교사연구동아리 회원 9명은 방과 후에 학교 공간 전체를 탐방하기로 했다. 대부분 교무실과 교실, 혹은 특별실만 오갔던 터라 근무기간이 짧았던, 길었던 자신의 학교를 구석구석 살펴보는 일은 낯설지만 흥미롭게 다가왔다. 정문 쪽 학교 입구(사진 참조)에서 시작된 학교탐방은 정문입구에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 화분을 놓아야 한다.’, ‘카센터와 공유하고 있는 낡은 담장(사진 참조)을 변신시키자’, ‘벽화를 그리자’ 등 갖가지 상상을 가능하게 했다. 다행히 행정실장님이 교사동아리 회원이어서 예산 범위를 훌쩍 뛰어넘거나 법적으로 불가한 경우에는 적절히 제동을 걸어 주었다. 2019년 새롭게 시작한 자투리 텃밭을 가로질러 급식실, 양궁장, 축구장을 지나 분리수거장인 컨테이너(사진 참조) 이어지는 과정에서 1970년에 지어진 우리학교(건물)의 ‘오래됨’을 실감할 수 있었다.



간판게게와 공유하고 있는 학교 입구



카센터와 공유하고 있는 정문 벽



분리수거 장 컨테이너

탐방과정에서 새삼 느낀 거지만 오래된 학교는 낡아서 문제이지만 낡아서 또 좋다. 학교 안에 폐건물처럼 놓여있던 건물이 전쟁 시 주민들을 위한 식수터로 사용하는 창고 건물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마을의 역사를 모두 알고 있을 법한 50년-100년 가까이 된 나무 수십 그루가 교정을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였다. 운동장 둘레 화단마다 쑥, 민들레, 썸바귀 등 나물들도 잔뜩 자라있었다. 우리는 조만간 학교 운동장으로 나물을 뜯으러 나오기로 했다.

2. 벽화를 그리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벽화 디자인 공모전-미술수업

학교 탐방 이후에 교사동아리 회원들은 우리의 상상력과 열정이 식기 전에 곧장 가능한 것부터 실행에 옮기기로 하였다. 먼저 각자 집중할 분야를 정해서 역할 분담을 하였다.

| 기록 작업 및 총괄 | 벽화작업 | 중앙현관 개선 | 텃밭 운영 방안 | 자투리 공간 쉼터 만들기 |
|------------|---------|----------|----------|---------------|
| 김○○ | 김○, 남○○ | 정○○, 이○○ | 김○○, 정○○ | 이○○, 이○○ |

이 중에서 당장 가능한 것은 벽화 작업이었다. 우리에게 행운이 있다면 그 건 교사동아리 회원인 미술 선생님이 벽화전문가라는 사실이었다. 7월 어느 날 전일제 동아리의 날에 벽화 작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동중 페인터즈 동아리 학생들과 시간이 되는 교직원이라면 누구든 참여하기로 하였다. 벽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미술 선생님!’

이제 담장을 채울 벽화 디자인 공모전이 남았다. 5월 한 달 동안 미술시간에 정문 담장과, 분리수거 컨테이너 두 군데를 대상으로 전교생이 참여하는 디자인 공모전을 진행하였고, 6월에는 교사동아리 회원들이 1차 심사(사진 참조)를 하고 미술시간과 국어시간을 활용하여 전교생 스티커 평가를 진행하였다. 1차 심사를 통과한 디자인 제작 학생에게는 상품권이 지급되었고 최종 선발된 작품은 학교 담장 벽화로 그려지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 | | |
|---|--|---|
|  |  |  |
| 1차 심사 중 | 스티커 붙이기를 통한 최종 학생 평가 결과 | |

3. 벽화 작업이 가능했던 이유

2019년 7월 1일, 50년 만에 처음으로 학교 담장이 물들다.

한 여름 피약별도 무색하게 미술 선생님의 진두 지휘아래 동중 페인터즈 동아리 학생들과 시간이 되는 교직원 모두가 일손을 보태어 멋진 정문 담장이 완성(사진 참조)되었다. 아마도 이렇게 색깔 있는 담장은 우리학교 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지 싶었다. 모두 행복했다. 아직 담장 한 칸과 분리수거 컨테이너는 흰색 바탕 위에 새로운 단장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이 공간은 11월 전일제 동아리의 날에 공모전을 통해 최종 선발된 학생 작품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여름 방학이 지나고 어느 가을날, 교사 동아리 회원 몇몇이 모여 이런 이야기를 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생각해 보니 우리에게는 다음 다섯 가지가 있었다.

- 1) 벽화 전문가인 미술선생님이 있었다.
- 2) 동중 페인터즈 라는 벽화동아리가 있었다.
- 3) 자유학기제 교사연구동아리가 벽화 작업의 서포터즈가 되어 주었다.
- 4) 미술수업을 통해 디자인 설계 과정에 전교생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였다.
- 5)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지만 모두가 응원해 주었다.

4. 남은 과제

학교 전체를 수업 공간으로 만들자.

- 1) 중앙현관은 변신 중(사진 참조)

지난 봄 학교 탐방 과정에서 우리는 담장 벽화작업과 동시에 중앙현관을 학생들의 공간으로 바꿔보자는 의견이 있었다. 교사동아리 회원인 음악선생님께서 강당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피아노를 중앙현관으로 옮겨 주기만 한다면 아이들과 함께 작은 음악회를 할 수 있겠다고 하였다. 당장 피아노가 옮겨졌다. 6월 어느 점심시간에 작은 음악회가 열렸고 참여한 학생이나 관람하러 온 학생이나 모두가 진지했고 열광했다. 작은 음악회는 매월 계속

되었고 관람하러 몰려 온 학생들 때문에 자칫 위험할 수도 있었던 트로피 진열장이 강당 입구로 옮겨졌다. 나머지 변신을 실현하려면 조금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앙현관의 변신은 아직까지 진행중이다.

2) 팔각정을 야외 교실로(사진 참조)

지난 5월 어느 날 우리는 기어이 학교탐방 중에 발견한 쭉을 뜯으러 운동장으로 나갔다. 쭉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쭉이 많아서 나물 뜯기는 대성공이었다. 그런데 쭉 밭 옆에 있던 팔각정이 우리를 더욱 신나게 했다. 너무 오래된 나무 지붕이라 거의 썩어서 사용을 안 하고 있었지만 같이 나물을 뜯던 국어 선생님 말로는 ‘시가 절로 나오는’ 그런 공간이라고 했다. 불편해 보이는 동그란 나무 벤치 대신 널찍한 평상을 가져다 놓으면 영락없는 야외 교실이 될 거라고 입을 모았다. 2020년에 도전해 볼 일이다.



중앙현관 작은 음악회

운동장 귀퉁이에 숨어있는 팔각정

서울혁신센터를 방문했다가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었다.

‘지금까지 없던 습관을 만드는 것’이 혁신이다. - 타무라 히로시

그리고 보니 학교를 바꿔 가는 일도 그렇다. 학교 전체를 학습 공간으로 바꾸어 가는 일,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가는 일임에 틀림없다.



제목: 마을의 '품'으로 뛰어다니, '보물'이 보였다!

| | | | |
|------|---|-------|-------------|
| 학교명 | 명현중학교 | 중점과제 |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
| 급 별 | 중학교 | 학년/과목 | 2학년/도덕 |
| 세부과제 | 교육과정 편성의 다양화 | 작성자 | 교사 변명선 |
| 주요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나눔 행복반찬 행사가 교실로 들어오니 '마을'이 보이네! - 제과기능사자격증반, 늘해랑 봉사단과 교과과정 운영 연계해보다. | | |

1. 교육과정 편성의 다양화가 왜 필요한가?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필요한 시대

아이들과 더불어 숨 가쁘게 달려오다 보니 어느 덧 3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넘어 버렸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가 가슴절절하게 와 닿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에게 '단 한번만이라도!' 칭찬 받을 수 있는 기회,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싶어 시작한 등산 동아리. 그러나 등산에 문외한이었기에 마을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2017 계양혁신지구 '자연애 끌림' 숲 체험 활동으로 이어졌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 2018년 '효성 사랑. 마을에서 놀자!'라는 사업과 연계되어 마을 지도를 그리고 마을의 발전 방안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러다가 2019년에는 공간뿐만 아니라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교육과정으로 끌어 들이게 되었다. 혼자서는 벅찼던 일들이 여럿이 더불어 같이 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공간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온기를 느꼈으며, 그 속에서 학생 개개인의 배움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교육과정에 참여한 학부모회

4년 전부터 학부모회가 주관하여 '사랑나눔 행복반찬'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여 왔다. 본교는 복지 대상이 136명으로 전체의 24.4%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많지만 이들을 모두 도울 수는 없고, 조손 가정과 부자 가정을 대상으로 원하는 학생에게 반찬 나눔 행사를 진행하는데 올해는 학부모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같이 행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 내용을 도덕 시간에 활용하기로 하였다.

2. 교육과정 재구성, 이렇게 실천했어요.

도덕과 국어과의 연계 수업

국어과에서 효성동 마을 사진 찍기, 마을 사람들과 인터뷰한 내용 정리하기, 그리고 정책 제안 프리 마켓을 교육과정에서 실시하였고, 도덕 시간에는 행복반찬 나눔 행사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수업 도구로 활용하였다. 교과내용에서 다루어야 할 품앗이가 현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려 주면서, 국어시간에 준비된 내용으로 모듬별 마을 신문 만들기를 실시하였다.

| | | |
|---|--|---|
|  |  |  |
| 사랑나눔 행복반찬 추석음식 완성모습(학부모회) | 사랑나눔 행복반찬 아버지회 및 배송모습(배송전) | 사랑나눔 행복반찬 활동 모습(동태전 만들기) |

일석이조(一石二鳥) 자격증도 따도, 봉사활동도 하고!

26차시에 걸쳐서 제과기능사자격증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복지대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에 모두 학교에서 비용을 부담한다. 물론 늘해랑 봉사단과 제과기능사 자격증반 학생들을 낙인찍지 않기 위해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이 중에서 복지대상 학생들과 일반학생의 비율을 일정 수준 맞춘다. 이들은 학교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기에 그 혜택을 되돌려 주는 일에도 정성을 다한다. 자신들이 배운 기능을 바탕으로 빵을 만들고 효성동의 노인정 5곳을 방문하여 직접 만든 빵을 나누어 드리고 안마와 손 마사지 등을 하면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 | | |
|---|--|---|
|  |  |  |
| 경로당 봉사활동 단체사진 (지역·학생·어르신) | 경로당 방문 전 제과제빵 만들기 모습 | 경로당 5곳 방문 활동모습 안마, 말벗, 노래합창 등 |



3. 교육과정 재구성 시 유의사항

만날수록 좋아요.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경우 학기 초에 큰 틀을 논의하는 것이 좋다. 국어과와는 3년을 호흡을 맞추었기에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있어서 서로가 편했다. 2017년과 2018년은 학년 전체가 외부체험이 진행되는 것이었기에 시간 확보가 필요해서 수업계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여름방학과제와 휴일을 이용하여 진행되었기에 수업계에는 불편을 주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자주 만나서 서로 진행되는 상황을 공유하고 점검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4.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이렇게 변했어요.

마을의 보물이 눈에 들어와요.

반찬봉사를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점은 모든 분들이 너무나 즐겁게 참여해 주신 점이다.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것이니 가장 좋은 것으로 해 주고 싶다.”는 말과 마음이 느껴졌고, 그 따뜻한 마음이 그분들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분들이 나의 어머니이고, 친구의 어머니인 것이다. 인터뷰에 응해주셨던 분들이 너무나 고맙고, 그분들의 삶을 알게 된 아이들은 그 분들을 보면 인사할 줄 아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었다. 마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곳곳에 숨어있었던 보물들이 발견되는 기분이다.

5. 마치며

2학년 도덕 교육과정 속에 있는 이웃생활에 대한 단원을 수업하면서 전통 사회의 상부상조 전통을 아이들의 삶과 연결시키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다 마을과 연계를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주어진 환경을 활용하는데 그쳤다면 이제는 자신의 삶과 연결시키고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서 곳곳에 숨어있는 귀한 것들이 눈에 띄게 되었다. 이렇게 되기까지 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앞으로는 이것을 보다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으로 전개 시키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복복지센터와 보다 활발하게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반찬 봉사활동에서 담임교사로부터 가장 많이들은 이야기가 대상을 확대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 너무 많은데 혜택 대상자는 너무 적다는 내용이었다. 이번에 효성1동 보장협의체에서 오셔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예산까지 지원 받아 혜택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는가?

제목: 삶의 힘이 자라는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 | | | |
|------|---|-------|-------------|
| 학교명 | 인천영종고등학교 | 중점과제 |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
| 급 별 | 고등학교 | 학년/과목 | 전 학년/전 교과 |
| 세부과제 | 교육과정 편성의 다양화 | 작성자 | 교사 홍경아 |
| 주요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된 수업, 동아리, 학생회 자치 활동 - 교과 간 융합 수업 | | |

1. 아이들의 삶과 연계된 교육과정의 필요성

배움으로부터 도망치는 아이들을 교실의 주인으로

개교 초기만 해도 “우리 아이들 중 도대체 배움을 원하는 아이들이 있을까요?”라는 허탈한 질문을 하는 교사들이 있었다.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함께 하자고 하면 “그냥 빵점 주세요!”, “전 점수 상관없어요!”, “안 할 거니까 제발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라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며 교사로서의 자기효능감을 잃어가던 교사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수업과 평가를 바꾸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지 않는 수업, 아이들의 삶과 무관한 수업은 아이들을 움직이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수업과 평가를 통해 작은 성취 경험이라도, 나중에 삶의 힘이 될 수 있는 작은 배움의 경험이라도 만들어주고자 하는 교사들의 움직임이 생겼다. 아이들을 교실의 주인으로 세우고자 하는 교사들의 개인적 노력들이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 서로 연결되며 수업과 평가에 대한 다양한 시도와 도전이 시작되었다.

2.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

창체활동과 수업의 연결: 더불어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영종인

2018년에 인천영종고등학교 학교연극회 주최로 학생, 교사 대상으로 노란리본 극단 연출가를 모시고 세월호 희생자의 어머니들과 연극을 시작하고 진행하게 된 과정에 대해 듣는 특강이 있었다. 이 때 특강에 참여한 선생님들로 하여금 다음 해에 학생 전체와 교사들이 함께 공연을 보며 더불어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시민으로서의 자세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교육 경험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2019년 2월 방학 중 행복교육부, 각 학년부, 창의체험부 간 협의를 통해 4월 학년자치의 날에 세월호 5주기 추모 관련 행사로 세월호 가족들로 구성된 4.16 가족극단 ‘노란리본’을 학교에



초청하기로 결정하고 극단을 섭외했다. 학생들을 위해 극단을 초대했지만 큰 우려의 마음이 있었다. ‘과연 한 학년에 거의 300명에 가까운 우리 아이들이 강당에 모여 비전문 연극인인 세월호 가족들의 한 시간 가량의 공연을 집중하며 견뎌낼 수 있을까?’ 그간의 경험에 의하면 우리 학생들이 강당에 모여 했던 전체 교육이 성공한 적은 없었다. 어떻게 아이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공감을 끌어낼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준비하기로 했다.

먼저 학년/교과별 전문적학습공동체에 의뢰를 했다. 세월호 5주기를 맞이하여 안전 교육, 공감 교육 등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수업을 함께하고 싶은 교과와 학년의 지원을 받아 의견을 모았고 ‘따로 또 함께’ 수업과 동아리 활동 등을 계획하고 4월 한 달 간 실천했다. 영어 시간에는 노란 리본의 의미에 관련된 팝송 배우기, 세월호 관련 영자신문 기사 공부하기를 하고, 윤리 시간에는 세월호 사건에 대해 살펴보고 희생자 가족에게 편지쓰기 활동을, 사회 시간에는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세계시민동아리는 세월호와 관련된 책들을 읽고 독서 감상문을 쓴 후 교내에 게시했고, 사회과학 자율동아리들은 서명 활동을, 학생회는 등 곳곳에 노란 리본 달기 추모 행사를 진행했다. 연극동아리 학생들은 세월호 희생자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대본으로 쓰고 UCC로 제작했다.

아이들은 그렇게 수업을 통해, 동아리와 학생회 활동을 통해 5년 전 그 날을 기억하며 남아 있는 가족들의 마음을 돌아보며 조금씩 4·16 가족극단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공연 당일, 한 학년씩 관람을 하도록 2회의 공연을 진행했는데, 선생님들은 한 시간 내내 꼼짝 않고 숨죽이고 앉아 공연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깜짝 놀라고 감동했다. 공연 후 어머님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하교 시간을 넘겼지만 어느 하나 불평하는 아이들이 없었다. 어머님들과의 대화가 끝날 때쯤 공연장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학생들이 그 날 배우고 깨달은 내용을 정리한 글을 읽으며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한 달 간 창의적체험활동과 수업 시간에 연결하여 준비한 이 행사가 단순한 학교의 행사가 아닌 타인에 대한 공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실천에 대해 느끼고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월호 추모 관련 영어 수업



세월호 추모 관련 윤리 수업

| | |
|--|---|
|  |  |
| <p>학생회의 세월호 추모 활동 및 공연 홍보</p> | <p>연극동아리 라온제나 -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는 UCC 제작</p> |
|  |  |
| <p>창의적체험활동 - 4·16가족극단 초청 공연</p> | <p>세계시민동아리의 세월호 관련 독서 및 캠페인 활동</p> |

교과 간 융합 수업: 아이들의 삶과 연계된 수업을 위한 협력

지난 2년 동안 교과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교과 간 융합 수업을 실시해왔다. 2017년에는 교과 간 주제 중심 융합수업을 고민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생겨 공동체 교사들이 매달 관련 책을 읽고 의견을 나누며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사회의 맥락을 이해하고, 평화로운 공동체의 삶을 배우고 실천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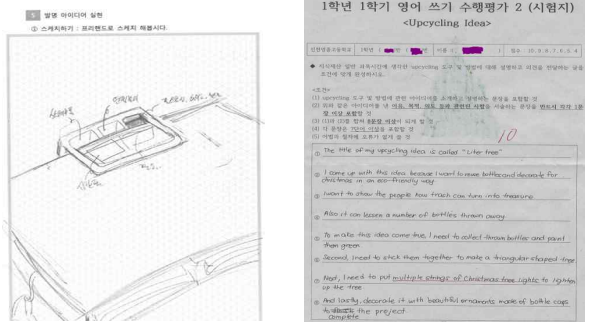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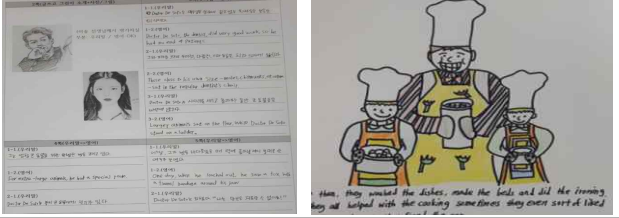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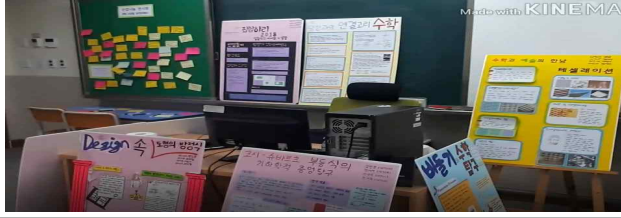
세계시민교육 수업실천 주관을 계획하여 7개 교과 교사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생태환경,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학생 참여 수업을 통한 평화와 공존의 가치의 내면화' 등을 주제로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수업을 디자인한 후, 교과 간 융합 수업을 실천하였다.

또한 기술·가정과의 창의적 라면 끓이기 실습 및 평가와 영어과의 라면 조리법 쓰기 수업 및 평가의 연계, 1학기 동안 영어 동화책을 읽은 것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그림책을 제작하는 활동에서, 영어로 창작한 글은 영어 시간에 쓰기 수행평가로 진행하고, 표지와 내지 일러스트레이션은 미술 시간에 수업하고 평가하는 등 교과 간 융합 수업을 실시했다. 2학기에 영어 시간에 학생들이 작성한 영어 대본으로 연극교사와 협업하여 연극놀이, 낭독극 수업을 진행하고 말하기 수행평가로 낭독극 발표회를 진행했다. 올해에는 지식재산 일반 수업 시간에 재 활용품을 활용한 아이디어 구안에 관한 한 학기 수업의 결과물을 영어 수업 시간



에 upcycling과 관련된 단원에서 쓰기 평가로 연계해 진행했다.

이처럼 교과외 벽을 넘어 학생들의 학습, 평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학생들이 실제로 해 보면서 역량을 키우고 발휘할 수 있는 수업과 수행평가를 협업으로 구현하였고, 학기 말에 ‘수업나눔전시회’를 통해 교내의 타 교과 선생님들과 수업 디자인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융합 수업의 즐거움과 의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 | |
|---|--|
|  |  |
| <p>영어동화책 독서 수업과 연극 수업 융합으로 진행된 영어 낭독극 발표회</p> | <p>지식재산 일반-영어 융합 수업</p> |
|  |  |
| <p>영어-미술 융합 수업</p> | <p>수업나눔전시회</p> |

3. 마치며

함께 ‘구슬’을 꿰어 ‘보배’를 만들어내는 작업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인천영종고등학교에서 동료교사들과 함께 수업과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경험을 통해 이제 ‘교육의 질은 교사 협력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로 바꾸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 교과의 교실 벽을 넘어, 내 수업의 틀을 넘어, 평소 꿈꾸고 상상해 보던 수업, 평가, 교육과정을 동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아이들이 배움을 행복으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수업, 아이들의 삶의 힘을 자라게 하는 수업은 교사 개인이 자신의 교실 안에서 혼자서만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처럼, 교사 개인이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정성껏 빚어내는 교육 활동을 ‘구슬’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보배’를 만들기 위해 그 구슬들을 통하고 엮는 작업이 매우 귀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고 있는 중이다.

제목: '평화' 교육과정 운영

| | | | |
|------|--|-------|---------------|
| 학교명 | 강화여자고등학교 | 중점과제 |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
| 급 별 | 고등학교 | 학년/과목 | 1-3학년/창체 및 교과 |
| 세부과제 | 교육과정 편성의 다양화 | 작성자 | 교사 이연자 |
| 주요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들이 만든 '평화 교육과정' - 학생들의 주도로 실현된 '평화 교육과정' - '대한민국 100년, 평화를 말하다' 학술제 개최, 평화실천선언 | | |

1. 교사들이 만든 '평화 교육과정'

대한민국 100년의 의미

올해 2019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가 주는 교훈은 '평화'이고, 미래 100년의 과제도 역시 '평화'이다.

특히, 우리가 사는 강화도의 경우 한반도 평화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지역이다. 이에 우리 학교는 '대한민국 100년, 평화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었다.

전교사가 함께 만든 교육과정

작년 고려건국 1100주년을 맞아 '고려역사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학교 교사들은 올해 2월 전교사 워크숍을 통해 '평화 교육과정'을 만들어냈다.

모든 교사들이 부서별, 교과별로 팀을 이뤄 치열하게 토론한 결과 매우 창의적인 '평화' 교육 활동과 '평화'주제 수업 계획이 마련되었다. 그것은 우리 학교 교사들이 만들어낸 우리 학교만의 특별한 교육과정이 되었다.

아래 표는 교육계획서에 수록된 각 부서별 평화 교육과정 계획안의 내용이다.



빛깔 있는 주제 중심 교육과정, “평화”

■ 대주제: “대한민국 100년, 평화를 말하다”

| 추진 부서 | 중점 사업 | 중점 과제 | 세부 내용 | 시기 |
|--------------|---------------------|------------------------------|--|--------------|
| 교육 연구부 | ‘평화’ 주제 연계 교과 수업 | 평화 주제 융합 수업 설계 | 전학공 시간 이용 교과모듬별 주제융합 프로젝트 계획 | 6월 전학공 |
| | | 평화 주제 융합 수업 실시 | 기말고사 이후 수업시간 활용, 전학공 시간에 사례 공유 | 7월 |
| 창의 교육부 | 대한민국 100년 평화 학술제 | 동아리별 탐구주제 설정 | 탐구주제 선정 및 탐구 계획서 제출 | 4월 초 |
| | | 동아리별 탐구 활동 실시 | 창제 동아리 시간, 자율 동아리 시간을 활용하여 탐구 활동 | 4~7월 |
| | | 동아리 활동 보고서 제출 | 활동 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영상물 자료집 조형물 대본 음악 등) | 7월 초 |
| | | 학술제 전시 및 발표회 | ‘대한민국 100년 평화 학술제’에서 전시 및 발표 | 7.18.(목) |
| 민주시민 교육부 | 학생자치 문화 조성 | 학생 자치회 역량 강화 | ‘미래 평화를 위한 리더의 역할’ 주제로 리더십 캠프 실시 | 3월, 7월 |
| | | 화합과 평화의 학교축제 | 화합과 평화의 주제로 합창, 연극, 장기자랑 등 학교축제 운영 | 12월 |
| 1학년부 2학년부 | ‘평화’ 주제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 평화의 길 걷기 | 평화전망대와 민통선 걷기, 교동도 탐방 | 5월 9일 |
| | | 평화의 섬 제주 수학여행 | ‘평화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제주 지역 탐사 및 관광 제안서 기획 기회 제공 | 10월 |
| 3학년부 | ‘평화’ 주제 연계 교과 수업 | 강화도 내 평화 관련 지역 조사 및 답사 | 교동도-->평화전망대-->연미정 | 12월 |
| 인문 소양부 | 인문소양교육 | 평화, 독서전시회 | 평화와 관련된 자료 제작 및 도서 전시 어린이왕자를 통해 살펴보는 평화인식 평화를 중심으로 테마별 동그라미 이야기책 제작 | 3~4월 8~9월 |
| 안전건강 생활부 |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문화조성 | 체육의 날 (화합과 평화한마당) | 학생중심의 자율체육활동 활성화 창작댄스, 치어댄스 종목에 평화의 메시지를 담아서 공연 | 5월 17일 |
| 인성 상담부 | 통일, 평화 | 관련 행사 참여 홍보 | 통일, 평화 관련 각종 행사 참여 적극 홍보 | 연중 |
| | | 통일평화관련인포그래픽대회 개최 | 통일, 평화 관련 인포그래픽 대회 개최 | 5월 |
| 행복 진로부 | ‘평화’ 주제 연계 진로 활동 | 평화 주제 전문가 특강 | 평화의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특강기획 | 7월 |
| | | 평화 주제 연계 작품 활동 | 진로시간을 활용한 평화 작품 활동 | 7~9월 |
| | | 평화 주제 연계 동아리 활동 | 동아리활동을 통한 평화 관련 직업 탐방 | 10월 |
| 융합 인재부 | ‘평화’ 통계포스터 | 평화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통계포스터 만들기 | 2학년 확률과 통계 교과목과 교내대회에 대한민국 100년, 통계로 말하다! 라는 콘셉트로 대한민국과 평화와 관련된 주제를 정하여 통계자료들을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해보는 통계포스터 포트폴리오 과제 수행평가로 실시한다. | 6월 중 |
| 기숙사 운영부 | ‘평화’ 주제 글로벌 캠프 | 동아리 연계 글로벌 캠프 | 동아리별/진로별 참여 신청 | 6. 17~6.21 |
| | | 원어민과의 탐구토론활동 | 2박3일 원어민과 탐구 및 토론활동 | 7월 |
| | ‘평화와 여성’ 프로젝트 | 5.18 광주민주화 항쟁 탐구 기행 강사 초청 특강 | 진로(역사, 정치, 사회, 국문) 별 참여 방안 수립 | 4/3 |
| | | | 진로별 탐구주제(역사) 준비 | 4/9 |
| | | | 초청 특강-강사 초청 | 5/7 |
| | | | 초청 만남 | 5/8 |
| | | | 주제탐구 | 5/22 |
| | | | 주제탐구 | 5/29 |
| | | | 탐구보고서 발표(기록일지 및 주제별 탐구) | 7월 중 |

2. 학생들의 주도로 실현된 ‘평화 교육과정’

연 초에 만들어진 ‘평화 교육과정’은 창체활동과 수업 속에서 충실하게 진행되었다. 교사들이 만든 교육과정이지만 실제로 시행되는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기획하고 주도하며 실현되었다. 그중 몇 가지 교육활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한반도 평화 - 평화의 길 걷기〉

5월에 1, 2학년 학생들은 ‘평화의 길 걷기’를 실시했다. 1학년은 평화전망대와 불장돈대에서 구등곶돈대까지 이어진 민통선 길을 걸었다.(이곳 민통선은 지금까지 한 번도 민간인에게 개방되지 않았던 구간이다.) 2학년은 실향민 1세대가 정착한 교동도를 탐방했다. 교동화개산 정상에 올라 북한을 조망하고, 실향민들이 고향의 연백시장을 모티브로 만든 대룡시장을 탐방하며 실향민 어르신을 만나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사전에 학급 시간을 활용하여 남북 분단 및 남북 관계의 변화, NLL, 군사분계선, 실향민, 교동도 등에 대해 조사 및 학급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회를 가졌기에 학생들은 평화의 길 걷기 행사의 의미를 잘 깨닫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녹슨 철망 너머로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또 교동도의 실향민 어르신과 대화하면서 학생들은 많은 것을 느꼈으며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평화의 길 걷기 행사 영상 속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진심 어린 염원을 담아냈다.

| | | |
|---|--|---|
|  |  |  |
| 평화의 길 걷기(1학년) | 평화의 길 걷기(2학년) | 실향민 인터뷰 장면 영상 |

〈한반도 평화 - 통일시대의 북한 이해 특강〉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송실대 평화통일연구원의 김OO 박사를 초빙하여 전문가 특강을 진행했다. 우리 학교의 외부 강사 특강이 늘 그러하듯, 강사의 일방적인 전달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이 사전에 북한의 청소년과 교육에 대해 미리 탐구한 것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발표, 교수님의 강연, 교수님과 학생 패널 간의 질의응답의 형식으로 특강이 진행되었다. 전문가 특강은 북한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북한의 교육(학생 발표)



북한 이해 특강(교수님 강연)



북한이해 특강(교수님 강연)

〈한반도 평화 - ‘평화통일, 통계로 말하다’ 수학 프로젝트〉

수학과에서는 2학년 확률과 통계 교과목과 교내대회를 연결하여 ‘평화통일, 통계로 말하다’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수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통일비용을 계산하고 통일을 이루기에 가장 합리적인 시기를 예측하여 보고서를 작성,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통일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을 해 보게 되었다.

〈평화와 여성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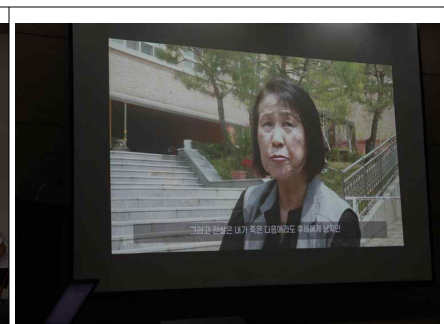
연합 동아리 활동으로 1학기 동안 ‘평화와 여성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가두방송을 이끌었던 여성(전옥주 여사)과의 3차에 걸친 토크 콘서트를 위주로 진행됐다. 정치·외교·역사·언론·방송 등의 동아리들은 자신의 진로 분야와 연결시켜 5·18 민주화 운동을 심층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옥주 여사와 직접 만남을 가지며 토크 콘서트를 진행함으로써 5·18 민주화 운동의 배경, 전개과정, 결과 및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했다. 특히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인식하고 앞으로 자신도 한 개인으로서 또한 여성으로서 평화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전옥주 여사와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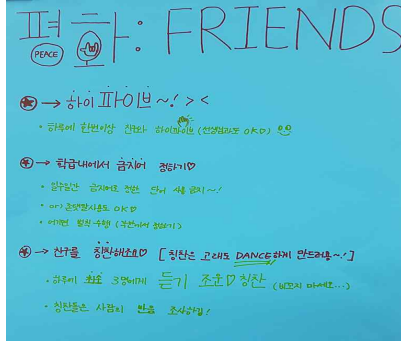

전옥주 여사와의 토크 콘서트



‘전옥주 여사의 삶’ 영상 제작

〈아름다운 참여, 작은 평화를 위한 한걸음 프로젝트〉

독서 시간에 평화에 대한 마인드맵, 세상의 평화를 위한 사회참여방법을 모색하고, 또한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한 후 그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 | |
|---|--|---|
|  |  |  |
| 평화에 대한 마인드 맵 발표 | 작은 평화를 위한 실천 모색 | 아름다운 참여 방안 발표 |

3. 평화 교육과정 발표회 - ‘대한민국 100년, 평화를 말하다!’ 학술제 개최

7월 18일 ‘평화 학술제’를 개최했다. 이는 3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천해온 평화 교육활동의 결과물을 전시하고 발표하는 자리였다.

학술제의 모든 프로그램은 학생 기획단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기획하고 추진하였다. 학술제에서는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 한반도 평화, 동아시아 평화, 세계 평화와 관련된 이야기가 음악, 뮤지컬, 연극 공연, 학술 심포지엄, 영상, 미술 전시 등 다양한 형태로 발표되면서 관중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특히 학생이 직접 작곡한 평화 음악의 연주,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과 평화를 위해 희생한 김구 선생님의 삶과 ‘나의 소원’을 조명한 뮤지컬 공연, 한국 현대사를 조명한 뮤지컬 공연은 관중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다.

학술제 프로그램의 화룡점정은 학술제 학생 기획단이 직접 작성한 평화실천선언문을 전교생이 함께 낭독한 것이었다.

| | | |
|---|--|---|
|  |  |  |
| 김구의 ‘나의 소원’ 공연 | 대한민국의 과거와 미래 공연 | 평화 실천 선언 낭독 |



여는 마당

| 순서 | 시간 | 출연자 |
|---------------|-------------------|-----------------------------------|
| 오케스트라 연주 | 13:40~13:55 (15') | 오케스트라 단원 물빛 앙다경/작곡 박에서 /성악 유지민 |
| 철선녀 성무 | 13:55~14:05 (10') | 조은샘 외 6명 |
| 김구 '나의 소원' 공연 | 14:05~14:15 (10') | 학술제 학생 기획단 |
| 개회선언 및 축사 | 14:15~14:25 (10') | |

학술 마당

| 순서 | 시간 | 출연자 |
|--|-------------------|--|
| 영화 교육 피노키오 (영상 발표) | 14:25~14:35 (10') | 필름 동아리 |
| 평화의 길 걷기 (영상 발표) | 14:35~14:45 (10') | 에다움 동아리 |
| 동아리 학술 심포지엄 -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 - 남북 교류 - 우리 일상 속의 평화 | 14:45~15:15 (30') | 미래지향연구소/P&E 원앤원/Chemistry 힐링/나눔/외유내강 |
| 연극 공연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 | 15:15~15:30 (15') | 가로수 동아리 |
| 쉬는 시간 | 15:30~15:50 (20') | |
| '우리의 과거와 미래' 공연 평화실천선언 | 15:50~16:10(20') | 학술제 학생 기획단 외 |
| 폐회사 | 16:10 | |

부대행사

| 구분 | 내용 | 장소 |
|------|----------------------|------------|
| 전시회 | 보고서, 그림, 홍보지, 책자, 영상 | 중앙현관, 강당입구 |
| 체험부스 | 사회적협동조합창업페스티벌 | 중앙 필로티 |

1919 - 2019

평화 실천 선언

- 강화여자고등학교 -

하나. **(민주주의)** 우리는 민주화운동의 자랑스런 역사를 통해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국가의 주인으로서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것을 약속한다.

하나. **(윤리경제)** 우리는 책임질 수 있는 소비자 행동을 실천하고,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일에 앞장서서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 것을 약속한다.

하나. **(사회통합)** 우리는 의사 표현의 자유와 존엄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려와 공감을 실천 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것을 약속한다.

하나. **(생명존중)**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여 나와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하나. **(인권존중)** 우리는 학벌, 경제적 지위, 국적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차별이나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하나. **(나눔봉사)**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대하고 우리가 소유한 것을 적극적으로 나누고 배분할 것을 약속한다.

하나. **(한반도 평화)** 우리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비극인 분단 현실의 아픔을 직시하고 민족의 고통을 평화로 승화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약속한다.

하나. **(한반도 평화)** 우리는 종전에 대한 확고한 희망을 가지고, 4.27 판문점 선언을 구현하기 위해 남북 학생 왕래와 교류를 적극 도모할 것을 약속한다.

하나. **(동아시아 평화)** 우리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의 실상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약속한다.

하나. **(세계 평화)** 우리는 전쟁, 폭력, 빈곤, 환경 파괴 등 인류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하여 지구촌의 평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

강화여고는 사랑과 평화의 문화를 접목하여
진정된 평화가 강화여고로 알려질아 우리나라에 실현되고,
전 세계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2019. 7. 18.

2019학년도 강화여자고등학교 학술제

대한민국
100년
평화를 말한다

평화 학술제 리플릿

평화 실천 선언

〈동아리별 발표 주제〉

| 동아리 명 | 발표 내용 |
|-------------|---|
| Chem is try | 남북한이 서로 도우면서 남한이 북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과학기술은 무엇이 있을까? |
| 늘품 | 대한민국 교육의 역사와 평화 |
| 요리킹조리킹 | 북한의 음식과 남한의 음식 |
| 두빛나래 | 학교 내 경쟁 심리를 완화하고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 |
| 런앤런 | 북한과의 평화 통일 : 남한으로 들어올 북한의 기업 |
| 애니메이트 | 동물과 함께 이루는 평화 |
| 골든메디컬 | 평화의 시대, 남북한의 의료 체계 |
| 2FD 프로파일링 | 1919년의 일본군들의 만행 조사, 일본상품불매운동과 관련된 기업 |
| 배움 | 평화교육 |
| 과학이슈탐구부 |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과학 |
| FLY HIGH | 항공분야의 독립운동가와 전쟁에 항공이 미친 영향 |
| En | 평화와 공학(북한의 공학 기술과 적정기술에 대하여) |
| 너나들이 | 우리나라 평화를 위해 힘쓴 역사적 인물의 심리 분석 |
| 미래지향연구소 |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의 실상, 생체 실험의 비윤리성 |

| | |
|-----------|--|
| Healing | 국경없는 의사회와 같은 비정부기구에 대한 노력 및 소개, 대한민국의 경제수준이 높아지는 등의 발전을 했음에도 줄어들지 않는 자살률에 대한 이유 분석 및 대처법 |
| P&E | 대한민국 100년 되돌아보기 : 로켓산업 중심의 과학사 |
| 미술부 | 평화미술작품 |
| 외유내강 | 언어와 평화 |
| GBLAM | 탈원전 및 북한 비핵화를 주제로 한 핵에너지 연구 |
| 나슬 | 평등으로 평화만들기 |
| 날빛 | 생명과학, 이번엔 평화에 뛰어들다! |
| 창의융합독서반 | KDC분야별 평화독서전시회 |
| 아해 꿈 누리 | 동화책 및 평화신문 |
| HIH 봉사부 | 대한민국 100년 되돌아보기 : 장애인식변화 |
| CNF | 평화신문만들기(중국) |
| 미래지향연구소 | 세계평화의 관점으로 본 남북통일 |
| 역사사건탐구반 | 대한민국 100년 |
| 아란도란 | 북한 학교 내에서의 교육 |
| Artist | 미래의 통일 학교 디자인 |
| 해플락 | 평화의 길, DMZ |
| 사회이슈토론부 | 미래통일 지향 스톱모션 |
| 가로수 |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 연극대본 작성 |
| 온에어 | 다양한 분야에서의 다양한 의미의 평화들(스포츠, 사회,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
| 솔리언 포래상담부 | 내면의 평화를 만들어주는 말 조사 후 전시 |
| 예다움 | 평화의 길 걷기 영상 발표 |
| 필름 | 대한민국 100년에 대해 되돌아보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
| 꽃가람 | 평화 봉사 탐구/평화가 필요한 지역에 우리가 줄 수 있는 도움 찾기 |
| 코스모스 | 백두산 상태, 폭발시 북한 및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
| 플라즈마 | 북한의 의학기술 및 북한에 있는 질병 조사 |

4. 마치며

‘평화’란 간단한 정의로 구체화 시킬 수 없는 단어이다. 하지만 우리 학교 학생들은 1학기 동안 많은 체험과 탐구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시각으로 풀어가며 접근한 결과를 정말 구체적이고도 다양한 평화 이야기로 쏟아냈다. 학생들은 ‘평화’에 익숙해졌고, 그만큼 평화 감수성과 평화 역량도 길러졌다.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연마해 진로를 개척할 뿐만 아니라 민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동아시아 및 세계 시민으로서 자신의 해야 할 역할도 함께 생각하게 되었다. 올해 우리 학교가 운영한 ‘평화 교육과정’은 평화 공존 교육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제목: 존재를 인정해주는 교육과정 재구성

| | | | |
|------|--|-------|-------------|
| 학교명 | 인천하이텍고등학교 | 중점과제 |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
| 급 별 | 고등학교 | 학년/과목 | 1-3학년/전 교과 |
| 세부과제 | 교육과정 편성의 다양화 | 작성자 | 교사 한인수 |
| 주요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가 살아있는 행복한 수업 만들기 - 실천 속에서 성장하는 사제동행 활동 - 학생의 존재 자체에 대한 집중, 인정과 공감 | | |

1. 교육과정 재구성은 왜 필요한가?

1) 일반적 교과 교육과정의 한계

신규 교사 시절 연수를 받기 위해 방문한 교육청에서 서명부에 운봉공업고등학교 라는 학교 이름을 적자 뒤에 서 있던 선생님이 고개를 들어 한 번 더 나를 쳐다보았던 기억이 교육경력 16년차인 지금도 내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그리고 다른 두 학교를 거쳐 다시 돌아온 인천하이텍고등학교는 예전과 별반 다름없이 구)운봉공업고등학교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한 채, 아직도 많은 교사들이 상처받고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는 기피 대상 1호의 학교로 남아있었다.

게다가 학령인구 감소와 특성화고등학교 기피 현상으로 인해 학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학교의 모습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다. 누군가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고, 누군가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고 했지만, 나의 청춘을 함께한 학교가 거의 폐교의 수순을 밟고 있다는 사실은 무척이나 안타깝고 속상한 일임에는 분명했다.

이런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사실 가르침과 배움은 교사 혼자만의 일방통행이 아니다. 훌륭한 가르침이 이루어지려면 훌륭한 교사만큼이나 좋은 학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학교는 좋은 학생이 없다는 좋은 핑계거리가 있었고, 이는 선생님들의 가르침에 대한 욕구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초 학력이 낮은 것은 물론, 모든 것에 관심이 없어 수업에 참여하려 하지 않고, 수업에 참여시키려 하면 거칠게 반항하는 학생들의 존재는 교사로서의 자존감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학생들 또한 훌륭한 교사가 없다면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유를 교사에게서 찾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교사와 학생은 현재 상황의 이유를 서로에게 미루고 있었다.

2) 무엇을 어떻게 왜 가르치는가에서 누구를 가르치는가에 대한 시선의 변화

행복배움학교를 통해 이루어진 가장 긍정적인 변화는 교사 간 소통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교사와 학생이 현재 상황의 이유를 서로에게 미루는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존감과 정체성이 약한 학생들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교사들이 먼저 변화해야 했다.

교사들은 행복배움학교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자각하기 시작했고 반성하기 시작했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실천적인 모임과 행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나눔 토론을 통해 서로 간에 떨어진 자존감과 현실에 대해 표현하고 어려운 점을 나누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응원해주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함께 연수를 듣고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왜 가르치냐는 것보다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돌고 돌아 학생이라는 정답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학생들 한명 한명의 존재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여건과 상황을 인정해주고, 마음을 있는 그대로 공감해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자 최후의 방법이었고 우리학교가 나아가야 할 행복배움학교의 방향이었다.

2. 교육과정 재구성, 이렇게 실천했어요.

1) 관계가 살아있는 행복한 수업 만들기

학생들의 기초 학력이 낮다는 것은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정규 교육과정을 소화하기에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생각하기에 따라 우리가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도달해야 하는 목표를 낮게 설정할 수 있고, 교육과정의 재구성에 있어 수월성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학생들이 통찰과 사고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주고 직접 경험을 하도록 하는 체험 위주의 수업은 생각보다 훨씬 큰 효과를 발휘했다. 특성화 고등학교 전공 교과와 경우 대부분 실습 위주의 교과가 많아 학생들이 만져보고, 작동시켜 보면서 수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학생 참여도가 보통 교과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하지만 보통 교과의 경우 이론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다 보니 수업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우리학교에서는 행복배움학교로 지정된 이후 2년째 한국사와 일본어 교과를 접목하여 학생들이 동인천 근대개항장 거리를 직접 방문하는 체험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가 사는 인천이 개항에 있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국제 정세와 일본과의 역학적 관계에 따른 시대상을 직접 거리를 걸으며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가기 전에 귀찮아하며 선생님의 진을 빼던 학생들이 거리를 걸으며 남아있는 근대 역사 유물들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느낀 만족도는 수업 후 이루어지는 보고서 평가를 통해 이러한 체험이 보다 효과적이고 유의미한 수업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근대 개항장 거리의 일본인 거류지에는 1880년대 이후 조선의 경제 침탈을 위한 제1은행(현재 개항박물관), 제18은행(현재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제58은행 건물이 남아 있다.



근대 개항장 거리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당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알 수 있었으며, 청 조계(차이나타운), 일본 조계, 각국 조계 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실천 속에서 성장하는 사제동행 활동

특성화고등학교는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능인재 육성이라는 원래 취지가 무색하게 잘못된 사회적 편견과 기피 현상으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어려움을 겪는 몇몇 학교는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이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사회의 부담이 될 수 있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이런 학생들을 지도한다는 것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이를 견디지 못하는 선생님들은 짧은 기간을 근무한 후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학생들 또한 우리 사회와 공교육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순화시키고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성화고에 많은 예산이 배정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 정부에서는 현재의 이러한 투자가 미래의 사회적 부담비용보다 훨씬 큰 이득이 된다고 보고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을 데리고 사제동행 활동을 하면서 겪게 되는 에피소드는 여느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상상 그 이상이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을 데리고 활동하는 선생님들의 부담과 걱정, 그리고 시간 투자는 교사 개인의 많은 희생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사제동행 활동을 하면 할수록 학생들이 교사에 대해 정서적인 유대감을 표현한다는 것과 사회가 함께 공유하는 질서와 가치에 대해 좀 더 호전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변화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지난 2017년 행복나눔학교부터 시작된 사제동행 활동은 3년의 시간을 거쳐 행복배움학교로 업그레이드 된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작지만 큰 변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우리학교의 사제동행 활동을 살펴보면 학급단위, 학과단위, 부서단위, 학교단위 등 수없이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볍게는 식사에서부터 연극·뮤지컬 등 공연 관람, 스포

츠 관람, 고궁 관람 등의 각종 관람 활동과 허그데이, 김밥 데이, 삼겹살 데이 등 특별 이벤트 행사를 통해 사제 간의 정을 나누는 시간, 갯벌 체험, 학과 캠프, 산악 캠프, 스키캠프 등 각종 체험 활동 등에 이르기까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활동 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 실시되고 있다.



대학로에서 연극 관람 후에 출연 배우들과 학급 단위로 기념 촬영을 하면서 즐겁고 소중한 추억을 남겼다.



정기고사 첫째 날 아침에는 김밥(밥버거) 데이를 실시하여 교사, 학부모들이 직접 등교하는 학생들을 맞이하며 격려하였다.



사제동행 학과의 날, 학과 캠프 등을 운영하여 학과 선생님들과 선후배, 친구들 간에 화합과 단결을 다짐하며 소속감을 길렀다.



사제동행 스키 캠프를 매년 운영하여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 생활의 기회를 통해 배려와 협력의 정신을 길렀다.

3. 마치며

공기놀이를 해도 좋고 하루 종일 놀기만 해도 좋으니 학생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만 보여 달라는 것이 새로 부임하신 교장 선생님의 첫 번째 부탁이었다. 그만큼 우리 학생들은 수업에 부정적이고 비협조적이다. 하지만 이런 학생들도 협조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바로 우리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가 살아 있는 수업’과 ‘사제동행 활동’들이다. 교실에 앉아서 공부만 하는 지식 위주의 단순 주입식 수업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수업 활동을 통해 우리학교는 학생들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누군가는 수업을 안 하고 놀기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수업을 한다고 해도 듣지 않을 수업이라면 차라리 과감히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 학생이라는 존재에 대한 인정과 소통을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투자해 보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이다.

우리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활동들은 교사들의 희생과 많은 시간 투자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 교사는 학생의 마음을 살펴보고, 학생은 자신을 보는 교사의 마음을 조금씩 인정해 나가고 있다. 우리학교가 일반 학교와 다른 가장 큰 장점은 우리 학교 실정에 맞게 소규모로, 1:1 수업과 개별화 수업이 가능하여 우리학교만의 창의적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남들보다 말쑥을 많이 부린다는 이유로 주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학생들의 존재 하나 하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 단순히 정량적으로 보여지는 학교의 변화가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존재가 목적이 되고 관심의 대상이 되며 그 결과로 학교가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 인천하이텍고등학교가 원하는 행복배움학교의 모습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우리학교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바라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제목: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창의적 역량함양 교육 활동

| | | | |
|------|---|-------|-------------|
| 학교명 | 작전여자고등학교 | 중점과제 |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
| 급 별 | 고등학교 | 학년/과목 | 전 학년/전 과목 |
| 세부과제 | 교육과정 편성의 다양화 | 작성자 | 교사 김일용 |
| 주요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 수업과 연계한 세계시민교육 활동 - 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세계시민교육 활동 - 자율 활동과 연계한 세계시민교육 활동 | | |

1.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

세계시민교육이란?

‘세계시민교육’은 세계를 하나의 단위로 인식하며 다양한 문화 및 사람들과의 상호 의존성을 이해하는 보편적 인류 공영의 가치를 추구하며 이를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 가는 교육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한 개인이 전 지구적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성, 역량, 태도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길러 주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시민교육은 왜 필요한가?

2012년 9월 국제 연합(UN) 총회에서 ‘모든 아동의 취학’, ‘교육의 질 향상’과 함께 ‘세계시민의식 함양’이 강조되면서 세계시민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5년 5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에서 세계시민교육 내용을 담은 ‘인천 선언’을 채택하면서, 세계시민교육(GCED)은 향후 2030년까지 전 세계 유네스코 회원국들이 추진해야 할 범세계적 교육정책 목표의 하나가 되었다.

또한 2015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자기관리 역량, 지식 정보처리 역량, 창의적사고 역량, 심미적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과 더불어 공동체 역량을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한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이 세계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책임감을 가지며, 가치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세계를 보다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변화시키려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활동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세계시민교육, 이렇게 활동했어요.

세계시민교육의 시작

다양한 세계시민교육 활동을 하기에 앞서 먼저 세계시민이란 무엇인지, 세계시민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은 활동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시작하였다.

1. 세계시민에 관한 안내 동영상을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이를 시청하도록 지도
2. NGO 단체의 강사님들을 섭외하여 자율 활동 시간에 세계시민교육 특강을 실시
3. 영어, 사회 교과 시간에 세계시민과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대한 수업을 실시



세계시민교육 특강(학생)
(온해피, 위드미)



세계시민교육 특강(교사)
(온해피, 위드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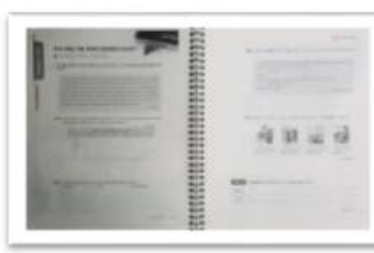
세계시민&지속가능발전 수업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도 연수를 실시하여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이해하고 관심을 갖게 되자 다음과 같은 다양한 교육 활동으로 이어졌다.

교과수업과 연계한 세계시민교육 활동



인권 및 난민 주제 프로젝트
(사회과)



창의융합프로젝트(지진)
(수학과)



세계시민 북큐레이션 활동
(도서관)



만화로 그리는
세계문화 이야기(미술과)



멸종위기동물 에코백 만들기
(미술과)



전래동화 번역책 보내기
(영어과)

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세계시민교육 활동



월드비전 인권교육



면 생리대 제작 및 기부



다문화박물관 견학



2019 공정무역 페스티벌 참여



공정무역 캠페인



인권 캠페인

자율 활동과 연계한 세계시민교육 활동



다문화 체험의 날



중국, 일본 문화 체험 캠프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 과제해결 S/W 경진대회



태국 탁피타야콤 학교와의 문화교류 행사



지속가능발전(SDGs) 프로젝트



몽골 자매학교 학용품 전달



3. 세계시민 교육활동으로 이렇게 변했어요.

세계시민교육 활동을 통한 공동체 역량 함양

처음에는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세계시민’이라는 말이 연수를 통해 그 의미를 알게 되고 세계시민교육이 학생들에게 필요함을 인식하자, 수업과 동아리활동 및 자율 활동 등 다양한 교육 활동 속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다양한 교과에서 여성과 아동 인권, 환경 문제,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 세계의 다양한 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 수업이 이루어졌고, 동아리 활동에서는 인권 캠페인, 공정무역 캠페인 등 학생 주도의 다양한 캠페인과 활동이 이루어졌다. 또한 자율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17가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 중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협동하여 해결 방안에 대해 탐구하였고, 다양한 문화 교류 행사 및 활동을 통해 우리 문화뿐만 아니라 태국, 몽골, 중국, 일본, 베트남 등 다른 문화에 관심을 갖고 이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세계시민’,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생물의 다양성’, ‘인권’, ‘성 평등’ 과 같은 단어들은 이제 매우 익숙한 듯 보인다. 다양한 세계시민교육 활동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더 나아가 세계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가치와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2015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 역량 중 하나인 공동체 역량(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량)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었다.

4. 마치며

사람은 네트워크(관계성)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결국 행복이라는 것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나’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시민교육은 학생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더불어 조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교육이 아닐까 생각한다.

또한 행복 배움 학교를 운영하며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 역량을 함양시켜 주고,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역량과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인천교육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제목: 꿈을 위한 발돋움, 안남고만의 꿈돋움 교육과정

| | | | |
|------|--|-------|-------------|
| 학교명 | 안남고등학교 | 중점과제 |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
| 급 별 | 고등학교 | 학년/과목 | 1학년/창체 |
| 세부과제 | 교육과정 편성의 다양화 | 작성자 | 교사 김혜선 |
| 주요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꿈을 위한 발돋움, 꿈돋움 교육과정 - 교과 융복합의 날 운영을 통한 더 넓은 진로 탐색 - 하나의 작품을 함께 완성하며 성장하는 연극 수업 | | |

1. 왜 꿈돋움 교육과정인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아이들은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까?

이세돌과 알파고의 세기의 바둑 대결 이후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너무나 친숙하게 자주 듣는 용어가 되었다. 4차 산업혁명으로 현재 일자리의 대부분은 로봇이 대체하게 될 것이므로 인간은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역량을 개발해야 하며, 지식을 축적하기 보다는 협동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교육현장에서의 중론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역량에 기반을 둔 교육과정 운영, 배움중심 수업개선과 과정중심평가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에서는 2025년부터는 전면 실시 예정인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며 학생의 흥미와 적성, 진로희망에 따른 과목선택권을 확대하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변화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인데, 과연 우리 아이들은 이러한 역량을 키워서 미래에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될까?

꿈을 위한 발돋움, 꿈돋움 교육과정

우리 학교만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인 진로자율선택, 꿈돋움 교육과정은 이런 고민에서 출발했다. 진로교육이 곧 입시지도는 아니다. 우리 아이들의 진로는 대입 준비 뿐 아니라 다양한 방면으로 고민하고 준비해야 하며, 시험을 위한 지식 축적 외에도 삶의 힘이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진로교육이 될 것이다. 행복배움학교 1년차 학교로서 중점 과제를 선택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의 삶의 힘을 길러줄 수 있는 다양한 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수집하였다. 교과 교육과정에서 다루기 어렵지만,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새로운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강좌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오갔으



며, 그 결과로 안남고 꿈돋움 교육과정이 마련되었다. ‘꿈돋움’교육과정은 ‘꿈을 위한 발돋움’, ‘꿈을 돋움’을 줄여 학생들의 꿈을 키우고 성장을 돕는 교육과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2. 꿈돋움 교육과정,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꿈돋움 교육과정을 들여다 보면...

꿈돋움 교육과정은 크게 이공·IT 분야와 인문·사회 융복합 분야로 나뉘어 운영되었다. 각 과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이공·IT 분야 | |
|----------------|---|
| 과정 | 주요 수업 내용 |
| 메이킹 드론 및 코딩 드론 | 드론의 비행 원리 및 활용 분야 탐색, 드론 제작 및 조종법을 익혀 비행 실습 |
| 3D프린팅 | 3D프린팅의 프로세스 이해, 디자인 모델링 및 3D프린터 출력 실습, 스스로 3D모델링 편집 |
| 증강현실(블록셀) | 블록셀 및 앱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익히고 내가 만든 캐릭터로 증강현실 구현 |
| 엘리오 | 스마트 무선 컨트롤러 엘리오의 특징과 사용법을 익혀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구현 및 엘리오보드의 LED를 연결한 작품 만들기 |
| 오조봇 | 선과 색을 인식하고 오조블록클리로 코딩이 가능한 로봇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력 증진 |
| 인문·사회 융복합 분야 | |
| 창의발상 | 창의적 인식능력의 향상을 위해 점, 선, 면, 입체, 동작, 색, 스토리로 사고를 확장하고 그리기, 만들기, 발표하기 활동을 통해 생활 속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보는 수업 |
| 오픈스페이스론 | 오픈스페이스 테크놀로지(OST) 대화방법 체험 및 발표와 토론능력 향상을 통한 자기주도적인 꿈 발견과 설계 |
| 생각코딩 | 생각을 체계적으로 디자인하여 논리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미래인재의 기초 핵심 역량 강화 프로그램 |

꿈돋움 교육과정은 1학년 학생 대상으로 1학기 중 총 10차시를 진행하였고,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시간을 활용하여 총 8팀의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실시되었다. 2월 중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3월 초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꿈돋움 교육과정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1학년 학생 대상으로 각 과정에 대한 안내 및 수강신청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와 관심분야에 맞는 강좌를 선택하여 수강신청을 하고 선택한 강좌를 총 10차시에 걸쳐 수강하였다.



오조봇



창의적 발상



엘리오



오픈스페이스 토론



메이킹 드론



생각코딩- 마인드맵

산출물(생각코딩, 창의적발상)

[illegible]

꿈돋움 교육과정을 마친 후 작성한 학생들의 소감문

교과 융복합의 실제 운영

1학기 1회, 2회고사 이후 취약시기를 이용해 교과 융복합의 날을 운영하였는데, 이 날에는 꿈돋움 과정 중 본인이 수강하지 않는 다른 강좌를 선택하여 3시간 동안 특강 형식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꿈돋움 교육과정의 선착순 수강 신청으로 인해 희망 강좌를 수강하지 못한 학생들의 아쉬움도 달래고, 학생들의 경험의 폭을 넓혀주고자 하였다. 이 프로그램에는 기존 꿈돋움 교육과정의 7개 강좌 외에 산업자원통상부에 신청하여 진행하게 된 국제통상 특강을 포함하여 국제경제 환경의 이해 및 대응역량 함양, 통상 분야 전문가로의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3. 우리의 작품을 함께 완성해가는 연극 수업

전문 강사와 함께 하는 연극 수업

안남고 1학년 학생을 위한 꿈돋움 교육과정이 있다면, 2학년 학생에게는 전문 강사와 함께 하는 연극 수업이 있다. 2학년 학생들은 매주 1시간 진로시간에 전문 연극인과 함께 연극 수업을 진행하였다. 모듈별로 머리를 맞대고 대본을 작성하고, 다른 모듈의 대본을 보고 서로 피드백을 해주었으며 모듈별 아이디어를 모아 학급의 대본을 완성하였다. 대본이 완성된 후에는 누군가는 배우가 되어 연기 연습을 하고, 누군가는 홍보팀이 되어 우리반 연극을 홍보하는 포스터를 제작하고, 또 누군가는 소품을, 음향을 준비하는 등 모든 학생이 하나씩 역할을 맡아 우리 반만의 극을 준비하고 무대에 올릴 준비를 하였다. 모두의 노력으로 한 편의 연극이 완성되어 무대에서 공연을 끝마쳤을 때는 서로 자랑스러워하며 격려해주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4. 마치며...

꿈돋움 교육과정은 마중물과 같았다. 이 교육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교과수업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강좌를 수강하면서 자신의 희망진로에 대해 한 번 더 깊게 생각해보거나, 새로운 진로에 대해 알아가는 계기를 얻을 수 있었다. 막연하게 생각만 했던 장래희망이나 전혀 생각해본 적도 없던 새로운 분야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탐색을 시작하는 학생들도 생겨났다. 10시간의 수업이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아이들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 하나 정도는 심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 2학년의 연극 수업은 그 자체로 한 편의 성장드라마와 같았다. 모두가 크든 작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맡아 한 편의 연극을 무대에 올리는 과정을 통해 자기효능감과 소속감을 갖게 되고, 성취감을 맛보며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작은 호기심, 작은 성취감의 씨앗이 행복배움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싹 틔우고 꽃 피우게 될지 흐뭇하게 지켜보아야겠다.

중등-배움 중심의 수업 혁신



제목: 지역사회와 함께 삶의 힘을 키워요

| | | | |
|------|---|-------|---------------|
| 학교명 | 동암중학교 | 중점과제 |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
| 급 별 | 중학교 | 학년/과목 | 2-3학년/역사(동아리) |
| 세부과제 | 배움 중심의 수업 혁신 | 작성자 | 교사 장서정 |
| 주요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봉사동아리 ‘트루 메이커스(True Makers)’ 소개 -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한 동아리 활동 실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지역의 역사, 기억해야 할 역사는 우리가 지킨다! ·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통해 삶의 힘을 키워요! | | |

1. 시작하며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역량이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문제를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스스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아주 오랫동안 우리 교육은 텍스트 즉, 교과서에 학생들의 사고를 가두어 획일화시키고 일제교사를 통해 학생들을 서열화하는데 열중하였다. 2015 개정교육과정은 이에 대한 반성이며 학생을 교육과정을 주입하는 대상이 아닌 교육과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 보고 있다.

이제 학교는 학생들 스스로 세상과 삶을 보는 눈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교육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그 중에서도 삶의 현장이 교과서가 되고 학교가 되는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 교육의 필요성이 크다.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이야말로 배움이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활터전, 나의 삶 전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선생님과 학교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 내가 숨 쉬고 살아가는 공간이 모두 배움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은 학생들이 세상을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동암중학교 역사봉사동아리 ‘트루 메이커스(True Makers)’의 실천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 연계 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2. 역사봉사동아리 ‘트루 메이커스(True Makers)’ 소개

- 동아리 명 : 트루 메이커스(True Makers)
- 대상 : 동암중학교 2-3학년 학생, 총 33명
- 시기 : 2019학년도 1, 2학기
- 동아리소개 : 2-3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역사봉사동아리로 잊혀진 역사, 기억해야 할 역사를 찾아 답사하고 공부하여 사람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통해 역사의 진실(True)에 한걸음 다가가는 실천 중심의 동아리. 2주에 한 번 모임이 이루어지며 각종 캠페인 활동,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한 봉사 활동, 역사 현장 답사활동, 문화해설재능기부 활동 등을 하며 학생들의 역사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자신과 세상을 통찰하는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활동 목표로 하고 있음. 문화재청으로부터 2019학년도 청소년문화재지킴이로 임명되어 활동을 병행하고 있음.
- 지역사회 협력기관 : 궁궐문화원, 계양문화원, 문화재청, 부평문화원, 부평역사박물관, 부평청소년수련관, (사)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안산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통일교육센터

3.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한 동아리 활동 실천 사례

1) 우리 지역의 역사, 기억해야 할 역사는 우리가 지킨다!

한국사가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면서 학생들이 예전에 비해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식도 많아졌지만, 막상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동암중학교 역사봉사동아리 ‘트루 메이커스(True Makers)’학생들은 2019학년도 청소년문화재지킴이로서 우리 지역에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 답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문화해설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텍스트 안에 갇힌 지식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배우는 실천 중심의 활동을 하였다.

우리 지역에는 어떤 역사와 문화재가 있는지 깊이 탐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함을 느끼고 관련 지역사회 기관들을 알아보다가 계양문화원, 부평문화원 등과 같은 지역사회 기관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행히 이러한 지역사회 기관들도 자체적으로 문화해설 프로그램,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동아리 활동을 실시하였다.

| 연번 | 일자 | 참여인원 | 주요활동 | 협력기관 |
|----|-------------|------|---------------------------------------|----------|
| 1 | 2019.06.01. | 20 | 부평향교, 부평도호부청사 답사 | 계양문화원 |
| 2 | 2019.06.07. | 18 | 부평역사박물관 체험 | 부평역사박물관 |
| 3 | 2019.07.08. | 8 | 부평향교, 부평도호부청사 문화해설 재능기부 활동 | 계양문화원 |
| 4 | 2019.07.12. | 14 | 부평지하호(부평토굴) 문화해설 자료 수집 및 모니터링 활동 | 부평문화원 |
| 5 | 2019.08.31. | 19 | 광화문광장 및 경복궁 일대 문화해설 자료수집 및 모니터링 활동 | 궁궐문화원 |
| 6 | 2019.09.19. | 9 | 광화문광장 및 경복궁 일대 문화해설 재능기부 활동 | 궁궐문화원 |
| 7 | 2019.09.22. | 8 | 계양산성 문화해설 자료 수집 및 모니터링 활동 | 계양문화원 |
| 8 | 2019.09.26. | 7 | 계양산성 문화해설 재능기부 활동 | 계양문화원 |
| 9 | 2019.10.05. | 24 | 부평 역사 및 생활문화 현장 탐방 | 부평역사박물관 |
| 10 | 2019.10.19. | 20 | '내 손으로 만드는 역사' 체험부스 운영 | 부평청소년수련관 |



부평지하호(부평토굴) 문화해설 자료수집
및 모니터링 활동



광화문광장 및 경복궁 일대 문화해설 자료수집
및 모니터링 활동



계양산성 문화해설 자료 수집
및 모니터링 활동



계양산성 문화해설 재능기부 활동



부평 역사 및 생활문화 현장 탐방
(부평 삼릉지역, 미쓰비시사택 답사)



부평 역사 및 생활문화 현장 탐방
(부평공원 답사)

2)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통해 삶의 힘을 키워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시야를 넓혀 우리 사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았다.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문제 해결을 위해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는 토의·토론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안산 4·16 기억교실을 방문하여 세월호 희생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마음을 담아 직접 만든 노란리본을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며 했던 세월호 5주기 추모 캠페인 활동은 아이들을 한층 성장시켰다.

탈북하신 분이 직접 들려주는 인천통일교육센터 통일순회 강좌를 경청하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강사님께 북한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질문을 하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직접 노동자의 권리를 몸으로 표현해보고 행복한 노동자가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해보며 아이들은 생각하는 힘·삶의 힘을 키워나갈 수 있었다.

| 연번 | 일자 | 참여인원 | 주요활동 | 협력기관 |
|----|-------------|------|----------------------|----------|
| 1 | 2019.04.11. | 16 | 세월호 5주기 추모 캠페인 활동 준비 | |
| 2 | 2019.04.12. | 15 | 안산 4·16 기억교실 방문 | 안산교육지원청 |
| 3 | 2019.04.16. | 23 | 세월호 5주기 추모 캠페인 활동 | |
| 4 | 2019.05.24. | 12 | 인천통일교육센터 통일순회강좌 참여 | 인천통일교육센터 |
| 5 | 2019.09.30. | 31 |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참여 | 인천시교육청 |
| 6 | 2019.11.16. | 10 | 행복나눔 김장재능봉사 참여 예정 | 부평청소년수련관 |



안산 4·16 기억교실 방문



세월호 5주기 추모 캠페인 활동



인천통일교육센터 통일순회강좌 참여
(새터민에게 직접 듣는 통일이야기)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권리를 몸으로 말해요 활동)

4. 마치며

학생들 스스로 세상과 삶을 보는 눈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시대 교육의 사명이라면, 이를 위해 적극적인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요구된다. 특히 삶의 현장이 교과서가 되고 학교가 되는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 교육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각 지역에는 다양한 지역 사회 기관이 존재한다. 이러한 지역 사회 기관들은 대부분 그 분야 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되므로, 교사들의 역량에만 기대는 것보다 훨씬 깊이 있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다.

또한 지역사회 기관의 프로그램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기관과 학교가 연계하여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면, 기관의 전문가들과 교사, 학생의 협업을 통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더욱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 기관과 학교의 연계는 마을교육공동체라는 교육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기관 연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인천 지역 내의 기관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신청까지 가능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학교 현장에 있다 보면 지역의 다양한 기관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많이 보게 된다. 그러나 모든 프로그램은 각각의 공문으로 보내지는 경우가 많고 도대체 어느 기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없으니, 교사도 학생도 매번 프로그램 신청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인천 지역 내에서도 정말 많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관심을 갖지 않으면 프로그램 운영 내용을 파악하기 쉽지 않으며, 어떤 기관의 홈페이지는 접근성마저 떨어져 정보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지역사회 기관 교육 프로그램 종합 홈페이지를 만들어 청소년들의 문화 체험 및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일반인들에게도 다양한 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공간이 지역사회 기관과 학교 간의 소통의 장소가 되어 지역사회 기관과 학교가 연계하여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더 많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목: 삶과 배움이 다르지 않은 텃밭 수업

| | | | |
|------|---|-------|------------------|
| 학교명 | 부평동중학교 | 중점과제 |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
| 급 별 | 중학교 | 학년/과목 | 중1-3/동아리, 국어, 가정 |
| 세부과제 | 배움 중심의 수업 혁신 | 작성자 | 교사 김은경 |
| 주요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학기 텃밭 사업의 아쉬웠던 점 - 아이들과 함께하는 텃밭 활동 - 채소 먹이기 프로젝트 | | |

1. 1학기 텃밭 사업의 아쉬웠던 점

2019년 봄, 텃밭 지원을 신청한 한 선생님 덕분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텃밭 사업이 시작되었다. 장소와 작물을 지정해주니 부평구청에서 수돗가 옆에 자동급수시스템이 되어있는 9개의 텃밭을 설치해주고 심어주기까지 하였다. 1학년 한 반, 2학년 한 반, 3학년 두 반, 동아리 5개가 텃밭을 시작하였다. 심은 작물은 상추, 각종 쌈 채소, 고추, 방울토마토 등이었다. 1개의 텃밭에 4가지의 작물을 똑같이 심은 형태였다.

심은 작물 중 가장 번성한 것은 상추와 쌈이었다. 청상추, 적상추, 꽃상추, 로메인 등 각종 상추들은 너무 무럭무럭 자라서 계속 수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담임 선생님들은 아침 조회시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밑에서부터 상추 잎들을 따주었고, 동아리 담당 텃밭은 동아리날이나 방과 후에 체험을 하였다.



동네주민 손을 타서 체험을 공고한 텃밭모습



텃밭을 돌보고 있는 담당 선생님들

문제는 아이들이 일일체험으로 생각을 하여 텃밭을 가꾸는 것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또한 일과 속에 한 달에 한 번 텃밭 체험을 하는 것조차 너무나 바쁜



일이었다. 하지만 텃밭을 가꾸는 것은 매일 계속되어야하는 일이었기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유지가 되어갔다. 일주일에 두 번은 따 주어야하는 쌈을 수확하는 것, 고춧대를 세우는 것, 방울토마토에 지지대를 세워주는 것 모두 선생님들의 일이었다. 아이들과 함께하고픈 텃밭인데 선생님들에게만 생산의 기쁨을 주는 것이 참 아쉬운 일이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수확한 작물을 나누는 것이었다. 담당선생님들이 허리가 아프도록 수확을 하면 양에 비하여 먹을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씻어서 급식시간에 나누어주어도 한 반에 한두 명을 빼고는 입에 대려고 하지 않았고, 텃밭 담당선생님들이 소화하기에도 많은 양이었다. 교무실에 놓고 가져가고 싶은 선생님들 가져가라고 하기도 하였고, 아이들 훈련을 보러 오신 축구부 어머니들에게 나눠주기도 하였다. 100% 유기농 쌈이라서 파는 것과 다르게 야들야들 맛있는 쌈을 차마 버릴 수가 없어서 심지어 외부에서 출장오신 분들에게 드리기도 할 정도였다.

여름이 왔고, 방울토마토는 너무 커져서 작은 나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거져 텃밭과 텃밭 사이를 메워버릴 정도가 되었다. 방학이 되어 수확할 사람이 없어지자 텃밭은 굉장하게 자란 토마토와 치커리로 쭉대밭이 되어버렸다.

2. 아이들과 함께 텃밭 가꾸기

1) 1학년 자유학년 과정으로 텃밭활동 재편성

2학기가 되자마자 수명을 다한 채소들과 방울토마토와 고추들을 행정실의 도움을 받아 뽑아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텃밭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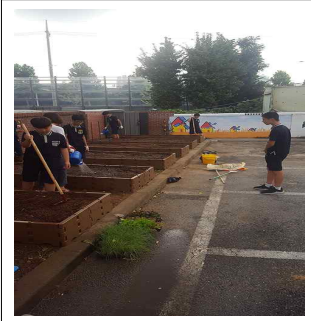



일단 동아리 5개와 학급 4개로 운영하던 체제를 해체하고 1학년 자유학년제 교육과정으로 텃밭활동을 편성하기로 하였다. 텃밭을 하던 동아리와 2, 3학년 학급의 양해를 받아 1학년 각 반에게 텃밭을 한 개씩 다시 분양하였다. 학급, 동아리 단위에서 움직이던 활동을 1개 학년으로 편성하니 교육과정 차원에서 계획이 가능하게 되었고, 국어과에서는 텃밭 관찰일기를, 가정과에서는 텃밭 채소를 활용한 조리실습을 계획할 수 있었다.

2) 각 반 부반장들에게 할 일을 주다.

텃밭을 각 반에 분양하고 나서 각 반의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였다. 반에서 가장 할 일이 분명하지 않으며 성실한 그 누군가를 생각하니 각 반 부반장이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학하자마자 각 반 부반장을 불러 텃밭 담당자로 지정하였고, 수요일 아침 시간을 이용하여 텃밭 일을 하도록 하였다.

부반장을 불러 가장 먼저 한 일은 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 비료를 섞어 땅을 고르는 일

이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무엇을 심을 것인지를 무, 열갈이, 열무, 상추, 새싹보리, 부추 등의 작물 중에서 고르게 하였다. 그것을 심는 것에서부터 물주고 숙고 수확하는 것까지 아이들과 함께하게 되니 다른 이들이 마련해준 밭에 심어준 작물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일일 체험을 하는 입장이 확실하게 개선되었다. 무를 심은 반은 무 씨앗을 너무 깊게 심어 싹이 안 나오자 다른 곳에 심은 무순을 옮겨 심었으며, 콜라비를 심은 반은 벌레들 때문에 잎이 모두 갇아 먹히자 크게 놀라기도 하였다. 실패를 통해서 해결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에게 오히려 텃밭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은 것이 좋았던 점이다.

| | | | |
|---|---|--|---|
|  |  |  |  |
| 아침시간을 이용한 각 반 부반장들 땅고르기와 모종 심기 | | 국어시간 텃밭에서 관찰일기 쓰기 | |

3. 채소 먹기 프로젝트

1) 급식시간을 이용하여 쌈 채소 먹이기

가을상추를 심은 지 한 달이 되자 이제 먹을 만큼 자라 수확을 하였다. 커다란 채반에 두 개 정도 양이 나왔는데 이것을 급식시간에 아이들에게 나눠주기로 하였다. 아이들이 채소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궁리 끝에 쌈장 대신 고기와 볶은 고추장을 마련하였다. 4교시 국어시간에 미리 가지고 들어갔는데 몇몇 아이들에게 볶은 고추장을 살짝 얹어 쌈을 주었더니 모두 먹겠다고 난리가 났다. 수업시간에 모두 하나씩 먹이고, 점심시간에 먹였더니 한 개 반에서 상추 1/3이 소진되었다. 6개 반에게 먹일 예정이었는데 양이 모자라 3개 반만 먹었고, 상추가 자라길 기다려 그 다음 주에 앞 반 3개 반을 먹였다. 자기 반 부반장이 심고 키우고 수확한 것이라는 것 때문에 친근감을 가지게 되었고, 볶은 고추장이 맛이 있고, 채소가 약을 거의 치지 않아 식감이 연하고 부드러워 평소 쌈을 거들떠보지도 않던 아이들까지 아주 맛있게 먹었다. 주에 한 번씩 상추를 나눠줄 예정인데 가을상추는 봄상추와는 다르게 번식력이 떨어져 수확량이 적어서 1학기와는 반대로 공급이 부족하다. 1학기 상추는 아이들이 먹기 싫어하여 선생님들이 주로 먹었는데 2학기에는 양이 부족하여 한 학년 아이들 먹이기도 힘들었다. '내년에는 봄상추는 조금만, 가을상추는 많이 심으리라'고 생각하는 등 올해 시행착오를 겪게 되자 텃밭 농사 노하우가 생기는 것 같다.



2) 텃밭 채소로 요리 실습하기

원래는 김장철에 깍두기를 담는 실습만을 계획하였다. 하지만 열갈이와 열무가 빠르게 자라서 중간에 실습을 한 번 더 하게 되었다. 열갈이와 열무를 이용한 겉절이와 겉절이로 싸먹을 고기볶음을 계획하는 와중에 아프리카열병 때문에 오리고기 볶음으로 메뉴를 바꿨다. 10월 연휴 중간 중간 수업이 있는 날을 이용하여 실습시간을 배정하였다.

양파, 당근, 파프리카, 대파 등을 오리고기와 볶고, 텃밭에서 수확한 열갈이와 상추는 씻어서 여러 양념을 넣고 겉절이를 하였다. 칼을 다룰 때 도마 위를 벗어나면 위험하다는 점, 채소를 썰 때 손의 자세, 상추 씻는 법까지 아무 것도 모르는 1학년 아이들과 실습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었다. 각자 개인 접시에 고기볶음과 겉절이를 1/n 하여 주고 자기 접시에 있는 채소를 다 먹게 하였더니 채소를 잘 안 먹던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기가 요리한 것이라 더 맛있다고 잘 먹어주었다.



열갈이 수확하기



텃밭 채소를 이용한 가정실습(겉절이 만들기)



4. 마치며

지금 열갈이를 수확한 곳은 시금치씨를 뿌려 놓아 1cm 썩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다. 부추는 10cm 정도 가늘게 올라왔고, 새싹보리를 새싹일 때 먹어보니 풋내가 나서 못 먹고 관상용이 되어 가고 있다. 파종에 실패하여 무순을 옮겨 심어 반만 자라난 무는 뿌리가 들어앉아가고 있고, 벌레를 제거한 콜라비 다섯 포기가 나뉘 우람하다. 몇 개 없는 상추가 자라고 모종을 심은 대파는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크지 않았으며 씨를 심은 쪽파는 대파보다 커서 잘 자라 2주 안에 뽑아야할 것 같다. 다음 주에는 부반장 아이들과 '쪽파로 무엇을 할까'를 협의해야겠다.

무가 커지면 깍두기를 담을 가정실습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전에 시금치가 잘 자라준다면 시금치로 요리를 계획해야겠고, 국어과 관찰일기에도 새로 심은 시금치를 추가해야겠다. 우리 학교 텃밭활동은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2학기 교육과정에 넣어 아이들과 함께한 점, 국어 과가정이 연계하여 활동한 점으로 발전한 점이 우수한 점이다. 내년에는 올해 겪은 착오를 개선하여 더 발전된 모습으로 텃밭활동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제목: 경험을 통한 배움과 성장

| | | | |
|------|---|-------|-------------|
| 학교명 | 동광중학교 | 중점과제 |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
| 급 별 | 중학교 | 학년/과목 | 전 학년/전 과목 |
| 세부과제 | 배움 중심의 수업 혁신 | 작성자 | 교사 최광규 |
| 주요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학습은 배움 활동이 아닐까? - 경험(체험)의 구조화를 통한 학습자 중심의 배움 활동 실천 - 경험을 통한 행복한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학교 | | |

1. 이렇게 많은 체험학습을 하면 공부는 언제 하죠?

체험학습은 배움 활동이 아닐까?

행복배움학교 2년 차를 맞으며, 그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 하나는 이렇게 많은 체험학습을 하면 공부는 언제 하나냐는 것이다.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체험¹⁾을 배움의 과정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행복배움학교에서의 배움과 성장은?

이러한 인식을 전환하고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험을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학교는 '듀이(Dewey)의 경험주의'를 바탕에 두고 접근하고자 하였다.

듀이의 이론에 따르면 학교에서 학생의 수준과 흥미에 맞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면 학생은 능동적이고 협력적인 태도, 다양한 사고의 과정을 통해 즐거운 배움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행복한 배움은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경험과 잘 조직된 교육활동을 통해 일어난다. 그리고 행복한 배움의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행복하게 성장한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제공된 다양한 경험은 많은 준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회성 활동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잘 조직된 경험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경험은 이벤트성 경험이 아닌, 배움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적 경험인 동시에 행복한 성장이 있는 행복배움학교가 추구하는 길이기도 하다.

1) '체험'은 '자기가 몸소 겪음 또는 그런 경험'을 뜻하는 말이고, '경험'은 '자신이 실제로 해 보거나 겪어 봄 또는 거기서 얻은 지식이나 기능'을 뜻하는 말이다. 따라서 '체험'과 '경험'이 쓰이는 맥락이 확연히 구별되는 말이라고 보기 어렵기에 이 글에서는 '체험' 대신 '경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다.



2. 배움을 일으키는 경험이란?

삶과 연관된 직접적 경험 속에 배움이 일어나.....

경험에는 교과서 외의 매체 등을 통해 접하는 간접적인 경험과 실제의 상황에 맞닥뜨려 보는 직접적인 경험이 있다.

지금까지 학생들은 교과서와 매체 중심의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지식을 습득해 왔다. 이는 입시와 경쟁 중심의 교육체제에서 정보를 습득하는 데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이루어지는 학습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적인 경험은 배움으로써의 한계가 있다. 이렇게 습득한 단편적인 지식은 학생들의 삶에 적용해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우리학교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경험의 기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공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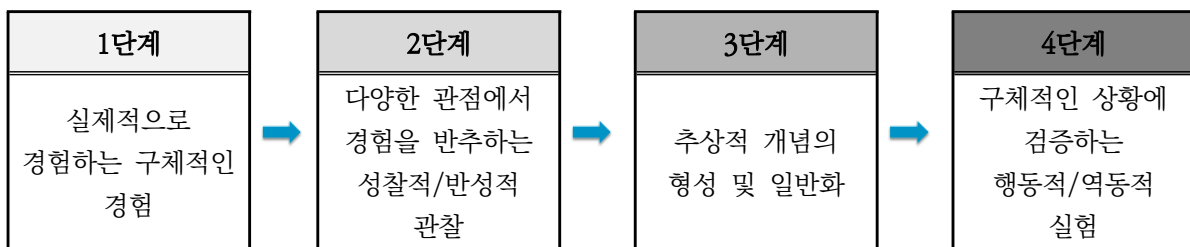
고민하던 중에 학교 구성원들은 경험의 내용이 학생들의 삶과 연관되어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이는 학생들의 일상과 진로에 대해 학교(교실)에서 경험할 수 없거나 간접 경험만 할 수 있었던 것을 실질적 경험의 장으로 옮겨주는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존과 같은 일회성 경험이나 이벤트성 경험은 지양하고, 체계화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동시에 학생들의 유의미한 배움을 위해 경험학습이 어떠한 방법으로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배움을 위한 경험의 단계

기존 체험학습은 학생들의 배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고민과 설계가 부족했다. 따라서 학생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및 흥미는 높았으나 이후 의도했던 학습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는 체험이 중심이었을 뿐, 배움의 과정에 대한 구체적 접근과 환류는 부족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학교는 교육적 경험에 콜브(Kolb) 경험학습의 4단계를 적용해 보았다.

〈표1. 콜브(Kolb) 경험학습의 4단계〉



이 과정의 핵심은 학생들의 경험이 배움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적 경험이 제공된 이후에도 체계적인 후속활동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교생 60명의 소규모 학교 특성을 살려 교과별 경험활동은 학년 구분 없이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표2. 2019학년도 경험학습 실천 내용〉

| 교과 | 학년 | 활동내용 |
|-------|------|--|
| 1. 국어 | 전 학년 | 우리 마을을 글감으로 글짓기하고 마을활동 참여하기 |
| | | <div>1단계</div> <div>쓰레기 주우며 우리 마을 구석구석 산책하기</div> <div>→</div> <div>2단계</div> <div>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마을 글짓기</div> <div>→</div> <div>3단계</div> <div>우리 마을과 내가 관련된 기억, 경험 등을 조리 있게 발표하기</div> <div>→</div> <div>4단계</div> <div>마을의 기관에서 봉사하기, sea market 등 마을활동 참여하기</div> |
| 2. 도덕 | 전 학년 | 생활 속의 효행 실천과 일기쓰기 |
| | | <div>1단계</div> <div>웃어른께 효행 실천하기</div> <div>→</div> <div>2단계</div> <div>웃어른께 잘못했던 일에 대한 반성의 글 쓰고 발표하기</div> <div>→</div> <div>3단계</div> <div>효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 학습하기</div> <div>→</div> <div>4단계</div> <div>효행일기 쓰기 및 웃어른 공경 지속 실천하기</div> |
| 3. 사회 | 전 학년 | 고령화 시대의 자산관리와 합리적 소비 실천하기 |
| | | <div>1단계</div> <div>1인 1 계좌 만들기 및 저축하기, 금융기관 체험하기</div> <div>→</div> <div>2단계</div> <div>1달 금전 출납부 작성하고 소비 생활 반성하기</div> <div>→</div> <div>3단계</div> <div>인생 그래프를 통하여 합리적 소비와 자산관리의 필요성 인식하기</div> <div>→</div> <div>4단계</div> <div>합리적 소비 실천과 꾸준한 저축 습관 기르기</div> |
| 4. 수학 | 전 학년 | 생활 속의 수학 익히기 |
| | | <div>1단계</div> <div>전단지 속의 상품 할인율과 신문 속의 통계 수치를 계산기 활용하여 계산하기</div> <div>→</div> <div>2단계</div> <div>수학을 모를 때 생활 속에서 불편한 점 찾아 발표하기</div> <div>→</div> <div>3단계</div> <div>수학의 필요성 알기와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생활 속 수학 공식 익히기</div> <div>→</div> <div>4단계</div> <div>계산기를 활용하여 다양한 생활 속 수학문제 풀어보기</div> |
| 5. 과학 | 전 학년 | 생활과학상황극 독신 |
| | | <div>1단계</div> <div>독신 주니어마스터즈 클래스 참가하기</div> <div>→</div> <div>2단계</div> <div>생활 속의 과학 상황 인식하기, 과학을 모르면 불편한 점 찾아 발표하기</div> <div>→</div> <div>3단계</div> <div>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과학 지식 알아보기</div> <div>→</div> <div>4단계</div> <div>일상 속의 과학 현상에 대한 관심 갖기와 과학상황극 독신 참가하기</div> |



| 교과 | 학년 | 활동내용 | | | |
|------------|------|------------------------------------|---|--|---|
| 6. 기술가정 | 전 학년 | 학교 텃밭 가꾸고 발효식품 만들기 | | | |
| | | 1단계 학교 텃밭 조성 및 다양한 작물 재배하기 | → | 2단계 잔반 줄이기 실천 및 식량부족 국가 친구들의 상황 발표하기 | → |
| | | | | 3단계 슬로우 푸드 섭취와 로컬푸드의 필요성 알아보기 | → |
| | | | | 4단계 잔반 줄이기 실천과 발효식품 줄이기 | |
| 7. 체육, 보건 | 전 학년 | 1인 1스포츠 생활화 하기 | | | |
| | | 1단계 1인 1 스포츠 클럽 활동하기 | → | 2단계 주 3회 20분 이상 운동하기 일지 작성하기 | → |
| | | | | 3단계 청소년기 운동의 필요성과 스포츠 클럽 활동 참가하기 | → |
| | | | | 4단계 금요 학급 스포츠 데이 참여와 주 3회 20분 운동 실천하기 | |
| 8. 음악 | 전 학년 | 1인 1악기 연주 생활화하기 | | | |
| | | 1단계 1인 1악기 연주하기 | → | 2단계 학기별 1회 합주를 통하여 자신의 연주 실력 점검하기 | → |
| | | | | 3단계 1학기 야영, 2학기 축제 시 공연 참가하기 | → |
| | | | | 4단계 3개 학년을 연계하여 지속적인 악기 연주법 익히기 | |
| 9. 미술 | 동아리 | 벽화 그리기 | | | |
| | | 1단계 학교 주변 벽화 그리기 장소 선정과 작품 활동하기 | → | 2단계 벽화 그리기 전 후의 장소에 대한 교우 인식 설문조사 하기 | → |
| | | | | 3단계 공간 이미지 및 디자인의 중요성 파악하기 | → |
| | | | | 4단계 학교 공간 변화 주기 활동에 참여하기 | |
| 10. 영어 | 전 학년 | 문화의 다양성 알아보기 | | | |
| | | 1단계 일본, 프랑스, 중국 등의 다양한 문화 체험하기 | → | 2단계 생활 속의 다문화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행동 사례 발표하기 | → |
| | | | | 3단계 다문화 시대의 특징과 생활태도에 대해 학습하기 | → |
| | | | | 4단계 다문화 존중하기와 문화 상대주의 실천하기 | |
| 11. 진로와 직업 | 전 학년 | 경험중심의 진로체험 | | | |
| | | 1단계 다양한 진로체험 및 진로탐색하기 | → | 2단계 체험한 직업과 희망하는 직업 연관 짓기, 소감문 작성하기 | → |
| | | | | 3단계 행복한 삶과 직업의 연관성, 직업 선택의 중요성 알아보기 | → |
| | | | | 4단계 지속적 진로탐색과 적극적인 자세로 진로활동 참여하기 | |
| 12. 민주시민교육 | 1학년 | 생활 속의 민주주의 알아보고 실천하기 | | | |
| | | 1단계 전교생-교직원 서클 참여하기, 학급 서클 참여하기 | → | 2단계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에 대해 발표하기 | → |
| | | | | 3단계 민주주의의 이념과 기본원리 학습하기 | → |
| | | | | 4단계 지방의회, 국회 참관 및 생활 속 사회참여활동 모색하기 | |

〈표3. 2019학년도 경험학습 실천 장면〉

1. 국 어



우리 마을 쓰레기 주우며 구석구석 산책하기



마을 활동 참여하기(Sea Market)

2. 도 덕



웃어른께 잘못했던 일에 대한 반성의 글 쓰고 발표하기



웃어른께 효행 실천하기

3. 사 회



합리적 소비와 자산관리 학습하기



금융기관 체험하기

4. 수 학



생활 속의 수학 사례 발표하기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생활 속 수학 공식 익히기



5. 과 학



특신 주니어마스터즈 클래스 참가하기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과학 지식 알아보기

6. 기술가정



학교 텃밭 조성 및 다양한 작물 재배하기



발효식품 만들어 보기

7. 체육, 보건



금요일 학급 스포츠 데이 활동하기



스포츠 클럽 대회 참가하기

8. 음 악



1인 1악기 연주하기



지역 축제 협연 참가하기

9. 미 술



벽화 그리기



마을 풍경 스케치 하기

10. 영 어



동아시아 문화 체험하기



영미권 문화 체험하기

11. 진로와 직업



체험한 직업과 희망하는 직업 연관 짓기와 발표하기



지속적 진로탐색과 진로활동 참여하기

12. 민주시민교육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 발표 준비하기



국회 참관 및 생활 속 참여활동 모색하기



3. 행복한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학교

책임 있는 나 · 희망찬 우리 · 행복한 학교

성장은 경험의 재구성으로 이루어진다는 듀이의 이론은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학교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우리학교는 학생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경험을 재구성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학교는 어떠한 공간이자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답을 찾고 있다.

행복배움학교 2년차

행복배움학교 2년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학교의 교육주체는 각자의 위치에서 학교비전인 책임 있는 나·희망찬 우리·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고 있다.

행복배움학교 운영을 통해 교육주체와 학교,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행복한 교육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고, 이를 통해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인천교육이 실현되길 기대해본다.

제목: 스스로 함께하는 북콘서트

| | | | |
|------|--|-------|-------------|
| 학교명 | 강화여자고등학교 | 중점과제 |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
| 급 별 | 고등학교 | 학년/과목 | 전 학년/독서 |
| 세부과제 | 배움을 실천하는 독서행사 | 작성자 | 교사 김혜연 |
| 주요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기획팀이 기획·운영하는 북콘서트 - 진로 연계 독후활동을 통한 참여형 독서행사 - 월드카페 독서토론으로 즐기는 독서 소화행 | | |

1. 아이들의 힘을 믿고 지원해요!

Teaching과 Touching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학교에는 여러 종류의 행사가 진행된다. 법정 의무시간을 채우기 위한 행사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학교의 특색을 살려서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예전에는 행사 주제부터 세부적인 프로그램이나 진행방식 모두 교사가 기획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저 조용히 잘 따라오고, 잘 참여하면 아주 성공적인 행사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제 아니다. 아이들의 표정이 말해준다. 그래서 점점 학생들의 공간이자 학생들의 행사로 바꾸려는 시도를 해왔다.

진정한 교사는 Teaching만 잘하면 안 된다. 그건 ‘강사’일 뿐이니까. Teaching과 Touching까지 잘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독서행사에서는 학생들의 역량을 믿고 적절히 터치해주는 역할에 더 마음을 기울였다. 그리고 해내고 말았다.

북콘서트의 전체적인 그림은 교사가 먼저 그려보라.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학생기획팀을 꾸리려면 각 분야마다 소질을 가진 학생을 발굴해 내야 한다. 최소 30명 이상의 학생 기획팀이 서로의 역할을 충돌 없이 잘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사가 먼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아야 한다.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인지, 어떤 상황이 우려되는지,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모든 부분을 세심하게 체크해본 후 학생들에게 대략적인 행사의 그림을 설명하고, 각 부분을 담당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기존의 북콘서트 진행방식을 여러 가지 비교해보고 우리학교의 환경에 어울리고, 우리 학생들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을 수 있는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2. 스스로 함께하는 북콘서트를 열어봐요!

학생기획팀은 어떻게 선발하나요?

독서활동과 진로활동이 연계될 수 있도록 ‘창의독서 꿈&끼 발표회’를 진행했다. 서로 다른 꿈을 가진 2~3명의 학생들이 한 팀이 되어 서로의 진로분야에서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관련 정보를 탐독한 후 미래직업현장에서의 모습을 시연해 보이는 활동이다.

이 과정에서 정말 다양한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다. 마케팅 전문가와 생명공학 교수가 만나서 뇌 과학에 대한 특강 홍보를 위한 팸플릿을 제작하기 위한 협업 과정과 강연이 진행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학생들도 있고, 항공기 기장과 웨딩 플래너가 만나서 비행기 안에서의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위한 비행기 개조 및 웨딩 이벤트 소개 등 평소에 생각하지 못한 내용들이 마구 쏟아져 나온다. 이때 만난 공연기획자와 무대예술가 학생들을 핵심 기획팀으로 섭외했다.

이후엔 피라미드식 선발이다. 각자 구상하는 북콘서트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회의를 거쳐 선정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대회를 진행하고, 최종 합격자들을 기획팀으로 섭외하는 방식이다.

전체적인 진행 과정이 궁금해요!

북콘서트 날짜(2019.4.11.)를 기준으로 4주 전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했다.

| 기간 | 항목 | 내용 | 비고 |
|-----------------|---------------|---|--|
| 2019.3.11.~3.15 | 함께 읽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독서를 인쇄자료로 제작하여 1,2학년은 독서 수업시간에 함께 읽고, 3학년은 희망자만 개별적으로 읽기 | |
| 2019.3.18.~3.22 | 독서토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드카페 독서토론 방식으로 모듈별 토론 후 이동하며 질문에 대해 생각나누기 | |
| 2019.3.25.~3.29 | 기획 및 공연 작품 공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콘서트 진행방향에 대한 기획서 공모(기존의 공연기획안에 추가할 내용은 공모작품 중에서 선정함) 주제도서인 <변신>을 중심으로 무대에서 공연할 팀 모집 ※ 교내대회 ‘문학과 함께하는 인문학적 상상력 표현대회’와 연계함 | 기획안, 뮤지컬, 노래, 무용, 토크쇼 등 |
| 2019.4.9. | 공연팀 선정 및 발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팀 역할분담(홍보, 무대설치, 사회자 등) 무대 공연팀으로 선정된 학생들에게 문자로 공지하고, 리허설을 준비하도록 안내 | |
| 2019.4.10.~4.5 | 독후감상 작품 공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도서인 <변신>을 중심으로 개인별 독후작품 공모 ※ 교내대회 ‘문학과 함께하는 인문학적 상상력 표현대회’와 연계함 | 운문, 산문, 그림, 작품 배경 모형, 신문 및 기타 창의적 아이디어 등 |
| 2019.4.10. | 리허설 및 무대 설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기획팀과 함께 무대 설치 및 공연팀의 리허설 실시 | |

창의적 체험활동 ‘독서’ 수업시간이 학급당 주1회씩 배정되어 있다. 그 시간을 100% 활용하며 전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함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특히 학급마다 학생기획팀에 소속된 학생들이 ‘독서&토론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토론 및 독후활동을 할 때 지원해주도록 했다. 또한 북콘서트 준비를 위해서는 공연기획자 1인, 방송&영상팀 10명, 소품 및 디자인팀 4명, 홍보팀 3명, 토크쇼 담당 8명, 행사PPT제작 2명, 전문가 특강 담당 2명, 사회자 4명(1,2부로 구분), 전시팀 3명 등으로 구성했고, 세부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뮤지컬팀 7명, 노래 2명, 우수 작품 발표 7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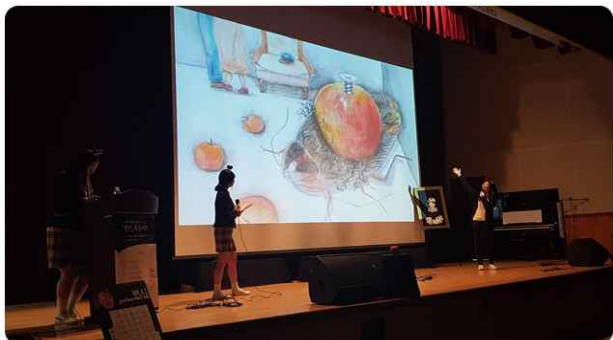
이외에도 창의적인 독후작품으로는 기본적으로 글, 그림, 신문 포함하여 서예, 과학적 분석, 역사적 고찰, 모빌제작, 다양한 형태의 책 만들기, 패션, 책 속 소품 광고지, 책 속 배경 모형 제작, 보도기사 및 영상제작, 수업시연영상, 등장인물의 감정을 춤으로 표현한 영상, 탐사보도 영상, 법적조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북콘서트 - '변Sing'뮤지컬 공연



창의적 아이디어_독후작품 전시회



독후작품 우수학생의 작품 설명회



학생기획팀 단체사진

〈북콘서트 행사 당일 식순〉

| 시간 | | 내용 | 비고 |
|----|-------------|------------------------------------|----------------------|
| 준비 | 13:15~13:30 | 강당 의자 배치(400석) | 학생회 협조 (민주시민교육부) |
| | | 무대 필요물품 이동 및 설치 각종 영상, 방송 장비 설치 | 학생기획팀 방송반(융합인재부) |
| 이동 | 14:30~14:40 | 강당 이동(1,2학년 전체 & 3학년 55명) | 학년부 협조 안전건강생활부 협조 |



| | | | | |
|----|-------------|-----------|---|--|
| 1부 | 14:40~14:41 | 1' | 뮤지컬 '변Sing' 예고편(영상) 1-7 전O영 외 6인 | 학생기획팀 -무대 준비&정리 -음향, 방송관리 |
| | 14:41~14:43 | 2' | 사회자 인사 (1-2 윤O정, 1-4 최O희) ★중간 : 교장T 응원영상 | |
| | 14:43~14:46 | 3' | 노래 : 원곡-그래도 그래서 2-1 채O진 | |
| | 14:46~14:56 | 10' | 우수작품 소개&인터뷰 ■ 그림 1-2 이O민 2-5 하O인 3-1 고O연 ■ 시 3-1 박O림(해설포함) ■ 미니세트장 1-3 배O영, 허O은 | |
| | 14:56~15:05 | 10' | 뮤지컬 변Sing (1-7 전O영 외 6인) | |
| | 15:05~15:10 | 5' | 개사 배경 소개 : 1-6 이O진 노래 : 원곡 '그때가 좋았어' 1-6 이O원 | |
| 2부 | 15:10~15:12 | 2' | 사회자 인사 (1-6 최O지, 1-4 고O경) | 도서부 1, 2학년 도서부 -관객마이크 전달 -무대준비&정리 |
| | 15:12~15:14 | 2' | 작품소개 1-1 박O서 | |
| | 15:14~15:24 | 10' | 토크쇼 2-6 최O서 외 7인 | |
| | 15:24~15:25 | 1' | 강사소개 1-7 김O현 | |
| | 15:25~16:30 | 65' | 전문가 특강 (인하대 한국어문학과) 김OO 교수 | |
| 정리 | 16:30~ | 학년별 의자 정리 | | 학년부장 협조 |

3. 함께 읽고 디자인하는 독서행사 운영 유의점

스테디 셀러를 선택하세요.

전체 학생들이 같은 책을 읽고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특히 한 달 이상 오로지 그 한 책에 대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하는 행사이기에 내용이 너무 진부하거나 유행을 타는 주제면 곤란했다. 그렇다고 분량이 너무 길어도 모두 읽게 만들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세계고전문학 중에서 골라보기로 했다.

소그룹 독서모임이나 학급별 독서수업시간에 몇 가지를 다뤄보며 어떤 책이 좋을지 정했다. 바로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었다. 고등학생들이 읽고 삶에 대해,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할 것이 많은 책이기 때문이다. 물론 다음 북콘서트는 어떤 책으로 할지 벌써 고민이긴 하다.

그러나 ‘변신’만큼은 어느 고등학교에서든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작품이기에 추천한다.

학생들과 함께 준비하세요.

학교에서 큰 행사를 담당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혼자 다 해야 하는 일이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말이다. 우리 학교에서도 부서별로 약간의 지원은 하지만 결국 큰 행사를 총괄하는 1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로 인한 스트레스나 심신의 고통이 분명히 있다. 그러므로 혼자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학생들의 능력을 믿고 아이들과 소통하며 진행해보자. 아이들은 언제나 깜짝 놀랄만한 아이디어로 가득하다.

4. 스스로 함께하는 북콘서트는 아이들의 눈빛을 더 밝게 해줬어요.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라는 생각, ‘내가 할 일이 있어!’라는 생각은 자존감을 갖게 하는 큰 힘이 된다. 이번 북콘서트를 학생들의 힘과 역량으로 추진하면서 아이들은 늘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분주했다. 자신이 맡은 일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피고,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나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다가도 스스로 보완점을 찾고는 “아, 잠깐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하고 뛰어가는 모습을 보는 나의 기분은 어땠을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이 많아서?’, ‘힘드니까?’ 라는 이유는 변명일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을 결코 외면하지 말자. 아이들이 밝은 눈빛이 미래를 비출 확실한 불빛이 되도록 도울 수 있다.



5. 마치며

4년간 북밴드를 초청해서 북콘서트를 진행했었다. 겨우 내가 손댄 건 아이들의 발표 시간을 조금 넣거나 작품을 전시하는 정도였다. 그래서 사실 두려웠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머릿속엔 이런 의문이 들었지만, 어느새 마음은 이미 “아이들과 어떻게 이 행사를 준비해볼까?”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 발견했다. 그리고 그땐 이미 내 옆에 학생기획팀이란 든든한 아이들이 있었다. 교사가 학생에게 고마워하고, 학생이 교사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순간을 내가 경험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믿는다. 뭐 좀 화려하지 않으면 어때? 학생들과 신나게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속이 후련해질 수 있는 기회라면 어떤 것이라도 가능하다. 학교는 수업이 우선이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입시가 우선이겠지만, 이러한 독서행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떠맡은 업무가 아닌 ‘사제동행 행복한 추억’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제목: 전문적 학습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융합 수업디자인

| | | | |
|------|--|-------|-------------|
| 학교명 | 인화여자고등학교 | 중점과제 |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
| 급 별 | 고등학교 | 학년/과목 | 1학년/수학 |
| 세부과제 | 배움 중심의 수업 혁신 | 작성자 | 교사 김수영 |
| 주요내용 | - 융합 수업디자인 운영 매뉴얼(1학년 수학미술 융합 수업 사례) - 행복배움학교 1년차로서의 지속 발전 가능성 고민 | | |

1. 함께 만드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출발

우리 학교는 선진형 교과교실제 운영교(2009년~현재)로서 민주적 학교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빛깔 있는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과제로 하여 행복배움학교 1년차를 맞았다. **학생이 즐겁고 배움이 있는 수업을 위해 다양한 수업 활동을 실현하고자 하는 교사의 의지**가 기반이 되어 수업 변화의 필요성과 융합 수업에 대한 인식을 공론화하여 **교육과정 재구성**의 방향 하에 타 교과와의 **융합 수업디자인 운영 매뉴얼**을 기획하여 실천하였다. 또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과 연계**하면서 집단 지성의 힘을 경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함께 노력하는 학교 문화를 위한 첫 노력을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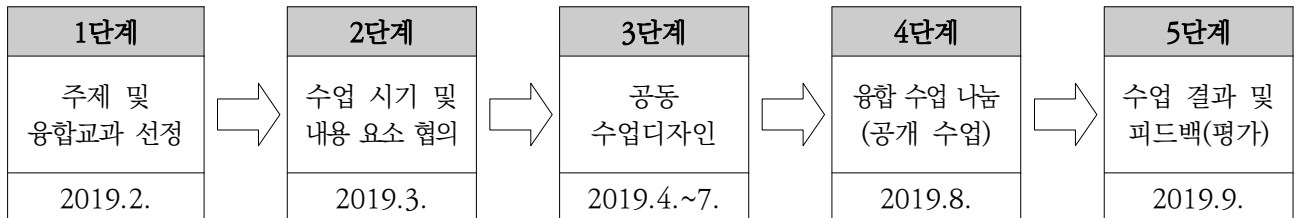
2. 융합 수업디자인을 통한 교육과정 재구성 운영 흐름

| 단계 | | 주제 | 세부 운영 내용 |
|----|------------------------------|---|---|
| 준비 | 사전 연수 (2018.7. ~ 12.) | 교육과정 재구성의 필요성 인식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디자인’ 연수 (6시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6차시의 연수 운영(2차시×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스브레이킹 및 팀 빌딩 - 교과 지식을 활용하여 교과 맵 연결 - 문제해결 지향의 수업 사례 및 수업디자인 |
| 계획 | 전교직원 워크숍 (2019.2.) | 전교직원 연수(2시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재구성 타 학교 사례 공유 |
| | | 융합 수업 주제 설정 및 계획 (3시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학년별로 모여 교과별 교육과정 소개 ② 자기 교과와 타 교과의 융합 요소를 찾아 매칭 ③ 융합 수업 시기와 내용 요소 정하기 ④ 수업 나눔(수업 공개) 계획에 반영 |
| 운영 | 전문적 학습공동체 (2019.3. ~ 10.) | 융합 수업디자인 및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별 월 1회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 교과별 수업 활동 관련 연수(2시간씩 1~2회) 운영 - 교과 간 공동 수업디자인(연 2회 이상) : 수업 계획 공유 및 수정·보완 ■ 해당 융합과목 담당 교사와 함께 수업 계획 |
| | | 융합 수업 나눔(공개 수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나눔(수업 공개)으로 운영(연 1회 이상) |
| 환류 | 수업 사례 공유 (2019.10. ~ 11.) | 수업 사례 공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교직원 협의시간에 운영 ■ 4명의 교내 교사(국, 영, 수, 사) 수업디자인 사례 발표 |
| | 평가 (2019.7./12.) | 자체 평가회 및 발표 (학기별로 실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 발표회(나눔 활동) ■ 자체평가 결과는 차기년도 계획에 반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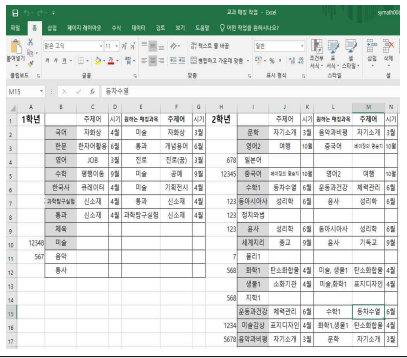



3. 융합 수업디자인 및 실제 수업 과정

1, 2학년의 모든 교과에서 과목 간 내용 연계를 통해 융합 수업을 디자인하여 연 1회의 수업 나눔(공개 수업)을 운영하였다. 그중 **1학년 수학-미술 융합 수업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융합 수업디자인을 위해 다음의 과정을 계획하여 구체적으로 진행하였다.



[1단계] 주제 및 융합 교과 선정

| 과정 | 세부 내용 | |
|---|--|---|
| <p>[학년-교과별] 교육과정 내용 요소 설명</p> <p>↓</p> <p>[교과 간] 매칭 작업</p> <p>↓</p> <p>[매칭 교과 간] 구체적 주제 협의</p> | <p>① 새 학기 자신이 맡은 교과의 교육과정 내용 요소에 대한 교과 맵 작성</p> <p>② 같은 학년 교사들이 모여 교과별로 발표</p> <p>③ 타 교과의 교과 내용을 이해하며 자신의 교과와의 연계 가능성 고려</p>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 하기를 원하는 교과를 스스로 제외하는 매칭 작업 ■ 원활한 교과 연결을 위해 매칭 완료 과목을 전체 교사가 볼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화면에 띄움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칭 교과 간 구체적으로 융합 수업 주제와 운영 과정, 시기에 대해 협의하여 수업 흐름도 작성 |  |

[2단계] 수업 시기 및 내용 요소 협의

수학 교사와 미술 교사가 모여 구체적인 수업 내용, 방법, 시기에 대해 논의하였다. 수학 시간에 기본 도형을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이용하여 디자인을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술 시간에 디자인을 완성하고 굿즈를 만드는 과정으로 계획하고 관련 성취기준을 정하였다.

| 학교급 | 고등학교 | 학년/시기 | 1학년 / 8월말~9월초 |
|-------|---|--------|--|
| 교과-교과 | 수학-미술 | 대단원/주제 | 수학 : III.도형의 방정식 4. 도형의 이동 미술 : 패턴이미지를 활용한 굿즈 만들기 |
| 성취기준 | <p>[수학] [10수학02-08] 평행이동의 의미를 이해한다. [10수학02-09] 원점, x축, y축, 직선 $y=x$에 대한 대칭이동의 의미를 이해한다.</p> <p>[미술] [12미02-02] 조형 요소와 원리를 다양하게 응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12미02-03] 여러 가지 표현 매체의 조합이나 응용·확장을 통해 새로운 표현 효과를 탐색할 수 있다. [12미02-04] 주제와 표현의도, 재료와 표현방법, 매체, 표현과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p> | | |

[3단계] 공동 수업 디자인

각 교과에서 구체적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활동지를 작성하였다. 교과별 전문적 학습공동체(월 1회, 2시간)를 통해 같은 교과 교사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작성된 수업 지도안과 활동지를 검토하며 수업 내용과 흐름을 점검하였다. 수업의 설계 과정에서 의견을 나누면서 공동 수업디자인을 실천하고, 수업 과정 및 내용을 수정·보완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수업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며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융합 교과 간]
구체적인 수업 설계 및
활동지 제작



[같은 교과]
전문적 학습 공동체
수업 디자인



[교과 내]
활동지와 ppt자료
수정·보완

| | | | |
|--|--|--|--|
| <p>학습 단계</p> <p>1단계, (1~2차시), 수학, -평행이동, 대칭이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식과 그래프로 표현.</p> <p>2단계, (3~4차시), 수학, 미술,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패턴 도안 만들기, -패턴이미지를 활용한 굿즈 제작(프로젝트, 실기).</p> <p>3단계, (5차시), 수학, 미술, 학습결과 완성품 전시 및 발표.</p> <p>생활기록부 교과세부능력특기사항에 기록.</p>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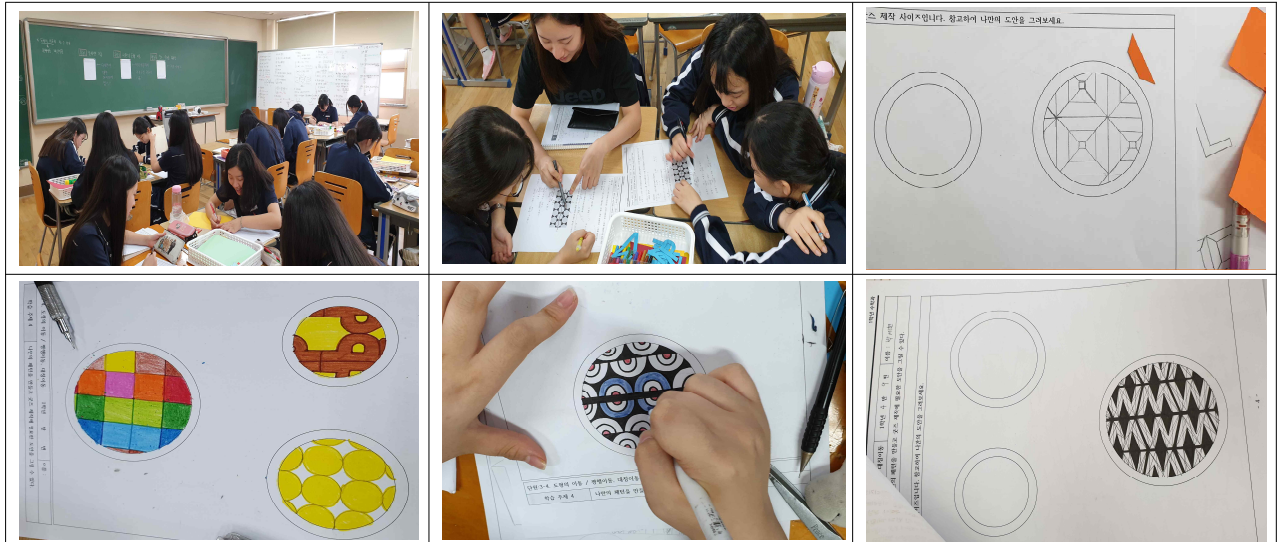


[4단계] 융합 수업 나눔(공개 수업)

[수학 수업]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이용하여 패턴 설계



[미술 수업]
패턴 디자인을 활용한 굿즈 만들기



[5단계] 수업 결과 및 피드백

| | |
|-----------|---|
| 수업 결과물 |  |
| 학생 피드백 | <p>★평소 어렵게 느꼈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직접 해봄으로써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공식만을 외워서 풀다가 직접 그림도 그려보고 왜 그런 공식이 나왔는지도 생각해보니 문제를 풀 때 기억이 날 것 같다.(조○○)</p> <p>★문제뿐만 보았던 도형의 이동을 직접 그려보고 만들어보면서 원리를 새롭게 알게 되었고 신기했다.(양○○)</p> <p>★다른 화가들의 그림에서 패턴 속 도형의 이동을 찾아보니 새롭고 도형의 이동이 더 친근하게 다가왔다.(윤○○)</p> <p>★그림을 통해 수학을 배운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활동을 통해 새롭게 와 닿았고 도형의 이동(테셀레이션)이 실생활에 많이 쓰인다는 것을 알았다.(유○○)</p> <p>★도형을 직접 그려 이동해보면서 공식이 적용되는 원리를 이해했고 딱딱했던 내용을 재미있게 적용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 문제를 풀 때도 점, 선의 이동을 상상하며 풀 수 있을 것 같다.(추○○)</p> |

5. 지속 발전 가능성을 고민할 때

도형의 이동을 배울 때 학생들은 보통 실제 어떻게 이동하는 지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채 공식의 단순 암기로 수학식을 변형하는 것에만 집중한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고 해결해야 하는 응용문제를 매우 어렵게 여길 수밖에 없다. 이 수업 설계는 학생들에게 수학 수업을 통해 도형의 이동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미술 수업을 통해 패턴 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게 한다는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져 융합 수업으로 계획되었고, 교과별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해 구체적으로 수업 활동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완성될 수 있었다.

첫 시도였지만 많은 고민과 준비과정을 통해 1, 2학년의 모든 교과가 **융합 수업디자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갖춘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난 2월 워크숍에서 전 교사가 함께 융합 수업을 계획하며 자연스럽게 **수업에 대한 고민으로 새 학년을 맞이**하였고, **전문적 학습공동체**에서 수업 이야기가 주제가 되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역시 우리 학교의 모든 교사는 자신의 수업에 대한 고민이 누구보다 진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학기 자체평가회에 의하면 숙제처럼 주어지는 융합 수업의 계획과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들이 교사들에게 마음의 큰 부담이었다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또한 공개된 수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관과 수업 이후 피드백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행복배움학교 1년차.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중시하려는 노력과 함께 특히, 수업에 대해 함께 고민하자는 의지와 방향을 공유하였다. 또한 많은 고민의 과정을 거쳐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교사의 자발성과 적극성을 끌어내기에 부족함이 있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내년을 준비하며 **교육과정 재구성의 실천 의지와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기반은 교사의 자발성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숙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융합 수업디자인과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활동이 교사의 의무와 사명감에 기대어 강제하는 것이 아닌 **수업 연구에 대한 의지에서 시작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하여 함께 배우고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제목: 독서로 만드는 내 삶의 업그레이드!

| | | | |
|------|--|-------|-------------|
| 학교명 |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 중점과제 |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
| 급 별 | 고등학교 | 학년/과목 | 전 학년/전 교과 |
| 세부과제 | 배움 중심의 수업 혁신 | 작성자 | 교사 강종현 |
| 주요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과 함께하는 학급, 학급문고 운영 - 읽고 잊으면 시간낭비! 기록하여 기억하자 - 우리반만 하는 독서 활동, 학급 독서 활동 - 무의미한 독서는 X, 수행평가와 함께하는 독서 - 우리말을 지켜야겠어! 바른말 고운말 캠페인 | | |

1. 독서교육, 왜 필요한가?

가. 학습의 기본은 IQ? 아니! 집중력!

취업을 준비하는 특성화고 학생으로서 가장 큰 산 중 하나인 토익시험! 이들이 2시간동안 집중을 하여 시험을 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 학생들은 2시간동안 집중하는 게 힘들어 영화도 안 본다. 심지어 인터넷에서 영상을 봐도, 5분이 넘어가면 지루해한다. 그래서 최대 1분 영상만 올릴 수 있는 어플이 인기라고 한다.

‘어떻게 교육을 할까?’보다 ‘어떻게 살아있게 할까?’가 우선이 된 수업. 우리 학교가 찾은 해답은 ‘독서’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 수업 중 여유시간 5분, 10분, 책을 읽으니 점점 차분함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 학생들의 수업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

나. 평생교육 시대, 오늘 수업이 전부가 아니다

학교에서 얻은 지식으로 평생을 살아 갈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쏟아지는 정보와 지식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은 독해력이다.

수많은 자료에서 핵심을 찾아내는 능력. 글속에서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 행간에 숨겨진 비밀을 먼저 찾아내는 능력. 이것은 교과시간으로만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독서를 통해 습득하는 능력이다.

우리가 해줘야 하는 것은 충분한 독서기회를 제공하고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다.

2. 독서교육, 이렇게 실천했어요.

가. 책과 함께하는 학급, 1인 1책 학급문고 운영

무기력한 아이들은 도서관이나 서점 등으로 스스로 책을 찾아 나서지 않는다. 책은 손에 쥔 스마트폰 속 미디어보다 재미있지 않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했다. ‘자기가 원하는 책 이라면 재미를 느끼지 않을까?’, ‘손만 뻗으면 책이 있을 때 그러면 읽지 않을까?’이에 전교 생 1인 1책으로 학생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학급문고를 마련했다. 남이 골라준 책, 나와 동 떨어진 책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책, 나의 관심사와 관련 있는 **내 책**을 친구들과 돌려보며 책 읽는 즐거움과 소통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나. 읽고 있으면 시간낭비! 기록하여 추억 만들기

책 속의 지식을 내 머리 속에 넣는 것, 책을 통해 즐거움을 얻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그 휘발성은 대단하다. 재미있게 읽은 책이 불과 며칠 지나면 잊혀졌다. 지식과 감정은, 표현 하고 활용하면 기억된다. 부모님께 말을 하든, 친구에게 설명하든 써먹는 과정이 중요했다. 이를 체계화하기 위해 독서기록장을 제작했고, 이는 학생들에게 한 번 읽은 책을 못 잊을 책으로 바꾸어 주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강제로 작성하던 독서기록장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여학생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디자인에 특히 신경을 써 제작하였다. 다이어리 형식의 독서기록장은 서로 갖고 싶은 또 다른 책이 되었다. ‘내 인생의 책 50권, 기억에 담고 싶은 구절, 나와 의 관련성, 키워드 정리 마인드맵, 감상평’이 있는 나만의 독서 기록장을 작성하여 성인이 되어서도 볼 수 있는 추억 기록장으로 구성하여 독서에 대한 동기부여로 활용했다.

다. 우리 반만 하는 독서 활동, 학급 독서 활동

길고 지루한 책을 혼자 끝까지 읽어가는 것은 마라톤과 같다. 결승점을 통과했을 때의 희 열과 지적 만족은 나를 또 다른 독서로 이끌지만, 그 과정 자체는 힘들다. 이를 도와 줄 수 있는 것은 함께 가는 동료이다. 나와 같은 책을 읽은 우리 반 친구들과 정보를 나누며 토의, 골든벨 등의 학급별 독서 활동을 진행하니 독서가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라. 무의미한 독서는 X, 수행평가와 함께하는 독서

독서는 특정 교과만의 산물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모든 교과와 교사들이 독 서교육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된 독서수업으로 전환 해야 한다. 우리학교는 모든 교과, 모든 선생님들이 독서교육을 위해 나섰다. 학생들의 동 기 부여를 위해 수행평가와 연계한 독서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어, 상업, 수학, 사회, 영어 선생님들이 각자 아이디어를 냈다. 한 학기 한권 읽기를 통해 깊이 있는 독서를 추구하는 국어, 상업계 특성화고의 특성을 살린 회계 및 창업에 관한 책읽기를 통해 전공교과와 좀 더 친숙해지기를 추구한 상업교과. 평소 애용하던 재미있는 수학이 아니라, 수학이 활용되는 여러 분야를 재미있게 소개하는 수학교과. 공정 무역에 관한 책을 같은 학급전체가 읽고 토론하며, 프로젝트 수업으로 연결하는 사회교과. 짧고 재미있는 영어 동화를 읽고, 단순한 문장 분석이 아니라, 포스터 그리기, 뒷내용 추측하기, 주인공에게 편지쓰기 등을 하는 영어. 이러한 활동이 독서의 지루함을 깨고, 학습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독서가 아닐까?

마. 우리말을 지켜야겠어! 바른말 고운말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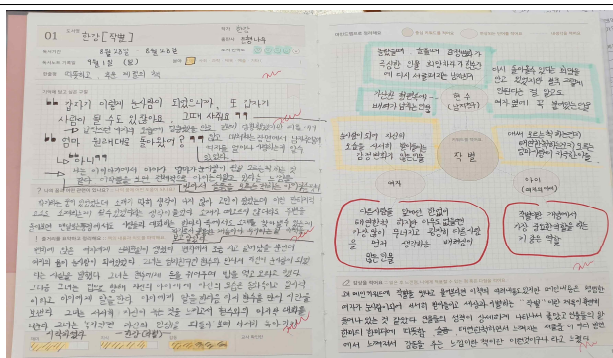
“김치찌개? 지금까지 김치찌개인 줄 알았어요.”, “친구들이 비속어를 너무 많이 써요. 하도 많이 듣다보니 그게 표준어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책을 읽다보니 함부로 써 온 소중한 우리 한글이 눈에 띈다. 어떻게 하면 더 바르게 한글을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한 캠페인. 지역사회와 연계한 ‘화동공원 프리마켓’과 등교시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내 캠페인을 진행했다. 독서도우미와 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배지를 디자인하여 만들고, 구호를 외치며 물품을 나누어 주었다.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과 이웃주민들에게도 더 큰 울림을 주지 않았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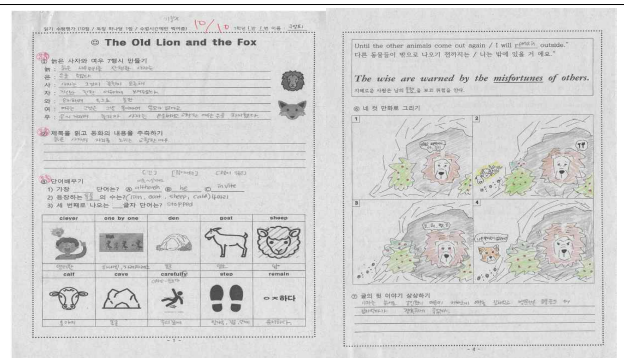
학급 문고



바른말 고운말 캠페인



독서기록장



독서수행평가

3. 독서중심 교육과정 운영 시 유의사항

가.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책

급변하는 사회 문화적 변화에 따라 학생들과 교사들의 사고에는 많은 차이가 생겼다. 교사들이 생각하기에, ‘이 책을 사도될까? 학교에 이런 책을 비치해도 될까?’ 라는 의문이 생기는 책들이 있다. 이를 위해 학생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책을 선정했다. 학급별로 한 명씩 선정된 학급 독서 도우미들은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가교 역할을 해주었고, 서로 다름에서 오는 틀림에 대한 경계를 희미하게 만들어주었다.

나. 책을 분실하면 어떡하나요?

학급문고를 운영하며 담임 선생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신 부분은 책을 관리하기 힘들고 분실이나 훼손이 되면 누가 책임을 지냐의 문제였다. 우리는 생각을 바꾸어 학생들에게 1인 1책을 갖게 하여 ‘내 책’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하였다. 학급문고가 아니라 내 책이므로 더 아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읽고 다른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학급 구성원이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학생들에게 1인 1책을 구입해 주고 학급에 자유롭게 돌려 읽다가, 학년말에 자유의사에 따라 책을 기증하는 방식이다.

4. 책 읽는 학교, 이렇게 변했어요.

가. 핸드폰을 건어도 불만이 적어요.

우리 학교는 핸드폰을 건지 않는다. 수업 시간에 교과 선생님들께서 자율적으로 통제를 할 뿐, 전체적으로 수거하지는 않는다. 수업 시간에 몰래몰래 핸드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선생님과 학생간의 불화의 씨앗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수업 전에 핸드폰을 건어도 불만이 줄어들었다. 수업 후 남는 자투리 시간에 할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본인이 읽을 책을 가지고 있으면 남는 시간이 걱정되지 않는다!

나. 옆 반 책이 보고 싶어요.

학생들 개인의 수요조사를 통해 책을 구매했기 때문에 학급별로 책 목록이 다르다. 우리 학생들은 친구들과 놀기 위해 옆 반에 갔었지, 다른 책을 보기 위해 옆 반에 간 적은 없었다. 하지만 2-3반에 있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에 관한 책을 읽고 싶어, 옆 반에 갔다는 학생 이야기를 들었다. 메이크업 분야로 진로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소문을 듣고 간 것이다. 능동적으로 책을 찾아 가는 학생들을 보며, 생각했다. ‘너희 참 많이 변했구나 ^^’



5. 마치며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학교생활기록부 독서활동상황 기록 강화 등 많은 정책으로도 학생들의 독서율은 향상되지 않았고, 고등학생이 책을 읽는 이유는 진로진학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독서교육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독서야말로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독서교육의 방향은 학생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교사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독서교육 실행의 주체로 임하는 것이다. 그래야 올바른 학교독서문화가 조성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학교 내에서 책을 쉽게 보거나 빌릴 수 있는 접근성이 확보되어 학생참여 독서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도서관이나 독서교육이 있더라도 학생들의 자발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무의미한 독서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1인 1책 학급문고’를 활용한 독서교육을 제안한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인천교육

2019 행복배움학교 실천사례

- 미래형 혁신학교 운영



제목: 마을과 함께 하는 삶의 공간으로서의 학교공간혁신

| | | | |
|------|---|--------|--------------------|
| 학교명 | 선학중학교 | 영역 | 미래형 혁신학교 운영 |
| 급 별 | 중학교 | 학년/ 과목 | 1-3학년/창체 및 관련 교과 등 |
| 세부과제 | 미래형 공간혁신 | 작성자 | 교사 정진경 |
| 주요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움의 공간 프로젝트 학생 설명회 및 생각 나누기 - 배움의 공간 프로젝트 교육과정 운영 -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배움의 공간 프로젝트 발표회 | | |

1. 들어가며

학생들은 학교에서 다양한 학습, 놀이, 휴식 등을 하고 싶는데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는 직사각형 콘크리트 건물에 냉기가 느껴지는 시멘트 바닥, 잘 닫히지 않는 창문과 흰색 페인트 벽, 군대나 감옥을 연상시킬 뿐 아니라 종종 이 곳을 배경으로 괴담이 생겨나는 어둡고 칙칙한 공간이다.

교실은 통제를 위한 공간이고, 교사가 주도하는 단순 지식 주입을 위한 주입식 교육이 가능한 곳이며 오로지 의자에 반듯하게 앉아 있어야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공간이다.

복도 역시 좁고 낮으며 교사와 학생의 삶의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답답함이 느껴져 억지로 간혀있고 통제 당하는 느낌이 강하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다양한 학습, 놀이, 휴식 등을 하고 싶는데 현실에서는 교실, 복도, 현관, 계단, 특별실, 강당, 체육관, 시청각실 등으로 고정된 공간에서 고정된 교육을 하는 곳이라는 것 밖에 다른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2. 사업 추진 성과

행복배움학교 1기 학교로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공간 혁신은 필연적이었다.

선학중학교는 학교 건물이 매우 낡고 일자로 된 5층 건물이다. 교사들의 수업에 대한 열정이나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해도 공간의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참 어려운 현실 속에 있었다.

작년에 학생들이 꼭 만들어 보고 싶어 했던 공간은 학생들의 휴식 공간과 다양한 수업과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이었다. 목공수업과 활동이 가능한 뚝딱이 공방도 학교 공간의 변화에 참 중요한 공간이라 생각되었다.



행복배움학교 1기 학교로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 공간 혁신은 필연적이었다. 이 사업은 마을 연계에 기반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 참여형 프로젝트로 진행하였으며 10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광주 야호 센터 김태은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학교 공간 혁신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학생, 교사 마을 선생님들과 학교 공간이 왜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공간 기행과 인사이트 투어를 통해 다양한 공간과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을 진행했다.

〈 사업 개요 〉

| 기간 | 2018. 7. ~ 2019.2.28 | | | 사업장소 | 1층 복합문화 공간, 학교목공소, 5층 학생휴게실 | | |
|----------------|---|------------|-------------------|------|--------------------------------|-----|-----------------|
| 사업비 | 총 100백만원 | 인천시 교육청 | 35,000천원 (34%) | 신한은행 | 50,000천원 (49%) | 자부담 | 2,000천원 (2%) |
| 사업 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는 민주주의 배움터이자 아이들의 공간이라는 철학으로 학생이 참여하고 학생이 만들어가는 학교 공간 재구성을 통해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참여와 소통의 가치를 실현 - 학생과 교사, 학부모, 마을주민이 함께 학교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학생의 배움과 삶의 공간으로서의 교육적 역할 및 마을의 배움터와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역할 수행 | | | | | | |
| 사업 추진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유휴교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학생과 마을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 공방,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구성 - ‘문화예술 감수성 향상을 위한 문화 공간’, ‘교사와 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위한 다목적 공간’, ‘민주주의 문화 형성을 위한 학생 자치 공간’, 민주적이고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학교 공간 구성 | | | | | | |
| 추진 실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움의 공간 프로젝트 교육과정 운영 - 광주 광산구 지역 학교공간혁신 투어 및 서울 인사이트 투어를 통한 학교 공간 탐구 활동 -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배움의 공간 프로젝트 발표회 | | | | | | |
| 사업 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예술활동 교육을 지원하고 교사와 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문화플랫폼 공간 구성 - 학생들과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삶과 연결되는 목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똑딱이 공방’ 정비 및 목공 준비실 시설 정비 - 5층 학생들의 휴식과 대화를 위한 휴게 공간 구성 | | | | | | |

〈계획 대비 추진 실적〉

| 시기 | 사 업 명 | 시기 | 세 부 내 용 | 비고 |
|----------|---|----------|---|-------------|
| 5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육과정과 공간 혁신 | 5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육과정과 공간 혁신 초청 강의(강사 : 김○○ 광주광산구청 교육정책관) | |
| 6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혁신추진협의회 세부추진계획 논의, 집행 계획서 작성 | 6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학교 공간 혁신 추진 협의회 구성 -세부 추진 계획 논의 -집행 계획서 작성 ■ 학교 공간 혁신 TF 팀 구성 | |
| 7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움의 공간프로젝트 학생 설명회 및 생각 나누기 ■ 학교공간혁신 기행 | 7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움의 공간 프로젝트 학생설명회 및 생각 나누기 -배움의 공간 강의 -학교 공간 탐색하기 -학교 공간 아이디어 협의 ■ 학교공간혁신 기행 - 전남광주일대(어룡초, 선운중, 이야기꽃도서관, 야호센터 등) | |
| 9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연계 수업 진행 (9월 ~ 12월까지) | 9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연계 수업 진행 (미술 수업) - 12월까지 수업 진행 - 설계사가 되어 표현하기 - 입체 조형물 만들기 | |
| 10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한 배움의 공간 설계 과정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움의 공간을 고민하는 교육자를 위한 워크숍을 참가하여 전문가와의 만남 시도 | 전문 설계사 비용문제 |
| 11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이트 투어- 학교 공간사업 체험활동 | 11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이트 투어-학교 공간사업 체험활동 - 이케아고양점 - 서교문화예술실험센터 - 청춘마루 - 공간에 대한 통찰 나누기 | |
| 12월 ~ 2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움의 공간 조성 | 12월 ~ 2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움의 공간 조성 - 입체 조형물 만들기 전시 및 의견 나누기 - 시설 공사 | |



〈사진 자료〉

| | | |
|---|---|--|
| | | |
| <p>■ 학교교육과정과 공간혁신 강의 (5/18, 교사, 학생, 학부모 40명 참가)</p> | <p>■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건강매점, 마을학교)이 함께 하는 학교 공간 혁신 추진 협의회 구성 (6/22)</p> | <p>■ 배움의 공간 프로젝트 학생 설명회 및 생각 나누기(7/16)</p> |
| | | |
| <p>■ 배움의 공간 프로젝트 학생 설명회 및 생각 나누기(7/16)</p> | <p>■ 배움의 공간 프로젝트 학생 설명회 및 생각 나누기(7/16)</p> | <p>■ 배움의 공간 프로젝트 학생 설명회 및 생각 나누기(7/16)</p> |
| | | |
| <p>■ 배움의 공간 프로젝트 학생 설명회 및 생각 나누기(7/16)</p> | <p>■ 배움의 공간 프로젝트 학생 설명회 및 생각 나누기(7/16)</p> | <p>■ 배움의 공간 프로젝트 학생 설명회 및 생각 나누기(7/16)</p> |
| | | |
| <p>■ 배움의 공간 프로젝트 학생 설명회 및 생각 나누기(7/16)</p> | <p>■ 배움의 공간 프로젝트 학생 설명회 및 생각 나누기(7/16)</p> | <p>■ 배움의 공간 프로젝트 학생 설명회 및 생각 나누기(7/16)</p> |

| | | |
|---|--|---|
|  |  |  |
| 학교공간혁신기행-어룡초 (7/20-21) | 학교공간혁신기행-어룡초 (7/20-21) | 학교공간혁신기행-어룡초 (7/20-21) |
|  |  |  |
| 학교공간혁신기행-선운중 (7/20-21) | 학교공간혁신기행-선운중 (7/20-21) | 학교공간혁신기행-선운중 (7/20-21) |
|  |  |  |
| 학교공간혁신기행-이야기꽃도서관 (7/20-21) | 학교공간혁신기행-이야기꽃도서관 (7/20-21) | 학교공간혁신기행-사례 발표와 워크숍 (7/20-21) |
|  |  |  |
| 학교공간혁신기행-사례 발표와 워크숍 (7/20-21) | 학교공간혁신기행-사례 발표와 워크숍 (7/20-21) | 학교공간혁신기행-야호센터 (7/20-21) |



학교공간혁신기행-야호센터
(7/20-21)



학교공간혁신기행-야호센터
(7/20-21)



학교공간혁신기행-야호센터
(7/20-21)



교육과정 연계 (미술)수업 진행



교육과정 연계 (미술)수업 진행



교육과정 연계 (미술)수업 진행



배움의 공간을 고민하는 교육자를
위한 워크숍(10/6)



배움의 공간을 고민하는 교육자를
위한 워크숍(10/6)



배움의 공간을 고민하는
교육자를 위한 워크숍(10/6)



인사이트 투어-이케아(11/15)



인사이트 투어-이케아(11/15)



인사이트 투어
-청춘마루(11/15)

| | | |
|---|--|---|
|  |  |  |
| 인사이드 투어 -청춘마루(11/15) | 인사이드 투어 -서교문화예술센터(11/15) | 인사이드 투어 -서교문화예술센터(11/15) |
|  |  |  |
| 인사이드 투어 -공간에 대한 통찰 나누기(11/15) | 인사이드 투어 -공간에 대한 통찰 나누기(11/15) | 인사이드 투어 -공간에 대한 통찰 나누기(11/15) |
|  |  |  |
| - 입체 조형물 만들기 전시 및 의견 나누기(1/4) | - 입체 조형물 만들기 전시 및 의견 나누기(1/4) | - 입체 조형물 만들기 전시 및 의견 나누기(1/4) |
|  |  |  |
| - 입체 조형물 만들기 전시 및 의견 나누기(1/4) | - 입체 조형물 만들기 전시 및 의견 나누기(1/4) | - 입체 조형물 만들기 전시 및 의견 나누기(1/4) |



| | | |
|---|--|---|
|  |  |  |
| 1층 공사 전 | 1층 공사 전 | 1층 공사 현장 |
|  |  |  |
| 1층 문화 플랫폼 시설 공사(1월~2월) | 1층 문화 플랫폼 시설 공사(1월~2월) | 1층 문화 플랫폼 시설 공사(1월~2월) |
|  |  |  |
| 5층 공사 전 | 5층 휴게 공간 공사(1월~2월) | 5층 휴게 공간 공사(1월~2월) |
|  |  |  |
| 독딱이 공방 준비실 공사 전 | 독딱이 공방 준비실 공사 (1월~2월) | 독딱이 공방 준비실 공사 (1월~2월) |

| | | |
|---|--|---|
|  |  |  |
| 1층 문화 플랫폼 시설 활용- 학부모 총회(3월) | 1층 문화 플랫폼 시설 활용- 학부모 총회(3월) | 1층 문화 플랫폼 시설 활용- 연극 직무연수 (3월) |
|  |  |  |
| 1층 문화 플랫폼 시설 활용- 배움의 공동체 연수 (3월) | 1층 문화 플랫폼 시설 활용- 배움의 공동체 연수 (3월) | 1층 문화 플랫폼 시설 활용- 진로 강연 (3월) |
|  |  |  |
| 1층 문화 플랫폼 시설 활용- 진로 강연 (3월) | 1층 문화 플랫폼 시설 활용- 학생수요음악회 (3월) | 1층 문화 플랫폼 시설 활용- 학생수요음악회 (3월) |
|  |  |  |
| 1층 문화 플랫폼 시설 활용- 학생수요음악회 (3월) | 1층 문화 플랫폼 시설 활용- 학생수요음악회 (3월) | 1층 문화 플랫폼 시설 활용- 학생수요음악회 (3월) |



5. 마을과 함께하는 삶의 공간으로서의 학교공간혁신을 마치며

학교는 삶의 철학과 방법을 배우는 배움터, 관계의 소중함을 알고 관계를 만들어 가는 어울림터, 상상과 여유, 휴식이 가능한 쉼터이어야 한다. 학교는 행복을 연습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학교공간혁신을 통한 공간에 대한 이해〉

“학교 공간은 서로가 의논하고 행복한 공간이라는 것을 더 깊이 있게 느꼈다.”

“안 쓰는 공간과 불편한 시설을 우리의 아이디어로 바꿀 수 있어 좋았다.”

“무조건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래 아이들과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느껴져 조금 더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왔다.”

“우리가 학교를 만들어 간다는 느낌이 들었다.”

“학교에는 교실만 있어야 된다는 인식이 바뀌었다.”

“교육만이 아닌 문화도 함께할 수 있는 학교가 진정한 학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의견이 정말 공간혁신에 반영되는 것이 신기했다. 소중히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에는 잘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학교 공간 혁신사업을 통해 학교공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교가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쉴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바뀌었다.”

“학교에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있다는 게 뿌듯하다.”

〈교사들의 학교공간혁신을 통한 공간에 대한 이해〉

“학교 공간혁신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

“공간 변경에 대한 기존 관념을 벗어나게 되었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생활 하는데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된다.”

“교내에 이런 색채감과 시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기존 학교 공간에 대한 다양한 사고,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뜻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리모델링과 관리가 필요하다.”

“공간 구성에 따라 학생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교는 수업을 하는 곳으로만 생각하고 이미 만들어진 공간에 대해 별 문제제기 없이 지냈던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들은 지난 해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공간혁신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학교 공간에 대한 생각과 기존 인식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스스로 공간에 대해 고민하고 상상하고 삶의 공간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

학교 공간 혁신은 수업이 달라지고 일상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다양한 색상과 형태의 공간으로 바뀌어질 때 아이들의 예술적 감성들이 자라나고 여백과 여유로운 공간들이 아이들의 상상의 욕구를 불러낼 것이다.

제목: 복도에서 배움과 휴식을 플리스하다!

| | | | |
|------|--|-------|-------------|
| 학교명 | 강화여자고등학교 | 중점과제 | 미래형 혁신학교 운영 |
| 급 별 | 고등학교 | 학년/과목 | 1-2학년/미술 |
| 세부과제 | 미래형 공간혁신 | 작성자 | 교사 정대원 |
| 주요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공간 혁신을 시작한 계기 - 학교 공간 혁신의 사전 준비 과정 -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용자 참여 설계 - 미술교과와 연계한 공간디자인 수업 | | |

1. 학교 공간 혁신을 시도하게 된 계기

공간혁신을 위한 선진지 방문

2018년 8월에 행복배움학교 네트워크 선진지 탐방차 광주극락초, 광주광산중, 삶디자인센터, 광산구 야호센터를 방문하였다. 공간혁신은 행복배움학교의 혁신과제 중 하나로 추진될 분야였다. 혁신담당부장이어서 가게 되었지만, 학교에 공간의 변화를 준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왜 변화를 주어야 하는지를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공간혁신의 기본철학은 ‘공간이 변하면 삶도 변한다.’이다. 학교라는 삶의 공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학교는 그저 배우고 가르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을 갖춘 곳이다. 한편, 최소한의 한계를 가진 공간에서 배우는 우리가 최대한의 역량을 기대하며 꿈을 키우는 곳이기도 하다. 아이들의 창의성이, 아이들을 향한 교사의(마을공동체의) 바램이 그 사용자의 공간에 담기고 표현되는 방식과 시도에 적잖이 놀라며, 우리 학교에서도 이런 공간변화의 시도를 해 봐야겠다는 다짐과 기대를 안고 돌아왔다.



광산중학교 신나고 방문(2018.8.17.)



광주 삶디자인센터 방문(2018.8.17.)

우리 학교 교실 및 복도의 일상적 풍경

얼마 전 학생과 교사와의 공감소통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다. 아이들이 휴대용 매트리스를 깔고 자는 모습들이 교실 곳곳에서 확산되는 분위기에 학교가 제동을 걸기 시작하자 학생회 아이들은 쉬는 시간만이라도 제대로 쉴 수 있게 허용해 달라 간곡히 부탁했다.

하지만 교실은 학습공간이지 휴식시간이라도 누워 있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앞으로 진행될 공간혁신에 반영하겠다는 요지로 결국 일단락되었다. 쉬는 시간, 특히 학생들의 피로가 극에 달하는 시험 2주전의 풍경이 아니더라도 수면부족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복도에 놓인 소파 위나 교실의 한쪽 공간에서 누워 있는 모습을 흔히 목격하게 된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공부뿐만 아니라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이 정말 필요해 보였다.

현지 목수와의 협력을 통한 공간혁신의 첫 시작

학교공간혁신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싹틀 무렵 이 곳 강화의 현지 목수를 알게 되었다. 이 분은 학교의 로비를 휴식과 독서의 공간으로 바꾸는 작업과 카페의 실내인테리어를 직접 디자인하고 시공한 경험이 있으셨다. 그리고 무엇보다 따님이 우리 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니 학교에 대한 애정 또한 남다르셨다.

마침 행복배움학교 예산의 일부를 공간혁신에 사용할 수 있어서 적은 예산이지만 3층 우측에 있는 작은 복도공간을 카페분위기가 나는 휴식의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데 요긴하게 사용하였다. 자연 친화적 나무배경안으로 들어가 은은한 조명과 진한 오크색 나무버티컬이 있는 창가 의자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마음은 마치 탄 곳에 와 있는 듯 들떠 보였고, 많은 학생들이 가장 즐겨 찾는 학교 안 명소가 되었다. 하지만 이 한 곳 밖에 없어서 모든 아이들이 누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또 하나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되었다.



복도 카페식 학습공간 구축(2019.4월)



복도 카페식 학습 공간 구축(2019.4월)

2. 학교 공간 혁신의 사전 준비 과정

교과수업을 통한 학생들의 욕구 파악

사용자 중심의 사용자가 주도하고 참여하는 공간혁신이 되어야 하므로 학생들이 공간을 통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아야 했다. 처음에는 그냥 대 놓고 아이들에게 직접 물어보기도 했으나 수업활동과 연계하여 학교 안에서 새롭게 만들고 싶은 공간을 찾아보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학생들을 통해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가기 시작했다.

주로 아이들은 학습공간보다 좀 더 누울 수 있거나 친구들과 먹으면서 편하게 대화 나눌 수 있는 기본적 욕구 충족을 더 원했다. 기본 욕구 충족이 안 된 상태에서 지식 충족을 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교실은 주로 앉아 있어야 하는 곳, 복도는 주로 이동하는 통로로서만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왔다. 학교공간이 최소한 사용자의 오감을 충족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된다면 좀 더 행복한 배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학교 공간 혁신 교육청 공모 참여

올해 4월에 3층 복도공간을 카페공간으로 만들고 나머지 층의 복도공간도 그렇게 변화를 주고 싶었지만 다른 예산이 없었다. 다행히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공간 혁신을 원하는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여 기꺼이 신청을 했고 복도의 모든 공간을 바꿔 볼 수 있는 자금이 다행히 확보되었다. 우리 학교에는 유휴교실이 하나도 없어 복도를 개선공간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 공모계획서에 다음처럼 복도공간에 대한 의미부여를 했었다.

- 머물고 싶고 앉아 쉬고 싶은 **뒷마루(휴식처)**로서의 복도
- 교실과 가장 가까운 **확장된 제2의 학습공간**으로서의 복도
- 사람과 사람을 자연스레 만나게 하는 **공용(共用)공간**으로서의 복도
- 다양한 소통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내는 **다목적공간**으로서의 복도

공간혁신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은 교감, 행정실장, 촉진자, 담당교사, 미술교사, 사서교사, 학부모, 디자인동아리 학생회장 이렇게 8명이고, 되도록 다양한 사용자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실질적으로 공간혁신에 참여하거나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멤버로 구성하려 했다.

7월 15일에 첫 공간혁신 추진위원회를 열었는데, 기존의 학교 리모델링 사업과 올해 시작하는 미래학교공간혁신 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기타 일정에 대해 협의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 | |
|---|---|
|  | <div style="text-align: center;"> <p>학교공간혁신 추진단</p> <p>교감, 촉진자, 행정실장, 교육연구부장, 인문소양부장, 학부모회장, 미술교사, 디자인동아리 회장</p> <p>학교공간 촉진자</p> <p>촉진자, 디자이너</p> <p>Design T/F team</p> <p>디자인동아리 학생 14명</p> </div> |
| <p>공간혁신추진위원회 1차 미팅(2018.7.15.)</p> | <p>강화여고 학교공간혁신 T/F팀 구성</p> |

전교생 설문조사 실시

우리 학교는 건축디자인연구소의 소장님과 보조디자이너 이렇게 두 분 촉진자를 통해 공간혁신 전반의 과정에서 도움을 받게 되었다. 맨 먼저 시작한 일이 디자인 컨셉 잡기인데, 촉진자는 다음 현장미팅 전에 사용자인 학생들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설문조사를 권했다. 설문조사 내용은 촉진자가 만들어 주었고 설문내용이 적절한지를 담당교사와 협의 후 구글 설문을 이용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예상 외로 200명 이상의 꽤 많은 학생들이 설문에 응답해 주었는데 설문을 통해 대상 공간(복도)의 현장상황과 대상공간에 대한 심리적 상황 및 대상공간에 대한 학생들의 희망사항 등을 단시간에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다음은 설문조사에 사용한 주요 질문들이다.

- 대상공간의 현장상황 파악
 -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이 공간을 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나요?
 - 이 공간을 주로 언제 이용하나요?
 - 이 공간을 사용하는 평균 인원은 주로 몇 명인가요?
- 대상공간에 대한 심리적 상황 파악
 - 이 공간이 편안하게 느껴지나요?
 - 이 공간이 안전하다고 느껴지나요? 안전하지 않다면 이유를 적어 주세요.
 - 이 공간에 접근하기 쉬운가요? 그렇지 않다면 이유를 적어 주세요.
- 대상공간에 대한 희망사항 파악
 - 이 공간에 어떤 기능이 있으면 좋을지 선택해 주세요.
 - 이 공간이 어떤 분위기로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적어 주세요.
 - 이 공간을 디자인할 때 반영하고 싶은 학교의 특성을 적어 주세요.

3.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용자 참여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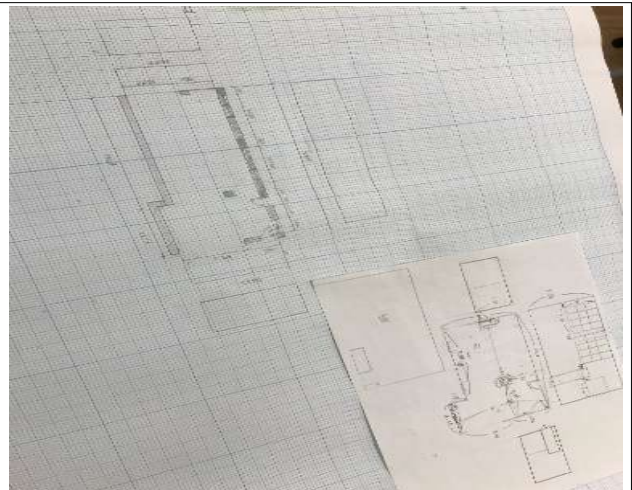
현장조사 및 실측 그리고 도면 그리기

학교공간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용자가 직접 설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 모두가 설계에 참여할 수는 없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기 위해 다수의 쥐들이 의견을 보탬 수는 있지만 진작 고양이 목에 직접 방울을 달 인원은 필요한 소수여야 하는 것과 같다.

우리 학교에는 마침 디자인 자율동아리가 활동 중에 있었고 디자인에 관심과 열정이 가득한 학생 14명이 디자인실무그룹이 되어 학교공간설계과정에 모두 참여기로 하였다. 맨 먼저 한 일은 대상공간인 복도현장을 살피는 일이었다. 촉진자와 보조디자이너가 아이들에게 실측하는 법을 시범 보이며 설명해 주었다. 줄자를 멋지게 뽑아 거리를 재는 디자이너의 시범에 아이들은 눈을 떼지 못하며 집중했고 레이저로 거리를 측정하는 장비 사용법도 익혔다. 이 후 실측한 것을 모눈종이에 옮겨 도면화하는 작업으로 이어가며 시간가는 줄 몰랐고 방과후 시간 2시간도 턱없이 부족할 정도였다.



현장조사 및 실측(2019.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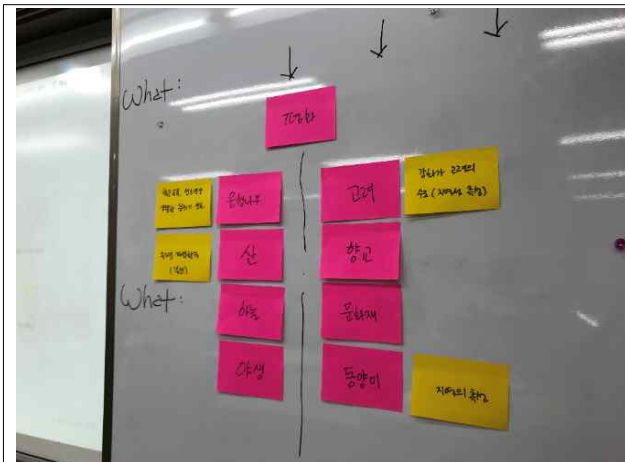


도면 그리기(2019.8.12.)

디자인 컨셉 잡기

촉진자와 디자이너는 설문조사한 결과를 우선 설명해 주며 이를 바탕으로 어떤 컨셉으로 대상공간인 복도를 디자인할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기 시작했다. 무엇을 주 컨셉으로 할 것인가? 나온 의견들을 비슷한 것끼리 요목별로 분류해 나가며, 타당한 근거나 이유를 갖춘 의견들은 중심에 그렇지 못한 의견들은 주변에 배치해 가며 복잡한 내용을 갈수록 단순화시켜 나가는 방식이었다.

디자인 컨셉을 어떻게 잡아 나가는지 궁금했었는데 직접 참여해 보니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방식이 민주적이며 컨셉을 도출해 가는 과정이 굉장히 논리적이었다.



디자인수업-컨셉 잡기(2019.8.20.)



디자인수업-컨셉 잡기(2019.8.20.)

인사이트 투어 및 디자인 벤치마킹 발표

초점 없이 인사이트 투어를 하는 것보다 디자인 컨셉을 잡은 후 컨셉에 맞는 투어 장소를 선정하기로 했다. 결국 디자인 컨셉은 ‘자연과 동양전통의 접목’으로 결정되었고 먼 곳으로 갈 것도 없이 우리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리는 이 곳 강화에서도 손쉽게 투어를 할 수 있었다.

바로 학교 옆 강화향교와 걸어서 10분 거리의 고려궁지를 천천히 걸으며 한옥과 전통 가옥의 어떤 면과 어떤 색감을 우리 학교의 복도에 가져 올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인사이트 투어 현장에서 가져 온 사진과 이미지를 각자 스케치한 것과 기타 참고할만한 디자인 자료를 조사하여 발표하는 벤치마킹 발표회를 통해 컨셉을 조금씩 구체화시켜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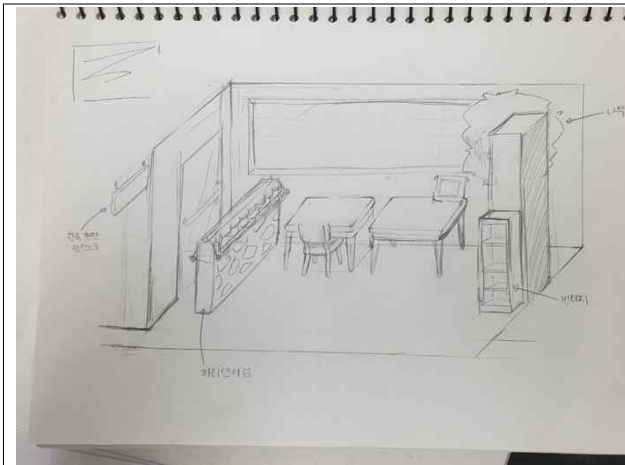
첫 현장조사 때부터 디자인동아리 학생들이 그룹 활동으로 그동안 보여 주었던 협동의 모습과 학생들의 역량에 축진자는 매순간 큰 감동을 받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특히, 노자의 철학을 공간개념에 접목하고 싶다는 의견을 개진한 한 학생은 듣는 이들의 깊은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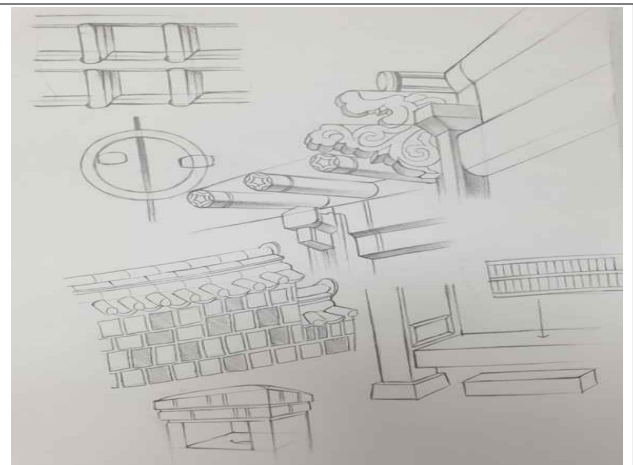
인사이트 투어 in 강화향교(2019.9.10.)



디자인 벤치마킹 발표(2019.9.24.)



디자인 스케치(2019.9.24.)



디자인 스케치(2019.9.24.)

설계작업(모형제작)

본격적인 설계 작업에 돌입하기 전 각자가 구상한 아이디어들을 모형으로 제작해서 표현해 보았다. 사전에 촉진자와 디자이너가 미리 만들어 온 틀에다 학생들은 팀을 이루어 가벽을 세우거나 성냥개비같이 가느다란 나무 조각으로 한옥 느낌의 창틀을 만들어 끼우는 등 자신만의 손재주를 한껏 발휘해가며 복도공간을 새롭게 리모델링해 나가느라 모두들 분주하게 움직였다.



모형제작(2019.10.1.)



모형제작(2019.10.1.)



4. 미술교과와 연계한 공간디자인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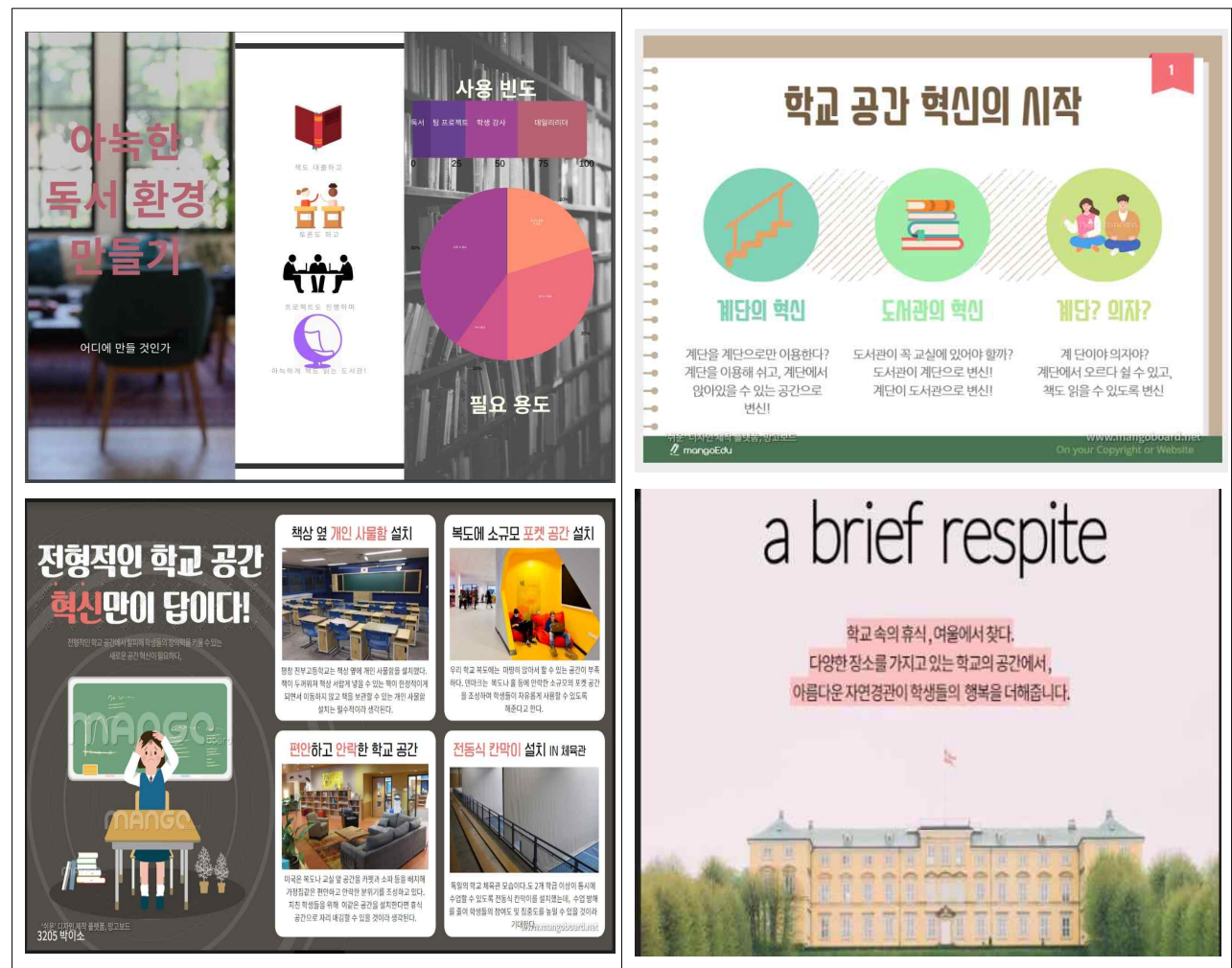
미술시간 공간디자인 수업 이야기

2학기에 전 학년의 미술 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미래의 교육과 우리의 학교 공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만들어 보았다.

3학년의 경우 이미 공간혁신이 이루어지거나 적용된 사례를 찾아 벤치마킹을 하고 이를 캔바 혹은 망고보드 등의 앱을 이용한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해 보는 수업이 이루어졌으며, 1, 2학년의 경우 3학년에서 벤치마킹한 결과물을 활용하여 학교 공간을 새로이 혁신해 보는 수업 활동이 이루어졌다.

공간혁신 사업과 맞물려 복도 공간에 대한 성찰 및 결과 발표를 하는 것이 적절하겠지만 학생들의 더 많은 공간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뽑아내기 위해, 그리고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제한하지 않기 위해 교사는 꼭 필요한 지식과 내용이 아니라면 수업의 촉진자 역할을 제외하고는 조별 활동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현재 1학년 및 2학년의 수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고 발표와 과제 제출을 남긴 상황이라 결과를 공유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5. 마치며

이 글은 올해 2019년 공간혁신을 처음 시작하고 10월 중순인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과정들을 학생들 활동 중심으로 기술한 것이다. 아직 우리학교 미래공간의 대강의 구도만 잡혔을 뿐 앞으로 설계, 시공, 감리 등 거쳐야 할 과정이 많이 남았지만, 아이들의 상상력과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확인하는 데에는 부족함 없는 시간이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사용할 공간에 대한 꿈과 비전이 이미 실현된 듯 잔뜩 기대감에 부풀어 있고 무엇보다 하나하나 밟아가는 이 과정을 통해 참여자 모두가 서로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워 나가고 있는 중이다. 결과가 어떻든 우리는 이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고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에 너무나 감사해하고 있다.



제목: 마을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활동

| 학교명 | 선학중학교 | 중점과제 | 미래형 혁신학교 운영 |
|------|---|------|-------------|
| 급 별 | 중학교 | 학년 | 1-3학년 |
| 세부과제 | 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 | 작성자 | 교사 성기신 |
| 주요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혁신을 통한 학교 혁신 추진을 위한 노력 - 마을교사와 함께하는 자유학기 및 방과후 수업 - 학교를 마을교육공동체의 중심으로 성장시키는 주요 활동 소개 | | |

1. 들어가며

2015년 행복배움학교가 시작하던 첫 해 선학중학교도 행복배움학교에 지정되었다. 우리학교의 운영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학교 선생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많은 논의를 하였고, 함께 결정한 것이 수업 혁신을 통한 학교 혁신이었다. 학생들에게는 배우는 즐거움을, 교사에게는 가르치는 보람을, 학부모에게는 학교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그렇게 하기 위해 학교가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일은 수업 혁신이었다. 수업 혁신을 위한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외부의 도움이 필요했고 이 과정 속에서 마을교사를 비롯한 외부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며 학교를 마을교육공동체의 중심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2. 학교와 마을교사는 어떻게 만났나?

수업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

수업 혁신의 기본은 기존의 일제식·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 배움 중심 수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활동적이고 협동적 배움이 일어나는 교실을 만드는 것이다. 이때 만난 것이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에게 질 높은 배움을 보장한다.', '수업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라는 철학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배움의공동체연구회였다.

그때부터 연 4회 손○○ 교수님으로부터 수업컨설팅을 받으며 수업 혁신을 위해 전 교사가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수업을 바꾸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책상을 'ㄷ'자로 바꾸고 모둠 수업으로 학생중심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선생님들에게도 어려운 문제였다. 선생님들에게도 기존의 수업 방식을 변화 시키는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의사들이 수많은 임상의 경험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갖추어 가듯이 교사들도 서로의 수업을 공개

하고 이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 이에 매주 수요일을 전문적학습공동체의 날로 정하여 5교시까지만 수업을 진행하고 선생님들은 공개 수업과 수업 협의회 지속해오고 있다.

마을교사의 도움으로 수업 혁신을 위한 연수 시간을 확보했다.

학생들은 6교시 자율동아리와 방과후학교를 통해 자신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하도록 하였다. 이 시간에 선생님들이 모두 수업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기에 학생의 동아리와 방과후학교를 맡아줄 외부의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했다.

2014년 말 교육에 관심이 많은 지역 시민사회 단체를 찾아다니는 노력으로 연수구교육희망네트워크와 2015년 4월 6일 MOU를 체결할 수 있었다. 마을의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매주 수요일 방과후 수업을 맡아 주셨다. 선생님들은 이 시간에 수업디자인과 공개수업을 진행하며 교사 연수 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었다. 수익자 부담으로 방과후학교를 진행하려고 하니 학생들의 참여가 따라주지 않았다. 학생들의 참여를 위해 무료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다보니 마을 선생님들께 감사비도 드리지 못하고 1년을 진행을 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마을 선생님들과 그때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 마을교사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는 밑거름이 되었다.



손○○ 교수님 수업 컨설팅



학년중심의 전문적학습공동체활동

3.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실천하고 있다.

마을교사와 함께하는 방과후학교 및 자유학년 수업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전 매 학기별로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강좌별 체험전을 개최하여 사전에 무엇을 배우는 것인지를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을 선생님들이 자신이 개설한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자료와 활동사진 전시는 물론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부스를 준비하여 학교 강당에서 진행한다. 마을 선생님들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강좌는 영화로 배우는 역사, 청소년 인권, 숲 생태 이야기, 마을역사, 캘리그래피, 그림책 만들기, 바리스타, 냅킨아트, 바느질, 올바른 화장법, 목공, 요리, 전래놀이, 통기타, 플룻 등 매우 다양하다. 방과후학교 수업 중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배울 시간이 필요한 강좌들은 자유학기 동아리 수업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마을 선생님들이 주 강사로 활동하시고 학교 선생님들이 보조 강사로 학생들을 도와주며 함께 지도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매 학기별 수업이 종료되면 방과후학교와 자유학년에서 수업했던 내용을 작품 전시와 공연을 통해 작은 발표회를 하고 있다. 2016년 6월 29일 첫 발표회를 시작으로 2019년 7월 3일 8번째 발표회를 열어 학생들이 배운 것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한 것도 아주 의미 있는 일이다.



방과후 및 자유학년 발표회



배움동아리(방과후학교) 강좌 사전 체험전


교육과정 속 마을 이해 교육

교육과정과 연계한 마을이해 교육으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였다. 2학년은 국어, 수학, 과학, 영어, 기술가정 교과가 참여하여 우리 마을 이야기 책 만들기 프로젝트 수업으로 연수구의 역사, 자연, 문화를 담은 마을교과서를 제작하였다.

1부 연수구의 역사에서는 연수구의 과거와 현재, 유물 유적, 인물을 조사하였고, 2부 연수구의 자연 에서는 승기천, 돌레길, 어린이공원, 문학상, 청량산, 공원 등을 조사하여 답았다. 3부 연수구의 문화에서는 문화센터, 도서관, 평생학습관, 기타 작은 도서관 등을 조사하여 소개하였고, 4부 연수구의 즐길거리에서는 축제, 관광, 쇼핑몰, 맛집을 조사하였다. 마지막 5부에서는 연수구의 건강한 소비생활로 푸른두레생협, 옥련시장, 다문화 식당, 평생학습관 행복나눔터 등을 탐방하여 제작하였다.

1학년은 선학동 지역 어른들을 인터뷰하여 '선학중1학년 학생들 마을 어른들과 만나다.'란 자료집을 제작하였다. 학급별로 4명이 1모듬이 되어 총 인터뷰할 대상을 결정하고 직접 마을로 나가 어른들을 만나서 인터뷰 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학교 앞 슈퍼 사장님, 부동산 사

장님, 외국인 노동자, 문방구 아저씨, 동네 약국 약사님, 소방관, 선학아파트 경비할아버지, 분식집 아주머니, 마을교사, 세탁소 주인, 도서관 관장, 안경점 사장님, 선학동 주민자치 센터 등 총 30여분의 인터뷰를 자료집으로 만들었다.

| | |
|--|---|
|  <p>교과주제통합 프로젝트 수업 (우리마을이야기책 만들기)</p> <p>마을연계교육과정 마을교과서 만들기</p> |  <p>교과주제통합 프로젝트 수업 (마을 인터뷰- 마을어른들과 만나다.)</p> <p>1학년 마을 인터뷰 제작</p> |
|--|---|

학교협동조합을 통해 경제 및 협력 배우기

2017년 7월 20일 선학중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아딿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그해 12월 4일 교육부 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학생, 학부모, 마을주민, 교직원이 출자를 하여 만든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학교에 건강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각 학년을 대표하는 11명의 학생 이사들과 11명의 등기 이사들은 모두 똑같은 권한을 행사하며 협동조합을 이끌어가고 있다. 건강매점에서 판매할 물품을 선정하고 가격을 결정하며, 운영 전반에 걸친 사업을 함께 논의한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더불어 사는 세상의 소중함을 느끼며 경제 공부는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배우고 있다. 건강매점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개인 배당이 금지되어 있어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 과일·야채 많이 먹기 캠페인, 아침밥 먹기 캠페인 등을 통해 모든 학생들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 | |
|---|---|
|  <p>선학중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p> |  <p>협동조합 아침밥 먹기 캠페인</p> |
|---|---|



대학과의 교육 협력·교류 협약

2018년 3월 13일 국립인천대학교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과 선학중학교가 교육 협력·교류 협약식을 가졌다. 사범대 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매주 수요일 자율동아리 학생 지도, 화요일과 목요일은 수학, 영어, 논술 학생 멘토링 및 공부방 지도를 해주고 있다. 학교에서는 사범대 학생들에게 교육봉사 시간을 부여하고 교생 실습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다.

지역의 주민들을 넘어 대학교 학생들도 우리 학교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 또한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큰 의미가 있는 일이다. 학생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 2-3명과 대학생 선생님을 연결하여 지도를 하다 보니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다. 경쟁이 치열하여 학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을 우선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국립인천대학교와의 교육 협력·교류협약식



대학생 멘토링

마을과 함께하는 가족 봉사단 운영

2017년부터 인천도시공사의 후원으로 지역 단체들과 함께 가족 봉사단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천적십자병원, 선학종합사회복지관, 연수종합사회복지관, 인천연수평화복지연대, 인천여성회, 연수평화도서관, 청담고등학교, 배움과 돌봄의 늘푸른교실, 선학동주민센터, 연수2동 주민센터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가족봉사단을 구성하여 한 달에 한 번 우리학교 가사실에서 도시락 반찬을 만들고 주변에 어려운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하는 봉사를 2년째 실시하고 있다. 학교 가사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들과 함께 반찬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가 마을교육공동체의 주 활동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자녀와 함께하는 반찬 만들기 봉사



2018년 연수구 가족봉사단 발대식

마을과 함께하는 마을장독대 운영

올해부터는 식생활교육인천네트워크와 동부교육지원청의 지원으로 마을 장독대를 운영하고 있다. 동부교육지원청 관내의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20가구를 선정하여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다.

인근의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님들도 참여하여 4월부터 옥상에 된장과 간장을 직접 담그고, 우리의 전통 식품에 대한 이해 교육과 요리 수업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10월 12일 토요일은 올 해 마지막 수업이 있는 날이다. 이날 그 동안 정성들여 담근 된장과 간장을 나눌 예정이다.

학부모 참여 기회 확대

학부모의 학교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학부모 동아리 운영, 학부모 강좌, 아버지회 조직 및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학부모 독서동아리, 학부모 난타 동아리, 학부모 목공 동아리 3개에 약 40명의 학부모님들이 월 2회 활동하고 있다. 학부모 독서동아리는 격주 수요일 오전에 학교에서 글쓰기 공부, 전시회 관람, 독서 토론을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난타 동아리는 격주 목요일 저녁 7시 음악실에서 모임을 갖고 축제 때 공연을 준비하고 있으며, 목공동아리는 격주 화요일 오전 학교 목공방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교내에 있는 목공방은 사회적기업인 똑딱이 공방이 2018년도 학교로 이전하여 학부모 수업은 물론 자유학기 및 방과후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이 목공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 해는 아버지들의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버지회를 조직하여 자녀와 함께하는 공감 스쿨 2번의 모임을 가졌고, 송도 국제마라톤 대회에도 자녀와 함께 6가족이 참여하여 함께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11월에는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강화 역사 기행도 계획하고 있다.



자녀와 함께하는 마을 장독대



장 담그기 실습



학부모네트워크 강좌



송도국제마라톤 대회

학교를 민주주의를 배우는 마을의 공간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주민참여 예산제’에도 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역 문제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이해 당사자들의 직접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올해 선학동 ‘주민참여 예산제’에 학부모와 교사는 물론 우리학교 마을교사까지 참여했다. 주민 총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결정되었지만 그 중 선학동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학교 지원 및 무료 급식 지원은 우리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 같다.

학생들도 인천시 청소년 주민참여 예산과 연수구청 청소년 주민참여 예산 협의회에 참여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등을 결정하는데 역할을 했다. 주민참여 예산 사전 투표와 본 행사를 우리학교에서 진행한 것도 우리 학교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그 동안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8월23일 청소년 주민참여 예산 사전투표



8월25일 인천시 주민참여 예산 청소년총회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축제

우리학교 축제는 3년 전부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마을 축제로 오후에 전시 및 체험마당을 진행하고 밤에 공연마당을 운동장에서 진행하고 있다. 축제가 학교만의 행사가 아니라 마을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지역 축제를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이 참여하여 사전 협의회를 갖고 준비한다.

선학제가 있음을 사전에 주변 아파트에 포스터를 붙이고 푸짐한 경품도 만들어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무대의 공연도 학생 공연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마을교사가 출연하는 코너를 만들어 마을과 하나 되는 동네 축제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학교가 마을과 소통하며 마을교육공동체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선학제



마을교사 선학제 공연



3. 마치며

본래 학교는 태생적으로 학부모의 권한위임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학교가 학부모와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학교가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교육만족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공교육의 신뢰를 쌓아가는 기본이라 생각한다.

학부모나 지역사회와의 소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자유학년제의 전면 도입으로 교육과정을 통해 마을과 연계한 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확대되었다. 한 학생을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이제 학교를 중심으로 온 마을이 함께 협력하여 교육활동을 해야 한다.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이해 교육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마을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만들고, 방과후에도 돌봄을 통해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이 함께 해야 한다.

마침 교육혁신지구가 확대되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하는 마을교육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학교가 마을교육공동체의 중심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높기 만한 학교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협력해야한다. 또한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살기 좋고 풍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제목: 마을교육공동체,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나

| | | | |
|------|---|------|---------|
| 학교명 | 인천석남중학교 | 중점과제 | 마을교육공동체 |
| 급 별 | 중학교 | 학년 | 1-3학년 |
| 세부과제 |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 하기 | 작성자 | 교사 김문숙 |
| 주요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교육공동체, 어디까지 왔나 진단하기 - 마을과 함께 하는 활동 소개(독서교육, 사물함 만들기, 영화 제작 등) - 마을교육공동체, 무엇을 함께 할까 구성하기 | | |

1. 마을교육공동체, 어디까지 왔나?

2016년 봄으로 기억된다. 본교 2층 ‘행복나눔터’라는 좁은 공간에 15여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열린 토론을 벌인 적이 있다. 참석자는 본교 교사는 물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 멀리서 이 모임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오신 타 지역 사람들. 모두들 이 모임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 관심이 뜨거웠다. 이 날의 주제가 바로 ‘마을교육공동체는 무엇이며 어떻게 함께 할까?’였다.

이 날 분위기는 매우 진지했고, 마을에서는 이미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들으며 우리 교사들은 감사했다. 그러나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서로가 처한 상황에 따라 마을교육공동체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일하는 방식, 교육대상이 매우 다를 수 인식하게 되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먼저 우리 마을교육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 공유에 시간이 걸렸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 금방 가치를 공유하고 결정하기에 쉬운 일은 아니었으나 학교는 자유학기제를 앞두고 마을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급했다. 그래서 금방 합의하기 어려운 과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후 결정하고 학교 교육과정 속에 마을과 함께 할 교육활동에 더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진행하고 싶어 했다.

반면 마을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속에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학교가 마을로 나와 함께하기를 바라고 계셨다. 프로그램으로 함께 하다가 학교 상황에 따라 활동이 휘청거린 것을 많이 경험해 보셨기 때문이었다. 뜻밖의 난관이었다.

이렇게 첫날 모임은 서로에 대한 무지로 입장 차이를 드러내기는 하였으나 자유학기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였고, 회복적 생활교육 관련과 과학 독서 토론분야에서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여전히 마을교육공동체는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혼란스럽다. 그러나 마을 분들과 이렇게 만난 지 벌써 4년이 넘었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기억하며 학교는 마을로 마을은 학교로 조금씩 거리를 좁혀 가고 있고, 하나가 되고 있다. 2019년에 마을과 함께 한 소중한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2. 마을과 함께 하는 독서 교육

가. 2019 인천청소년인문학토론마당

- 1) 일시 : 2019. 10. 19.(토) 09:30~16:00
(원래는 9월 7일이었으나 돼지열병 발생으로 연기)
- 2) 장소 : 인천석남중학교
- 3) 주제 : 미래 그리고 삶, 어떻게 선택할래?
- 4) 대상 : 인천 지역 중 · 고등학생(특히 본교와 서구 중심) 중 신청자
- 5) 참가자 : 130여명(200여명 신청했으나 연기되면서 불참자가 다수 발생함)
- 6) 주관 : 서구도서관,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 서구청, 서구문화원, 지역아동센터, 국어교사 모임 등
- 7) 선정도서 : 중학교- 페인트(이희영), 독립운동가가 된 고딩(이진미)
고등학교-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살아남기(김지연),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장 지글레)
- 8) 기타
 - 이번에는 전체 진행 및 작가와의 만남 진행을 학생들이 담당하여 재미있었음
 - 본교는 이 토론마당과 연계하여 같은 도서로 국어과에서 매년 독서토론활동을 진행함
 - 서구와 북구 국어교사를 중심으로 연합 독서동아리활동을 하며 사전 토론마당을 1회 (2019. 6. 4.) 진행하였고, 이후 12월에 1회 더 진행할 예정임



12개 모둠으로 월드카페 형식의 모둠별 토론



작가와의 만남에서 진행하는 석남중 학생



미래 그리고 꿈을 위해 모인 학생들



토론마당과 연계한 교내 독서토론마당

* 월드카페에서 나온 학생질문

「페인트」

1.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면 페인트를 할 것인가? / 내가 NC 출신이라면 어떨까?
3. 친부모가 입양을 신청한다면 받아들일 건가?
4. 가족을 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은 뭘까?
5. 가족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 지금의 친부모를 선택할까?
6. 내가 부모라면 지금 상황이 힘들다면 자식을 기관으로 보낼 건가?

「독립운동가」

1. 우리는 독립을 위해 싸웠던 분들의 뜻을 이어받아 살고 있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선조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나?)
2. 내가 만약 전생에 나쁜 삶을 살았다면?
3. 내 목숨을 담보로 역사를 바꿀 수 있다면 기꺼이 걸 것인가?

나. 북 토크! 작가와의 만남

- 1) 일시 : 2019. 7. 11.(토) 09:30~16:00
- 2) 장소 : 인천석남중학교 3층 한울채
- 3) 주제 : 시간을 파는 상점
- 4) 작가 : 김선영
- 5) 대상 : 본교 2학년
- 6) 주관 : 서구도서관, 본교 도서관, 국어과
- 7) 기타
 - 연극동아리에서는 서울 대학로 공연장을 찾아 '시파상' 연극 공연 관람함
 - '시파상'을 각색하여 'TIME'으로 동아리활동 발표회 때 연극 공연을 함

| | | | |
|---|---|--|---|
|  |  |  |  |
| 작가가 말하는 작품세계 | 시간을 파는 상점에 대한 북토크 | 작가와 함께 기념사진 | 스톱모션으로 제작한 연극반 영상 |



3. 마을과 함께 하는 나비교육과정

가. 1학년 자유학기 교육활동

- 1) 기간: 2019. 3. 4. ~ 2019. 10. 22.
- 2) 대상: 1학년
- 3) 프로그램:

| | | | |
|---|---|--|---|
|  |  |  |  |
| 지역활동가와 함께 논의하는 자유학기활동 |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생테 체험 | 은지초에서 하는 예절교실 | 지역강사와 함께 만든 팝업카드 |

나. 2학년 목공 및 영상 만들기





- 1) 기간: 2019. 3. 4. ~ 2019. 10. 22.
- 2) 대상: 2학년
- 3) 프로그램:

| | | | |
|---|---|--|---|
|  |  |  |  |
| 민중의 집과 함께 만든 큼직한 사물함 | | 프레임으로 꿈 소개하기 | 영상제작을 위한 스토리보드 제작 |

다. 3학년 세상을 향해 고하는 영화 만들기

- 1) 기간: 2019. 3. 4. ~ 2019. 12. 22.
- 2) 대상: 3학년

3) 프로그램(2018학년도 영화 자료): 학급별 영화 제작 후 주안 공간에서 상영

| | | | |
|---|---|--|---|
|  |  |  |  |
| 영화제 개막 포스터 | 석남영화제 학급별 포스터 | 미술시간에 제작한 현수막 | 영화 공간 주안으로 입장하는 아이들 |

라. 지역사회 연계 프로젝트 활동

| | | | |
|--|--|---|--|
|  |  |  |  |
| 건지골 희망 프로젝트 참가 | | 로봇랜드에서 시계 만들기 | 제2회 인문학 축제 참가 |

4. 나가며

마을과 함께 한 지 4년이 지나고 있다. 무엇이 달라지고 있을까? 마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정말 배움으로 행복하게 성장하고 있는 걸까?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들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늘 고민한다.

올해로 제7회 인천청소년 인문학토론회를 개최하며 책과 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꿈꾸어 보았고, 작년부터 시작된 인문학 축제에 우리 학교가 참여하면서 마을 속에서 함께 아이들을 온전하게 키우고자 노력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느낀다. 주변에 서구도서관이 있고 마을에서 활동하는 많은 활동가와 기관이 있기 때문이다. 올해 가좌 인문학 축제를 준비하면서 더 많은 기관을 알게 된 것은 행운이고 희망이었다.

내일은 마을교육공동체, 무엇을 함께 할 것인가를 두고 본교에서 포럼을 개최한다.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12월에는 내년도 사업에 어떻게 함께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의논을 할 것이다. 내년에는 무기력하고 수업에 잘 참여하지 못하는 많은 학생들을 위한 활동들도 제시되어 모두가 함께 배움으로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그려 본다.



제목: 학교, 마을을 누비는 교육과정 운영

| | | | |
|------|--|-------|-------------|
| 학교명 | 인천가좌여자중학교 | 중점과제 | 미래형 혁신학교 운영 |
| 급 별 | 중학교 | 학년/과목 | 1-3학년/전 과목 |
| 세부과제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 작성자 | 교사 황리다 |
| 주요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제고 - 마을 활동가와 만나다 - 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 | | |

1. 마을 교육공동체 왜 해야 하는 건가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입시 위주, 경쟁 중심, 지식암기식 학교 교육으로는 미래를 살아갈 삶의 힘을 학생들에게 길러주기에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는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 되었다. 학생들이 자기 삶의 장(場)인 마을에 대하여, 마을의 자원을 통하여 배우며 성장했을 때 마을에 돌아와 마을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민주시민이 될 것이다.

마을과 연계한 교육과정,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막상 학교 교육 활동, 수업을 마을과 연계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선생님들이 막막함을 느낄 것은 당연하다.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할 때 교사들은 학생들이 자신이 속해있는 마을에 대해 알고, 마을의 자원을 통해 배우고, 마을을 위한 프로젝트, 봉사활동 등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마을에 애착을 두고, 성장하여 다시 자신의 마을을 위하여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2. 마을연계 교육과정, 이렇게 실천했어요.


가. 마을연계 교육과정 상상해보기

- 마을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막막하기만 했던 선생님들이 직무연수를 통해 학교의 실천사례를 접하며 우리 학교에서의 마을을 연계한 교육과정을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 시기 | 형태 | 차시 | 강사 | 활동사진 |
|------|---|----|---------------|---|
| 5/9 | 행복배움학교 운영역량 강화 마을연계교육과정 사례를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이해 | 2 | 선학중 성○○ |  |
| 7/10 | 행복배움학교 운영역량 강화 마을 연계 민주시민교육운영사례 | 2 | 안산 시곡중 염○○ | |

나. 마을활동가들을 만나다!

인천 가좌여자중학교 근처 석남, 가좌동 일대의 마을 교육기관과 활동가들을 모색하였다. 서로 도움이 필요한 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마을활동가님들을 발굴하여 먼저 여섯 분을 모시고 사람책 도서관(Human Library) 형태의 토론회를 진행함으로써 그 단체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학생들에게 어떻게 만나게 할 수 있을지를 선생님과 함께 나누고, 마을과 학교가 친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 시기 | 내용 | 기관 및 내용 | |
|---|---|---|--|
| 10/15 | MOU체결 | 인천 서구노인복지관 학교에서는 어르신 봉사, 복지관에서는 전통놀이 교육 활동 제공 | |
| 10/16 (2시간) | 사람책 (Human Library) 토론회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가들을 통해 만나는 마을 | 더 좋은 경제 사회적 협동조합 | 단장 현○○ |
| | | 새벽공부방 | 대표 박○○ |
| | | 느루 | 대표 권○○ |
| | | 서구도서관 | 팀장 김○○ |
| | |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 | 교육팀장 이○○ |
| | | 민중의 집 (우리동네목공방협동조합) | 이사 조○○ |
|  | |  |  |
| MOU 체결(10월) | | 토론회 사전 협의회(9월) | 마을활동가 별 분과토론 |

다. ‘마을’을 주제로 한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자발성을 근거로 수업 중심 주제 및 학년형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구성·운영하였고,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날을 매월 넷째 주 수요일 5,6,7교시로 지정 운영하였다. 주제별 활동과 마을교육공동체를 주제로 한 수업지도안 공동연구 및 수업 공개를 통한 수업 나눔 활동으로 전문성 함양하고자 하였으며 활동주제에 맞도록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선생님들 동기를 부여하고자 노력하였다.



| 연번 | 학년 | 동아리명 | 활동주제 | 구성인원 |
|----|----|--------------------------------------|---|------|
| 1 | 1 | 유·유·자·적 | 자유학기 교과 및 활동 연구 | 11 |
| 2 | 2 | 선생님의 책꽂이 | 주제별 독서 후 토론, 교육적 가치 공유 | 7 |
| 3 | 3 | 가좌GC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 세계평화, 인권, 문화다양성 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책임 있는 시민 양성 | 9 |
| 4 | 무 | 엔돌핀(EN-DOLLPHIN) | 영어회화를 통한 수업 전문성 신장 | 6 |
| 5 | 무 | 신통한 수달 | 신체 활동을 통한 수업의 달인되기 | 6 |
| 계 | | | | 39 |

| | | | |
|---------------------------|-----------------------|-----------------------------|-----------------------------|
| | | | |
| 마을연계 목공수업 체험 (유·유·자·적) | 목공수업의 적용(마을활동가 연계) | 원적산 중심 수업운영 (1학년 국어프로젝트) | 마을 연계 수업운영 (3학년 국어 토론수업) |

3. 마을 품기

정규 수업과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 등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동아리, 진로 교과 연계 체험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은 마을의 자연, 시설, 역사에 대해 직접 배울 수 있었다.

가. 마을에 대한 교육과정 실천 - 8기관 8프로그램-교과연계(3),창체(2), 자유학기(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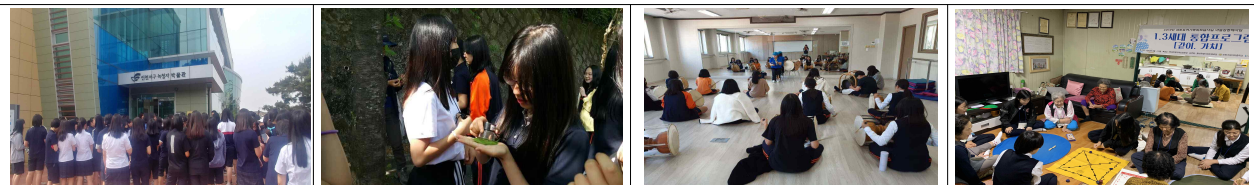
| 구분 | 활동명 | 시기 | 연계기관 | 교육과정 연계 내용 |
|----------------------|-----------|--------|----------------------|-------------------------------------|
| 교과연계 | 북토큰 | 7월~10월 | 한국서점연합회 | 국어 - 문학 작품의 이해, 다양한 삶의 방식 이해하기 |
| | 원적산생태 수업 | 5월~10월 | 원적산 숲 해설사 | 국어, 과학: 원적산의 생태, 역사에 대해 체험하고 이해하기 |
|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 꿈찌만들기 | 4월 | 굿네이버스 | 동아리 - 아동학대예방 교육, 인권의 역사적 전개 과정 이해 |
| | 아동인권권리교육 | 9월~11월 | 굿네이버스 | 1~3학년 동아리 활동을 활용한 아동인권권리교육과 정책제안 진행 |
| 자유학기 (진로) | 마을연계 진로체험 | 6월 | 녹청자도요지, 정서진, 국립생물자원관 | 1학년 마을연계 진로체험 |

나. 마을을 통한 교육과정 실천 - 20기관 14개 프로그램-창체(6), 자유학기(6), 교과연계(10), 방과후 (2)

| 구분 | 활동명 | 시기 | 연계기관 | 교육과정 연계 내용 |
|--------------|------------------|--------|----------------------|---|
| 자유학기 교과연계 | 자유학기 하이큐 프로그램 | 9월~12월 | 석남도서관 | 국어, 진로, 정보 교과 독립영화 감독과의 수업을 통해 영화제작 방법 익히기, 영화 예술 분야 직업, 진로 체험 |
| 자유학기 동아리 | 나도 프로 아나운서 | 9월~12월 | 인천 서구 청소년수련관 | 스피치 전문 강사와 협력 수업을 진행 |
| 교과연계 | 학교폭력예방 교육 | 10월 | KB국민은행, 대한법 률구조공단 | 3학년 사회과법률수업과 연계한 학교폭력관련 법률수업 진행 |
| 교과연계 | 똑딱똑딱 목공예 | 3월~11월 | 목마름공방 | 기술교과연계 다양한 작품의 목공예 작품 만들기 |
| 자유학기 예술체육 | 사물놀이 | 연중 | 서구구립풍물단 | 1학년 자유학기 예술체육 프로그램, 이행제 학부모 발표 |

다. 마을을 위한 교육과정 실천 - 5개 기관, 창체 (5) 교과연계(2)

| 구분 | 활동명 | 시기 | 연계기관 | 교육과정 연계 내용 |
|-----------------------|-----------------|--------|-----------------------|---|
|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 동아리) | 나누美人 봉사단 | 9월~12월 | 서구노인복지관 롯데우람아파트경로당 | 나와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 어른에 대한 공경과 세대 간 갈등해소 및 공감 |
| 교과연계 | 희망의 편지쓰기 | 5월 | 굿네이버스 | 국어, 사회 - 세계시민이란 무엇인가? 국제교류 협력의 필요성 탐구하기 |
| 교과연계 | 원적산 생태 수업 | 5월~10월 | 원적산 숲 해설사 | 사회: 원적산의 바로 알기 캠페인 |
| 창의적체험활동 (동아리, 봉사) | 서구청소년 어울림 마당 | 5월 | 서구청소년 수련관 | 치어리딩, 밴드, 패션 동아리 봉사활동 |



| | | | |
|-------------------|------------|-----------|------------------|
| 마을연계 진로체험(정서진) | 원적산 교과연계수업 | 사물놀이 자유학기 | 나누美人 (노인정 봉사) |
|-------------------|------------|-----------|------------------|

4. 마을로 다가가기 노력의 결과

마을과 우리 학교의 거리 이만큼 좁혔어요!

본교에서 진행하였던 행복배움학교 직무연수의 일환으로 실시했던 [마을 교육공동체 활동가들을 통해 만나는 마을] 연수 소감을 통해 선생님들과 마을활동가의 소통 기회가 얼마나 많은 거리를 좁힐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 | |
|--|---|
| <p>- 김OO: 사실 처음 이 연수의 주제를 들었을 때는, 이 연수를 왜 들어야 하는 거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는데 저희 팀의 센터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아! 정말 마을 공동체와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연계가 꼭 필요하겠구나,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이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p> <p>- 이OO: 마을 교육공동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학교 주변의 마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p> <p>- 김OO: 마을과 학교가 협력하여 지역에서 아이들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되어 좋았습니다.</p> <p>- 박OO: 마을에서 자라고 이 마을에서 터를 꾸리고 가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지금 해줄 수 있는 마을과 학교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리였습니다.</p> <p>- 정OO: 마을이 고민하고 학교가 고민하는 가운데 마을과 아이들은 함께 성장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p> <p>- 조OO: 민주시민으로 학생들이 성장하기 위해 학교와 마을이 협력해야 함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위해 마을에서 1인 1억 정해보기, 마을 이름 정하기, 시민으로 성장하기 등에 대해 마을 전문가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p> <p>- 박OO: 마을 교육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p> <p>- 이OO: 마을과의 소통에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p> <p>- 김OO: 마을 공동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이 한 인간으로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 마을과 학교가 이 아이들을 품고 책임지는 과정에서 가정, 학교, 사회 모두가 발전할 것이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p> | <p>- 박OO: 학교는 계속성이 강하고 마을은 상호 작용성이 강하다는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을과 학교가 협력해야 하는 당위성인 것 같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어떠한 것들을 실천해 갈까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p> <p>- 박OO: 각기 다른 교과 선생님들끼리 모여 하나의 주제로 고민하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p> <p>- 이OO: 이제는 마을과 학교가 능동적인 자세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구심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출발을 한 것 같아 설레었습니다.</p> <p>- 한OO: 그 기관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운영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고 마을연계에 관한 고민을 나눌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p> <p>- 이OO: 행복배움학교 직무연수를 통해 마을활동가와 네트워크 모임을 구축하여 좋았습니다. 마을(기관)과 학교의 연계사업 및 교과연계에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마을활동가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였고, 마을을 매개로 학생들과 관계 형성 및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교육과정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된 것 같아 좋았습니다.</p> <p>- 이OO: 마을 공동체 활동가분들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p> <p>- 황OO: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마을 어딘가에 방황하는 아이들을 받아 줄 수 있는 공간, 꿈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마을에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는 마을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연결해 줌으로써 같이 키워가는 거구나'를 알게 되면서 교육과정 연계를 넘어 교육공동체로서 마을과 학교의 따뜻한 모습을 상상해보는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p> |
|--|---|

〈행복배움학교직무연수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가들을 통해 만나는 마을] 연수 소감문〉

5. 마치며

마을 교육공동체를 향하여 한 발 내딛고 있는 학교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마을 교육과정 초보 학교로서 한 해 동안 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의 노력 과정에서 느끼고 깨달았던 점을 공유하고 그 해결방안을 조심스럽게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마을연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학교와 마을을 만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학교와 마을 사이에는 두 개의 벽이 존재했는데, 학교라는 벽과 마을에서의 학교와 교사에 대한 선입관이라는 벽! 이었다. 소통은 벽을 허무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본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마을활동가와의 단 한 번의 만남을 통해 얼음장같이 차갑던 무관심과 서로 간의 선입관은 녹듯이 사라짐을 경험했다. 학교 교육과정에 마을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토론회, 연수, 포럼 등의 만남과 소통을 통한 인식의 공유기회가 필요하다.

둘째, 마을은 가깝고도 멀었다. 가까운 체험처와 아이들을 위한 좋은 기관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은 잠시, 안전문제, 이동방법을 고려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시간상, 예산상의 제약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거나, 교사들은 번거로움을 학생들은 고생스러움을 겪어야 했다. 민·관·학이 모여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면, 이동 시 안전사고 문제에 대한 보험절차의 간소화와 상시적인 셔틀 제공 등의 행정적 문제로 인해 교육과정연계 노력에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다.

셋째, ‘그림의 떡!’이라는 말처럼 코앞에 있다고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최근 학교 근처 가까운 곳에 체육시설이 생겼다. 체육 시간, 스포츠 시간 등에 시설을 활용하면 매우 효율적이라 생각되어 가능성을 타진해보았으나 핑크빛 기대는 금세 잿빛 실망으로 바뀌고 말았다. 기관의 시설관리 지침, 회원 관리 지침에서부터 교육과정 시간과 이용 가능 시간이 서로 맞지 않아 결국 정규 교육과정에 활용할 수 없었던 적도 있다. 더욱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관 단체장들의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함께, 시설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다가가 MOU 체결 등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 대외활동이 요구됨을 알았다.

넷째, 초보 마을 연계 선생님에게는 마을활동가로 구성된 거대 커뮤니티에 끼어들기란 마치 굴러가는 바퀴에 뛰어 들어가는 느낌과 같이 망설여지고 두려운 일이다. 선생님들이 마을에 대해 막상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 봤을 때 이러한 거대 커뮤니티에 한 발 들여 넣기엔 이미 선행되고 있는 학교나 단체들의 진행 속도와 강도는 거세고도 빨랐다. 학교와 학교 근처의 마을활동가 지도와 자원목록이 파악되고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즉,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마을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한다면 교사들의 심리적인 부담을 덜고 마을과 함께 더욱 내실 있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선생님들에게 마을연계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시간과 공간, 만남 등 시스템적 지



원이 필요하다. 전문적 학습공동체, 마을 교육과정위원회, 마을활동가와의 교육 활동 협의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 인력지원과 더불어 마을 교육공동체 지원센터 등의 지원을 통해 교사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전념이 곧 마을 교육과정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과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를 간소화하고 전념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2019 행복배움학교 실천사례 자료집

나와 너를 넘어 함께 가는 행복배움학교 이야기

<총괄>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과 장 최 형 목
장 학 관 윤 정 열

<기획>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 학 사 박 인 섭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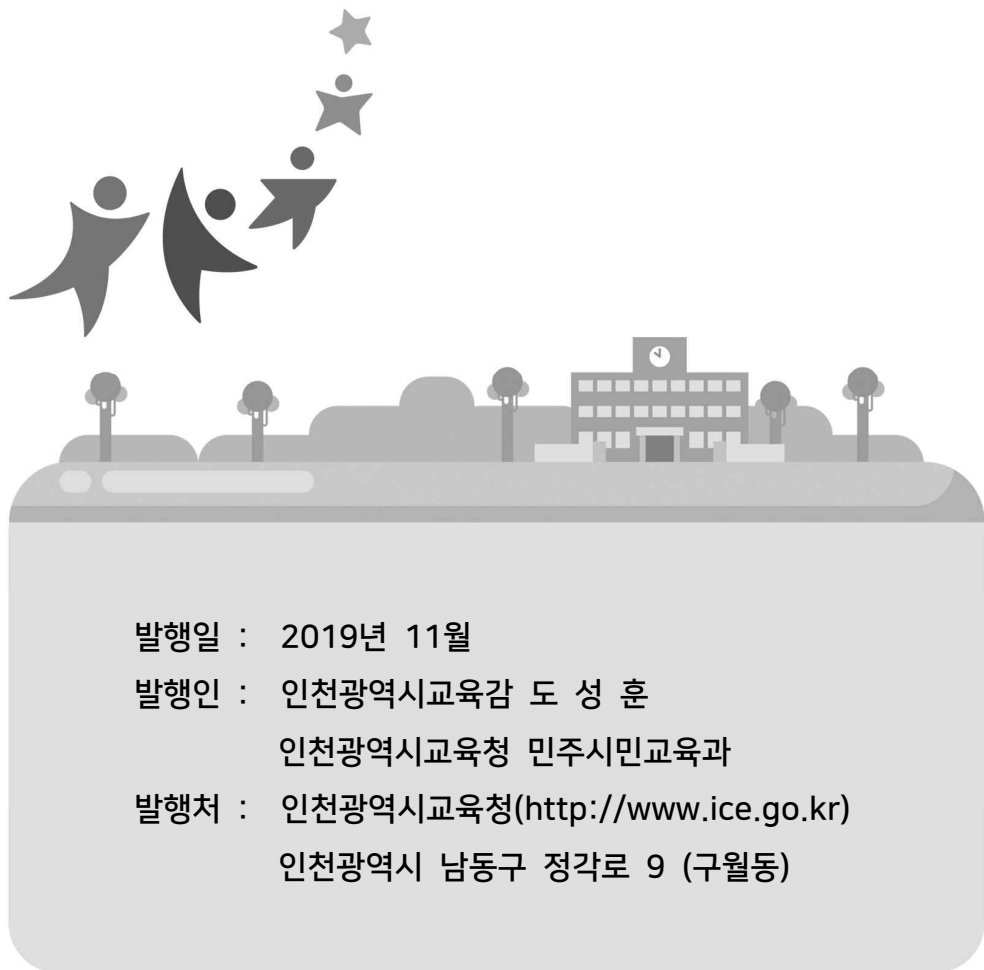
장 학 사 김 경 희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 학 사 이 현 희

<개발 및 집필>

| 학교명 | 직위 | 성명 | 학교명 | 직위 | 성명 |
|----------|-----|-----|----------|----|-----|
| 선학중학교 | 교사 | 김영석 | 부일여자중학교 | 교사 | 선경선 |
| 만성중학교 | 교사 | 우정아 | 부평동중학교 | 교사 | 김정란 |
| 인천남중학교 | 교사 | 한지예 | 명현중학교 | 교사 | 변명선 |
| 신흥여자중학교 | 교사 | 신미경 | 인천영종고등학교 | 교사 | 홍경아 |
| 만성중학교 | 교사 | 우정아 | 강화여자고등학교 | 교사 | 이연자 |
| 화도진중학교 | 교사 | 임용수 | 하이텍고등학교 | 교사 | 한인수 |
| 강남중학교 | 교사 | 손병희 | 작전여자고등학교 | 교사 | 김일용 |
| 인천영종고등학교 | 교사 | 문덕순 | 안남고등학교 | 교사 | 김혜선 |
| 세원고등학교 | 교사 | 조아라 | 동암중학교 | 교사 | 장서정 |
| 신흥중학교 | 교사 | 김은영 | 부평동중학교 | 교사 | 김은경 |
| 부일여자중학교 | 교사 | 문정덕 | 동광중학교 | 교사 | 최광규 |
| 명현중학교 | 교사 | 김성희 | 강화여자고등학교 | 교사 | 김혜연 |
| 신흥여자중학교 | 교사 | 서미영 | 인화여자고등학교 | 교사 | 김수영 |
| 관교여자중학교 | 교사 | 문지정 | 비즈니스고등학교 | 교사 | 강종현 |
| 송도중학교 | 교사 | 손용만 | 선학중학교 | 교사 | 정진경 |
| 대인고등학교 | 교사 | 신철 | 강화여자고등학교 | 교사 | 정대원 |
| 신흥중학교 | 교사 | 이상기 | 선학중학교 | 교사 | 성기신 |
| 동암중학교 | 교사 | 김대영 | 인천석남중학교 | 교사 | 김문숙 |
| 인천석남중학교 | 교사 | 김희원 | 가좌여자중학교 | 교사 | 황리다 |
| 인천광역시교육청 | 실무사 | 김미리 | | | |



발행일 : 2019년 11월

발행인 :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발행처 : 인천광역시교육청(<http://www.ice.go.kr>)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구월동)